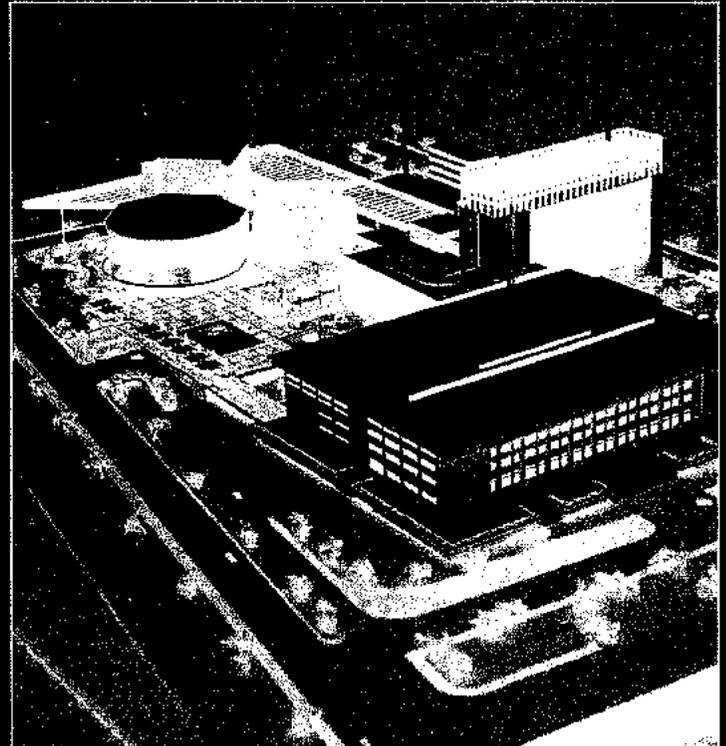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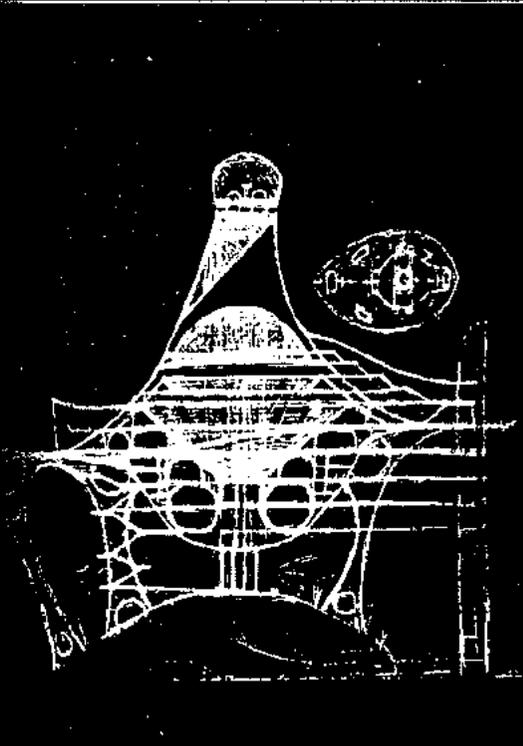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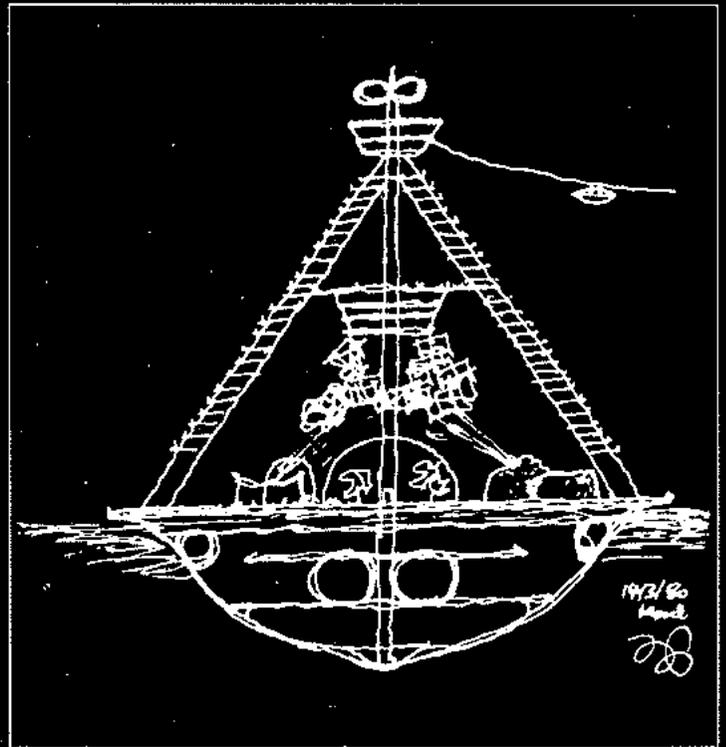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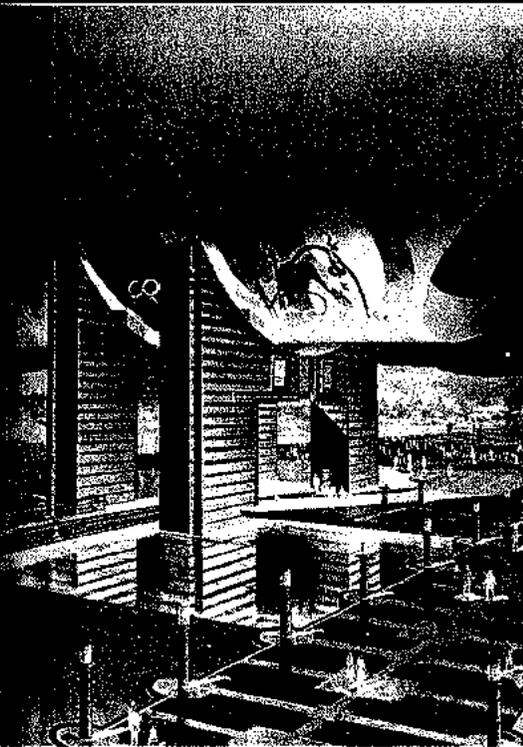


#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JUNE 1988. NO. 231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8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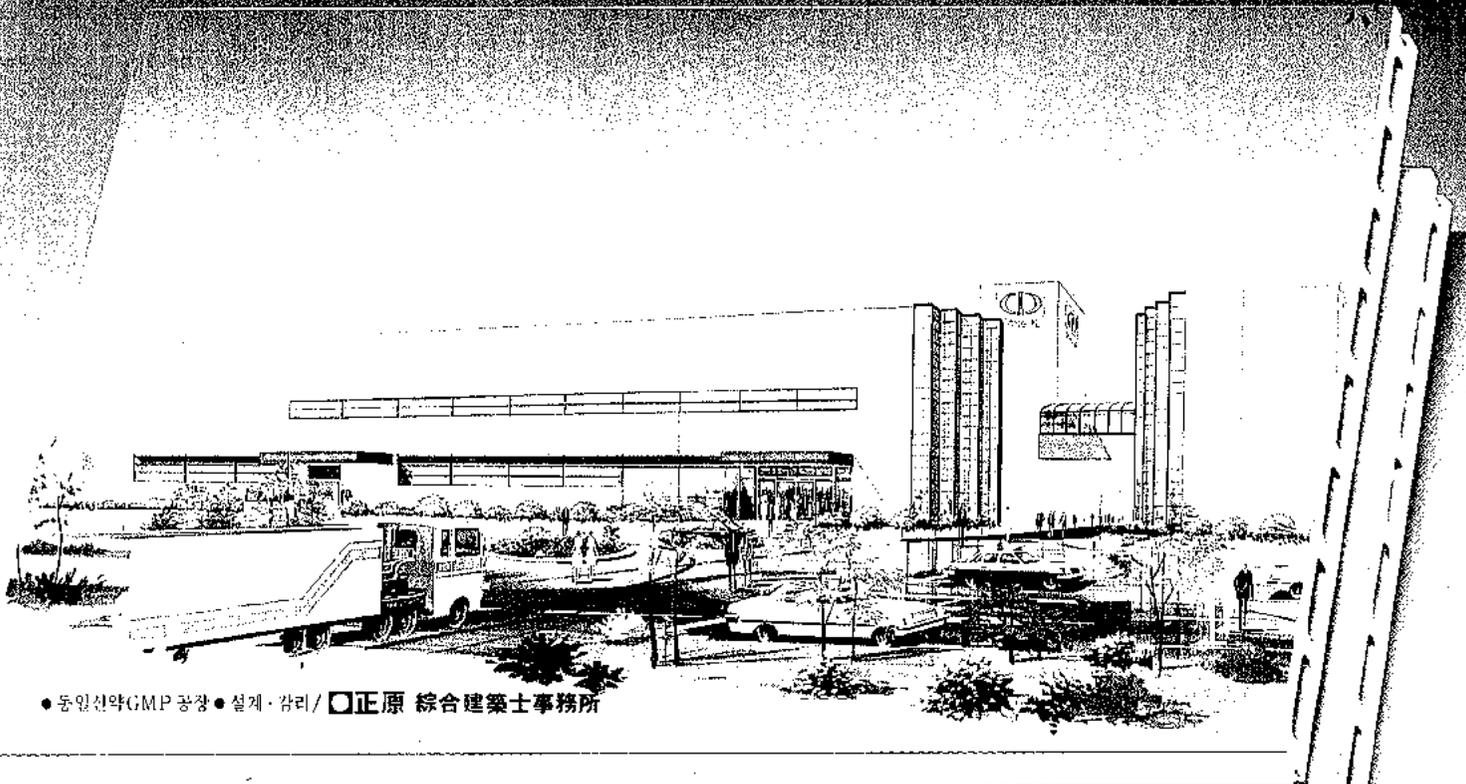


## 관을

가?  
다.  
흡음율이 가장 뛰  
흡음율이 50% 아  
입니다.  
?  
결했습니다.  
가름다운 디자인을  
깨끗하고 인락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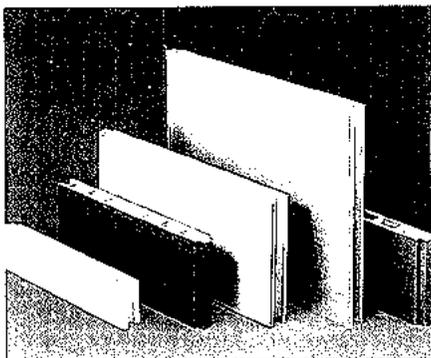
이까?  
했습니다.  
편이 주위로로 화  
매우 낮아 냉난방  
문입니까?  
했습니다.  
정권에 비해 무게가  
중을 줄여주며 완벽  
서 시공·보수·관리  
경제적인 가격  
튼을 사용해 주십시오

열천정판  
아이  
ITONEI



● 동일신약GMP 공장 ● 설계·감리 / **正原** 綜合建築士事務所

#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 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sup>2</sup>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융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분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킨막이·계단·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 **벽산 베이스**

● 제품·시공문의상담 / 273-9211~8(구내281) 베이스사업부

# 제 3 회 新人·學生 建築設計 公募展

The 3rd Debutants' & Students Design Show

本協會에서 年例行事로 開催하는 建築士設計作品巡廻展과 新入·學生 建築設計公募展을 다음과 같이 開催합니다. 특히 올해는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또한 本協會에서 아시아지역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면서 本展示會를 병행 개최하게 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13개국 建築士와 기타 세계각국의 參觀國 建築士들에게 作品이 公開됨을 감안, 作品 接受磨勘日을 嚴守해 주시고 配전의 努力을 기울여 作品을 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제 : 신인; 미술관, 학생; 도시문화센터

### ■ 資 格

- 신인 : 대학원생과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졸업후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 학생 : 각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과 재학생

### ■ 出品要領

- 출품인원 : 1작품당 3인 이내
- 출품내용 :

#### 가. 신인부문

- 1) 주제 : 미술관
- 2) 대지면적 : 자유
- 3) 건축연면적 : 3,000m<sup>2</sup> 이하
- 4) 기타사항
  - 패널규격 : 90cm × 90cm (가로×세로, 규격업수)
  - 출품내용 : 1작품당 패널 3개 이내 및 간략한 작품설명서
  - 모형출품은 접수하지 않으며 모형사진과 도면을 사진으로 현상하여 패널화하지 말것.

#### 나. 학생부문

- 1) 주제 : 도시문화센터
- 2) 대지면적 : 3,000m<sup>2</sup> ~ 5,000m<sup>2</sup>
- 3) 건축연면적 : 10,000m<sup>2</sup> ~ 12,000m<sup>2</sup>
- 4) 기타사항
  - 다음과 같은 설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최소 800명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회나 연극등의 多 문화행사를 치를 수 있는 다목적 극장.
  - 미술품, 예술품과 공예품등의 크고 작은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전시관

- 행정사무실, 창고, 안내실
- 식당, 식량창고, 기타 오락시설
- 미술품 및 공예품 특매장
- 외부 전시관 및 조경

### (요구조건)

- 설계작품은 A2 (42cm × 60cm) 사이즈 판넬 6개로 제한한다.
- 장소 설계는 1 : 500, 설계 구분은 1 : 200 비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체모형의 표현방식은 선택적이다.
- A2 사이즈 판넬 6개중 하나는 문화공간, 위치, 설계개요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원고는 300자로 제한한다.

■ 응모기간 : 1988. 6. 1 ~ 6. 30

■ 작품접수 : 1988. 9. 1 ~ 9. 15

■ 출품장소 : 대한건축사협회 본부 및 각 시·도지부사무국

### ■ 展 示

○ 전시기간 : 1988. 11 ~ 1989. 4.

○ 전시장소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인천, 춘천에서 '88 건축사 설계작품순회전과 동시에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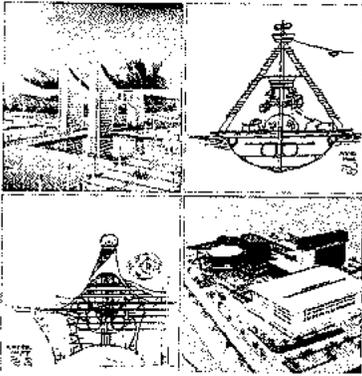
■ 施 費 内 容 : 후후발표

■ 審 査 發 表 : 1988. 10월중

■ 問 議 處 :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사업부 (전화 : 581-5711 ~ 4)

■ 後 援 : 건설부

1988. 6



표지사진 : 故 金重業先生 作品

# 建築士

## 차 례

1988년 6월호 (통권 231호)

發行人 : 安箕泰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 朴榮興

副委員長 : 尹錫祐

委員 : 金琪碩, 卞 鎔, 金晶東, 趙聖烈

編輯 : 出版事業部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071

電話 :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 (02) 586-8823

텔레 팩스 : KIRAA 33550

登錄番號 : 第라-1251(月刊)

登錄 : 1967年 3月 23日

U. D. C. : 69/72(054-2) : 0612(519)

印刷人 : 全允圭 (沈文精版社 712-2329)

Publisher: An, Kie-Tae

Editorial Information Committee

Chairman: Park, Young-Ik

Vice Chairman: Yun, Suk-Woo

Member: Kim, Ki-Seok

Byun, Yong

Kim, Chung-Dong

Cho, Sung-Yu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5-070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 D. C.: 69172(054-2) :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moon Printing Co.)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會員作品 (건축사사무소 사옥)

- 6 G. K. S 사옥 ..... 姜錫元
- 8 대우건축사옥 ..... 李相憲 · 安化印
- 10 상헌건축사옥 ..... 表相權
- 12 중원건축사옥 ..... 金洛中
- 14 가나건축사옥 ..... 禹南龍
- 16 일진종합건축사옥 ..... 金仁錫
- 18 삼에다다사옥 ..... 鄭求殷
- 20 테크노사옥 ..... 金圓錫

### 詩 論

- 22 建築分野의 民主發展 模索 ..... 李弼遠

### 追慕特輯 · 如泉 金重業先生을 追慕하며

- 26 金重業 學兄을 追悼하며 ..... 羅相紀
- 27 詩人 建築家 金重業先生을 생각하며 ..... 張錫雄
- 28 가장 韓國을 사랑한 建築家 ..... 安秉義
- 32 金重業의 꿈과 作品 ..... 金孝一
- 36 金重業과 그의 建築作品의 意味 ..... 趙仁哲
- 42 金重業의 건축형태에 대한 原型論的 해석 ..... 金기환

### 일하며 생각하며

- 24 어린이 마음과 인연의 만남 ..... 金錫澈

### 批 評

- 50 藝術의 展堂에 대한 小考 ..... 張基盛

### 研 究

- 54 韓國近代建築의 再照明(12) ..... 金晶東
- 66 韓國의 傳統建築 / 百濟의 建築 ..... 張慶浩
- 70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要素(1) ..... 金基哲
- 75 조적조 내력벽 구조계산에 관한 연구 ..... 李明春
- 78 新入會員
- 79 올림픽광장
- 80 協會消息

분류번호	建築士誌
도서번호	통권 제 231 호
1입년월일	1988. 6. 30.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지부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전국시도지부 및 분소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초구서초동 1603-55 /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 169-16 / 333-1873
-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 1422-17 / 882-6744
-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 191-13 / 903-3425
- 강북분소 / 강북구성내동 317-4 / 484-6387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 1105-5 / 604-7168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 101-7 / 923-6213
- 성동분소 / 성동구귀동 252-16 / 446-5244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 3가 81 / 634-2143
-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 1가 1 (부산대파트내) (051) 23-6284-5
-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범어동 3가 1-8 / (053) 72-5141-2
-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동구대인동 323-11 / (223) 521-7598
-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 1동 558-1 / (032) 424-0146, 5100 (한국종합빌딩 204호)
-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 3가 124-5 / 7072 (0331) 42-6490
- 인양분소 / 안양시안양동 719-9 / (0343) 2-2698, 2-0012
-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 74-6 / (032) 63-3144
- 성남분소 / 성남시신동동 5512 / (0342) 2-54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의정부동 182 / (0351) 2-1083
- 송탄분소 / 송탄시신장동 21 / (0333) 4-6153
- 고양분소 / 고양시관원동 유주교리 38-4리 16번지 / (0344) 63-8902
-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 409-2 / (0346) 63-8112
- 이천분소 / 이천군이천읍중리 216-8 / (0336) 2-3396
-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 464-7 / 682-2875
-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옥천동 39-5 / (0361) 2-2442
- 원주분소 / 원주시인산동 206 / (0371) 42-3257
- 강릉분소 / 강릉시상내동 6 / (0391) 2-2262
- 속초분소 / 속초시중앙동 468-66 / (0392) 2-5081
-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 55-43 / (0397) 2-3106
-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흥 1리 959-35 / (03732) 2659
-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 2가 1116-168 / (0431) 2-2752
-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 673-1 / (0441) 2-3082
- 제천분소 / 제천시외원동 8-8 / (0443) 2-6253
- 옥천분소 / 옥천보은읍삼산리 139-4 / (0433) 2461
-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 487-1 / (042) 22-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 160-14 / (0417) 2-45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 239-1 / (0451) 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리 710-2 / (0463) 2-2217
-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 635-5 (대덕빌딩 508) (0652) 3-3881
- 여리분소 / 이라시남중동 1가 77-22 / (0653) 52-3304
-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 1가 85 / (0654) 2-4060
-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 106 / (0671) 2-6002
-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정동 783-23 (추진회관) (062) 364-7567
-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동 1번지 / (0631) 43-3348
- 순천분소 / 순천시장전동 51-11 / (0661) 3-2457
- 여수분소 / 여수시관문동 441번지 / (0662) 64-7023
-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 17285번지 / (053) 45-4904
- 포항분소 / 포항시죽도동 96-70 / (0562) 74-9 13
-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 9-1 / (0561) 2-2680
-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 356-2 / (0546) 52-7903
- 안동분소 / 안동시상산동 125-19 / (0571) 2-3641
- 김천분소 / 김천시압산동 23-10 / (0547) 2-2263
- 영주분소 / 영주시영주 4동 470-17 / (0572) 2-4566
- 문경분소 / 문경시점촌동 261-2 / (0581) 2-2706
-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 3가 13 / (0551) 2-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 585-6 / (0522) 74-8836 74-2555
-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 7-20 / (0591) 2-6403, 42-3434-5
- 충무분소 / 충무시서호동 177-101 / (0557) 2-2504,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 25B-17L / (0594) 2-3155
- 밀양분소 / 밀양군밀양읍내일동 67-1 / (0527) 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하동 483-9 / (0598) 2-3777
-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 500-3 / (0523) 4-2669
- 거제분소 / 거제군 신현읍 교현리 139-2 / (0558) 32-1036, 2-3372
- 제주도지부 / 제주도제주시 2도 1동 1289-6 /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 425-1 / (0642) 62-3920, 3322

June 1988 Vol 231

CONTENTS

WORKS

Group-Ka Building..... Kang, Suk-Won 6

Daewoo Architects Building..... Lee, Sang-Heon & An, Hwa-In 8

S.K.PYO Architects & Engineers Building..... Pyo, Sang-Kwon 10

JACE Building..... Kim, Nak-Joong 12

Kana Architects Engineers Building..... Woo, Nam-Yong 14

IL-KUN Building..... Kim, In-Seuk 16

3A Building..... Choung, Koo-Uen 18

TECHNO Building..... Kim, Won-Suk 20

FOCUS

Finding the Way of Democratic Development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 Lee, Phil-Won 22

SPECIAL ISSUE · Thinking of the Late Yeochun Kim, Chung Up ..... Ra, Sang-Kee 25

Memory of Brother Kim, Chung-Up..... Ra, Sang-Kee 26

To the Memory of Poetic Architects Mr. Kim..... Chang, Suk-Woong 27

Architects Who Loved Korea Most..... Ahn, Byung-Eui 28

Idea and Architecture Works of Mr. Kim ..... Kim, Hyo-Il 32

The Meaning of Mr. Kim and His Works..... Joh, In-Chul 36

Interpretation in Origin of the Form of Architecture of Mr. Kim..... Kim, Kee-Whan 42

ESSAY

Meeting with Child's Mind..... Kim, Suk-Chul 24

CRITICISM

For Seoul Arts Center in Kang-Nam Cultural Theme Park..... Chang, Kee-Sung 50

REPORT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Kim, Chung-Dong 54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Chang, Kyung-Ho 66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per Theater for the Traditional Korean Dramas ..... Kim, Kee-Chul 70

NEWLY ADMITTED MEMBER

..... 78

OLYMPIC PLAZA

.....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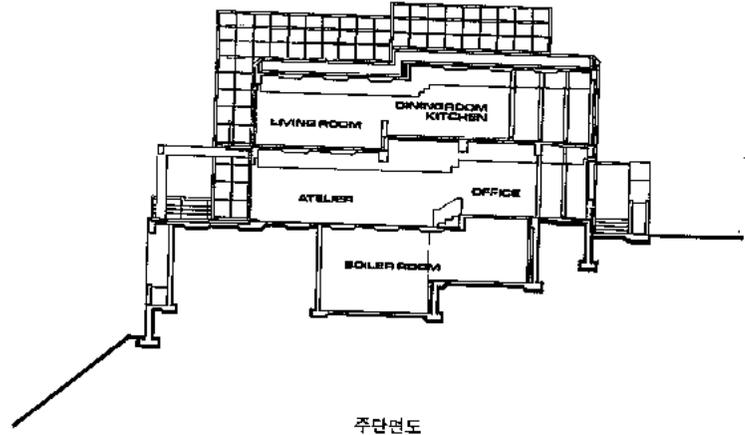
KIRA NEWS

..... 80

# G·K·S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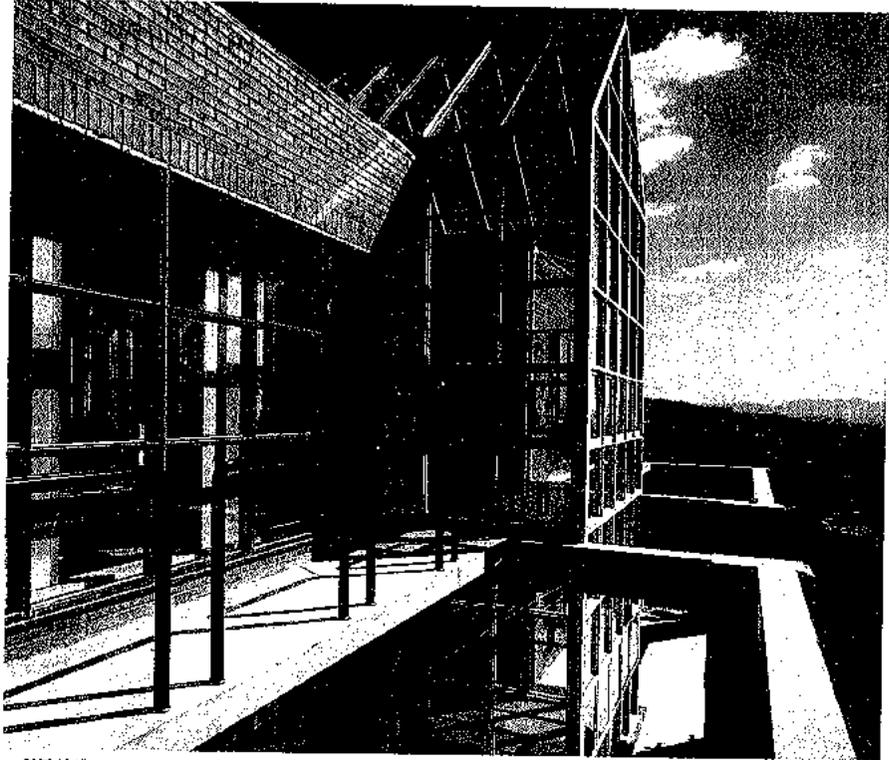
## Group-Ka Building

姜錫元 / 건축사사무소 구물가  
Designed by Kang, Suk-Won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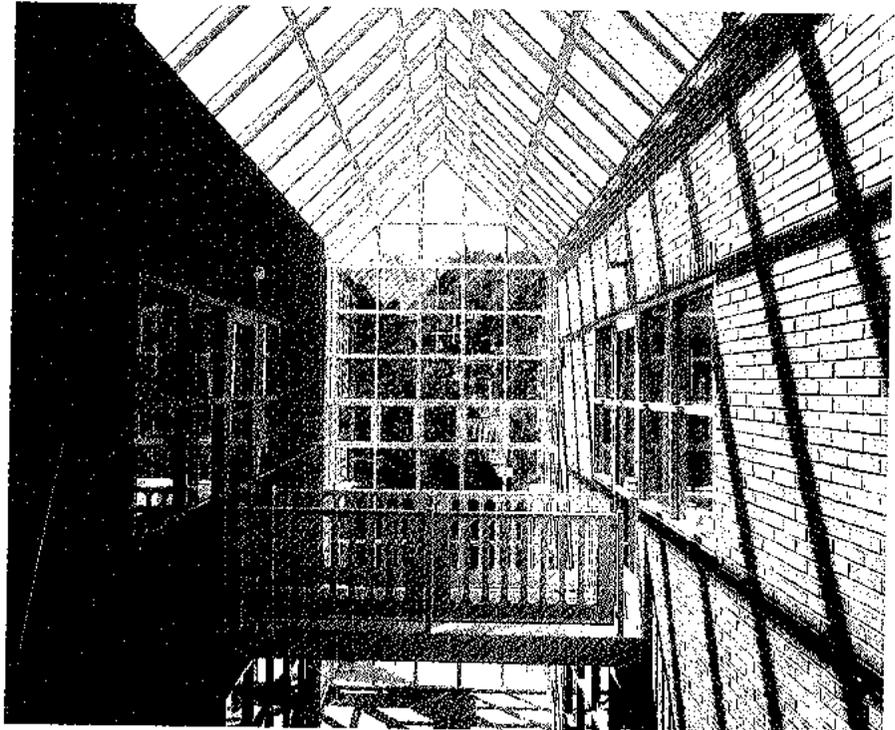
- ◆ 대지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542
- 대지면적 / 825m<sup>2</sup>
- 건축면적 / 224m<sup>2</sup>
- 연면적 / 486m<sup>2</sup>
- 층수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 조적조
- 지역지구 / 주거전용지역 풍치지구
- 주차대수 / 5대
- 건폐율 / 27.2%
- 용적율 /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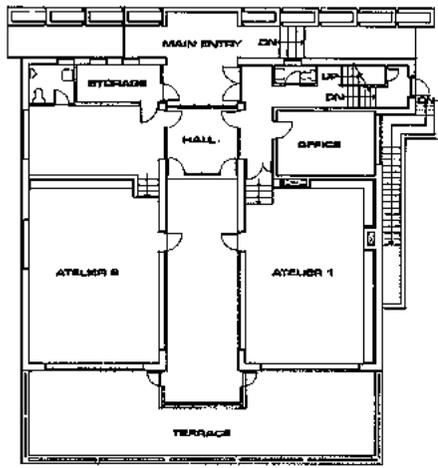
▲외부상세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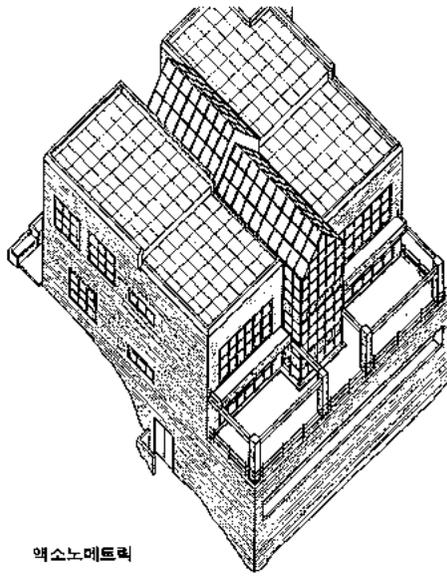
눈앞에 펼쳐있는 산과 계곡, 그 위로 지나가는 옛성곽,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급한 경사를 이룬 땅이 이 건물의 대지조건이었다. 이곳에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주거공간과 개인 아트리에를 수용, 건물 내부 어느곳에서나 산과 나무, 하늘과 태양, 모든 자연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계획의 요지였다. 평면구성은 4개의 큰 장방형 공간을 기능요구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분할, 조합하여 중앙의 Sun Room으로 연결하였다. 이 Sun Room을 중심으로 동측으로 공유공간인 거실, 식당이 서측으로 개채공간인 침실군으로 구분 배치하였다. 이 중앙의 Sun Room은 모두 유리로 되어있어 마음껏 햇살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구름, 주변의 산과 나무들이 부단없이 시야대로 물려올 수 있게하며, 외부(자연)와 내부(인간)를 연결해주는 매개공간으로 혹은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평면이 주는 느낌이 단순 명쾌하듯이 입면구성 역시 꾸밈없이 두개의 Mass로 분할하고 적벽돌로 마감하여 중앙 Sun Room의 유리와 대비시켰다. 외피 구성요소인 창호는 정방형 격자로 모놀리하여, 필요에 따라 그 크기를 정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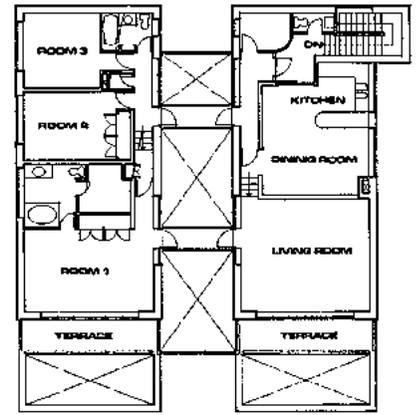
▲중앙연결복도 및 선풍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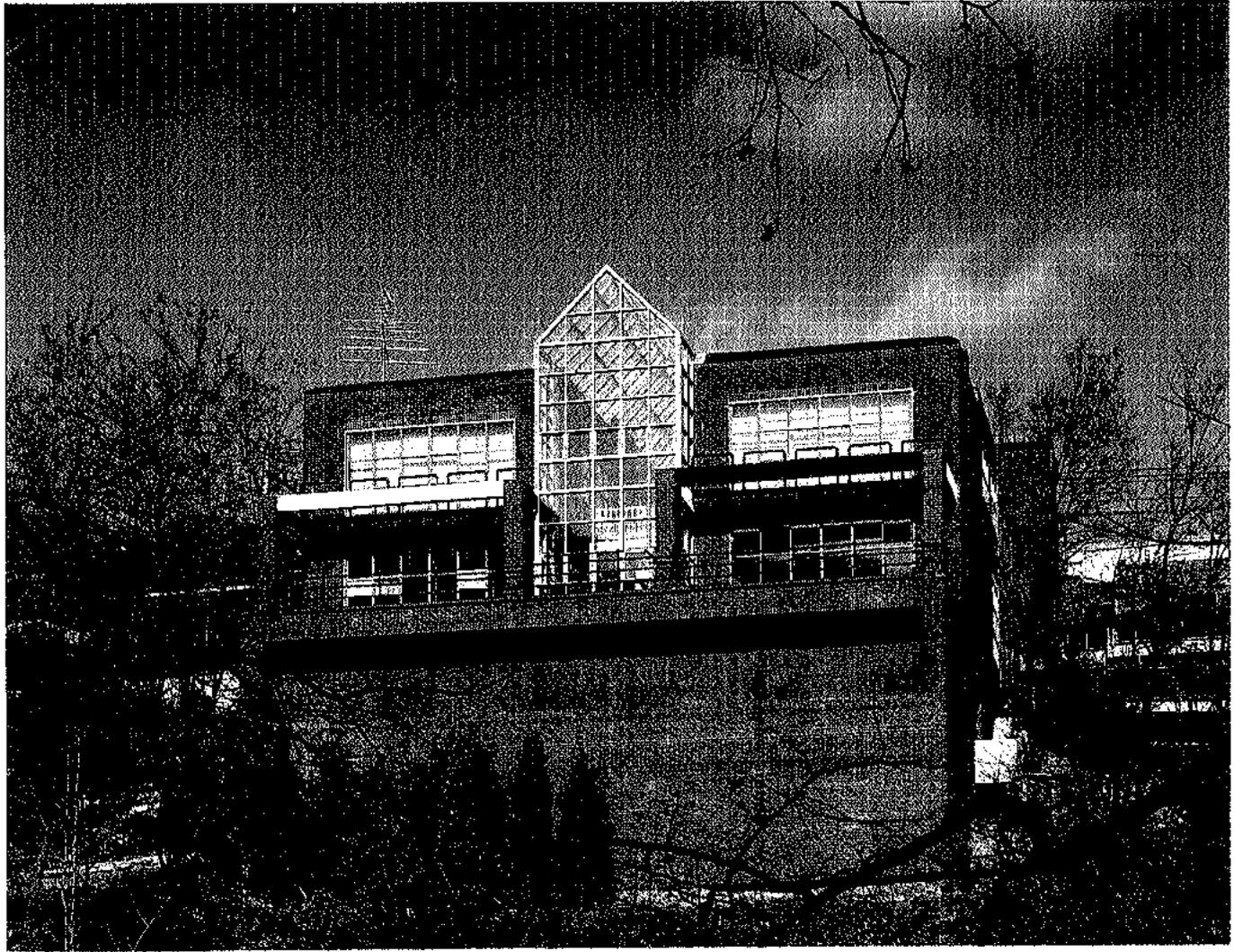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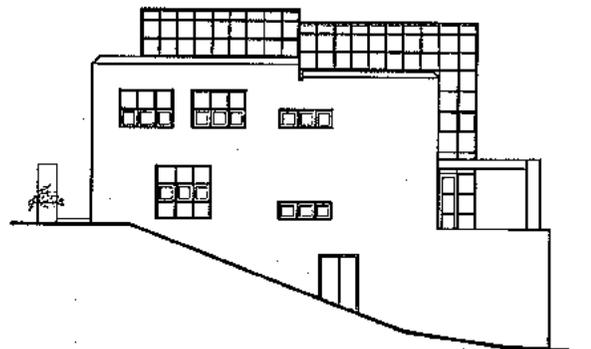
엑소노메트릭



2층평면도



▲ 전경



서측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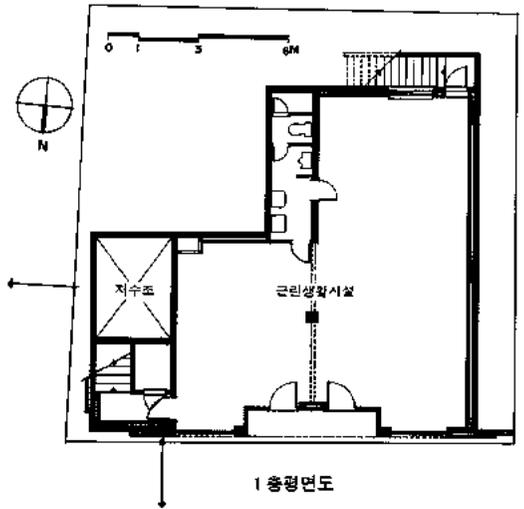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 대우건축사옥

Daewoo Architects Building

李相憲 + 安化印 / 대우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Heon & An, Hwa-In



◆ 대지위치 /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6-136  
대지면적 / 207.5㎡  
건축면적 / 102.96㎡  
연면적 / 444.7㎡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 변색벽돌치장쌓기, 평슬라브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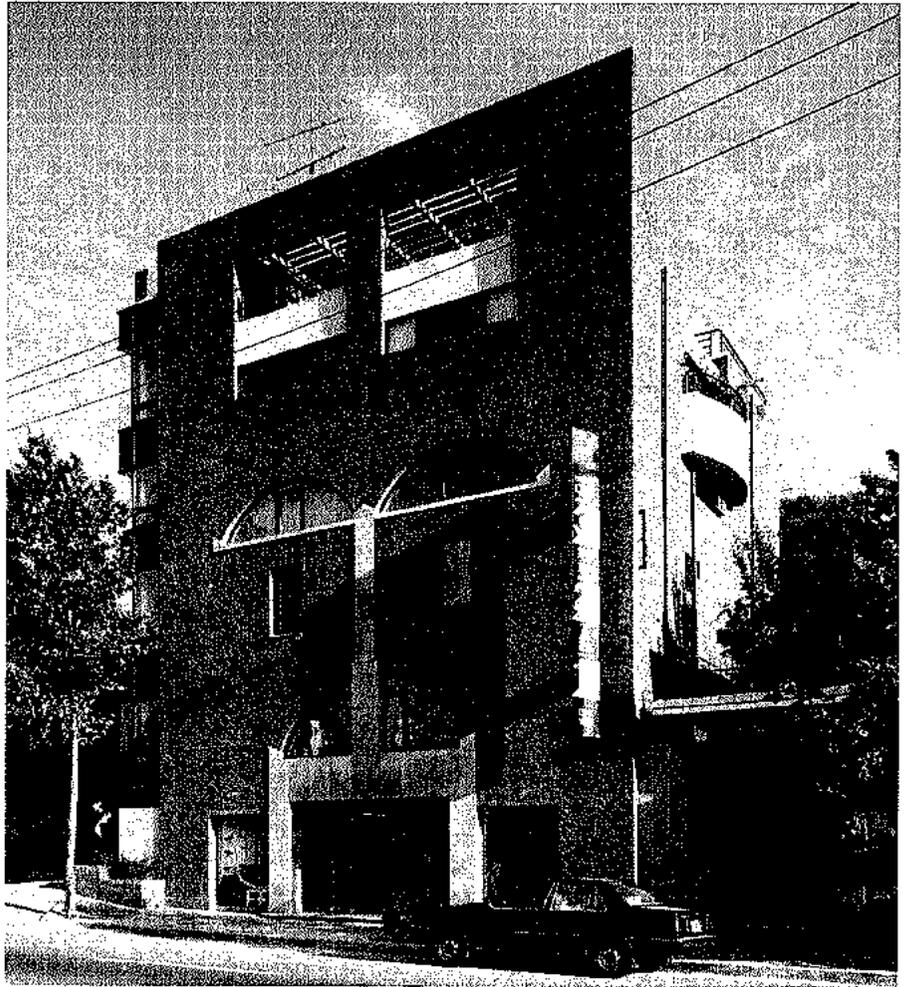
자연속에 잘 어우러진 우리 옛건축의 당시 프로세스는 어떠했을까 짐작해 본다. 지금같이 설계, 허가, 감리, 시공등 번거로운 절차는 물론 없었을 것인즉 건축주되는 선비는 시공주되는 도목수와 설계에서 시공까지 시종 머리를 맞대고 뜻대로 멋대로였을것 같다.

복잡한 건축법 대신에 풍수지리설로 상세한 설계도면 대신에 규모나 구조를 나타내는 간단한 스케치 정도였을 것이고, 시공과정의 자제나 노무관리도 도목수가 직접 진두지휘하며 해나갔을 것이다. 준공점사 따위나, 감리단의 탄속도 없었으니까 공사하다 발견되는 설계 미스나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선비와 도목수는 서슴없이 설계변경을 감행했을 것이 틀림없다. 소규모 건축에서 완전에 접근하는 길이란 복잡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그야말로 논프로세스로 믿어부치는 것이 아닐까 하고 그 당시가 은근히 부러워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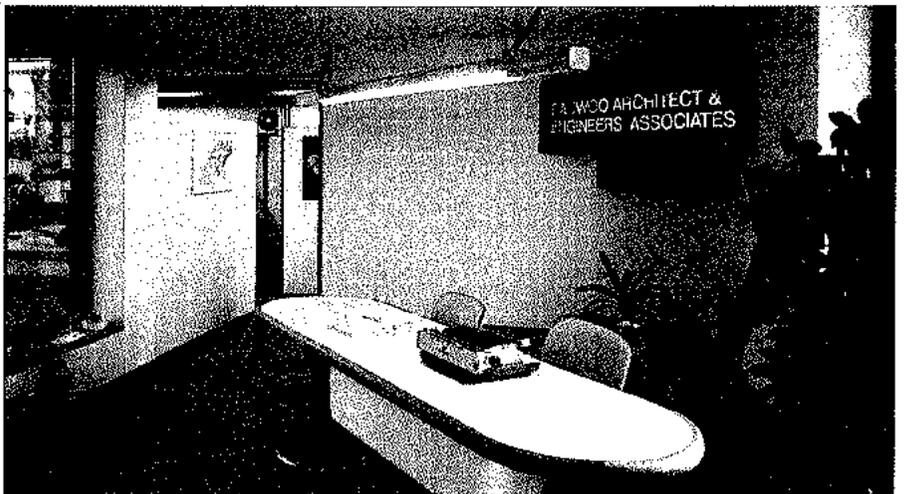
이 집은 적으나마 얼마만큼은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봐야 하기에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흥대주변에 건축가 김기석씨가 몇개의 파빅 리노베이션으로 성공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가깝지는 않지만 그 거리와 한길이라는 것이 벽돌이라는 개료를 쓰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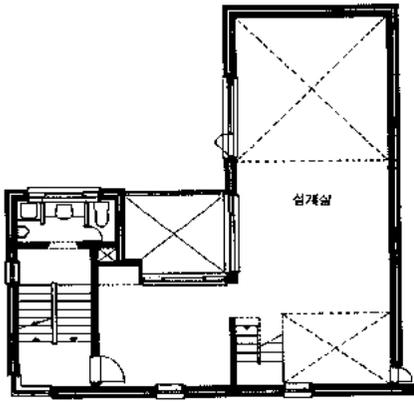
욕심을 더 부린다면 이 길가의 신축건물의 외장재료가 모두 벽돌이었으면 좋을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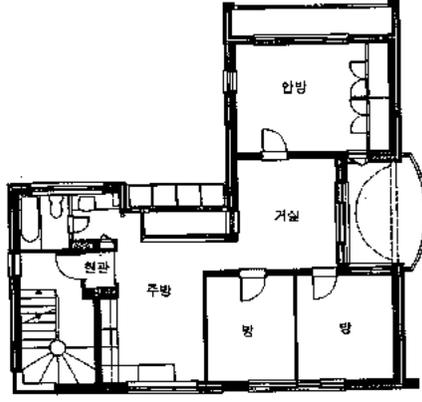
▲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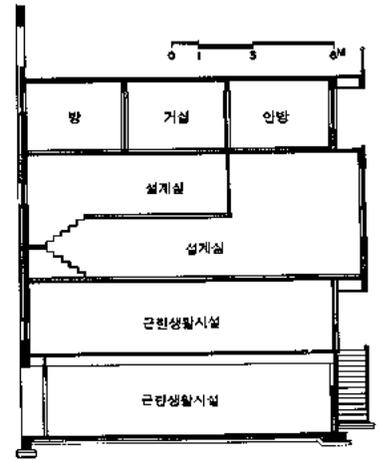
▲ 안내실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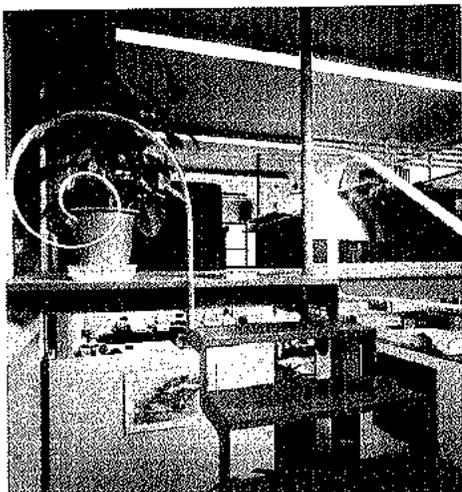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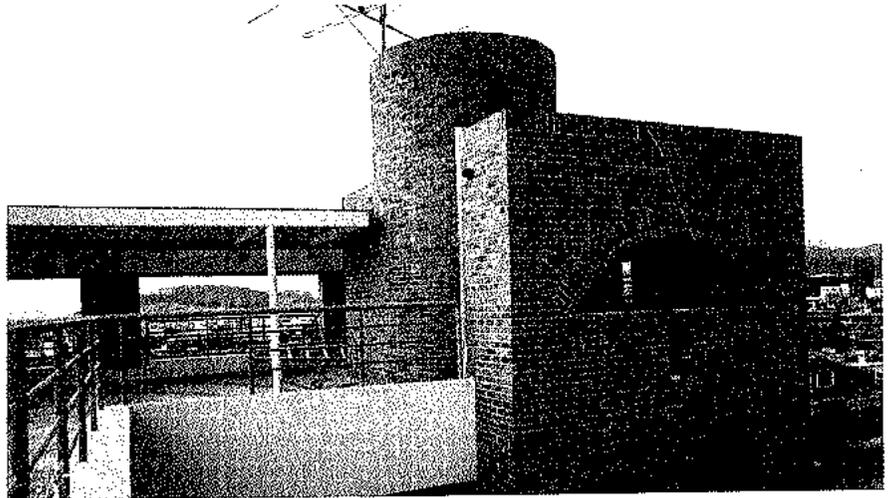
필단면도



▲ 3층 작업실



▲ 3층과 3층연결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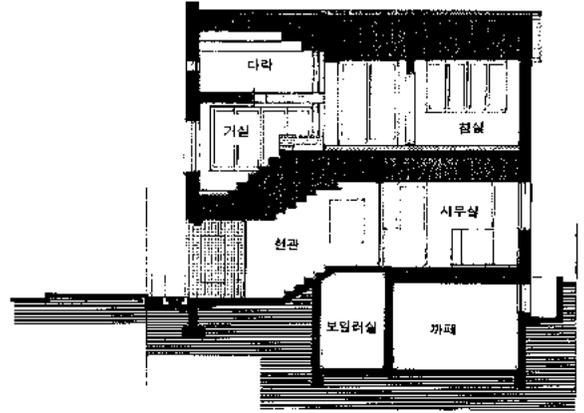


▲ 옥상에서 본 외부상세

# 상헌건축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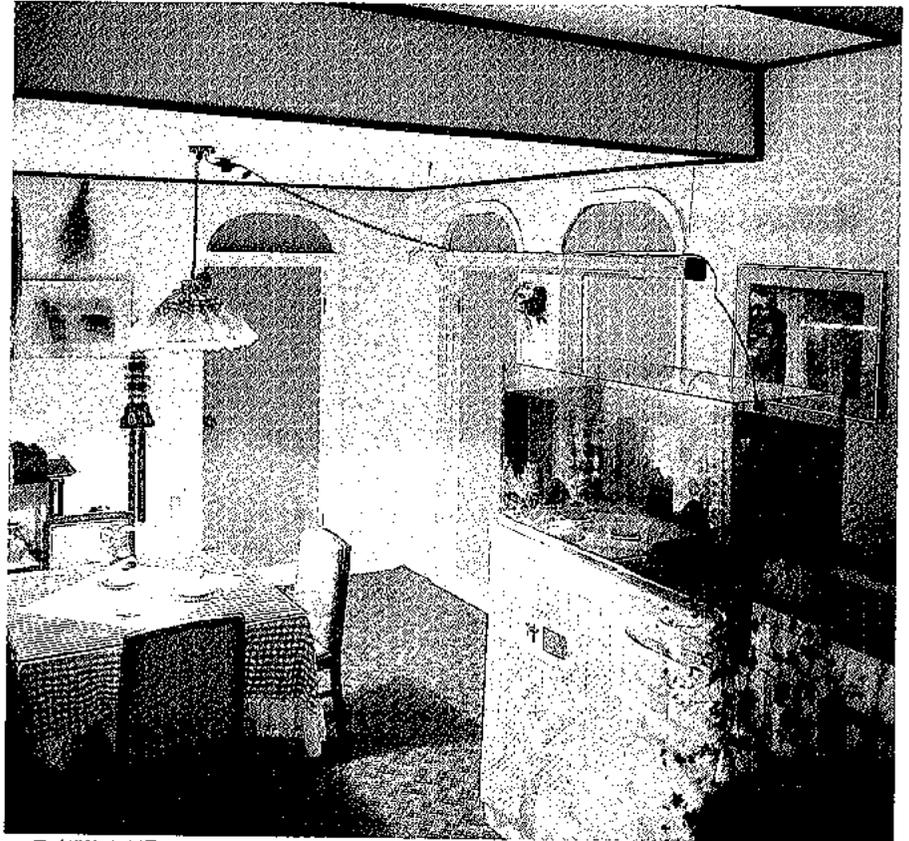
S.K.PYO Architects & Engineers Building

表相權 / 건축사사무소 상헌  
Designed by Pyo, Sang- Kwon



주단면도

- ◆ 대지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 대지면적 / 190.5 m<sup>2</sup>
- 건축면적 / 87.88 m<sup>2</sup>
- 연면적 / 198.67 m<sup>2</sup>
-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구조 / 조적조
- 외부마감 / 붉은벽돌차장쌓기(100×100×100)
- 지붕재료 / 기와 및 아스팔트형글 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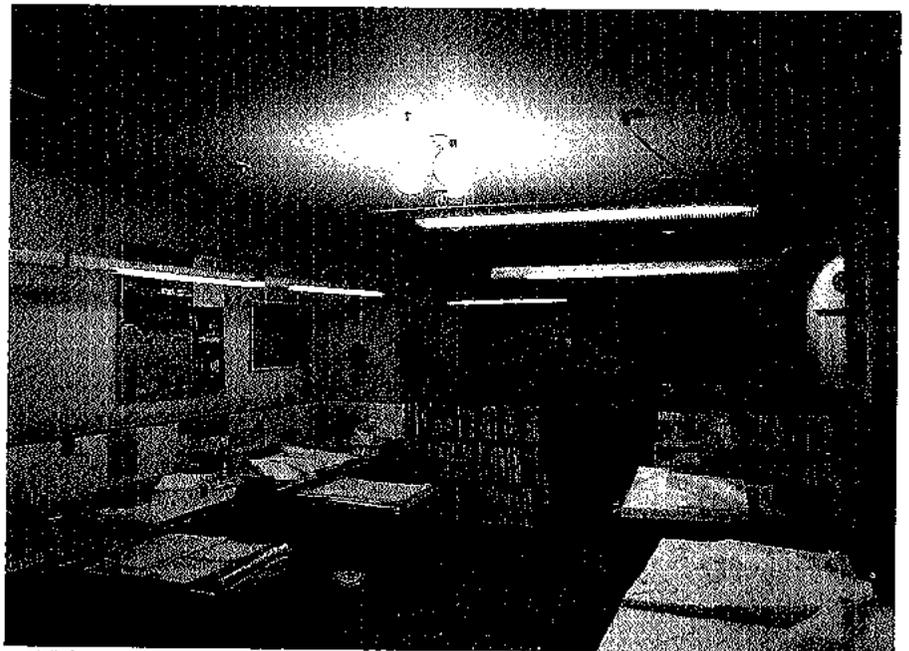


▲ 근린생활시설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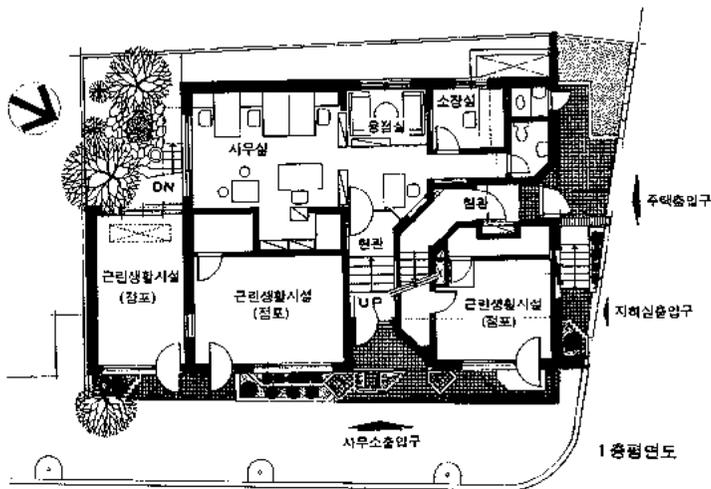
## 설계소묘

대화로 한가운데 등송동 사무소에서 현재 사옥으로 이전하게 된 이유는 항상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계획하는 건축가에게는 주택과 사무소의 공존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모든 사무소는 도심지에 위치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많은 공간과 조그만 정원이라도 갖춘 주택과 사무소가 곁해야 한다는 건축가의 최초 의도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 주택을 개조, 리노베이션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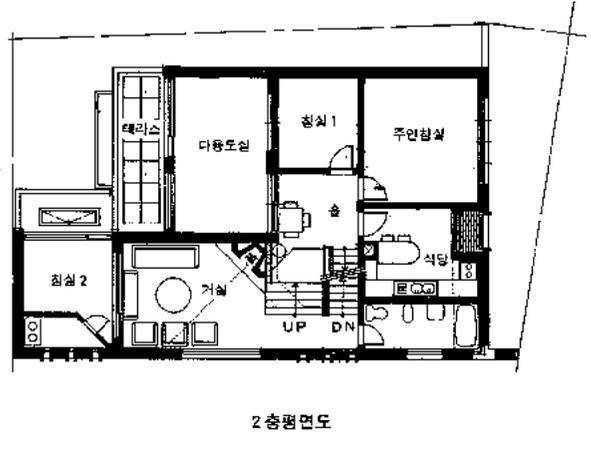
주택과 사무소가 공존한다는 이점은 있지만 상호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해 각각 출입구를 분리하고, 설계사무소라는 퍼스트 인스프레이션을 감안하여 외관에 변화를 주었고, 1층 설계사무실의 주 출입구는 사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건물 중앙에 후퇴시켜 외관의 변화와 실내로의 진입을 유도했다. 내부 공간은 설비가 집중된 화장실 등 코어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변성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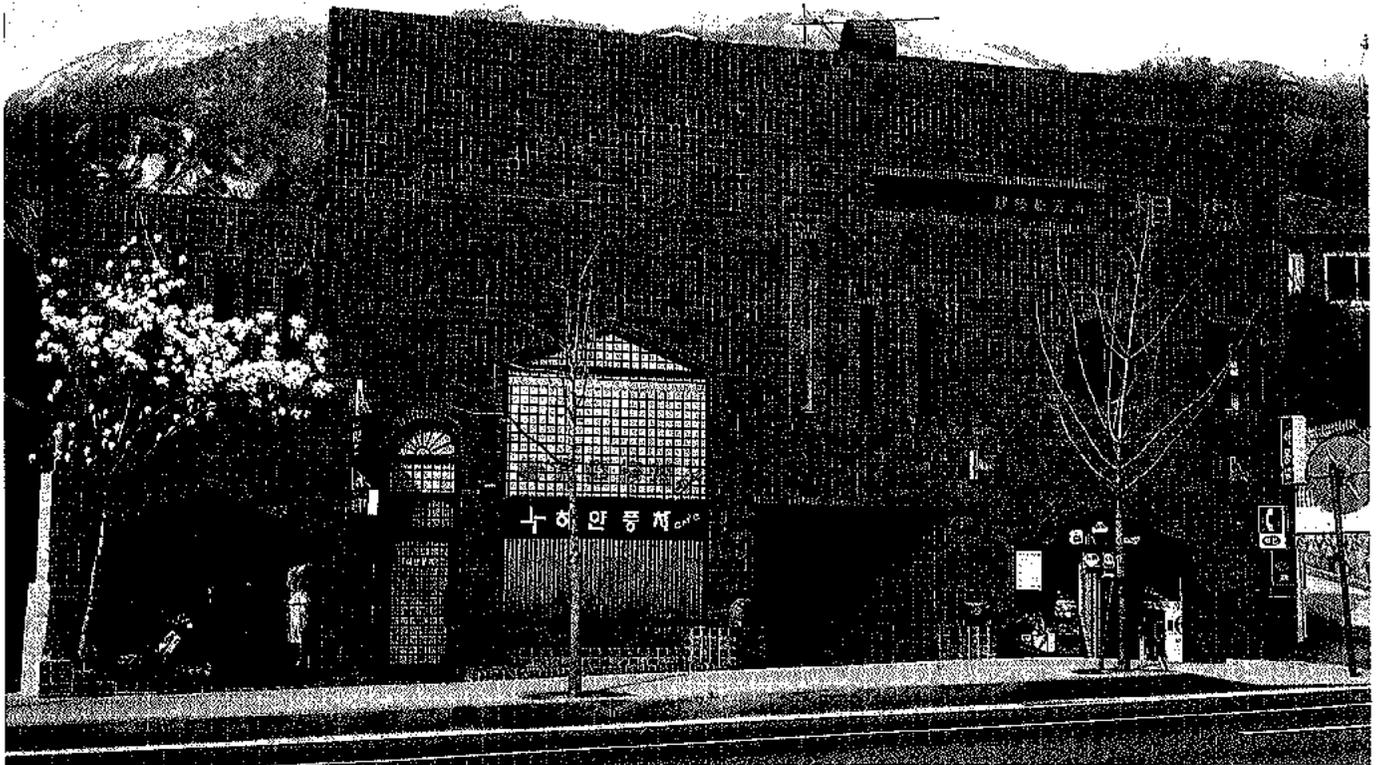
▲ 설계실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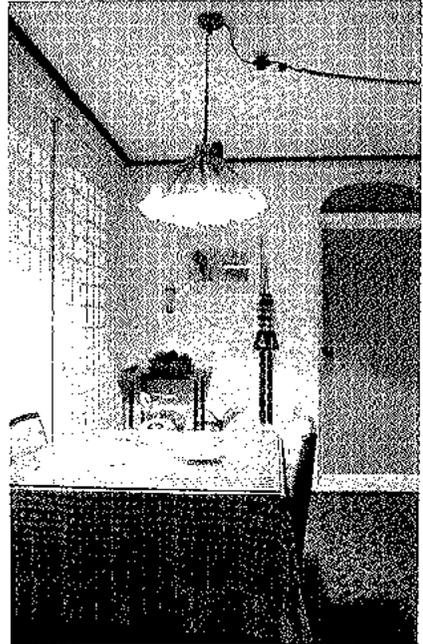
2층평면도



▲전경



▲ 근린생활시설 (거실)



▲ 근린생활시설 (주방)



▲ 근린생활시설 (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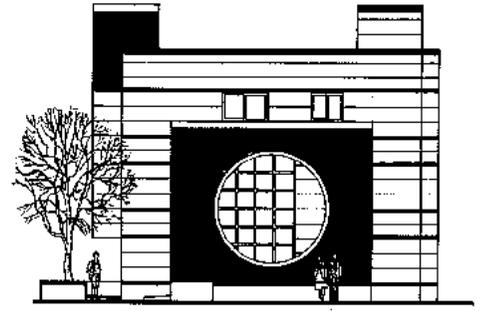
# 중원건축사옥

JACE Building

金洛中 / 종합건축사사무소 중원건축  
Designed by Kim, Nark-Jo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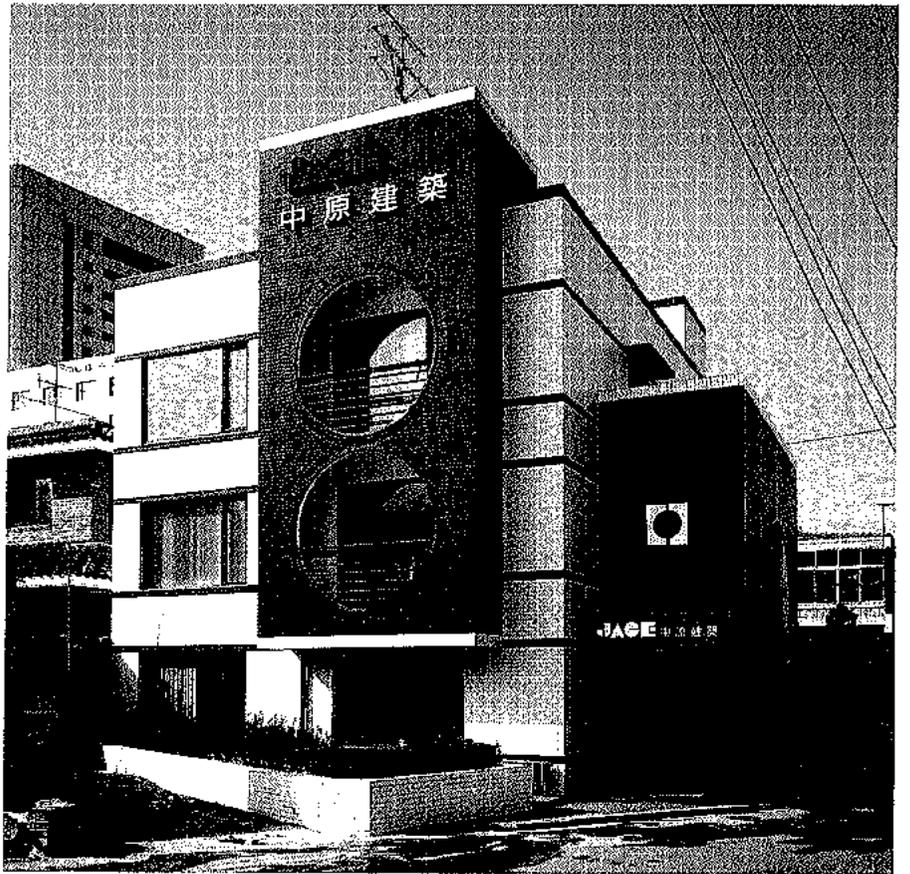


남측입면도



동측입면도

- ◆ 대지위치 /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 대지면적 / 233 m<sup>2</sup>
- 건축면적 / 115 m<sup>2</sup>
- 연면적 / 425 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부마감 / 외장타일 · 킬러스틸창호



▲ 전경

## 설계소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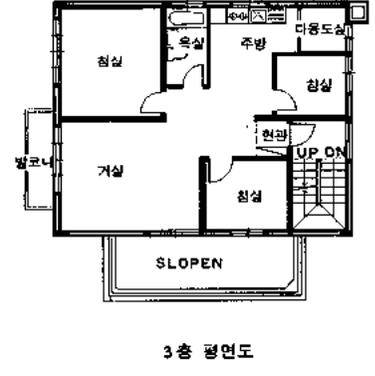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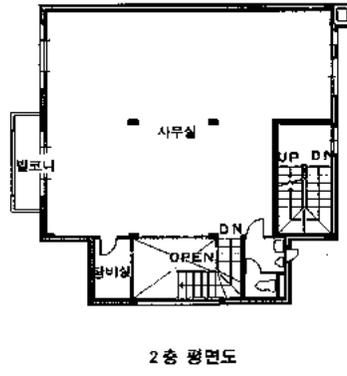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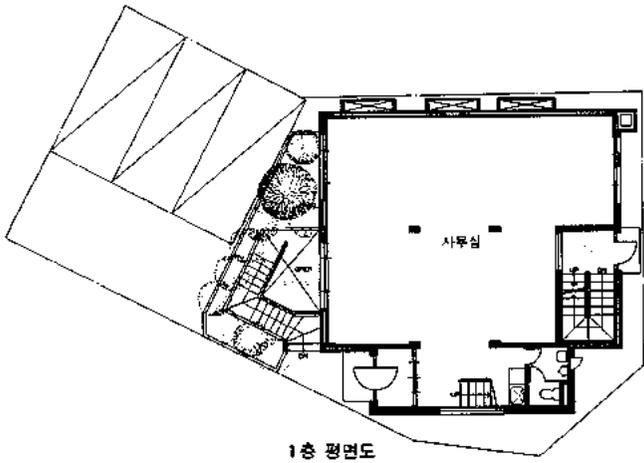
다른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특히 건축을 하는 우리에게서 나름대로의 技法이 있으며 이것을 통해 표현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건축언어라면 개개인의 풀색과 팜투가 다르듯이 각자의 특이한 언어구사가 있을 것이다. 그 건축언어를 건물외관의 표현기법에 국한시켜 본다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만 쉽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일반대중 누구에게나 쉽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원, 사각형, 삼각형 등은 후자에 속하는 건축언어라 하겠다.

본 건물의 설계이도는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없이 쉽게 일반인들에게 읽혀질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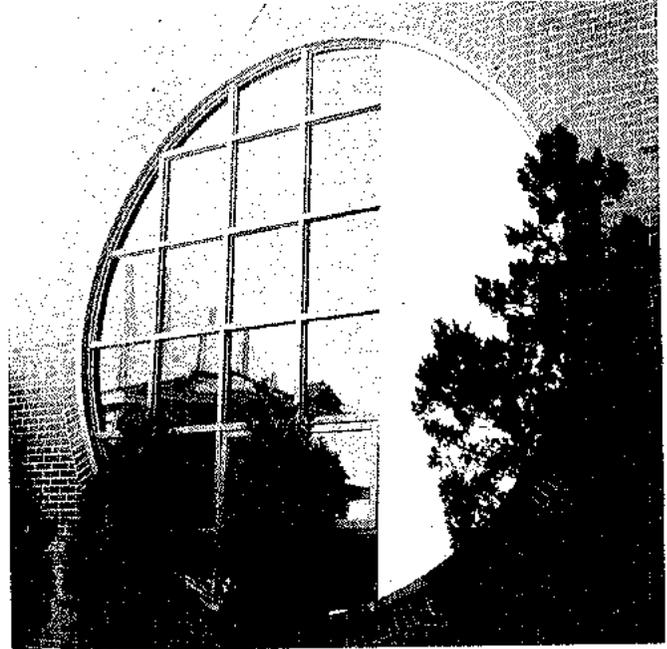
건축법규가 허용하는 한 넓은 건물규모라든가, 평범한 사각형의 건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외장타일감 등……,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과 닮음이 없는 조건으로서 설계접근이 시작되었으나, 가장 기본적 도형인 동그라미를 그대로 Design Accent로서 받아들이고, 백색과 청색타일의 대비, 적색창틀의 강조등으로 그 혼담(?)을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시만 해도 건물에 별로 사용하지 않았던 原色의 사용, 또 Harmony가 아닌 Contrast의 시도등으로 자칫 유치(?)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이 하였고 - 지남에 와서는, 꼭꼭 참아서…,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건물을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 호들갑스럽게 웃기만 할 것이 아니라…



▲ 사무실전경



▲ 내부 계단실 상세



▲ 전면외장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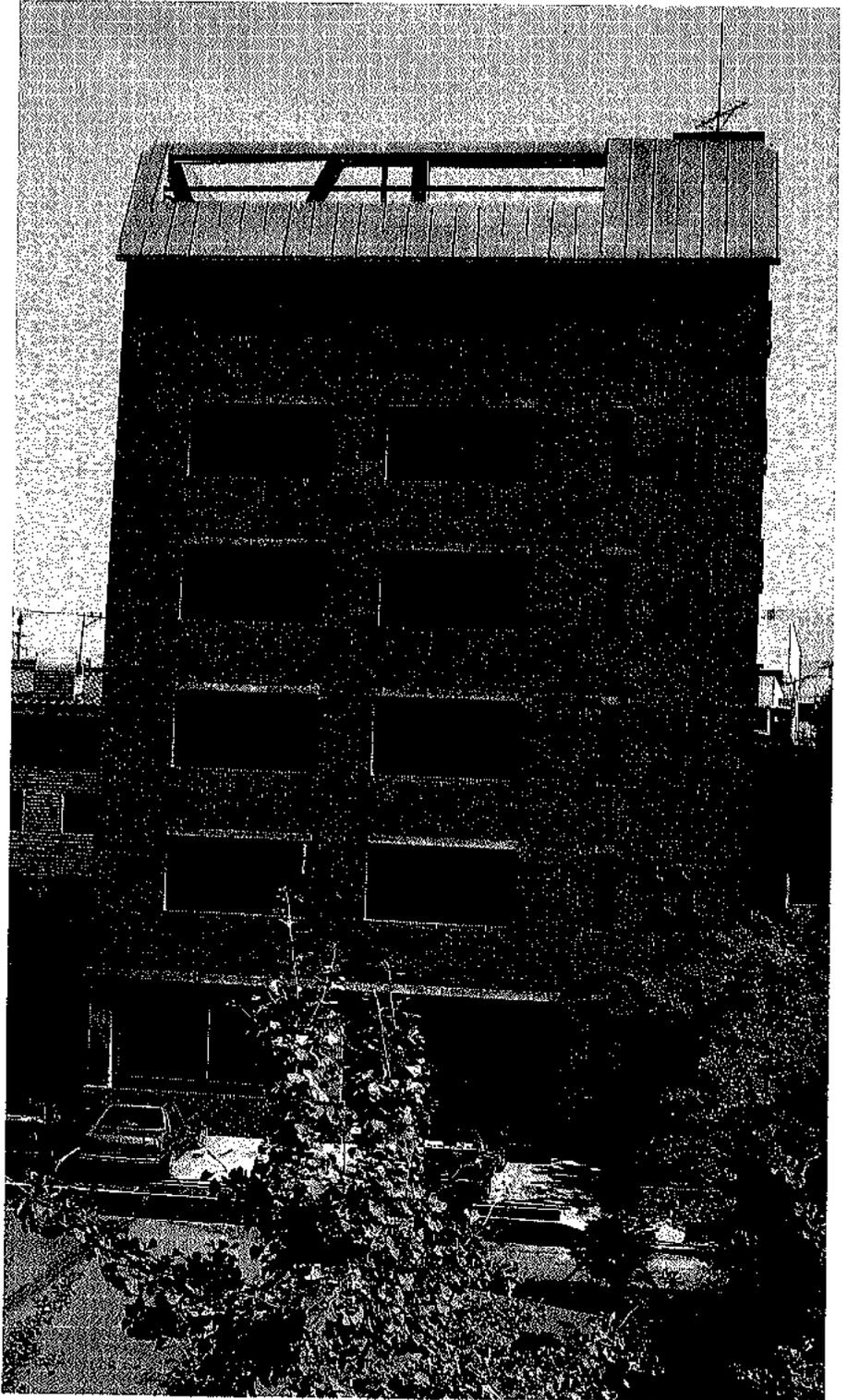
▲ 설계실

# 가나건축사옥

Kana Architects Engineers Building

禹南龍 / 종합건축사사무소 가나  
Designed by Woo, Nam- 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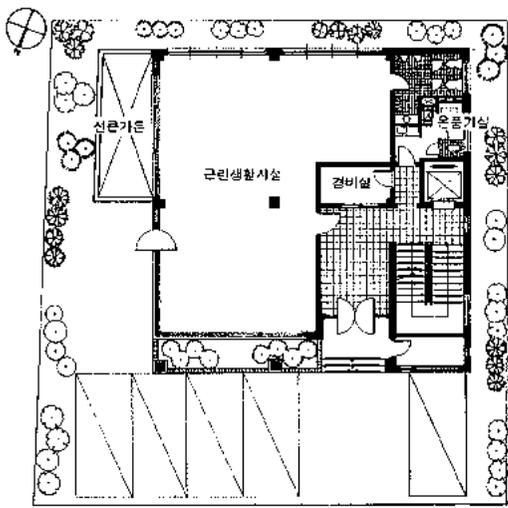
- ◆ 대지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37-5
- 대지면적 / 450m<sup>2</sup>
- 건축면적 / 200m<sup>2</sup>
- 연면적 / 1,500m<sup>2</sup>
- 지역 · 지구 / 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 마감재료 / 적벽돌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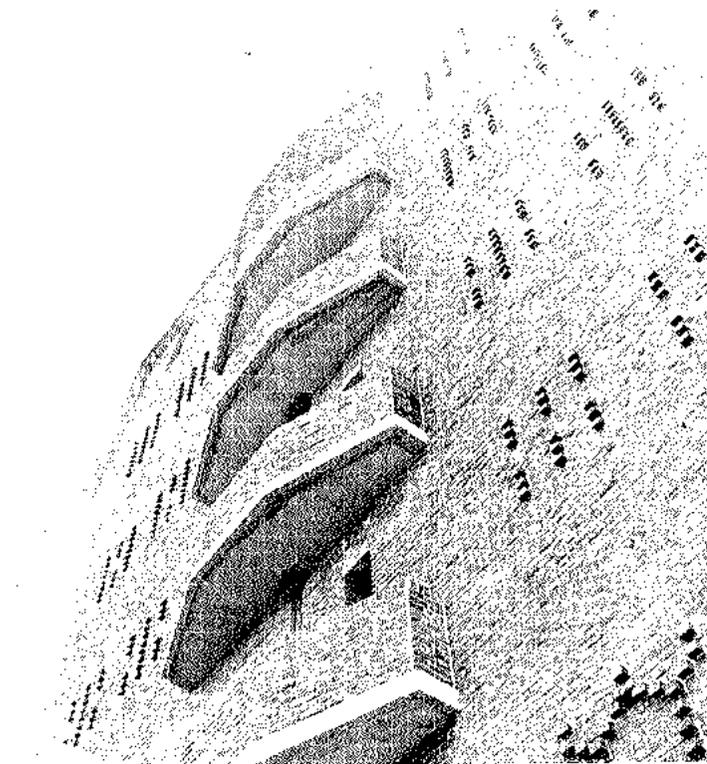
## 설계소묘

본 사옥은 도심의 동적인 공간에서, 주택가의 정적인 공간으로 접어드는 완충지에 위치하였다. 개성이 뚜렷한 도심의 건물들이 제각기 독특한 두드러짐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본 사옥은 급격한 환경변화의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주거지역의 정적인 분위기와 어울릴 수 있도록 최선의 건축 외장 재료보다는 친근감과 온화함을 느낄 수 있는 재료인 붉은 벽돌로 치장하였다. 또한 붉은 벽돌 외벽면에서 오는 지루함을 줄이기 위해 동양철학과 8괘를 응용한 “간·곤·감·이”의 디자인을 벽돌 내이쌓기로 표현하였다. 지붕은 인근 주택과의 높이차를 억제하면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개방원듯 하면서 아늑하기한 조형물로서의 효과를 표현하여 보았다. “누드러짐”보다는 “조화”를 택한 본인의 의도가 세월이 흐를수록 친근한 이미지와 온근한 미를 느낄 수 있는 건축조형물로서 표현되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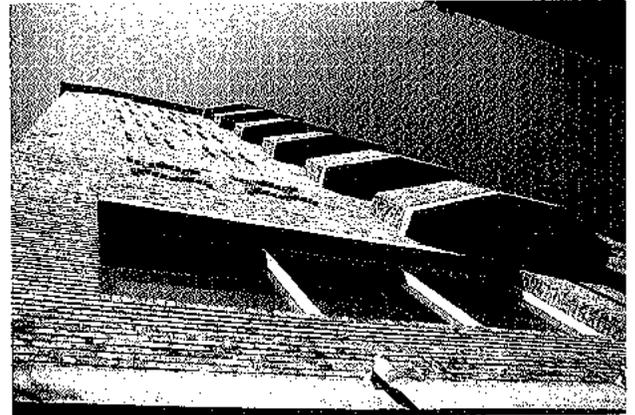
▲북측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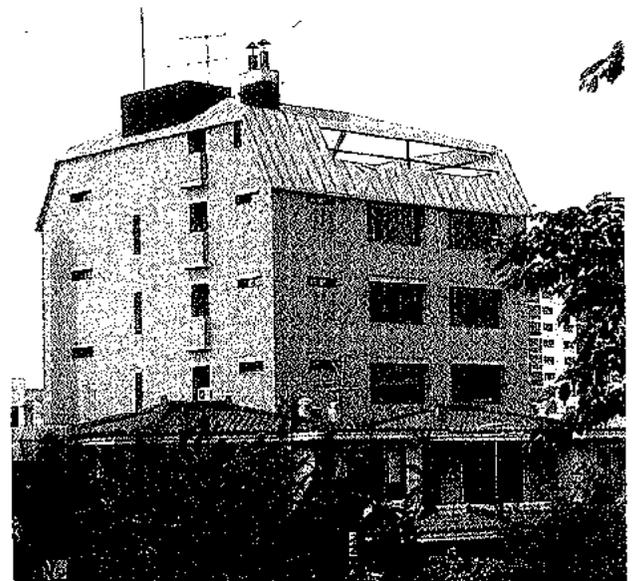
기준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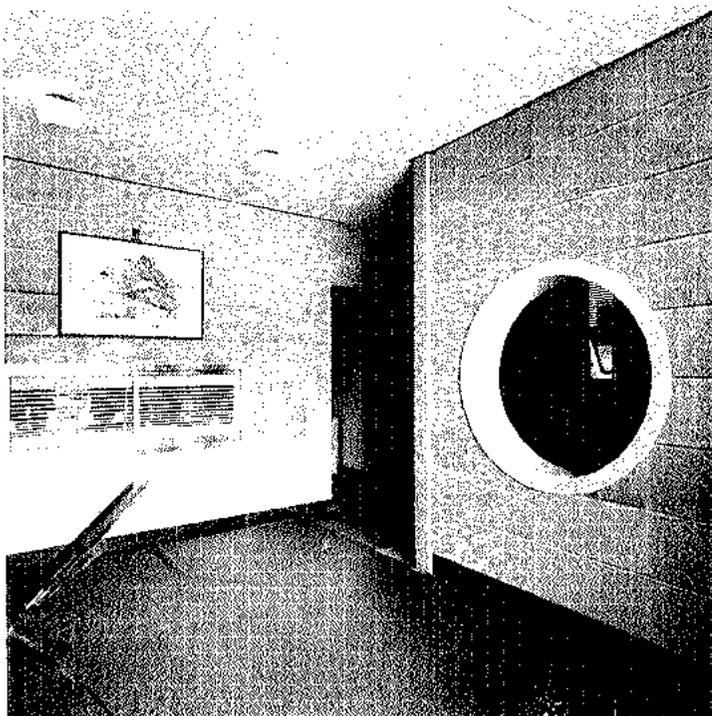
▲외부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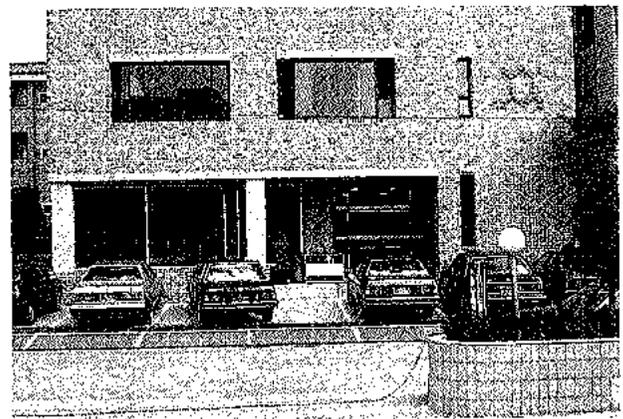
▲외부상세



▲남서측에서 본 전경



▲1층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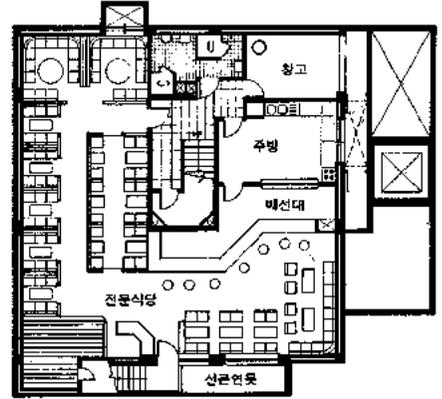


▲1층 주출입구 상세

# 일건종합건축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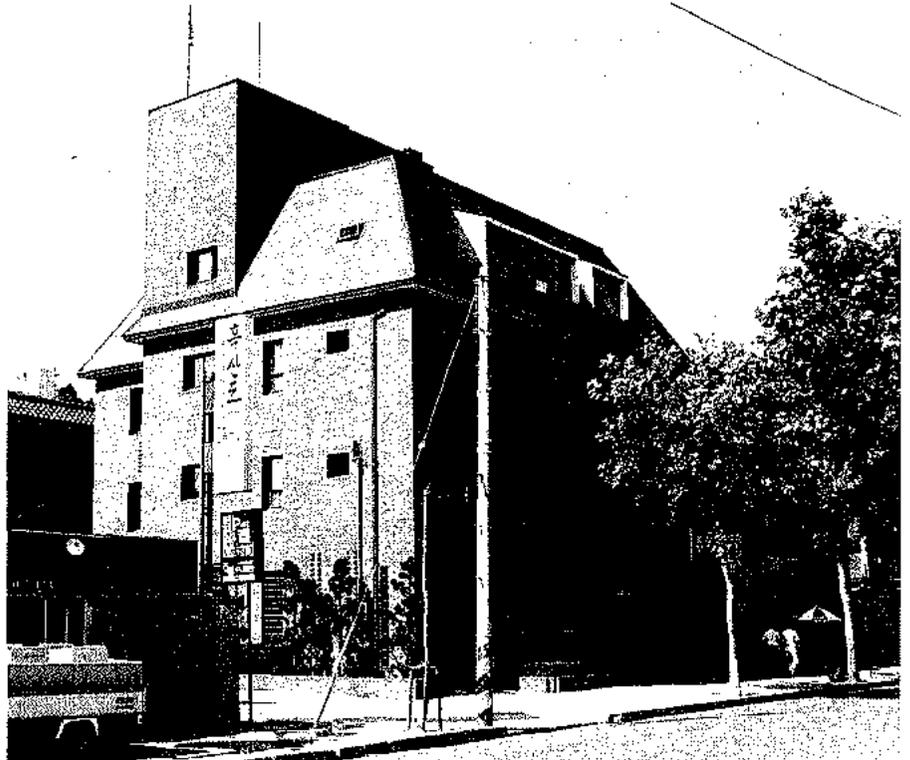
IL-KUN Building

金仁錫 / 일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In-Seuk



지하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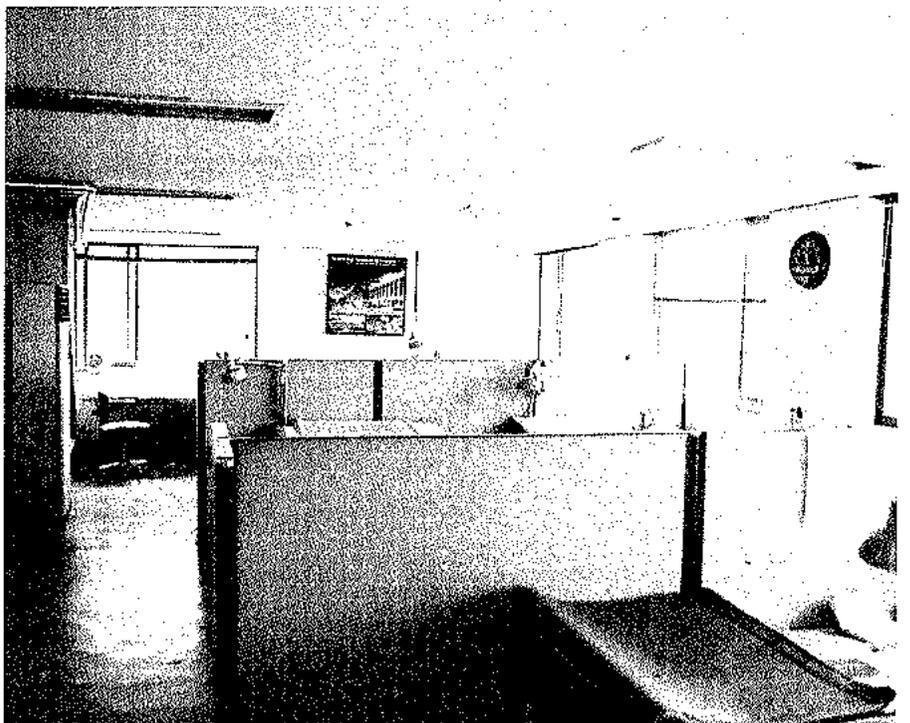
◆  
대지위치 /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대지면적 / 396m<sup>2</sup>  
건축면적 / 192.20m<sup>2</sup>  
연면적 / 922.60m<sup>2</sup>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부미감 / 붉은벽돌 치장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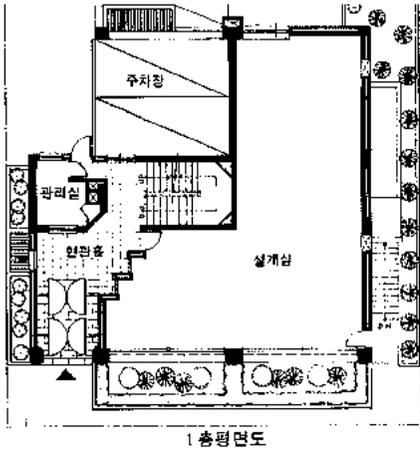
▲ 전면도로에서 본 전경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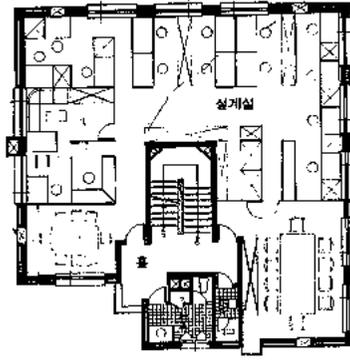
본 건물의 부지는 남측으로 12m도로 서측으로 4m의 도로를 갖는 정방형에 가까운 대지조건으로 주거지역에 속한다. 가능한 유효면적을 많이 얻기위해 건물의 Core를 내부 Partition을 경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1층에서 4층까지 일건의 종합설계팀이 쓰고 있으며 지하층은 전문식당이다. 건물의 외부 주자재는 3층까지 붉은 벽돌치장 쌓기이며 4, 5층 부분은 일조선 사선제한에 의한 경사 지붕으로 하여 스텔트 기와 잇기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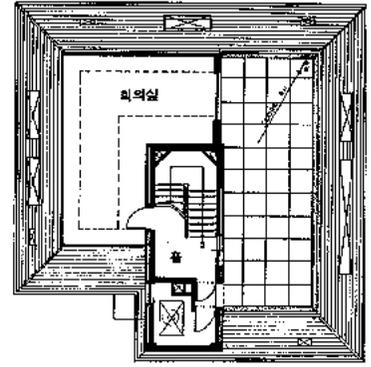
▲ 설계실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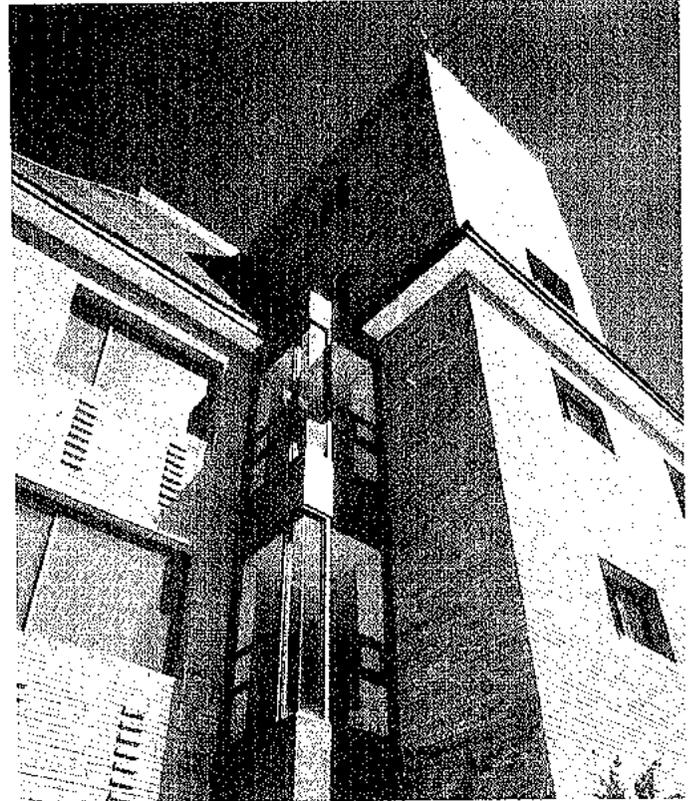
2,3층평면도



5층평면도



▲ 백면 전경



▲ 외부상세



▲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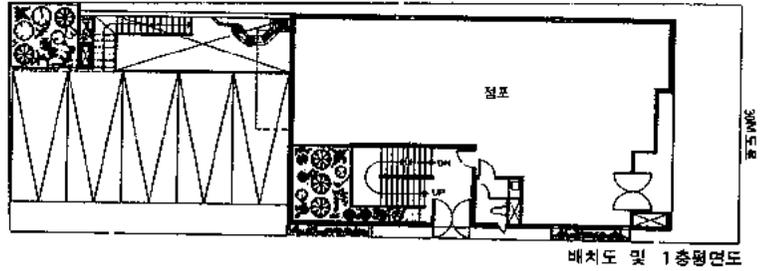


▲ 내부상세

# 삼에다다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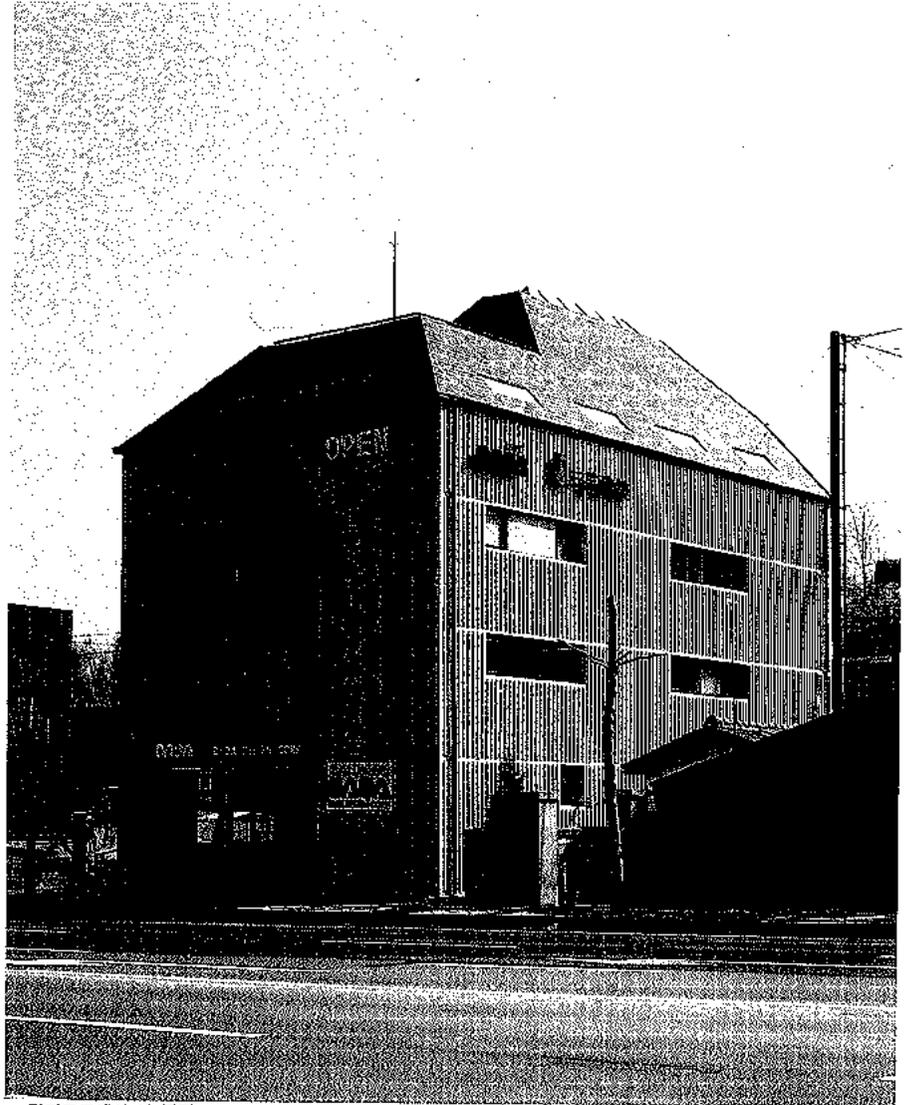
3 A Building

鄭求殷 / 삼에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ung, Koo-Uen



평면도 및 1층 평면도

- ◆ 대지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57-1
- 대지면적 / 345.42m<sup>2</sup>
- 건축면적 / 167.19m<sup>2</sup>
- 연면적 / 830.57m<sup>2</sup>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외벽 / 스틸폼콘크리트외벽시멘트실리콘스프레이
- 지붕 / 천연스레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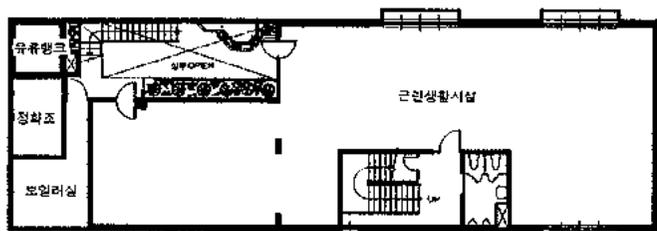


▲ 전면도로에서 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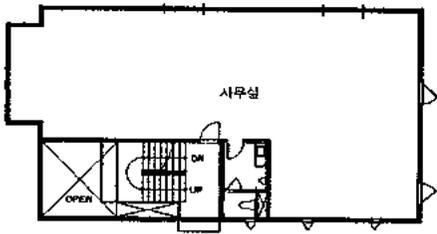
## 설계소모

建築家가 자신의 사무실건물을 자신의 손으로 설계하여 갖는다는 것만큼 기쁜일이 있을까? 그러나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는 식으로 그림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것 같다. 생각은 많고, 판단은 어렵고, 예산은 뼈뺏하고....., 여기까지 대안에 빠져 고민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해온 많은 설계작업의 결정을 어찌하면 그렇게 쉽사리 결정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기조차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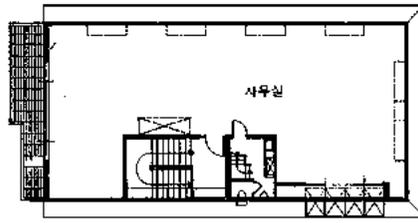
파연 나는 건물 하나 하나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을까? 나의 일처럼 남의 일에도 구석 구석까지 검토하고 연구하여 왔는가? 새삼 지나온 과정이 부끄럽기만 하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건물도 그와같은 노력과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설계라는 작업이 경험과 경험이 중요한 것인가 보다. 오늘도 우리는 남의 자본으로 값비싼 경험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지위를 한단계 높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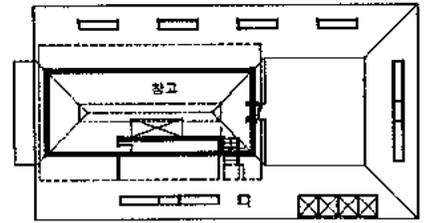
지하층평면도



2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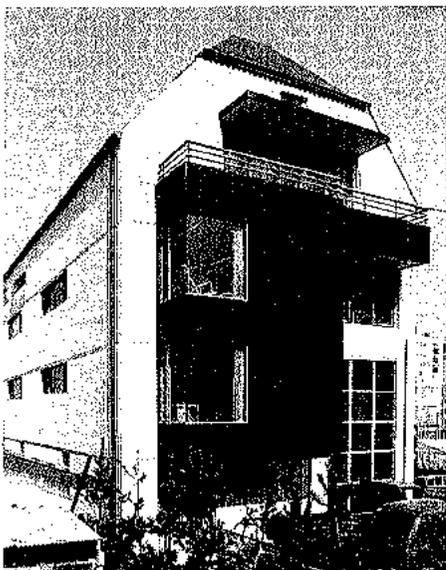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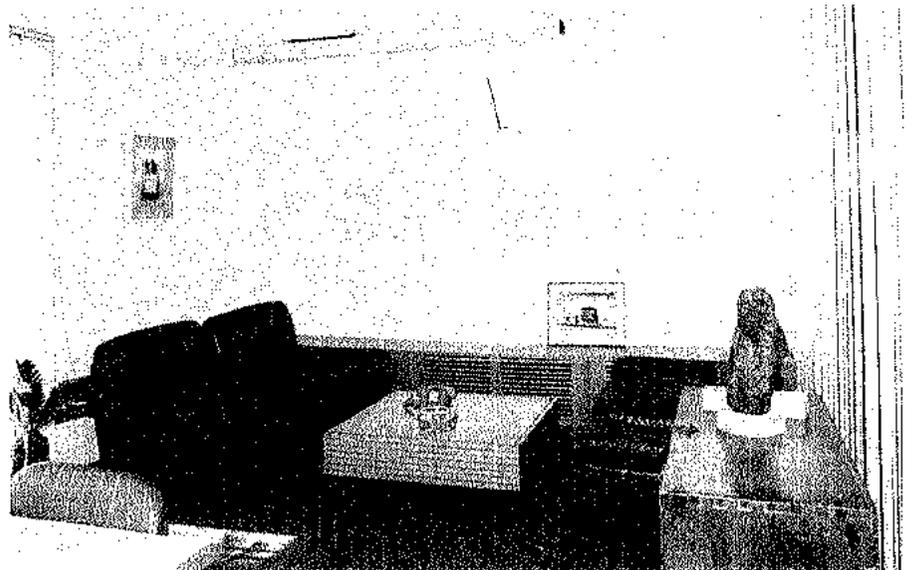
지층층평면도



▲ 사무실 전경



▲ 남측 배면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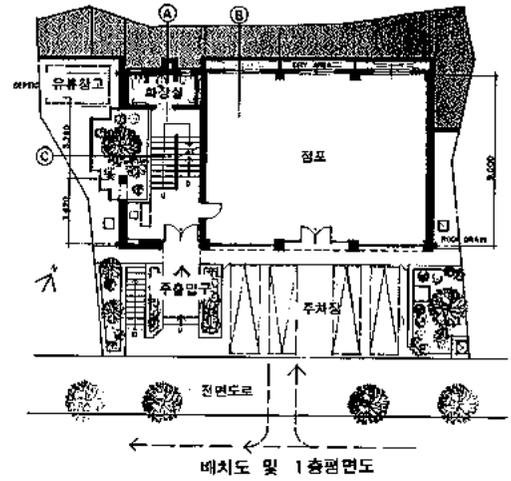


▲ 사무실

# 테크노사옥

Techno Co., Ltd. Building

金圓錫 / 홍인종합건축사사무소, (주) 테크노  
Designed by Kim, Won-Suk



- ◆ 대지위치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25
- 대지면적 / 354m<sup>2</sup>
- 건축면적 / 149m<sup>2</sup>
- 연면적 / 592m<sup>2</sup>
-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 외장재료 / 타일, 페어그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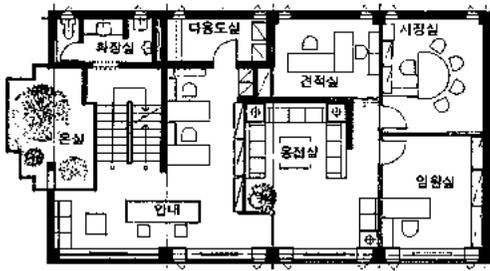
▲ 전경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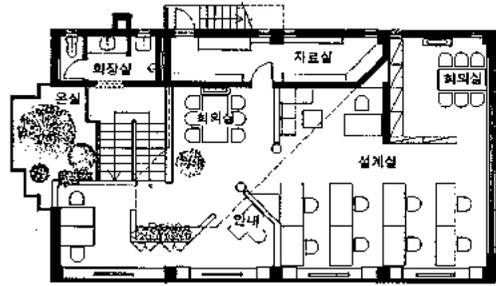
심리적으로 많은 요소들이 사용자의 지력을 뛰어 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또는 어떤 미묘한 감정과 미세한 표현의 추상적인 의미를 적용하려다 뜻하지 않은 실책을 범하게 되는 수도 많다. 황금비율이던 시각형이던 그냥 어떤 비례없이 자각으로만 창을 내다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딱딱한 외관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건물은 효율적인 외관의 미와 함께 내부에서도 창의 개념이 잘 표출되도록 작은 Office Bldg에 알맞은 형태로 구성되었다. 중소 규모의 Office건물은 자칫하면 편적에만 치중하다 보면 딱딱하게 될 우려가 있으나 미세를 고려하여 요철의 형태를 이용, 입체적인 감각과 조각한다는 개념으로 외관 계획에 임하였다. 종래의 평범한 계단실용, Open Space 化시켜 선린 형식을 묘사하도록 계획되어졌다. 실내 내부에서는 강 스펀을 이용하여 기급적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Utility를 뒷면에 위치시켜 전면 내부공간에 가변성을 부여하도록 계획되어졌다. 따라서 사무실용도에 적합할 수 있는 어떠한 가구배치 형태도 수용할 수 있고 업무 규모에 따라 가변성있는 공간을 연출하도록 계획하였다.



▲ 1층 로비에서 본 계단실과 선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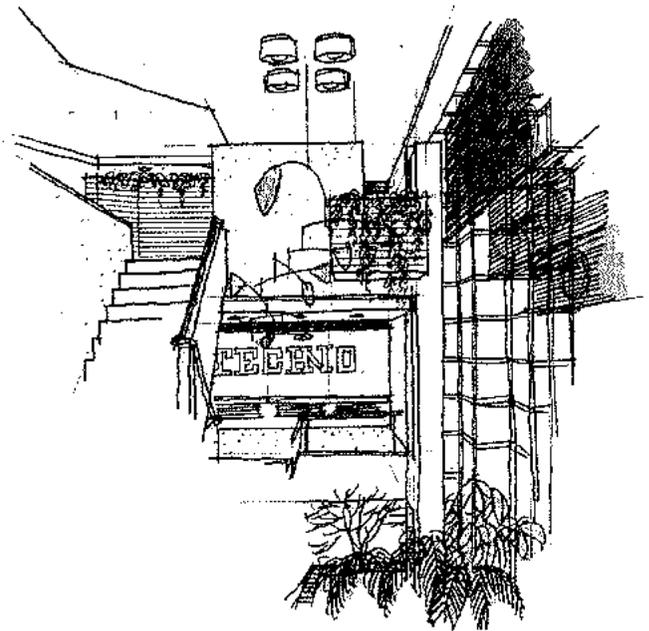
2층평면도



3층평면도



▲ 주출입구부분 의무상세



▲ 계단실



▲ 설계실 진경

# 民主發展은

오늘 이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국민적 과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시대의 거울"이며, "시대상의 반영"이라고 내세우는 建築分野에서도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민주발전의 뜻은 소박하게 말하면 權威主義체제를 지양하고, 다수 대중에 의한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주인이 주인노릇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 건축분야에서도 왜 민주발전이 추진되어야 하며, 민주발전의 기본방향, 그리고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民主發展이 왜 論議되어야 하는가?

건축계에서도 민주발전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까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첫째, 建築行爲에는 아직도 민주주의적 가치 즉 자유, 공개, 경쟁, 평등 그리고 참여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건축부조리라는 말 속에는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입주자와 그리고 행정가 사이에는 비합리적 행태와 일제 식민지적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이 잔존하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둘째, 우리사회 전반의 급속한 발전과 눈앞에 다가오는 2천년대에 효과적으로 대처기 위하여 기존의 사회의 틀에 맞았던 秩序와 價値의 근본적 재편성 작업이 건축분야도 타분야와 마찬가지로 요구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축수준은 타분야 못지않은 발전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인들이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가?

- 셋째, 건축가는 "한시대의 3차원적 해설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남다른 감수성을 가지고 민주발전이라는 우리시대의 아픔을 같이 겪는 것은 자성인으로서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 하나를 다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민주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는 외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건축인 자체가 스스로 主人임을 諦念내지 포기한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오랜 권위주의 체제에서 숙달된 건축인은 자신이 主人임을 의식하면 하는 만큼 손해를 받은 경험이 축적됨으로써 주인됨을 포기하여 온 것일지도 모른다. 예령이 "권리를 위한 투쟁"이라는 법사상서에는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선에 대한 의무이며, 권리의 주장은 사회공동체에 대한 의무라는 말이 있다.

## 民主發展은 무엇을 목표로 할 것인가?

민주주의의 政治的 개념은 에브라함 링컨의 간결한 표현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는 것이며, 倫理的 개념은 제임스 노웰의 말처럼 "민주주의는 내가 당신만큼 훌륭하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만큼 훌륭하다고 인식"하는 사고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哲學的 배경은 한스켈렌이 지적한대로 "사회적 쉼에 대한 절대주의가 아닌 상대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또는 원리는 무엇일까?

민주원리에는 理念的 원리와 節次的 원리가 있으며(표 참조), 민주화의 성패는 의식차원에서 볼 때 이념적 원리보다는 절차적 원리에 대한 인식도에 더 좌우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절차의 중요성이나 필요성, 그리고 기본적인 대원칙은 긍정하면서도 그 절차나 과정에 나타나는 구체적 모습인 경쟁, 비판, 양보, 타협 등에 대한 인식과 수용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일면을 지배층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론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건축분야의 민주발전 방향을 논함에 있어 추구하여야 할 목표를 自由의 확대, 公開의 보장, 競爭의 존중 그리고 批判의 활성화의 4가지로 설정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구 분	내 용
이념적 원리	○ 인간의 존엄성 ○ 국민주권 ○ 자유 ○ 평 등
절차적 원리	○ 토론절차의 중요성 ○ 결정의 사전 공개, 토의 ○ 경쟁의 필요성 ○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자의 권리 ○ 건설적 비판 ○ 양보와 타협

## 民主發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 建築的 自由의 擴大追求  
현대는 건축부자유의 시대라고 한다. 건축가들은 날로 강화되는 각종 사회적, 법률적 제약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있으며, 이러한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갈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건축적 자유가 제약되는 원인을 살펴보면 建築士의 양산 및 建築主의 부호현상 심화로 건축가의 위치 약화, 건축주의 영리 추구 우선에 의한 건축가의 창의적 표현에 대한 제약의 가중, 그리고

설계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수반되는 각종 법률적 규제사항의 증가들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분야 민주화를 위한 첫번째 방향은 "自由化"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의 확대에 수반하여 반드시 논의되는 것이 自律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개념적으로 "자유는 그에 따르는 의무들이 그 자유의 일부임을 깨닫고 있는 정도만큼 실현"된다고 하는 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적으로 자유와 자율에 대한 경계선은 활발한 건축비평과 전문직의 윤리 의식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자유확대의 실천적 과제는 건축법규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체제의 개편이 시급하며, 각종 기준 및 표준의 자율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건축시험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등 건축관련 3단체간의 상호연대의 대폭 강화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나) 市民에 의한 建築行政 行정에 있어 민주화의 요체는 행정의 목표를 "국민을 위한" 것에 두지 말고 그 절차를 "국민에 의한"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주사회의 건축행정에 있어서도 시민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가에서는 행정에서 주민 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고 본다. 우리의 경우는 住民共覽 또는 각종 委員會라는 주민 참여장치가 있으나, 대부분 간접적으로 형식적이며, 수단화한 점이 적지 않았다고 본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 위원회 제도는 전문가에 의한 대리참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에 의한 건축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地方議會에 의하여 각 지방실정에 적합한 건축조례가 제정되고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방건축인의 향토적 건축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市民의 參與가 활발하게 될때 권의 침해방지 그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에 대한 욕구 상승 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일조·소음·조망 등 건축분쟁에 대한 조정제도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다) 設計受注 과정의 公開와 競爭  
현대사회에서는 건축설계 행위의 본질도 바뀌어 종래의 개인의 예술적 창조행위로만 볼 수 없으며, 전문가팀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 행위의 속성이 강하게 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설계진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은 다른 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대화·토론·설득, 그리고 양보와 타협의 민주적 태도가 뿌리내려야만 할 것이다.

또한 설계 수주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지연·월연·학연에 의하거나 설계비 흥정에 의한 隨意契約 형식에서 탈피하여 경쟁·원리가 확립되어, 예를 들어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縣賞設計, 指名設計 그리고 디자인 프로포잘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경쟁을 통하여 상품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이 이루어지듯이 건축작품 공개와 경쟁의 원리에 충실할 때 그 질적향상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국가의 문화적 수준은 그것을 향유하는 국민의 수준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말처럼 사회전반의 문화적 수준의 향상이 전제되어야 함은 틀림없다. 특히, 우리의 경우에는 건축가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져야 하며, 예를들면 建築士라는 법직 호칭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사라고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 라) 建築批評의 活性化

민주주의 전제조건 중의 하나로 언론자유가 정치적 자유보다 선행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까닭은 언론에 의한 공개를 통한 비판의 역할을 통하여 “自由를 自由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처럼, 건축분야에서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建築批評이므로, 이 기능이 훨씬 더 중시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비평작업의 의의는 재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를 통하여 창작활동이 고무됨은 물론 작가의 세계가 독자의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다. 근래 태백산맥이란 소설에 대한 문학평론 과정에 제기된 문학작품의 비평의 과정에서 문학비평의 임부가 “비평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문학 생산의 현장에서 우선 논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그 작품을 찬찬히 따져 읽고 그 긍정적 의의와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작가와 독자의 창조적 대화를 매개한다”고 한 문장중에서 “文學”이라는 말 대신 “建築”이라는 말을 대치시켜도 그 정의 역시 타당하다고 본다. 비평활동이 활성화되면 대형건축물, 도시재개발, 대단위 주택단지에 대한 공과가 제평가가 되면서, 더 나아가서 건축인의 관심도 “큰 건축”에서 “작은 건축”으로, “부자의 건축”에서 “서민의 건축”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마) 建築教育의 재편성

어느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을 지적하기를 “해방후 한국교육은 걸로 미국식 대중교육의 옷을 입으면서도 그 정신은 일본 제국주의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의 청산 특히 권위주의적 풍토의 청산이 시급하다”고 탄식한 바 있다. 이러한 대학교육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점 뿐만

아니라, 특히 건축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건축은 점점 더 팀워크의 산물이 되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현재의 우리 대학에서 建築教育은 아예의 내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건축가가 주변 영역인 경제학자, 사회학자, 예술가, 도시계획가, 조경가 등 전문가와 대화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구할 수 있을만큼 理論的 바탕이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 상호간의 調整者가 될 수 있으며, 최종적인 산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판단에 궁극적으로 責任을 지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본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건축가의 사회적 의무 또는 건축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교과과정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달동네 주민의 住居環境, 공장근로자의 作業環境 등, 못가진자의 건축적 현실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발언과 제안을 하여 오고 있는지 생각하여 본다면 건축가의 경제적 특성을 알 수 있지 않는가? 현재 우리의 건축가는 마치 필립존슨의 비유처럼 “창녀”로 키워지며 독심술, 화장술, 방중술 그리고 추체술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 맺음말

앞에서 건축분야의 민주발전 방향을 건축적 자유의 확대, 시민에 의한 건축행정, 설계수주과정의 경쟁, 건축비평의 활성화 그리고 건축교육의 재편성의 4대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민주발전에 대한 모색의 의의는 국가적 질서의 재편 작업과 맞닿아 건축분야에서는 우리에게 알맞고 좋은 질서와 가치를 갖추기 위함에 있으며, 이때 새로운 질서는 한마디로 말하여 오르테가 가세트의 말처럼, “외부에서 사회에 가해지는 압력이 아니라, 내부에서 조성되는 均衡의 모습”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면서, 앞으로 민주발전을 추진함에 있어 건축인 모두가 유의하여야 할 점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민주발전은 目標인 동시에 手段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실점에서 추구하는 민주발전은 정치발전의 요체이나, 그 자체는 한걸음 나아가서 사회, 문화발전에 이르는 수단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계 민주발전 과정도 궁극적으로는 文化發展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민족의 역사적 사명과 인류적 역할은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부강한 나라”가 아닌 “문화국가”일 것이다. 민주발전의 모색을 계기로 2천년대를 향한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발전 구상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따라야 한다. 앞으로 10, 20년 동안 한국사회의 문화현상의 특징에 대하여 어느 사회학자가 지적하기를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성장해가는 시민문화 사이의 긴장, 그리고 계속되는 산업주의적 가치 저항과 인간주의적 문화의식 사이의 긴장, 그리고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간의 긴장 등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는 文化發展이 경제발전을 대신하여 사회 발전을 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내적방향을 강구하고, 건축이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적 유산이며, 우리문화의 형태적 표현이라는 인식을 굳게 가지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2천년대의 비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건축인 모두의 自己變革의 필요성이다. 민주발전은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 것만으로 결코 달성될 수 없는 목표이다. 이러한 制度적 바탕위에 意識의 변화 運用의 묘의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져야 기능함은 흔히 지적되고 있는 사실임을 굳게 명심할 필요가 있다. 민주발전에 있어 제도 개혁에 선행되어야 할것은 자기 변혁이다. 개인의 변혁이 따르지 않은 민주주의란 또하나의 우민정치화할 뿐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경우 볼스토히의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며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가 변화되기는 싫어하는 것에 문제의 근원이 있는 것이다.

## 建築分野의 民主發展 模索

李弼遠 / 건설부 건축과장

# 어린이의 마음과 인연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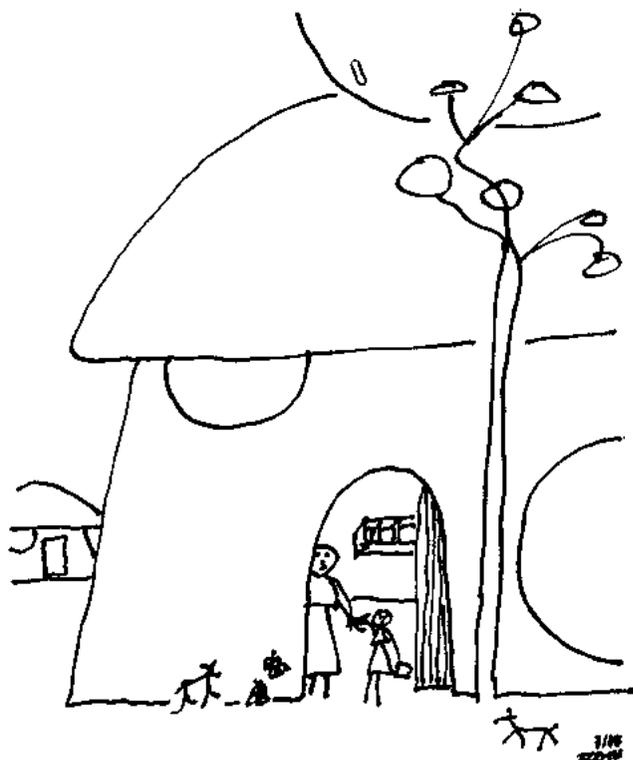
金錫澈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아키반

by Kim, Suk-Chul

金重業 선생은 평생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사셨다. 그런 선생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통사람 식으로만 생각하면 섭섭한 일도 많고 납득할 수 없는 일도 많지만 타고난 성정의 순수함을 알면 모두가 이해롭다. 외로운 선생의 행적에 비해 주위에 오래된 지기가 많은 것도 그런 연유일 것이다. 그런 친진난만한 소년의 마음과 격변의 연속인 한국 근대사의 와규가 선생을 해외로 내몰기도 하고 문제 많은 작가로 알게끔도 하였다. 좋은 사회는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일을 하는 사회다. 우리 사회의 희망적 정표중의 하나가 그래도 선생을 알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선생은 그러면서 동심과 연륜의 지혜를 하나의 감수성으로 가지신 분이다. 선생의 대표적인 불란서 대사관에는 한국

예술의 정수와 르 꼬르뷔제를 통한 현대건축의 정통적 내용이 선생의 감수성 속에 아름답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 선생의 어린이다운 호기심은 모든 방면으로 이어간다. 발레리의 해변의 묘자를 외우고 제나키스의 현대음악에 심취하며 남몰의 초기 로마네스크에 몰두하고 제 3 세계가 당면한 문명사적 갈등을 연구하고 한국 고 미술에 심취하기도 하신다. 모든 것에 마음을 주고 모든 일에 몰두하며 항상 바쁘시다. 그러면서도 세파속에 몸을 던져 살아온 사람만이 알 갈등과 고뇌를 아신다. 평균적인 인간부성이 인 오늘날 참으로 드물게 보는 르네상스적 보편인으로서 평생을 사신 것이다. 선생이 해 오신 건축에의 공헌은 크게 서구와 동양의 만남, 환상의 실현, 과거와

미래의 가교로서의 건축실현의 셋으로 볼 수 있다. 첫번의 경우로는 불란서 대사관, 두번째의 경우로는 제주대학, 세번째의 경우로는 바다호텔을 들 수 있다. 한 인간이 이런 다양한 성취를 이룬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평생을 소년의 마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가짐은 인연의 만남을 통해 현실이 된다. 사모님과 선생의 만남은 동심을 현실의 와중에서 지키고 나아가 세계적 성취의 단계로 만든 가장 큰 힘이 되었다.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두분의 만남인 것 같다. 다음 세계에서도 두분의 아름다운 인연이 계속되기를 빈다.



살고 싶어 저야 하잖은가  
꿈이 있고 활가 있고  
사람들이 모기종기 정다웁게  
모여살고 싶어 저야 하잖은가

김중업 권

# 如泉 金重業先生을 追慕하며

SPECIAL ISSUE/Thinking of the Late Yeochun Kim, Chug Up



- 金重業 學兄을 追悼하며  
..... 羅相紀
- 詩人建築家 金重業先生을  
생각하며 ..... 張錫雄
- 가장 韓國을 사랑한 建築家  
..... 安秉義
- 金重業의 꿈과 作品  
..... 金孝一
- 金重業과 그의 建築作品의 意味  
..... 趙仁哲
- 金重業의 건축형태에 대한  
原形論的 해석..... 김기환

# 金重業 學兄을 追悼하며

羅相紀 / 홍익대학교 교수

by Na, Sang-Kee



자화상

金兄, 8.15 해방직후 평양에서 우리나라 建築文化 暢達을 위한 熱心 討論을 하던 때도 이제는 먼 옛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金兄께서는 그곳에서 소기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서 1947年 故鄉을 뒤로두고 南下하였습니다. 지금은 가까우면서도 멀어진 故鄉을 바라보기만 하다 영면하신 兄이시길래 더욱 가슴아픕니다.

金兄은 1984年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 책 머리에서 바보스런 삶에 의한 메듭을 맺어 더욱 알찬 삶을 키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건축가란 역사에 삶을 건 사람이며 죽음뒤에 닥칠 책임이 더욱 무거운 것이기에 생전에 한자리에 모아놓는다는 것이 무척도 속스러워지며 앞으로의 責任이 더욱 무겁다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兄께서는 兄의 作品 마무리作業을 끝낸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또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金兄이 남긴 찬란한 作品들 속에서 하나하나 숨은 그 珠玉같은 아름다움을 찾아내어 우리들의 보람된 研究가 되리라 의심치 않습니다.

金兄이 1952年 파리의 르 꼬르뷔제 門下生으로 渡佛하여 研究할 때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作業이 1956年 2월까지 계속될 때, 파리의 그의 研究所에서 “삼띠갈”의 엄청난 프로젝트를 責任지고 울고 웃으면서 뼈를 깎는듯한 作品제작의 體驗이 金兄의 建築에의 참눈을 뜨게하였고 친직으로서의 建築創造가 멋있기 전에 얼마나 험하고 준엄한 일인가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苦生을 하고 1956年 歸國하여 仁寺洞에서 처음 建築事務所를 開設하고 그 모진 고생끝에 樂을 바라보았으나 모든 것이 如意치 않았읍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와 現代建築의 開拓者로서 또한 바른 눈총으로 바른 글을 쓰는 냉철한 建築家로서 韓國의 社會性을 예리하게 비판하다 수난을 겪고 또 美國으로 프랑스로 방황한 지난날의 일그러진 일들을 이제는 모두가 옛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金兄은 그 數많은 建築作品을 이땅위에 남기고 他界하셨지만 참다운 建築物들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짜릿한 感動을 주어 끝없는 기쁨으로 昇華시키는 드라마를 연출하셨습니다.

그리고 金兄은 建築은 人間에의 讚歌이며 自然속에 建築이, 建築속에 自然이 서로 감싸고 꿰뚫어 調和롭게 호흡하는 모습이란 人間이 이루어 놓은 極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金兄께서 남겨주신 많은 作品과 교훈에서 하나씩 되새기면서 앞날을 지낼까 합니다.

84年 4月에 저에게 주신 글속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 있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나상기인형

오랜 人生의 여정에서 항시 지켜주신 은덕으로 이러한 보잘것 없지만 나에게겐 뿌듯한 책이 꾸며졌군요. 부디 앞으로도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고 부디 건승하소서.

84.4.30

김 중 업

金兄은 이와같이 언제나 인자하고 너그러운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金兄께서는 너무 바쁘셨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近半世紀동안을 쉬는날 없이 훌륭한 作品世界로 온 정신과 몸을 다 바쳤읍니다. 이제 平安히 쉬십시오.

1988年 5月 15日

◆ 羅相紀

前 韓國建築家協會 會長  
現 弘益大學校 教授

# 詩人 建築家 金重業 선생님을 生覺하면서

張錫雄 / 종합건축 아도무  
by Jang, Suk-Woong

Kim - Cor...

이 시대에 사는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선생님을 이렇게 부름도 주지하지 않는다. 6.25사변으로 궁핍한 부산 피난생활에서도 예술가로서 새로운 추구를 위하여 가족들의 생활대책도 마련치 않고 홀연히 이태리 베니스에서 개최된 “UNESCO 국제 예술가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하게 되고 거기에서 코르뷔제 (Le Corbusier) 선생을 만나게 되어 르 코르뷔제 건축연구소 (Atelier Le Corbusier) 의 일원이 된다.

각고의 고생끝에 건축에의 정열을 불태우며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인정받으면서 인도 펀잡 정부수도 산디갈 계획을 비롯한 숏한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한국건축가로서 뛰어난 창의력을 인정받고 3년 6개월간의 在佛활동을 끝내고 귀국한다. 귀국한 선생님은 56년 3월 관훈동 계성빌딩에 김중업건축연구소 (Atelier Kim Chung up) 을 개설하여 불철주야 이룩한 작품들을 모아 57년 3월 북청동 공보실 공보관에서 “김중업건축작품 전람회”를 가지며 건축이 예술작품의 행위라는 인식을 부각시킨 최초의 건축작품전으로 기록되며, 더욱 펠그림홀 (Pilgrim Hall) 과 밀바 (Milva) 의 집” 등은 당시 건축학도인 나에게도 매우 깊은 감명과 용기를 주었으며 현대건축의 불모지인 이땅에 기존관림을 벗어난 새로운 기대와 가능성을 부여하는데 큰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이 30여년간에 이룩한 200여점의 주옥같은 작품을 오늘에 사는 한국건축가들에게 건축가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일깨워 주셨고 새로운 건축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이 그 누구에게 비할 수 없으며, 우리의 건축문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뚜렷한 계기를 만들어 놓으셨다. 조창기 김중업건축연구소에는 박학재(작고) 박병주(홍대교수), 안병의(건축가), 김진일(한대교수), 윤도근(홍대교수), 이출림(현대중공업사장), 전명현(홍대교수) 등 막강한 진용으로 구성되어 굵직굵직한 많은 작품을 소화할 수 있었으며 가장 진지했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부산대학교본관, 명보극장, 인천해무청 등은 코르뷔제 (Corbusier) 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작품들이었고, 조창기의 작품들은 현실을 감안하지 못하여 강한 비판의 소리도 없지 않았다.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룩한 주한 불란서대사관 및 관저, 유엔요역정문, 제주대학 본관 등은 우리의 것과 우리의 맛을 현대건축의 기법에 접합하여 승화시켜 이룩한 결정체로서 새로운 조형언어를 창출한 선생님이 이룩한 크나 큰 발자취라고 생각된다.

60년대 말에 완성된 국제보험빌딩과 삼일로빌딩은 시대적 요구에 의한 기능주의의 대형건축으로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나 건축가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건축주의의 불화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작품이기도 하다. 선생님의 강직한 성품이 그러하듯 강한 건축적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변질되고 사회상의 비판적 성향은 타협이 불가능하게 되어 타의에 의하여 창작활동에 제약 받게 되어 부득이 71년 단신 사랑하는 가족결을 떠나게 된다.

필란드에서 불란서에서 또 미국에서까지 한국의 건축을 강의하며 지난날의 청년기 건축활동을 돌아쳐보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조형세계와 하이테크 (Hi-Tech) 의 건축으로 접어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당신은 이야기 한다.

오랜 미국생활에서 지친 선생님은 79년 귀국하면서 쌓였던 창작의욕을 불사르며 한국교육개발원, 태양의 집,

바다호텔(계획), 한남동 이씨택, 육군박물관 등의 역작들을 탄생시키기도 하였으나, 역시 기존 질서와의 타협등의 적응이 불가능하게 되고 반발에 부딪히게 되니 부득이 크고 작은 현상설계 공모전에 참여하여 작가로서 의지를 표출하게 된다. 선생님은 평소 끊임없는 의지와 작품에 임하는 집중력은 후학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으며, 경상남도 문화회관 현상설계 당선, 울지로 재개발 현상설계 당선, 국제방송센터 현상설계 당선, 올림픽 상징조형물 형상설계 당선, 군산시민 문화회관 현상설계 당선, 군산여성회관 현상설계 당선 등 숏한 현상공모전에서 당선하여 선생님의 60평생 쌓은 시와 철학을 표출하며 실현하였고 유작으로 국제방송센터와 올림픽 조형물등의 준공을 앞두고 있어 선생님의 마지막 손길을 기다리는 때에 선생님은 가셨다. 평생을 건축과 짝사랑 하시면서 못다이룬 한은 장남 회조, 차남 회경군이 멋있게 이룩할 것이다.

.....자연속에 건축이, 건축속에 자연이 서로 감싸고 꿰뚫어 조화롭게 호흡하는 모습이란 인간이 이루어 놓은 극치라고 할 것입니다. 건축을 “종합예술”이라 하고 “질서의 샘”이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

이렇게 선생님이 남기신 명언을 음미하며 선생님 영전에 두손모아 명복을 빕니다.

◆ 張錫雄  
韓國建築家協會 副會長  
종합건축사사무소 아도무代表

베니스에서 열린 세계예술가대회



57년 제 1회 개인전에서



# 가장 한국을 사랑한 建築家

安秉義

by Ahn, Byung-Eui

이 글을 쓰는 내 아뜨리에 그리 넓지 않은  
응접실 탁자위에는 오색찬란한 반평 남짓한  
멕시코 담요가 깔려 있다.  
뭐라고 부르는지 이름은 잊었으나  
멕시코 사람들은 이 담요 한가운데를 머리가  
들어갈만큼 올려내어 망토로 쓴다. 그리고  
「솜부레로」라고 부르는 밑집모자를 쓰던  
바로 낭만적인 멕시코의 냄새가  
물씬 풍긴다.

몇해전 「아카폴코」에 갔을때 값싼 맛에  
사왔는데, 탁자위에 깔고 그 위에 두꺼운  
유리판자를 얹어놓으니 그런대로 운치가  
있다.

멕시코 아가씨들이 건본따라 짚었지만,  
화려하고 남국적인 멋이 있다. 예술가가  
의식하여 구성한 완성된 아름다움이  
아니라 서투른 솜씨의 제멋대로의  
멋이다.

인생도 이와같은 것이 아닐까.  
한가닥 한가닥의 색실이 이리 짜이고  
저리 짜이면서 담요 한장의 색채를  
자아내듯이 나이 들어가면서 여러가지  
사람과 사건에 부딪히면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인생을 자아내는 것이  
아닐까.

## 如泉의 生涯

如泉 金重業先生의 그리 길지 않았던  
66세의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을 더듬어보며  
그가 생각하고 느끼며 이루어 놓은 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에 비해 남긴 글은  
매우 적으며, 그것도 모두 단편적인 것으로  
체계적인 글은 없다.

그는 「이로 짜리넨」이나 「알파 알토」처럼  
건축가는 작품을 남기면 그만이지 굳이 글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사실인즉 如泉은 젊어서 시를 썼던만큼  
글쓰는 솜씨도 뛰어나며 남긴 몇편의 글들이  
모두 한편의 長詩같은 아름다운 글이다.

꿈많은 소년시절을 如泉은 군수로 계셨던  
부친의 임지를 따라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평남의 시골에서 살다가 철들 나이에 이르러  
평양의 대동강변에 자리잡았다.

소년시절을 회상한 그의 글에 그가 살았던  
고장의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한 것이  
많은 것을 보면 일찌기 자연에 눈을 뜬것  
같다. 훗날 건축은 자연속에

동화되어야한다는 그의 건축관은 어렸을  
때의 감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쉬이 짐작이  
간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은 곧 중학교에  
들어가 미술부에 적을 두게되고 온후한

인격자였던 二宮不二磨라는 일본인  
미술선생의 지도를 받으면서 사물을 보는  
눈을 키우게된다. 내가 대학 1학년때 매주  
두어 시간의 미술시간에는 그 당시  
전임강사였던 如泉도 가끔 우리들과 같이  
비너스상의 대생에 몰두하곤 했다.

부친의 권유로 如泉은  
日本橫濱高工(지금의 橫濱工大)건축과에  
들어가 3년동안의 수업을 쌓았다.

그 당시의 주임교수는 中村順平씨로 파리의  
「에콜데 보잘」을 졸업하여 로마대상의  
후보에도 들었고, 「建築이라는 技術」을  
지술했고, 훗날 예술원회원으로 추대된  
분이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오직  
건축교육에 몸을 바친 그는 독특한 스타일의  
스파르타식 교육으로 젊은 학도들의 고전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비례와 조화에 대한 눈을  
뜨게했다.

如泉은 中村교수에게서 비로소 건축이라는  
예술에 눈을 떴고, 건축의 이미지를  
실제라는 과정을 통해 현실화시키는  
실질적인 훈련을 쌓았다.

그후 한국에 돌아와 서울工大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많은예술가 문인들과 어울리고  
더러 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나는 대학시절 4년동안 줄곧 如泉의  
意匠論과 건축계획강의를 들었는데 그의  
디자인 이론은 매우 앞승달쫓한 것이었다.

부산UN모지 정문앞에서



그의 스승 르 꼬르뷔제



건축은 곧 인간에의 찬가이기에  
 건축은 감동적이어야 하고 시가  
 있어야 하며 노래불러야 하며,  
 그러므로서 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연에 대해 눈을 떠라. 자연을 사랑하고,  
 깊이 관찰하고, 사색하라. 자연은 디자인의  
 스승이다.  
 또 이집트건축과 자연의 관계나  
 파르테논신전의 비례감을 찬양하고, 「르  
 꼬르뷔제」에 이르러 열을 올리곤 했다.  
 그는 강의를 잘하는 교육자가 아니라  
 건축가가 되려고 하는 꿈을 심어주는  
 革命指導者에 가까웠다.  
 건축계획시간에는 2시간만에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에스키스」에서 24시간만에 간단한  
 투시도까지 만들어야하는 숙제에 이르기까지  
 빠른시간내에 이미지를 구상하는데 중점이  
 주어졌다.  
 현실성이 다소 없더라도 꿈이 있는 작품이  
 언제나 높은 점수가 매겨졌다.  
 이례서 우리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은  
 「序論교수」였다.  
 결정적으로 여천의 일생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르 꼬르뷔제」와의 만남이었다.  
 만 3년반을 그의 밑에서 일하면서 여천은  
 건축이라는 예술의 진수를 마음과 머리로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소설가는 작품의 주인공을 통해 그의  
 인생관을 보여주듯이 건축가 또한 작품에  
 그의 정신세계를 부각한다.  
 그의 인생의 前반생의 여러가지  
 만남-자연과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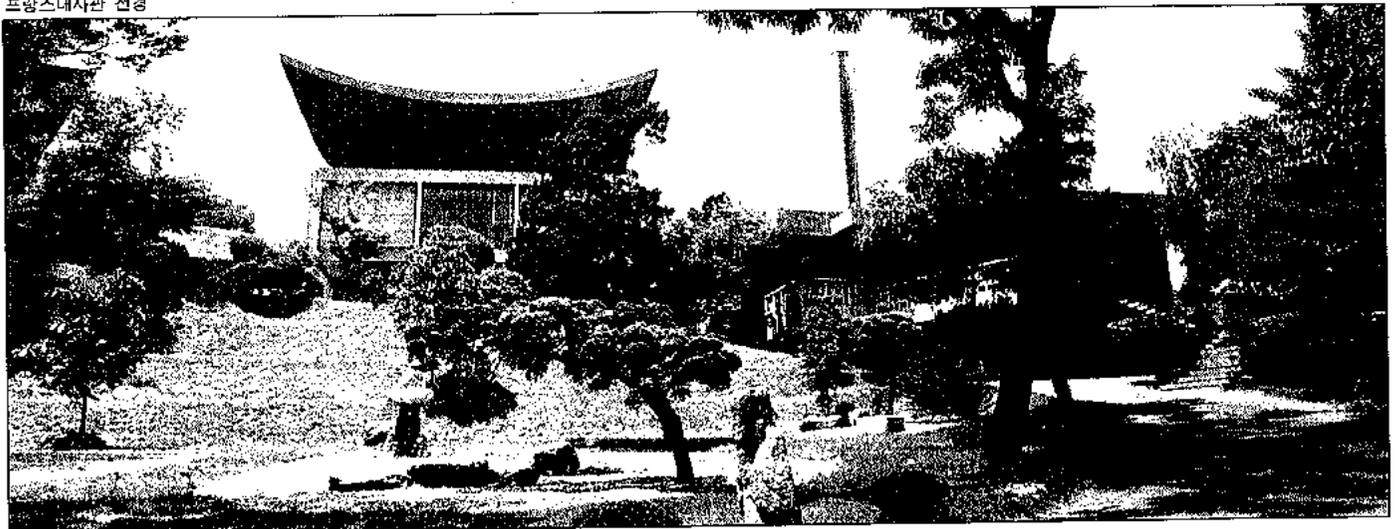
친구들과의 만남, 책과 음악과 미술과  
 시와의 만남은 곧 그의 인생관의 배대를  
 이루며 점점 더 굳어져 갔으리라.  
 그는 건축을 자기의 숙명으로 알고,  
 천직으로 생각하고, 건축가란 작품을 통해  
 역사를 창조하는 사명이 주어진 존재라고  
 믿었다.  
 건축은 곧 인간에의 찬가이기에 건축은  
 감동적이어야하고 시가 있어야하며  
 노래불러야하며, 그러므로서 표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 古典에 대한 愛着

여천의 작품을 통해 끊임없이 밑바닥에  
 이어져 흐르고 있는 뼈대는 고전에 대한  
 해석이다. 건축가는 어제, 내일도 아닌,  
 자신이 살고있는 오늘날을 창조해야한다고  
 그의 작품집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에서  
 강조하고 있다.  
 불국사는 매우 아름답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라시절의 것이다. 현대에는  
 현대에 맞는 건축이 있다. 불국사의 정수를  
 발견하고 그에 버금가는 작품으로  
 빛어내야한다. 그것이 현재의 고전이다.  
 불국사는 신라시대에는 현대건축이었다.  
 그것을 본떠 현대에서도 기와지붕을 씌우는  
 것은 무의미하며 인간의 찬가이어야할  
 건축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했다.

파리에서 돌아와 곧 아뜨리에를 차리고  
 작품활동에 들어갔으나, 한동안은 「르  
 꼬르뷔제」의 亞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한 작품 한 작품 쌓여지면서 그의  
 天分은 차차 새로운 경지를 이루어 마침내  
 불란서대사관에 이르러 현대의 불국사를  
 이루어 놓았다.  
 그리 넓지않은 언덕을 따라 사무동과  
 대사관과 관저가 차분하게 가라앉듯이  
 자리잡음으로써 자연의 일부로 동화된다.  
 특별한 기능이 없고 단지 상징적인 것뿐인,  
 서로 모습이 다른 두개의 콘크리트지붕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고전임을 느끼게한다.  
 매우 큰 덩어리이지만 사뿐히 놓여져 전혀  
 무겁다고는 느껴지지 않아 우리 전통의  
 기와지붕보다 더욱 현대적이다.  
 한쪽은 남성적이고 또 한쪽의 지붕은  
 여성적이다. 바로 佛國寺의 남성적인  
 석가탑과 여성적인 다보탑의 모티브를  
 암시한다.  
 관저 앞의 그리 깊지않은 연못에 불어가  
 뛰놀고, 바람이 스치면서 물가에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면 햇빛이 반사되어  
 지붕처마에 물결이인다.  
 고전에 대한 그의 思考, 자연에 대한 애착,  
 건축은 빛과 그림자의 交響樂이라는 여천의  
 건축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송두리채 이  
 건축에 빚어져있어, 바로 감동 그것이다.

프랑스대사관 전경



여천이 이 작품에 쏟은 정열 또한 대단한 것으로, 약 2년 남짓한 공사기간중에 아이디어는 다듬고 다듬으면서 스케치는 약 1,000장을 넘었다.

「로 꼬르뷔제」는 뼈대가 끝나갈 즈음, 「이제부터 건축은 시작한다」하면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다듬었다고 하는데, 여천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하여 생생한 이미지를 건축에 빚어내는 건축가의 자세에서 우리는 참다운 예술가의 모습을 발견한다.

여천은 이 작품으로 하여 불란서정부로부터 국가공로훈장과 「슈바리에」칭호를 받았으나, 인생에 영광 혹은 새끼불처럼 이어지게 마련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4공화국시대는 문화의 암흑기였다. 관료주의의 거센바람 앞에 문화인은 숨을 죽이고 그저 바람이 잠잠때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었다. 건축은 졸속이라는 정책밖에 없었고 기념적인 건물은 기와지붕 씌우기에 바빴다. 와우아파트, 도독촌, 성남시 계획, 고가도로와 육교등의 정부시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여 타외에 의해 잠시 외국으로 몸을 피하게된 如泉은 결국 8년동안을 이역에서 살게 된다.

건축가는 역사에 대한 목격자며

지성인으로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시정토록 하므로서 역사의 창조자가 되어야한다는 여천의 이상주의가 부른 화근이었다.

뛰어난 능력과 이상을 그 시대에 꽃피울 수 없는 것은 그 사회의 책임이며, 그 사회의 크나큰 손실이다. 문화가 꽃피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치가가 아니라 문화인 자신이며,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하고, 정치가는 다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여천은 생각했다. 그의 적극적사고의 일면이다.

그는 또 건축가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안이하게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역사상 남을만한 작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때로 如泉이 설계한 건물은 공사비가 비싸게 든다거나, 얼마든지 집이 끝나봐야 안다는 등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건축은 땅위에 세워지는 것이므로 건축이 서있는 한은 비록 건축가가 죽은 후에도 책임이 따라다닌다. 예산이 모자랐다가, 「블라이언트」가 무식했다거나, 시공자가 잘못했다거나 따위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하여 如泉은 中傷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기 신념에 따라 시간을 초월하는 불후의

작품을 만드는데 온 정열을 바쳤다.

현실을 받아들이는가, 또는 이상에 따라야 하는가, 어느쪽이 옳은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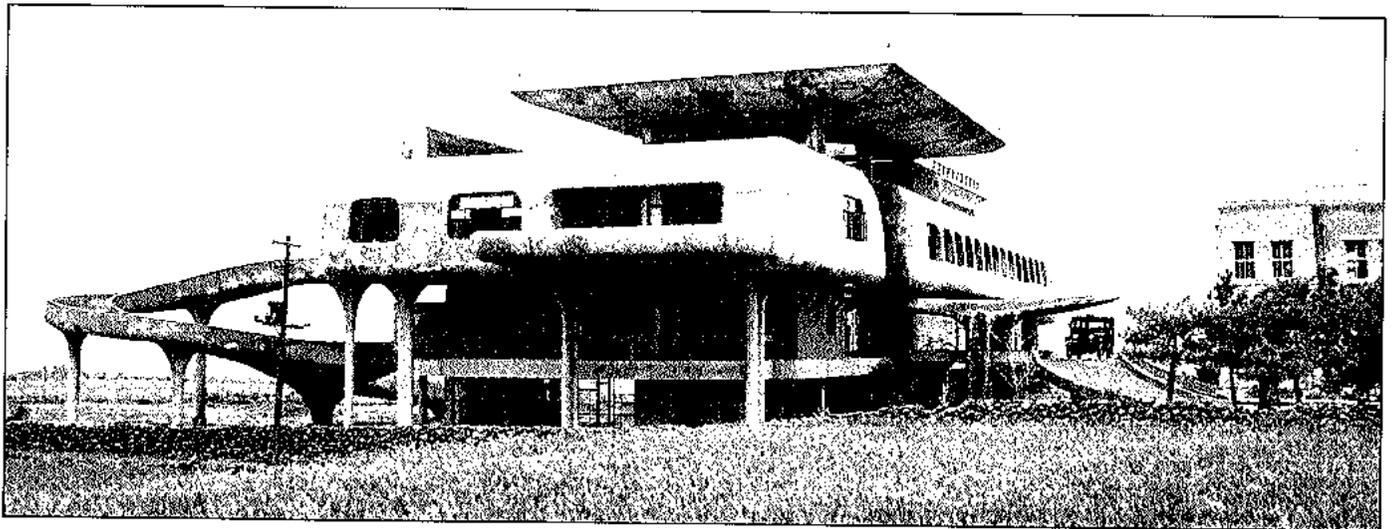
「요론 옷존」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국제적인 례패를 통해 이루어진 작품이다. 준공되었을 때의 공사비는 처음 예산의 여섯배를 넘어섰다. 한때 호주정부는 건설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국제적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 국가의 명예를 건고 공사를 완수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이 「오페라하우스」는 호주가 자랑하는 관광명소로 세계도처에서 온 손님으로 언제나 붐빈다. 예술이란 金錢을 초월하는 존재이다.

### 예술전반에 깊은 識見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고전에 대한 애착, 뛰어난 비평, 조화에 대한 감각, 예술전반에 대한 깊은 식견으로 하여 如泉은 아마도 우리들이 서슴없이 천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였다.

그리고 자기의 天才性을 自負 했고, 건축이 곧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여천에게는 다른 건축가들과 어영부영 받을 맞추어 世俗에 묻혀 살아갈 마음의 여유가 결핍되어 있었다. 흔히 천재들이 빠지기 쉬운 편견과

제주대학교 본관



未完의 시인.

위대한 天才建築家

현대건축의 별

가장 韓國的인, 가장 한국을

사랑한 건축가

官僚主義에 대한 불굴의 挑戰者

이상을 信奉하는 無賴漢

쇼팽적 先歐者

사회생활 감각의 부족으로 고독한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관료들의 속물근성이 그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리적으로 안맞는 것이었다.

如泉은 그의 명성과 실력에도 불구하고 건축계의 3단체의 어느것 하나 長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건축가협회는 그 옛날에 그가 중심이 되었던 창립멤버였으나 따돌림을 받은 것을 보면 如泉은 남들과 협동하는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교류관계는 미술, 조각, 음악, 시인, 문인, 무용등 예술의 모든 분야에 이르렀고 적지않은 영향을 그들로부터 받았다.

젊어서부터 예술과 역사, 문학에 관한 많은 책을 읽어, 명석한 두뇌로 하여 전문인 수준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

특히 보드레르, 랭보, 말케를 좋아했고 벗편의 시도 남겼으나, 집을 주제로한 서정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詩心은 건축공간에 함께 빚어져, 말하자면 건축으로 시를 읊은 셈이다.

모든 예술창작의 기본이 예리한 감각이지만, 건축은 이에 더하여 주어진 기능을 분석, 종합하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 여천은 중학시절, 수학에 능했고, 해방전 한동안 여학교 수학교사로 있었을만큼 수학적인 천분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건축작품을 다루는 자세는 理智的인 분석, 종합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감성에서 오는 直觀으로, 순식간에 건축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지적 사고를 거쳐야하는 건축의 기능마저도 직관으로 떠오르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天性, 理智的, 論理的인 인간이기보다는 感情的이고 直觀에 따르는 인간이었다.

건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가의 꿈이 작품속에 담겨져야 하는것이라고 생각했던 여천에게는 건물의 기능보다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이 앞서는 명제였다. 기능이란 오랜 세월동안에 달라지고, 바뀌면 되는 것이지만 건축의 아름다움은 오래 남아있는 것이기에 시간을 초월하며, 따라서 기능에 앞선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름다운 건축은 세월이 흘러, 그 기능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어도 그 아름다움으로하여 헐리지

않고 기념물로서 남아있지만 추한건물은 헐어버리게 된다는 이치이겠다.

건물은 아름다울 때 비로소 고전으로서 길이남게된다는 그의 역사의식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에서 빚어진 작품중에 적어도 몇 개쯤은 시간을 초월하여 남아, 훗날 20세기의 고전으로 빛을 보게될 것이다.

### 세련되지 못한 自然인

내재적으로 예술가란 편견으로 가득하고 이기적이며 결코 신사가 아니다. 뛰어난 예술가일수록 창작에 깊이 빠져버려 세상만사에 대해 마음을 쓸 여유가 없다. 오직 생각하는 것은 나와 나의 사고와 나의 작품이며, 예외라든가 사회습관이나 남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심한 경우는 이기적인 것을 자기합리화시켜 예술이외의 일에 마음을 쏟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생각하는 무뢰한이다.

如泉도 그러한 사람들에 끼이지 못한다면 서러워할 정도로 철저하게 무뢰한이었다. 그는 세련되지 못한 자연인이었다. 자기생각을 조금의 가식도 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것은 미덕인 것처럼 들리지만, 말한 내용이나 말한 상대에 따라서는 실례가 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는 감정을 건드리며 미움마저 살수도 있다.

「소질이 있어보인다. 노력하면 大成하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것을 「자네도 건축가인가?」라고 뱉어버린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정도의 「젠들맨」이 아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뒤가 없었다. 藝術家란 偏見의 노예이다.

如泉도 자기의 建築觀에 절대로 옳다고 믿었기에 고집불통의 웅고집이었다. 특히 자기작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하는 관료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생각했는데, 경주박물관에 기와지붕을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품이 빛을 못보게되자, 기자들을 불러 무식한 장관들云云的 욕설을 퍼부었다.

좋은 기사거리라고 字句修正없이 신문에 실으면서 당국과는 영원히 담을 쌓게된 일이

있었다.

오랜동안 교편을 잡았고 T.V. 에도 심심치않게 신보며, 우직한 平安道사투리를 고칠수도 있었을터인데 전혀 표준어를 쓰려고 노력조차 하지않은 것을 보면 가식이 없고, 체면따위 아랑곳하지 않은 無賴漢이었다. 이처럼 우직하고 둔감한 성격이면서도 바이올린의 旋律처럼 섬세한 심경의 소유자였다. AB 형이었기 때문일까. 萬卷의 책과 가까이 하였던 如泉의 또하나의 취미는 음악으로 특히 「쇼팽」의 「녹턴」과 「바하」의 平均律을 좋아했다. 이것 또한 상반되는 성격이다. 오랜 방황 끝에 그의 후기의 작품들은 우리나라 향아리의 풍요로운 곡선과 「쇼팽」의 旋律처럼 기랄쁘고 섬세한 분위기의 작품으로 정착된다.

여천은 일생을 통해 여러번 이사를 했는데 언제나 따라다닌 것 중에 高麗時代것으로 짐작되는 花崗岩의 三重塔이 있다. 그는 돌이라는 소재를 무척 좋아하여 돌을 대하면 수세기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 대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을까. 피라밋이나 스�핑크스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낭만이었을까.

66세의 길지도 짧지도 않은 생을 마치고 如泉은 幽明을 달리했다. 젊어서 붙여졌던 「序論教授」의 딱지는 떼어버리고 어떤 이름을 들어야할까.

未完의 시인.

위대한 天才建築家

현대 건축의 별

가장 韓國的인, 가장 한국을 사랑한 건축가

官僚主義에 대한 불굴의 挑戰者

이상을 信奉하는 無賴漢

쇼팽적 先歐者

### ◆ 安秉義

27년생으로 52년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金重業 건축연구소를 거쳐 대한주택공사 연구실장, 서울대 대학원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향건축을 자영하고 있다.

# 金重業의 꿈과 作品

金孝一 / 경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by Kim, Hyo-II

## 序

우리時代 韓國建築界의 巨星,  
金重業先生은 조용히 우리곁을 떠났다.  
그분은 韓國現代建築을 이끌어 온  
선각자로서, 우리시대의 고뇌와 소명의식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게 심어주고 간  
건축가이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가 이 땅위에  
굳건히 심어놓은 遺作들은 이제 다시금  
선생에 대한 재평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만 그 분이 떠나간 이저음 작품에 대한  
평가는 어떤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한된 지면과 시간내에 선생의 작품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편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아직 평가의 시기는 이르다고  
본다.  
더구나 작가의 창작활동은 그 시대적 상황과  
직결되어 있기때문에 社會現象學的인  
接近에 의해서만이 보다 작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의 건축관을 논할 수 있다고 본다.  
더구나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상을  
도외시하고 선생의 작품성향을 언급한다는  
것은 절대 무리한 요구이다.  
본인은 선생의 가장 황금기의 작품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왔기때문에 작가의 번뇌와  
내면세계를 조금 더 밀도있게 언급할 수

있다는 것과 후일에 누군가에 의해서 더  
구체적으로 金重業作品論을 저술할 때  
참고가 되리라는 사명감으로 이 글을 쓴다.  
선생의 지난 50년간의 건축활동은 우리  
한국사회의 파란만장한 격동기의 토양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歷史인식의 通時性으로  
보아 우선 선생의 작품재료를 다음과 같이  
5期로 分類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 第1期 ('40년대) 1940~1950 (18~28才)

해방과 더불어 미군정시대의 시작으로  
사회, 문화 모든면이 충격과 혼돈의  
시기이다.  
선생은 '41년 요코하마공업고등학교  
건축과를 졸업한 후 마쓰다히라다  
건축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를 익히고, '45년  
해방과 더불어 귀국하지만, 남부의  
정치소용돌이 속에서 '46년 평양을 버리고  
월남한 후 각 대학의 교단에 서게된다.

### 第2期 ('50년대) 1950~1960 (28才~38才)

'50년 6.25동란으로 시작하여  
4·19사회혁명으로 구획이 지어진 이  
시기는 전화복구기이며, 의식주해결에

급급했던 시기이다.  
선생은 이 때가 인생판도를 결정한 중대한  
시기였었다. 부산 피난시절 그 어려운  
생활속에서도 부산 송도에 "폐각의  
침실('52년)"을 설계하여 꿈과 낭만을 잃지  
않았고 '52년 7월 30세 나이로 이태리  
베니스에서 열린 제1회 세계예술가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하여 꼬르뷔제와 만나게  
되며 '52년 7월부터 '56년 2월까지  
3년반동안 그의 연구실에서 상디갈의  
국회의사당, 정부청사, 고등법원,  
남뜨아파트, 통상교회등의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다.

'56년 3월 귀국. 건축연구소를 개설하여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한다.  
대표작으로 필그림을 계획안, 부산대학  
본관, 서강대학교본관, "人"字의 집이 있다.

### 第3期 ('60년대) 1960~1970 (38才~48才)

'60년 4·19에서 '61년  
5·16군사혁명으로 이어지면서 군사정권의  
시작과 산업화, 공업화구조의 상승변화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이며,  
정치적으로 '63년 12월 제3공화국탄생,  
문화적 주체意識의 각성과 사회적 가치관의  
불안정성의 시기에 선생은 연구소개설 15년

점령산장 스케치



## 그는 그의 建築이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에도 變化와 成長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紀念碑的으로 영원히 남아 있기를 원했다.

동안 이 때가 가장 찬란했던 건축활동의 黃金期인 르네상스다. 이를 前의상 前後期로 대별하면

### (1) 前期('60년~'66년)

주한 불란서대사관, 청평별장, 뉴욕세계박람회 한국관, 서 산부인과, 제주대학본관, 유엔군묘지 정문, -서울시 문화상 수상(1962), 프랑스국가 훈장수상(슈마리에 호칭 수령, 1965).

### (2) 後期('67년~'70년)

주한이테리대사관, 진해해군공관, 삼일로빌딩, 홍익대학신관, 국회의사당지명 현상설계, 남한산성 칸트리클럽, 갯생보호회관, 니젤 도자기공장, 도규호텔, 진해 충무공기념관.

이때의 연구실은 성북동자택에서 관훈동사무실로, 인위동사무실로, 장충동자택으로 5년간에 5번이나 옮겼으며 연구실의 재정적인 풍파가 많았다.

## 第4期('70년대) 1971~1979 (49~57才)

- 경제성장의 둔화기, 도시화, 공업화의 후유증으로 지역격차와 계층간 격차가 나타난다.
- 정치적으로는 1971년 司法波動, 긴급조치위반으로 민권운동탄압.

● 1972년 8·3, 긴급조치와 노조탄압운동.  
● 1973년 유신체제가 혁명적 방법으로 출범, 새마을운동과 유신이념등에 대한 정신교육강화.

● 1979년 10·26사태발발로 유신정권 몰락. 이 시기는 선생에게 가장 불우한 암흑기였다. 그것은 건설정책(와우아파트, 광주대단지사건)과 필화사건(도독촌 사건)등으로 1971년 11월부터 1979년까지 8년동안 방랑의 외유생활을 하게되었고, 이 동안의 주요계획안은 외환은행본점 계획안, 이븐울루아 스포츠호텔계획안, 성공회회관.

## 第5期(80년대) 1979~1988 (57~66才)

●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재편성의 후유증에 대한 각성의 시기이며,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큰 변혁과 충격의 연속이었다.

선생은 오랜 외유생활에서 1979년 완전 귀국하여 정착한 시기로서 연구실을 재정비하여 영면할 때까지 가장 활력있고 성숙한 작품활동의 시기였다. 그러나 84년 예술의 전당 현상설계의 후유증과 명성사건의 충격으로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지만, 85년부터 건강을 되찾고 여러 콤플에 당선되어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나가는 듯했으나 결국 선생의 건강이 더 이상 이를 허락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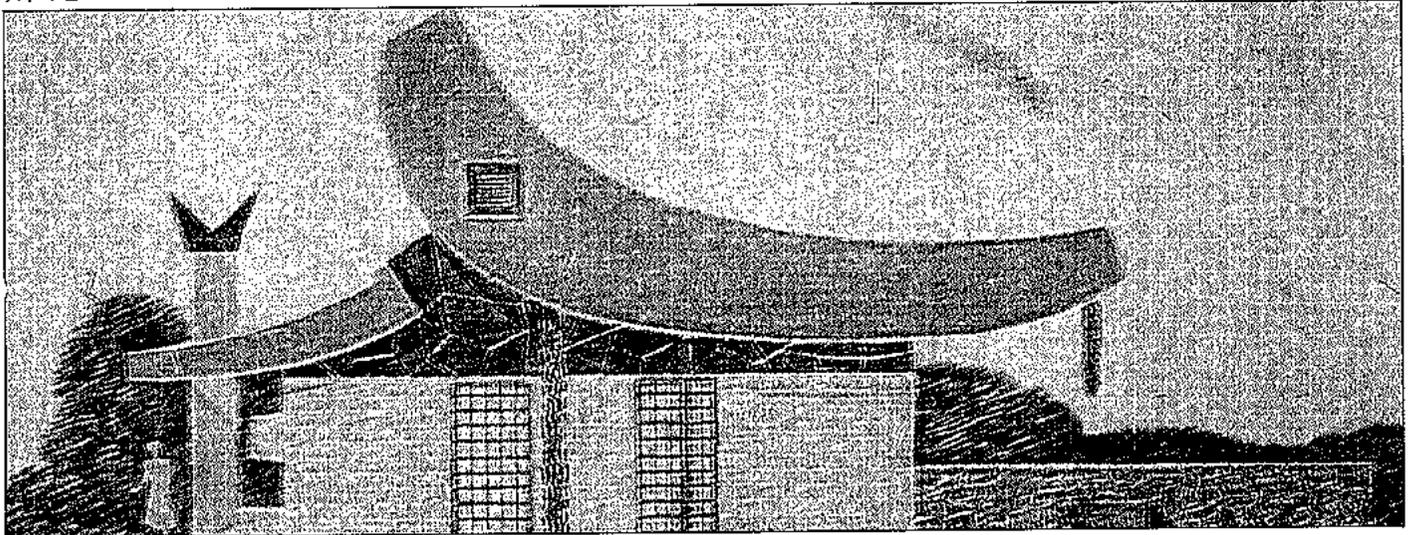
### 주요작품

- 쇼핑센터 "태양의 집"(1977)
- 교육개발원 신관(1979)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
- 바다호텔 계획안(1980)
- 육군박물관(1981)-대한건축사협회 대상 수상
- 을지로 재개발 16·17지구(1988)  
-서울시건축상 금상 수상
- 국제방송센터(I·B·C)(1988)
- 올림픽상징조형물(1988)

이상과 같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및 풍토적배경에서 형성된 선생의 작품활동은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건축교육과정에서부터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선생은 第1期間에서 건축의 전문기술교육을 日本에서 받았고 8·15해방과 더불어 식민지상태로 정체된 후진사회의 비극을 극복하고자 선진사회를 향하여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겠다는 굳은 야망이 싹트기 시작한 청년기의 第2期로 접어들면서 뜻하지 않은 6·25동란으로 실행민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혼란과 충격에도 굴하지 않고

人宇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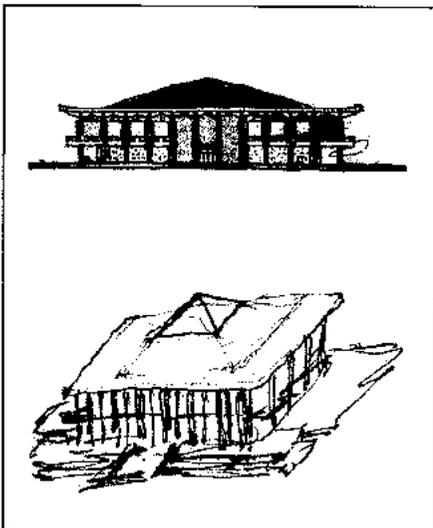


꼬르뷔제선생 문하생으로서 더욱 성숙된 건축가의 수업을 받으며 귀국하여 6·25동란이후의 복구작업에 새로운 기술과 이념에 의한 시대적 요청의 적중한 시기를 맞춰 1956년 3월 연구소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나 이 시기의 구미건축계는 C.I.A.M의 近代建築이 붕괴되고 새로운 표현과 인간적인 정서, 지방적 土俗性과 개성적표현을 열망하는 현대건축이 태동하는 시대였음에 비해서 우리 건축계의 상황은 불모지였으므로 선생은 현실적으로 엄청난 괴리감을 느꼈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면서도 선생은 혈기에 찬 정력으로 필그림홀계획안, 부산대학교본관, 서강대학교본관등 실험적 단계를 거쳐 더욱 왕성한 第3期(장년기)의 전환점에서 불란서대사관을 탄생케 한다. 이 작품은 선생의 발전적 창작활동의 진화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도달된 소산이며, 한국현대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指標라고 칭할 수 있다. 특히 이 작품에서 선생은 서구적인 석조건축에 근원을 둔 꼬르뷔제의 건축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목조문화의 요소를 서정적인 한국적 건축으로 잘 소화시켜낸 성공사례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第3期間 10년동안에 前期의 서산부인관(1965)와 後期の 삼일로빌딩(1969)은 선생의 작품세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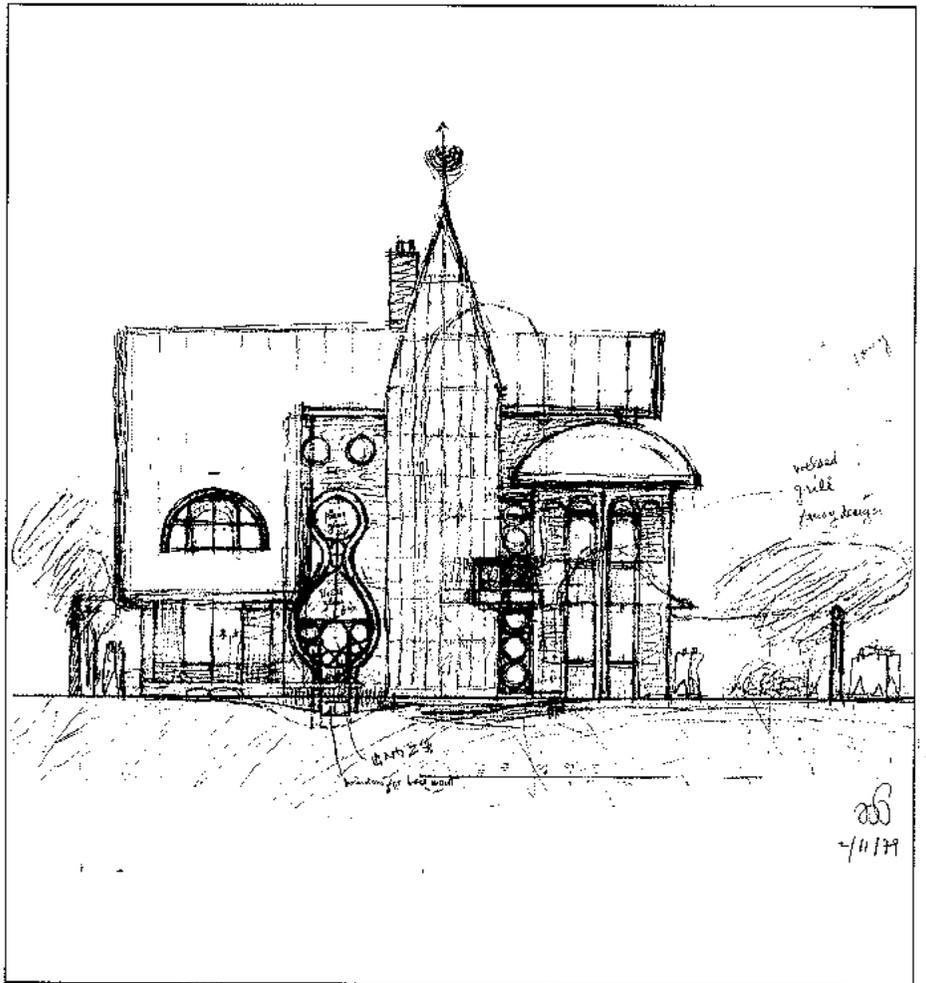
일대 돌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때까지만해도 선생은 평면구성에서 뿐만아니라 입면구성에서 조심스런 곡선처리를 시도하여왔지만 특히 서산부인관의 경우는 이러한 소극적인 지붕곡선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자유곡선의 조형으로 비약했던 것이다. 이에 반하여 국제주의 양식에 입각한 삼일로빌딩은 기능주의의 기계형태학적 입방체의 엄격한 구조적 논리에서 형태의 본질을 찾고 있다. 이 건물은 선생에게 최초이자 최후의 고풍빌딩으로서 액운을 많이 남겼다. 이러한 동시대의 대표적인 두 작품의 예로보아 분명히 선생의

작품세계에서 일대변혁을 시도한 진화과정의 모순이다. 이러한 경우는 初期와 中期에도 한번씩 반복되기도 하지만 설계과정에서 작가자신의 일관된 주제설정이 긴장상태로 지속될 수도 없으며 때로는 변형, 굴절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숙되지 못한 우리사회의 제반 여건상 이러한 변증법적인 양면성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그에게 있어서 작품활동상 특기할만한 것은 작품계보에서 보여주듯이 15년동안에 실제로 성사된 주요한 공공시설은 없고, 다만 민간자본에 의한 시설과 불과 소수의 대내, 대외공관 건축의

공주박물관스케치



예술예호가의 집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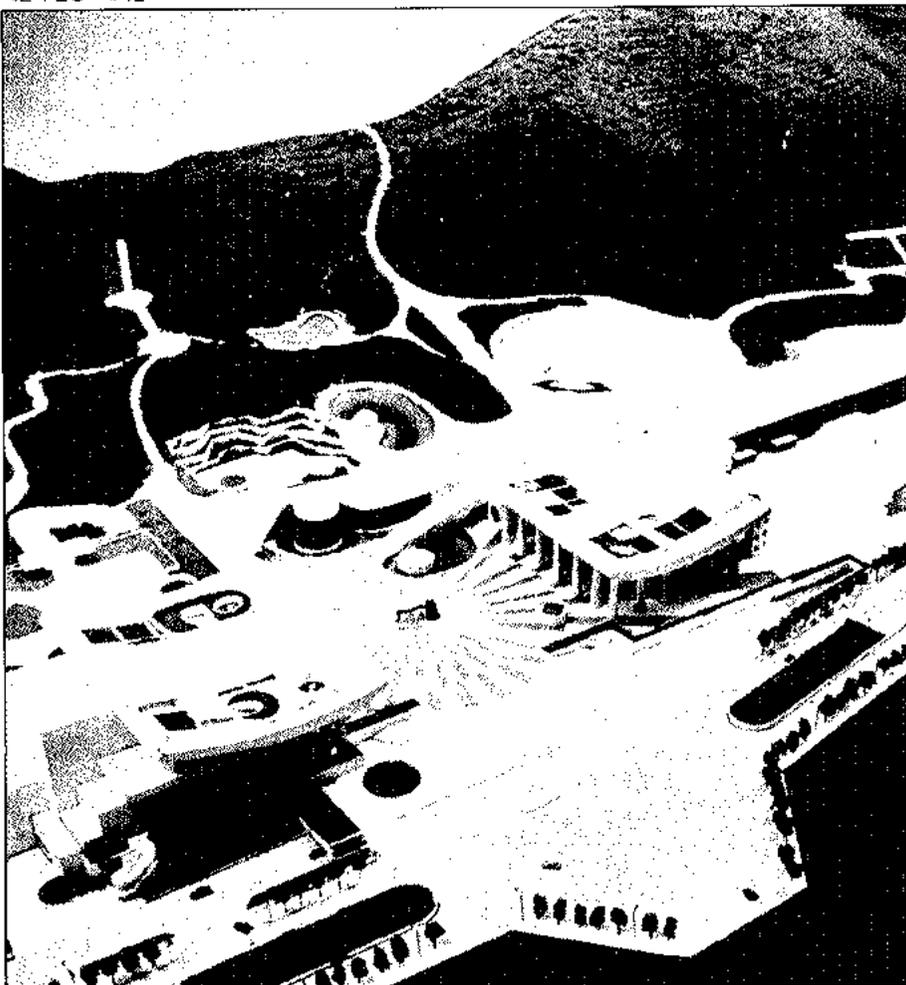
선생은 서구의 사고방식인 分析的  
 方法을 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석이 필요없는 느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東洋的인 총체적  
 사고방식으로 造形言語에  
 접근하고 있다.

기회가 주어졌을 뿐이다. 이것만 보아도  
 그에겐 정치적 수완이 없는 분이란 것이  
 파악될 수 있다. 외유생활이후 79년부터  
 공공시설 프로젝트의 대부분이 경쟁설계의  
 당선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선생은 이러한 한국건축계의 활동광장이  
 좁은 것을 늘 한탄했다. 더구나 70년대  
 유신체제하에서 한국정치 사회의 권력과  
 관료적인 행포로부터 저항과 자유의 투쟁은  
 곧 자기희생을 자초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시대적 환경에 처한 작가의 고독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외유생활 중에도 자아개발과  
 건축의지를 더욱 북돋우며 동화적인 꿈과

낭만을 계속 그려 나갔었다.  
 이후 선생은 8년동안의 외유생활을 청산하고  
 완전 귀국한 후에 나타난 작품양상은 새로운  
 건축의 가치추구와 끊임없는 자아발견을  
 위한 번신을 시도한 점 등이다. 그것은  
 감성적인 조형언어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한  
 기술적 혁신과 다양한 패턴의 기하학적  
 입체구성이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특히  
 그는 초기의 소극적인 조형원리를 벗어나서  
 후기에는 사선과 곡선의 복합적인  
 입체구성(원추-바다호텔, 아나아트센터  
 계획안·원통-육군박물관, 외환은행  
 본점계획안, 쇼핑센터, "태양의 집")으로  
 등장한 것이다. 즉 원추, 입방체, 원통, 구

등을 부가적기법에 따라 상호관련 또는  
 형태적으로 공간을 상충시킴으로써 얻어지는  
 내·외부공간의 극적인 효과와 복합적으로  
 서로 상반된 다양한 공간감응을 표출해  
 내고자 의도한 것이다.  
 따라서 선생은 이러한 조형언어와 다양한  
 재료를 폭넓게 구사하므로써 자신감을  
 얻은듯하다. 후기의 작품들은 거의 다  
 이러한 기법에 의한 것들이었다. 선생은  
 이러한 규칙적인 조형언어의 전제하에  
 자신의 자유로운 조형세계의 기틀을 구축해  
 놓았다. 또한 그는 꼬르뫼제 선생처럼  
 천성적으로 비례감에 대하여 천재적인  
 예리한 직관력과 詩性에 넘치는 풍부한  
 감수성이 일생동안 모든 창작활동의 바탕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그는 결코  
 분석적이거나 知的思考보다는 직접체험이  
 그의 의식의 본체를 이루었다고 본다.  
 선생은 서구의 사고방식인 분석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분석이 필요없는  
 느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는 동양적인  
 총체적 사고방식으로 조형언어에 접근하고  
 있다. 또한 그는 그의 건축이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에 처하여 있음에도 변화와  
 성장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기념비적으로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했다.  
 일생동안 그의 창작세계에 일관된 建築觀은  
 건축의 사회성보다는 예술성우위의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였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는  
 한국현대건축사에 선명한 발자취를 남겨  
 놓았다.

예술의 전당 계획안



◆ 金孝一  
 42년 경남생. 원양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서독 KIEL대학과 조형대학 학술연구,  
 김중업건축연구소 근무('67년~'71년),  
 원건축사사무소('72년~'86년), '86년~현재  
 경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중.

# 金重業과 그의 建築作品의 意味

趙仁哲 / 건축환경연구소 廣場  
Jho, In-Choul

## 序

건축가 金重業의 타계는 한국건축계에 여러가지 의미를 던져주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해방이후 한국건축계를 이끌어온 두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金壽根, 金重業은 이제 우리 곁에서 떠나신 것이다. 이러한 상기된 시점에서 다소 성급하고, 소홀하게 건축가 金重業의 건축작품을 해석한다는 자체가 무리일 수 밖에 없는 일이다. 김수근, 김중업 두 거장들의 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차분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글은 이제 두분의 작품에 대한 해석의 차분한 출발로서, 그리고 김중업선생의 타계를 애도하고 그의 한국건축계에 미친 영향을 되새기는 것으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글은 두가지의 기본원칙을 갖고 있다. 첫째, 김중업은 해방이후 “傳統”에 대한 논란이 가장 극심할 때 활동한 건축가로 간주하고, 그의 건축작품을 “韓國性”이라는 테두리속에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성”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김중업의 작품에 대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둘째, 김중업의 건축작품에 대한 해석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글에서는 작품하나를 놓고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김중업의 건축작품들 속에 흐르는 공통적인 성격을 기준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다.

## 1. 김중업의 傳統에 대한 이해

한국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전통논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양세계의 전통논쟁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이러한 독특한 성격을 가진 한국현대건축을 일컬어 소위 버내큘러 아키텍처(Vernacular Architectur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傳統論爭’을 부끄럽거나 구차스럽게 생각하여 피하려고 하지말고 애착을 갖고 그러한 방면으로 열심히 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외국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열병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즉,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식의 ‘전통’과 ‘한국전통’을 혼동하지 말자는 것이다.

아래의 인용문은 김중업이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 비판의 시각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오늘날의 건축상황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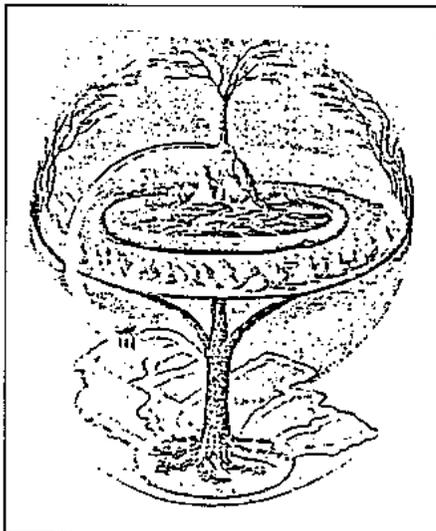
『...Post modernism 을 ism 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fashion 에도 속하지 못하는 하나의 phenomena 일 뿐입니다. fashion 이라면 과거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뿌리가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postmodernism 은 그 뿌리가 명확치 않습니다. 그것은 뿌리없는 풀같이 지나가면서 그쳐질 것같고, 앞으로의 건축사조에 어떤 큰 영향을 던져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 현상은 일부 국한된 사밖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전체적 조류는 아니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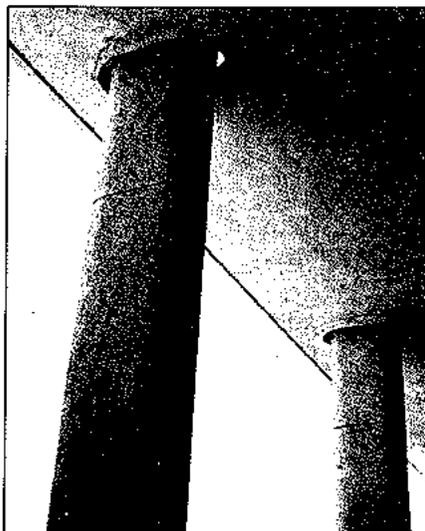
이러한 내용은 그가 건축작품에서 추구하는 韓國性이 포스트모더니즘식의 思考에서 출발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김중업은 바로 한국건축에 있어서의 전통의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본 글에서 보여지는 김중업의 건축작품에서의 韓國性이 모든 건축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추구하는 韓國性은 한국인이기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 것이기에 우리가 아닌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정착시킨 것은

(그림 1)



(그림 2)



(그림 3)



金重業의 건축에 있어서의  
한국성이 세계속의 한국을  
나타내기 위한 독특한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展示效果를 위하여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변화를 도외시하는  
것이거나, 국수주의적 발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나의 건축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지요. 나는 유전학적으로 동양인이며 우랄알타이어족의 한 씨로써 존재하는데, 내가 태어나고 생활했던 한국의 자연과 한국인의 정신이 전적으로 내재하여 표현된 것이라고 봅니다. 나를 나타내는데는 「동양」이라는 것을 들고 나오지 않으면 서양 것과 대립하여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sup>2)</sup>

김중업의 건축에 있어서의 한국성이 세계속의 한국을 나타내기 위한 독특한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展示效果를 위하여 시간적인 흐름에 의한 변화를 도외시하는 것이거나, 국수주의적 발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20세기 후반이란 시간에 생존하는 우리가 전통이란 문제를 다룰 때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류전체의 전통이 곧 우리의 전통과 직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한다는 것은 즉 우리가 전 인류사회에 무엇을 새로이 줄 수 있고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게 과제가 되어야 할 겁니다.』<sup>3)</sup>  
김중업에 있어서 계승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는 사실상 뚜렷한 지역적인 경계를

두지 말고 한국전통문화를 포함해서 전세계의 모든 감동적인 문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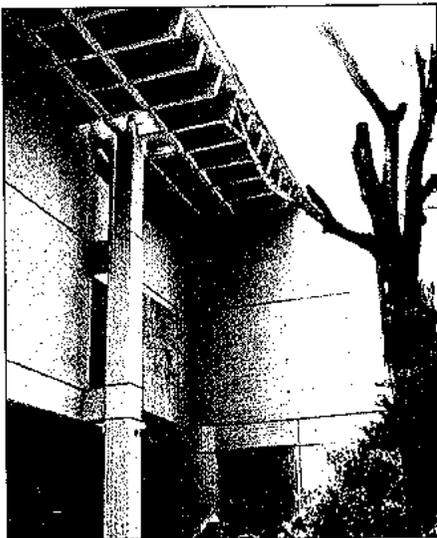
『황해도라든가 경상남도 같은데에 남아있는 돌멘을 보면 그 돌 하나가 굉장히 큼니다. 돌 두개를 고이고 석판을 올려놓은 것인데 그 높이가 사람의 키보다 훨씬 큼니다. 이것은 적어도 몇만년 전의 것입니다..... 또 건축가는 Visionist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망덕사 13층 목탑의 높이가 건축가의 Vision 으로는 정확하게 계량이 가능한 것으로 눈에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기록에만 남아있고 보통사람의 비전으로는 상상이 안될 그 건물이 건축가에게는 뚜렷이 보여야 합니다.』<sup>4)</sup>  
김중업은 인류역사상의 여러시대의 문화들 중에서도 특히 原始文化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표명해 주고 있다. 그는 고대문화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을 현대에 재현하고 싶은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太古의에 이루어 놓은 동굴들, 그속에 슬한 기억들이 새겨진 ‘라스코 동굴 벽화’가 지니는 인간의 뜻은 너무나도 크다. 고구려의 분묘들 속에 우리 조상들의 뜨겁고, 힘차고 멋있는 삶에의 찬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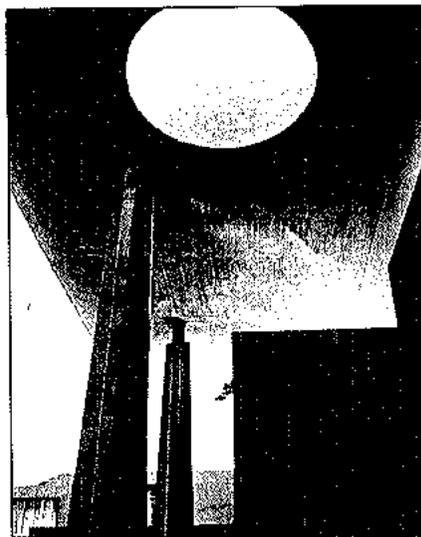
되새겨 봐야 하리라. 크나 작으나 확실적인 무성격의 방들로 에워싸인 현대인들에게 차분히 진실을 위한 삶에의 뜻을 되새길 수 있는 아름다움, 또한 그 자체의 알뜰한 공간들의 되찾음이 시급하다.』<sup>5)</sup>  
건축은 인간이 지표표상에 생존을 강력히 주장한 까마득한 시점으로 부터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들에게 꾸준히 바쳐진 벽찬 감동의 연속이었다. 라스코 동굴속에 그려진 달리고 있는 소들의 벽력있는 이미지에서는, 체적하지는 못한 동굴속의 생활일 망정 의계에 펼쳐지는 낮익은, 그러나 싸워 이겨야 하는 석용동물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생생한 파악이 등근 삼차원의 공간에 찬연히 재현되어 있음을 본다. 그리하여 축적적인 분위기를 돌고어 씨족들에게 넘치는 활력을 줌으로써,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보다 나은 지상에의 찬가였으며, 먼 훗날 이를 바라보는 현대인들까지도 경이로움에 사로 잡힌다... 세계대륙 도처에 인간의 감동을 수놓는 멋진 작품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세워지고 지어져 간다.』<sup>6)</sup>

김중업의 원시문화에 대한 관심을 시간과 공간적인 범위를 좀더 좁혀서 구체화 시킨다면, 김중업의 관심은 한국의 전통민중종교라 할 수 있는 샤머니즘으로 집중된다. 한국의 샤머니즘은 고려시대

(그림 4)



(그림 5)



- (그림 1) 북유럽 우주목 Yggdrasil: 거룩한 기둥은 세계를 떠받쳐주며 하늘과의 지속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한다.
- (그림 2) '68서강대학본관 기둥: 기둥은 슬라브를 뚫고 하늘로 올라간다.
- (그림 3) '66유엔묘지장문 기둥
- (그림 4) '67한국미술관: 기둥(柱)의 빛의 도입은 기둥 윗부분을 가능케 느껴지게 하는데 기여한다.
- (그림 5) '68진해해군공관 기둥: 기둥은 힘찬 기상과 넘치는 흥분력

불교가 독재하는 속에서, 조선시대 유교사회에서도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지속해 왔다.

원시문화에서의 건축행위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다. 건축행위는 인간이 살수 없는 카오스 지역을 코스모스로 변화시키는 작업인 것이며, 초월계와 끊임없는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媒介物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새로운 거주지의 건설과 開創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에 해당한다. 그리고 모든시작은 태초의 시작, 즉 우주가 처음으로 낮의 빛을 본 시각을 반복하는 것이다."<sup>7)</sup> 따라서 건축행위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서 진행된다.

근대건축운동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재료의 출현은 새로운 건축형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건축행위는 더이상 신성한 의식이 아니었으며 단지 '살기위한 기계'를 대량생산하는 공장작업으로 타락해버렸다. 따라서 건축가라는 존재도 신성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편리한 기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자가 되어버렸다. 김중업은 건축가가 기술자가 아니라 문화를 주도해나가는 선구자적인 존재가 되어야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업은 샤머니즘을 단순한 전통종교로서 이해하지 않고 건축가의 창조력을 자극시켜 주는

원동력으로서 이해한다.

『이제까지의 김중업이란 설익은 인간이 해 온 작업은 사인도 부족했고, 인간에게 던져주는 버라이어티도 부족했지만 이제 드라마도 있고, 꿈도 있고, 미스터리도 있는 그런 작품을 할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미스테리어는 샤머니즘인데 그 미스테리어는 대단한거죠. 고구려적인 기백과 무브먼트도 나타내고 싶어요…… 고구려 선은 날카롭고 강철 같으면서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男性的이지요. 우리민족의 핏속에는 그런 남성적인 기백이 있다고 나는 봅니다. 사실 전통이란 디테일 보다 우리의 혼이나 체질과 더 관계가 되는 거지요.<sup>8)</sup>』

샤머니즘이나 한국고대문화에 대한 김중업의 관심이 그의 건축작품에 소화되어 나타날 때, 그것은 신화, 전설, 꿈, 이상 그리고 잃어버린 감동의 회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중업에 있어서의 건축행위는 원시인들의 건축행위와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중업에 있어서의 건축행위는 주어진 時間과 空間上의 坐標를 무시하고 똑같은 건물을 마구 세우는 작업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정해진 時間과 空間上에

人間을 담는 건축행위는 신중하고 신성한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으며, 사실상 여러가지 대안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다. 즉 김중업은 주어진 대지가 지니고 싶은 건축 이외에는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sup>9)</sup> 이러한 그의 주장은 오늘날 건축가의 서비스 정신을 벗어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건축가로서 '샤만의 역할'을 주장하는 그의 건축철학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의 건축작품의 해석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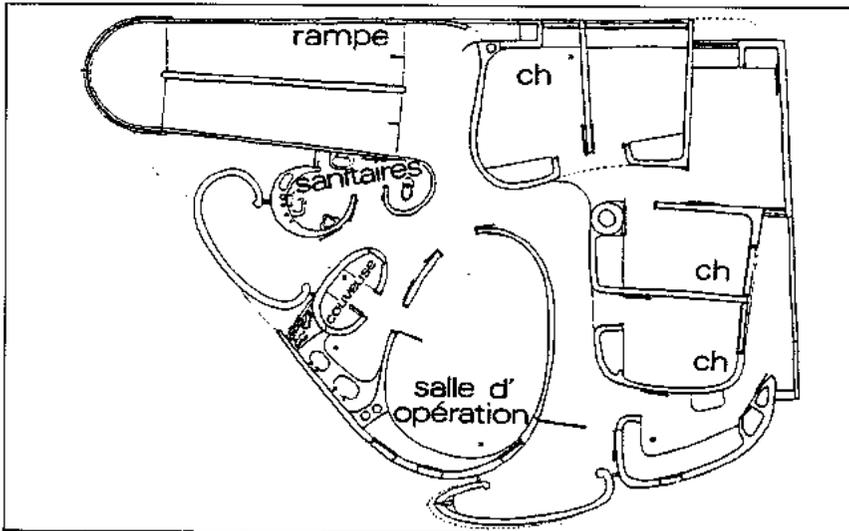
### 金重業 작품의 韓國性

#### 기둥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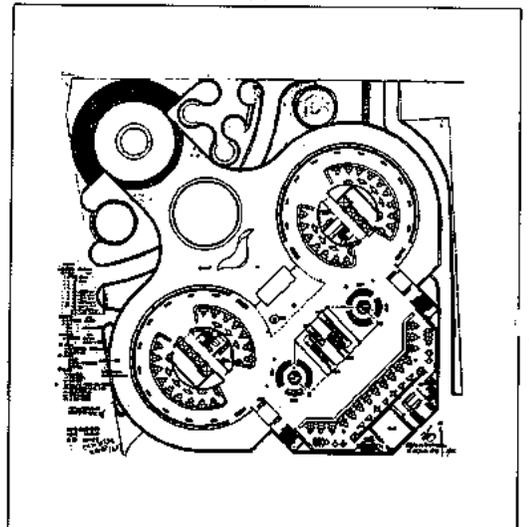
전통적 문화 속에서 "집은 하나의 세계모형 (imago mundi)이다"<sup>10)</sup> 하늘은 튼튼하고 힘있는 중심기둥으로 받쳐지며, 이 중심기둥(그림)을 통하여 인간은 초월계와의 교섭을 지속할 수 있다. 아래의 引用은 기둥의 샤머니즘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기둥의 상징성은 용솨음·통일·집중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용솨음은 봄(春)을 나타내며 남자를 상징한다. 오행으로는 木, 음양으로는 陽作用을 한다. 당간지주도 하나의 기둥이며 솨대, 장승도 넓은 의미로 기둥인 것이다……힘찬기상, 넘치는 용출력,

(그림 6) '65서산부인관: 남성성기 모양의 평면은 샤머니즘적 발상인가?



(그림 7) '74의환은행본점 계획안



샤머니즘이나 한국 고대문화에 대한 金重業의 관심이 그의 건축작품에 소화되어 나타날때, 그것은 신화, 전설, 꿈, 이상 그리고 잃어버린 감동의 회복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이 기둥의 상징이라면 마을의 온갖 잡귀와 인간을 보호해주는 것이 기둥의 역할이라 하겠다."」  
건축이 천상의 재현이라할 때 기둥은 하늘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構造體일뿐만 아니라 하늘과의 지속적인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媒介體이기도 하다. 김중업의 건축작품에서 기둥을 주목해서 본다면 기둥의 공통적인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김중업의 건축작품에서의 기둥들은 샤머니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강대학교 본관(그림2), 유엔모지정문(그림3), 한국미술관(그림4) 그리고 진해해군 공관(그림5)등은 기둥의 '합찬가상, 넘치는 융출력'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다.  
기둥은 음양으로는 陽作用을 하는 것이다. 사실상 선물에 대한 여러연구는 고대인들이 선물을 남성성기로 간주하고 숭배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김중업의 건축작품 속에서 우리는 샤머니즘적 종교관에서 비롯된 평면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러한 예는 서산부인과(그림6)와 외환은행본점계획안(그림7)이다. 두개의 평면이 보여주고 있는 男性性器모양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의도적인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김중업이 보여주는 두개의 작품은

샤머니즘의 男性性器 숭배와 동일한 의미의 線上에서 이해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산부인과와 은행이라는 측면에서 多産 또는 發展을 기원하는 샤머니즘적인 의미가 그 평면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다.  
김중업의 주택작품 중에서 가장 '기둥다운 기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방배동 민씨 주택(그림8)의 경우이다. 이 주택의 단면에서 보여주는 원형모양의 기둥은 김중업의 건축작품에 있어서의 기둥의 의미를 가장 함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의 기둥의 성격이란 하늘을 향해 열린 굴뚝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서 두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 민씨 주택의 원기둥은 엘리아데의 주장과 합치되는 여러조건을 갖고 있는 기둥이다. 그러나 기능주의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그것은 불편한 설치물로 평가될 수 있다. 그 기둥은 거실의 가운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기능주의 건축가의 설계라면 이런 형식의 원기둥을 설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민씨 주택의 원기둥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층 실내 배란다와 지붕부분을 떠받치는 실제적인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 지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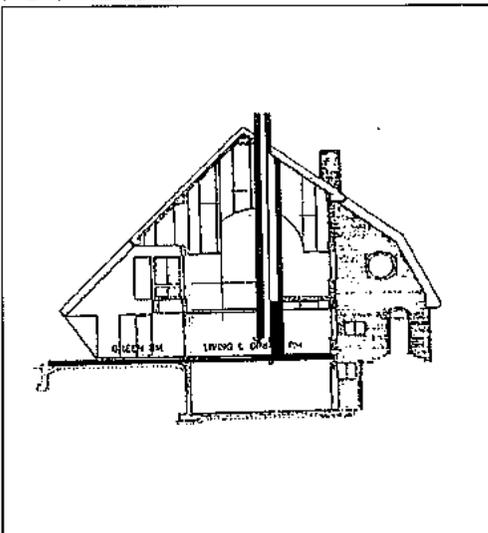
김중업의 건축세계에서 가장 강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을 꼽는다면 기둥이라기 보다는 지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통건축에서 지붕이 갖고 있는 샤머니즘적 의미는 새의 날개이다. "새는 나르는 힘으로 하늘 [天界]과 연결하는 영적인 존재로서 앓는 사람의 병을 기꺼가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만이 흔히 나무나 철편에 새모양을 새겨서 의식 때마다 사용한다."<sup>12</sup>

한국전통건축의 지붕은 새의 날개로서 많이 비유되어 왔다. "지붕이 새의 형상이라면 이는 살아 움직이는 듯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이 꾸며야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통지붕이 현대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는 성냥갑 모양의 건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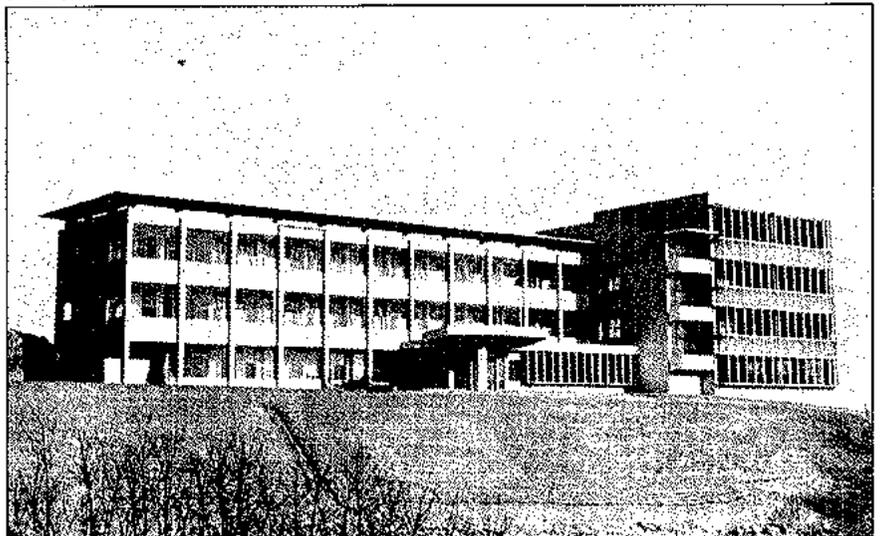
지붕부분의 윤곽선은 하늘을 배경으로한 '그림'이 된다. 국제주의 양식의 거센 물결 속에서 이러한 '그림'들이 만들어 주었던 지역마다 나라마다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는 사라지게 되었다.

『건축에 있어서 지붕이 지니는 뜻은 너무나도 크다. 땅과 하늘 사이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그림 8) '79방배동 민씨 주택



(그림 9) '58서강대학본관



자연인 건축(여기서는 참뜻의 건축에 국한한다.) 이 부드럽게 때로는 모질게 하늘과의 부단한 접촉을 꾀한다. 옛부터 동양에 있어서 스카이라인을 이룬 지붕들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유연했는가…… 웅기중기 모여 앉아 정답을 나누고 있는 마을이 갖는 휴면을 되찾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지붕이 갖고있는 품격있고 단아하면서도 짐을 전통속에 오래도록 순화해 내려온 석탑, 부도, 정자들의 현대적인 처리이어야 한다. 우리의 하늘이 그 얼마나 멋이 있기에 그에 바치는 뜨거운 찬가로서 지붕은 창조되고 또한 살벌해져가는 소위 현대주택에 대한 강한 항의로서 탄생해야 한다.”<sup>14</sup>

김중업은 전통건축이 갖고 있는 지붕의 의미를 현대건축에 심고자 노력한 건축가이다. 즉 김중업은 한국전통건축에서의 지붕의 ‘경쾌한 느낌’을 현대건축에 도입함으로써 성공시킨 건축가이다. 그의 건축에서 날아갈듯한 지붕의 역동성은 서강대학본관(그림9)에서 시작된다. 서강대학본관의 경우는 “르 꼬르뷔제에게서 한 발자국도 도망할 수 없었던, 꼬르뷔제의 언어를 직설적으로 읊진 것이라고 자인하는 작품이다.”<sup>15</sup>

사실상 서강대학본관은 김중업의 건축작품세계에 있어서 하나의 실험적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대사관(그림10)에서 김중업은 한국전통건축의 지붕의 경쾌함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대사관에 대한 작가자신의 의도와 평가는 아래의 글에서 잘 나타나 있다.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는 역시 지붕선의 처리에 상당한 신경을 썼죠. 한국전통건축의 특색중 하나는, 무거운 중국의 지붕과는 달리 무게를 느낄 수 없는 지붕에서도 찾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붕이 사뿐히 하늘을 떠받쳐 있다」라는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겁니다.<sup>16</sup>』  
우리나라 지붕처럼 사뿐히 올려져 있는 지붕도 없을 겁니다. 중국의 지붕은 무겁고, 일본의 지붕은 거의 직선에 가깝지만, 한국의 지붕처럼 사뿐히 하늘에 치켜져 울린다는 아이디어에서 [프랑스대사관의 지붕이] 계획된 것이죠……밤에는 조명이 지붕만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지붕만 비쳐 놓으니까 무엇이 떠있는 것 같고…… 말하자면 날아가는 모포라고 말하는데 그런 기분을 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sup>17</sup>  
김중업은 60년대 초반에 프랑스대사관에서 지붕의 경쾌함을 재현하는데 성공한 후로

제주대학본관(그림11), 한국미술관(그림12) 그리고 해군공관 등에서도 동일한 건축어휘를 보여주게 된다.

김중업의 건축작품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지붕들은 사실상 ‘지붕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평가될 수 없다. 그것은 기능주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단지 사치스러운 덧붙임으로서 평가될 것이다. 삼각형 모양의 박공면을 가진 전통건축의 지붕은 오랫동안 눈, 비, 바람 그리고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성냥곽 모양의 건물들이 유행하면서 지붕은 평평한 슬래브로 대체 되었다.

김중업의 건축작품에서 지붕의 사머니즘적 의미는 초기에는 새의 날개를 나타내는 것으로 국한되었으나 후기에 들어서면서 여러가지 형상으로 변화무쌍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그가 주장하는 ‘건축작품의 一回性’과도 일치 하는 것이다.

### 김중업의 建築哲學과 그의 작품

사실상 김중업은 자신의 건축을 지배하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건축가는 아니다. 그러나 그가 발표는 하지 않았더라도 그에게 자신의 건축전반을 지배했던 사상 또는 건축철학이 있었다는

(그림10) '61프랑스대사관



(그림12) '67한국미술관



김중업의 건축철학과 그의  
건축작품을 해석하면서 중요하게  
지적해야할 사항은 김중업의  
건축작품이 '一回性'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一貫性'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정을 하는 것은 별로 무리가 아니다. 그의 글이나 담화의 내용에서 나타난 원시문화나 한국샤머니즘에 대한 관심은 그의 건축작품을 해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내용은 현대도시의 삭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시인의 문화 속에서 보이는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에게 망각된 신화, 전설 그리고 꿈의 회복은 원시문화의 '傳統繼承'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김중업은 자신의 세계관, 우주관으로 원시문화를 해석하여, 미래지향적 Vision으로 그것을 현실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업의 그러한 작업의 목적은 현대인들에게 원초적인 감동을 되돌려 주려는데 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원시문화에 대한 김중업의 관심을 좀더 구체적으로 좁혀 본다면, 그의 관심은 샤머니즘으로 집약된다. 샤머니즘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서산부인과와 외환은행본점 계획안을 들 수 있다. 그러한 평면형식이 갖고있는 샤머니즘적인 성격이 '기둥'으로 전달되게 되면 그 기둥은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같은 의미로써 '지붕'을 해석하면, 김중업의 건축작품에서 보여지는 일련의 '지붕'도 '새의 날개'의 역할을 충실히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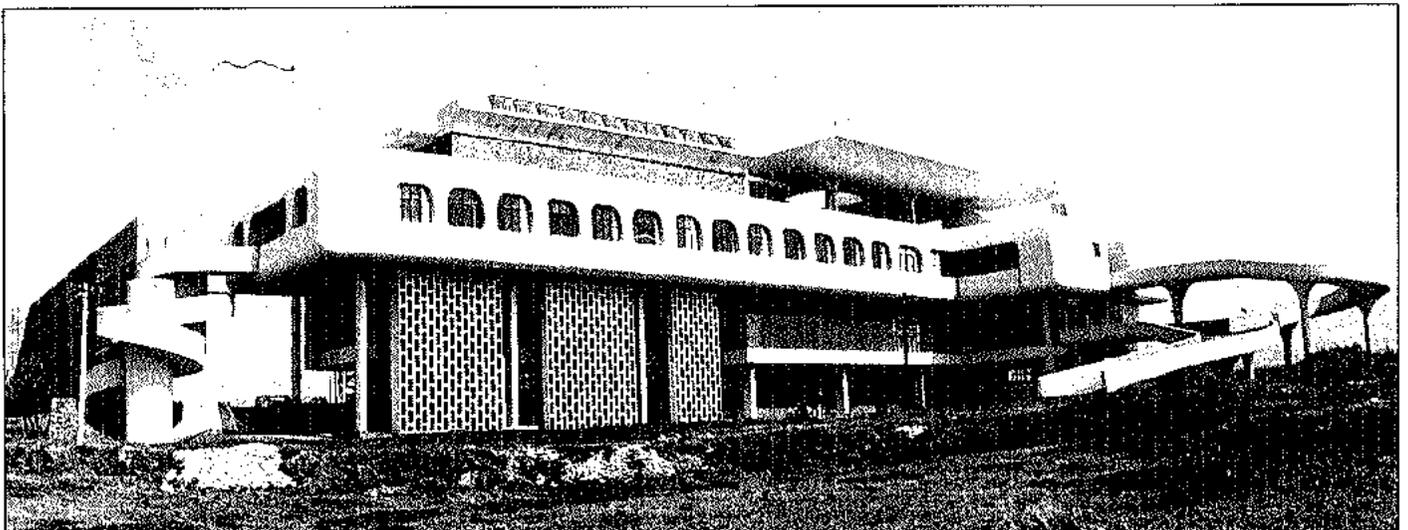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중업의 건축철학과 그의 건축작품을 해석하면서 중요하게 지적해야할 사항은 김중업의 건축작품이 '一回性'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일 뿐만아니라 전체적인 '一貫性'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김중업의 건축에서 '기둥'과 '지붕'이 던져주는 느낌은 '날카롭고 강철 같으면서도 부드러운'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중업은 전통문화에 대한 자신의 이해와 현실적 표현이 상당히 일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한국전통건축이 갖고있는 韓國性이라는 것은 지붕 또는 기둥으로 모두 대변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아니라, 한국전통건축의 지붕, 기둥의 성격도 김중업이 자신의 건축에서 부여하고 있는 성격인 것으로만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그러나 전통계승의 출발이라는 관점에서, 김중업은 일단 '기둥'과 '지붕'의 韓國性 표현에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註

- 1) 承孝相, 金重業과 그의 現代的 古典主義, 「空間」, 서울 空間社 224호 1986. 3. P32
- 2) 위의 글 P35
- 3) 金重業外, “建築傳統을 繼承하는 길은?” 「空間」1967. 1. P 6

- 4) 위의 글 P. 13
- 5) 金重業, “실수록 建築에 대한 잡념만 강해진다” 「空間」, 서울: 空間社, 1979. 3, P32
- 6) 金重業, “建築創作의 活性化와 建築家의 使命 - 建築創作活動의 現實”, 「建築士」 서울: 大韓建築士協會 1976. 6, P31
- 7)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聖과 俗)」, 李東夏(譯), 서울: 학민사 1983, P45
- 8) 金恒 “7년만에 귀국한 金重業씨에게 듣는다 - 建築家의 프라이드 社會的 意味”, 「空間」, 서울: 空間社, 1979. 3. P43
- 9) 김중업과의 대담: 1987. 11. 10. 김중업 건축연구소 응접실
- 10) Eliade (1983), 앞의 책, P42
- 11) 이왕기, “韓國傳統建築의 샤머니즘적 象徵性”, 「목원건축」, 제2호 충남: 목원대학 건축학과, 1985, P12
- 12) 이윤조, 「한국의 선사문화 - 그 분석 연구」, 서울 探求堂, 1981, P 12 239
- 13) 이왕기, 앞의 책, P12
- 14) 김중업, “실수록 建築에 대한 잡념만 강해진다”, 「空間」, 서울: 空間社, 1979. 3, P. 31~32
- 15) 承孝相, “建築家 金重業”, 「空間」, 서울: 空間社, 1986. 3, P. 35
- 16) 위의 책 P. 35
- 17) 김중업, “건축가 金重業과 함께”, 「건축가」, 서울: 한국건축가협회, 1984, 12, P.21~22

(그림11) '64제주대학본관: 프랑 스타대사관에서의 지붕의 성공은 이후의 작품에서도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 金重業의 건축형태에 대한 原型論的 해석

김기환 / 부산공업대학 건축과 교수

Kim, Kee-Whan

## 1. 낭만주의 건축가로서의 발자취

故 김중업선생은 근대 한국건축의 대표적 낭만주의 건축가이다. 김중업선생이 근대 한국건축계에 미친 영향력과 공헌한 바는 여러 각도에서 평가되고, 정리되리라 믿고 또 평가·정리 되어야 한다. 그만큼 이제 故 김중업선생은 私人이 아니라 우리 건축계의 역사를 장식하는 公人이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건축계가 서구에서 정립된 '건축'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지 길게는 80년 짧게는 50년이라는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師表로 삼을 수 있는 건축가의 稀少性이다. 그의 건축관이나 건축적 행로가 올바른 판단과 방향성을 가졌는 가는 둘째로 하더라도 그러한 대상이 극히 微微하다는 것 만큼 우리의 건축적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일은 없었다. 그 微微한 존재 중에 김중업선생은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작품과 건축관 그리고 건축가로서의 생애를 갖추고 있는 가까운 師表 중에 한분이다. 지금 이 글을 정리하면서도 몇안되는 우리의 역사적 史料라는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故 김중업선생의 평가는 몇가지 각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선 그의 작품이 가지는 예술적 우월성이다. 그다음,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작가정신이다. 그다음, 그의 개개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건축적 해석방법과 표현의 문제 등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글에서는 이러한 일반론적 평가보다는, 故김중업선생과 그의 작품을 통해, 한작가와 작가에 의해 표현되는 건축형태 언어의 상관성을 비교 해석해 봄으로서 작가의 의식세계가 건축작품에 表象되는 양상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리를 통해 건축형태언어의 본질적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이 이 글의 의외라 생각한다.

한건축가가 사용하고 있는 건축형태언어는 그의 내면세계의 표상이다. 따라서 작가에 대한 이해와 평가는 그의 작품에 나타난 건축형태언어를 정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 작가는 무의식적으로 유사한 건축언어를

사용하게되고, 그러한 작품이 모여서 類型(Typology)을 이루게된다. 그러나 한건축가를 한부류의 유형으로 규정 짓는 일은 무척 위험한일이 될 수있다. 왜냐하면 작가의 가치관이나 상황이 변해 감에 따라 비록 유사한 건축언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의 작품이 향하는 목적의식이 틀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몇개의 작품이나 일정한 기간이 건축언어는 類型化시킬수 있으나, 생애를 걸쳐 살펴볼 수는 없다. 건축가의 일생의 작품을 살펴 보는 데는, 그의 내면세계가 향했던 건축의 추구성의 原因과 그에 따라 나타난 건축형태언어의 原形(Archetype)과의 상관관계를 해석해 보는 것이 유효한 방법이라 생각이 든다. 김중업선생도 短命한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40년에 이르는 건축여정이 있다. 그리고 생애가 내·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뚜렷히 分期가 되며, 그의 낭만적 건축관과 근본적 건축형태관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分期별로 형태언어의 原形은 달리고 있다. 본 글에서는 그의 건축형태의 原形을 추적하여 그의 건축형태의 근원을 찾아 보고자 한다.

김중업선생은 우리나라의 근대이후 건축가들 중 특별히 곡선·원등의 낭만적형태언어를 많이 사용한 건축가이다. 많은 수의 건축가들이 국제주의에 충격적인 영향을 받아 경직된 형태를 사용하던 때에 자유스러운 형태로 우리건축의 유전되는 속성을 제거하고 자율적건축을 탄생시킨 정신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작가다. 따라서 그는 건축가라는 호칭보다는 예술가라는 호칭이 더 가볍게 느껴지고 있다. 그의 낭만적형태언어는 예술적 자유에서 기인이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 原形은 달리고 있다. 그의 건축형태의 原形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유형이 있다. 첫째, 기하학적 곡선과 기하학적 형태가 이루는 자유스러운 평면, 입면구성이다. 두번째, 한국적인 지붕선과 기둥선등에서 유추된 곡선을 사용한 전통적 형태미의 추구이다. 세번째, 유난히 圓을 강조한 형태들이다. 네번째, 국제주의 양식에서 유추된 티끌하나 없는 순수추상형태들이다. 국제주의의 유형에 속하는 건축물로는 3·1빌딩,

서강대학교본관, 울지로 재개발 16·17공구 완공작품(계획안은 성격이 틀림)등을 들 수 있다. 이 네번째 유형을 제외한 세가지의 유형은 낭만적 형태라는데에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국제주의건축의 영향을 가진 네번째 유형을 제외한 세가지의 유형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의 原形을 정리하고자 한다.

## 2. 김중업의 작품에 나타난 형태언어의 原形

II-1. 자유로운 기하학적 곡선과 형태  
1956년 김중업선생이 르 꼬르뷔제에게 사사를 받고 귀국한 해에 제작된 필그림 홀(Pilgrim Hall, 계획안)에 구성된 건축물들과 정원은 모두 부연(浮蓮)하고 있다.(그림1)중심에 자리잡은 병어리 장갑모양의 연못을 중심으로 강한 운동감을 보이고 있다. 사무동건물의 1층 부분은 삐룻띠(Piloti)로 구획된 속에서 자유로운 곡선으로 칸버울 이루고 있다. 부속동의 계단과 화장실은 무모할만큼의 자율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裨棟의 건물을 연결시키는 연결다리 연못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갖고있는 상식적 형태와는 다른 삼각형에 유사한 모습을 하고있다. 이렇듯 약간 삐뚤로 배치한 건물군, 이에 대응하는 자유곡선, 유희성이 조화된 작품이다.

그가 망명생활 후에 귀국하여 제시한 바다호텔 계획안을 보면 이러한 유희성을 보다 확연히 느낄 수가 있다. 전체평면은 원으로 원추형의 형태 속에 빈틈없이 깎겨져진 정밀한 호텔계획안이다. 그런데 바닥평면(Deck Plan)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아는 듯한 구릉들이 자유스럽게 엉켜있다.(그림2) 바닥평면만을 보면 원형의 선체는 액자이자 배경이고 주인공들은 바다에서 튀어켜 유희하는 아동들의 추상화로 오인되기가 쉬운 그림과도 같다. 그의 이러한 평면의 유희성은 건축도면이 가지는 폐감을 느끼게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유곡선·자유형태는 다분히 르 꼬르뷔제로 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그림3)주한 프랑스 대사관

보인다. 르 꼬르뷔제의 순수주의(Purism)에서 나타나는 단위형태의 독립성과 형태들간의 운동감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병어리장갑을 닮은 형태는 두사람중 누구의 스캐치인지 모를 정도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原形은 르 꼬르뷔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예술적 자율성에서 기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한국전통건축에서 유래된 전통적 곡선  
김중업선생의 대표작은 1점만 선정하라면 아마도 주한 프랑스 대사관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건축가 김중업을 탄생시켰고 한국건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압권은 지붕형태에 있다. 영빈관과 대사관의 지붕은 그 곡선이 한국지붕의 곡선을 재현시켰다는 점이 한국의 전통적 형태가 현대건축에 재현 가능하다는 용기를 갖도록 해준 좋은 예라는 점이 높이 평가될 만하다. 대사관의 지붕선은 작가의 말 대로 한국적 선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다.  
1966년에 세워진 유엔묘지 정문은 아주 작은 작품이지만 그 역사적 가치성은 크다. (그림4) 정면·후면 각각 4개의 열주와 지붕만으로 이루어진 문이다. 이 작품에 사용된 형태언어인 곡선은 한국의 기둥과 공포,

추녀선과 지붕선을 콘크리트의 가소성을 이용해 형상화시킨 좋은 예이다. 열주의 곡선은 전통기둥의 배흘림을 재현시킨 것인데 그 곡선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은 것이 작가의 역량을 새삼 인식케하는 작품이다. 작가 스스로 주열, 주두, 추녀, 물받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한국적 형태의 특징을 곡선으로 보고 그를 형태화시키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중업선생 특유의 곡선들은 그 형태의 原形을 한국적 전통곡선에 두고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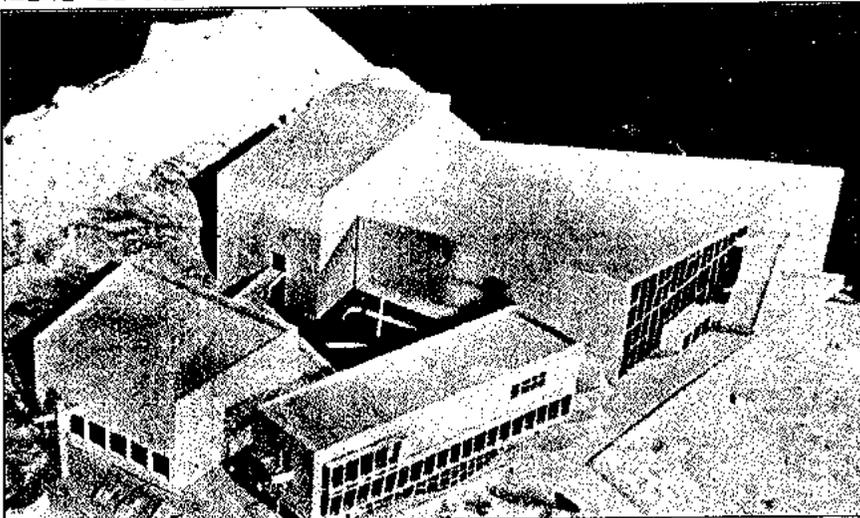
3. 구심성을 지닌 圓  
육군박물관(1981)은 건물의 성격 자체가 기념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기념성을 해석한 김중업 선생의 형태언어 역시 특이하다. (그림5)삐로띠로 둘러 쌓여진 중정과 그 상부에 형성된 원통, 그리고 중앙홀 바닥 장식으로 상징된 원주에 쌓여진 벽, 이 두 개념 사이를 강한引力(Spanung)으로 묶어 놓은 건축물이다. 중정은 삐로띠로 받친 원통으로 외곽이 둘러 쌓여져 있지만, 그 원통의 내부에는 또다시 열주가 원호를 그리며 나열되어 있어 구심성을 더해 주고 있다. 김중업선생 자신의 설명으로도 별이 가지는 완전성과 구심성을 주된 형태언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다.  
아나아트센터(1983)의 각층의 중심에도 육군박물관과 같은 형상의 열주가 원을 그리고 나타난다. 2층은 용도가 식당이고 3층은 세미나실이며 4층은 사무실인데도 평면이 원으로 되어있다. 계단실, 준비실, 주방등의 보조공간들은 원주위에 부착되어 있다. 건물의 주된 기능을 예술센터로 하면서 자율성 보다는 강한 응집력을 보여주는 형태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가 초창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던 자유곡선, 부정형 형태, 운동감등의 예술적 자율성이 감퇴되고 응집력, 구심성, 구속성 등이 강렬하게 나타난 점이 형태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위에서 예를 든 육군박물관이나 아나아트센터 등의 작품은 강한 원이 주조를 이루는 작품들이다. 이러한 원은 낭만적인 원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모자라는 무엇이 있다. 오히려 강한 중심으로의 응집력으로 인해 작가의 무엇인가에 향하는 강한 집념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형태언어의 原形은 강한 구심성의 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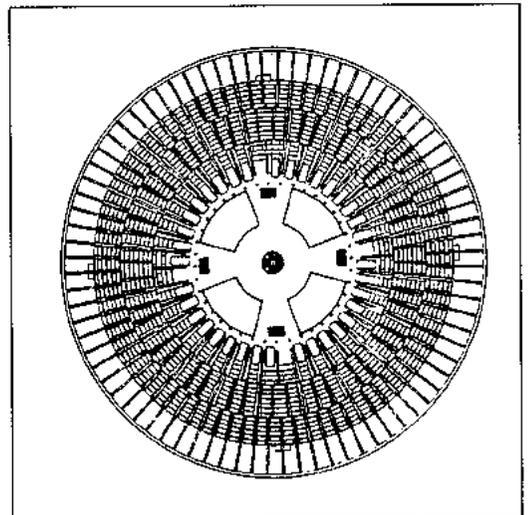
### 3. 年代期로 본 김중업의 형태언어의 의미

위에서는 김중업선생의 작품에 나타난

(그림1)플그림을 계획안



(그림2)바다호텔 계획안 바닥평면



형태언어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한 原形을 찾고자 하였는데, 본래 의미에서의 原形은 단순한 형태 뿐만이 아니라 형태가 지니는 의미나 상징이 포함되어 있다. 형태 고유의 객관적 의미가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은 어려울지 모르나 작가의 주관성에 의한 의미는 그의 전체 작품에 공통적으로 흐르며 마련이다. 김종업선생의 형태언어도 위에서 지적한 몇가지의 原形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작품을 연대기로 구분하여 형태언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의 의미를 쉽게 살필 수가 있다. 별도로 만들어진 표를 보게 되면, 김종업선생의 형태언어의 原形的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다. 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우선 서론부에서 거론된 네번째 부류의 작품인 서강대학교본관, 3.1빌딩, 울지로 재개발 완공작품 등은 제외하였다. 그외의 대표작품 24개를 선정하여 연대에 따라 분류하였다. 이때 작가의 작품의도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기 위하여 완공된 작품이라 하더라도 작가의 의도가 변형된 작품은 계획안을 기준으로 하고 제작연도도 계획안의 완성연도로 하였다. 선정된 작품을 대상으로 주로 사용된 건축형태언어를 세부류, 즉 자유곡선, 한국전통곡선, 구심성의 원과, 각각의 형태언어를 절충하여 사용한 세 경우

(그림4) U.N 묘지정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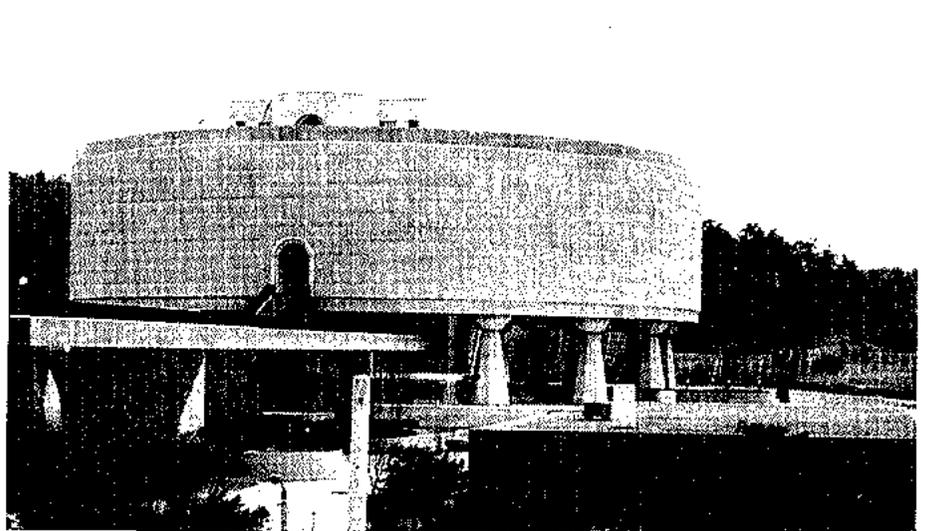
즉 자유곡선과 한국전통곡선을 공히 사용한 경우 한국전통곡선과 구심성의 원을 사용한 경우 구심성의 원과 자유곡선을 사용한 경우 등의 여섯가지의 경우로 구별하여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유형을 분리함으로써 형태언어의 原形에 대한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 표외에 그의 신상에 나타났던 사실들을 미루어 해석한 결과 그의 형태언어는 커다랗게 세계단의 시기로 구별이 되고 있다. 첫번째 시기가 르 꼬르뷔지에로 부터 교육을 받고 귀국한 후 자유로운 예술정신을 불태우던 시기이다. 두번째 시기는 르 꼬르뷔제로 부터 독립하여 한국적 전통성을 추구하던 시기이다. 세번째로는 강제적인 망명후 나타난 강간의지의 원형이 나타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작가의 외적요인과 내적갈등을 연대별로 살펴보았다. (표 참조)

#### 1. 자유정신-자유곡선(1956~1965)

약 10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르 꼬르뷔제로 부터 받은 예술적 자유정신을 국내에서 마음껏 불사르던 시기이다. 이 당시 김종업선생의 나이 35세에서 40대 중반에 이르는 정열적인 기간이었다. 서강대학교 본관(1958)에 대한 회상에서 그는 '아직도 르 꼬르뷔제의 체취에 젖어 그의 영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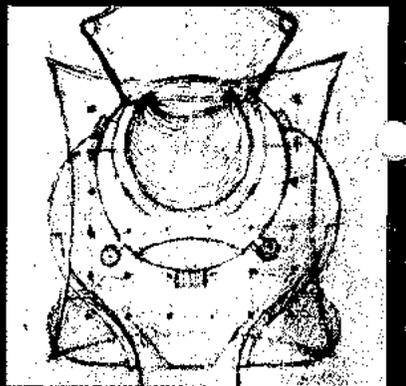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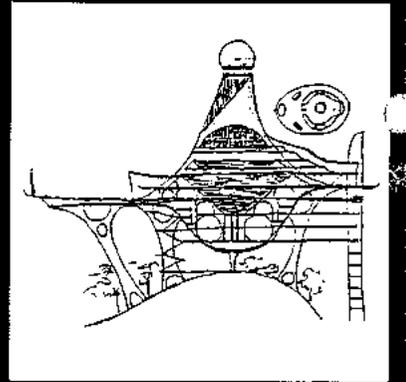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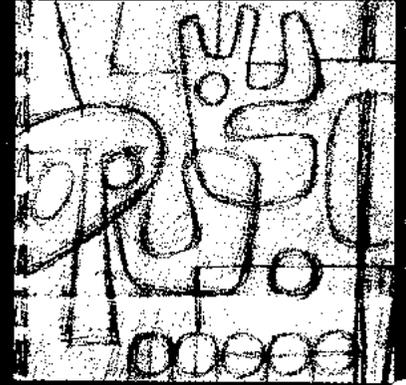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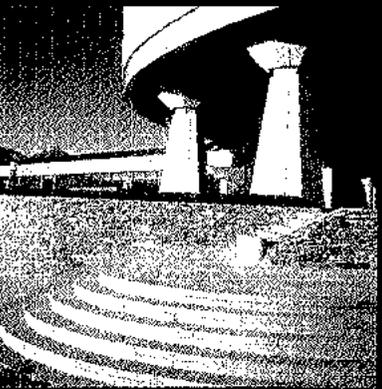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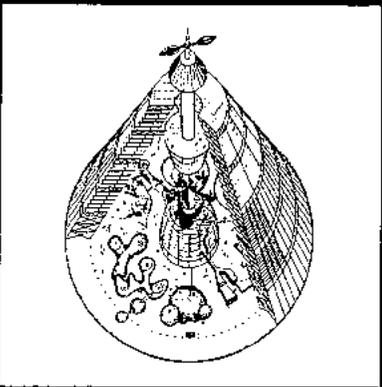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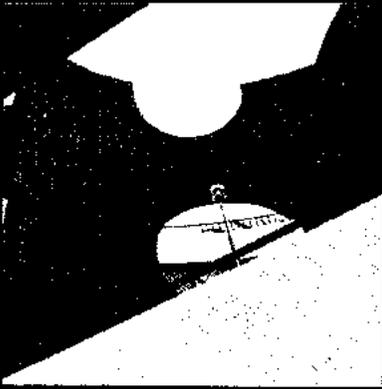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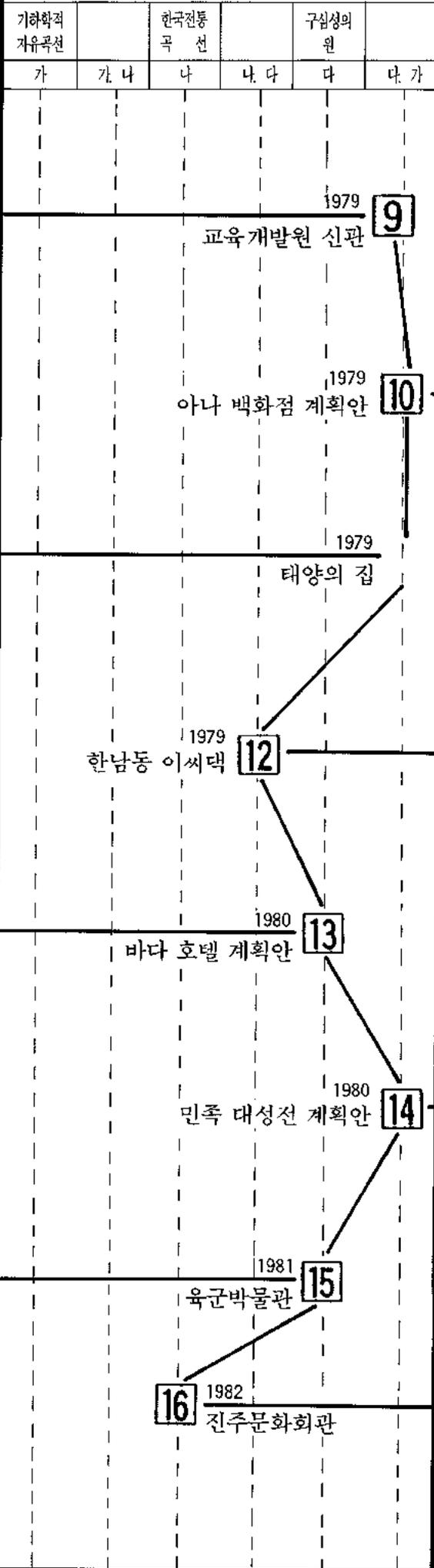
(그림5) 육군박물관



하루바빠 빠져나와 혼자 힘으로 견고 싶어하던 처절한 시기'라고 고백하고 있듯이, 르 꼬르뷔지에의 건축언어가 재현되던 기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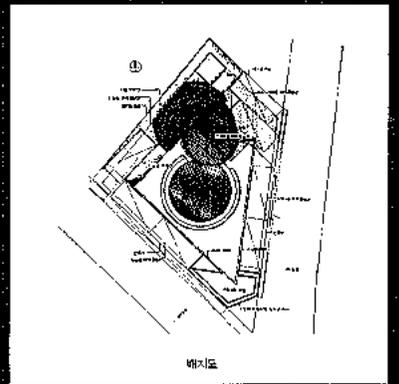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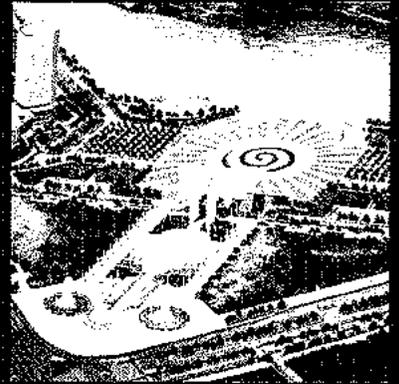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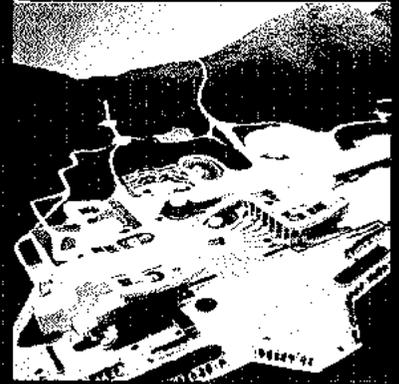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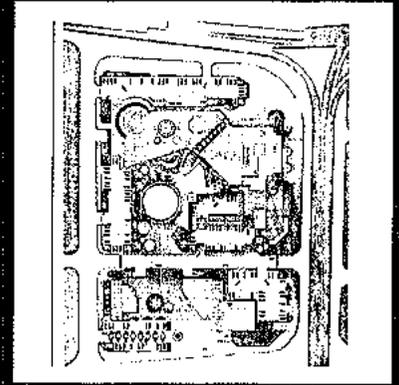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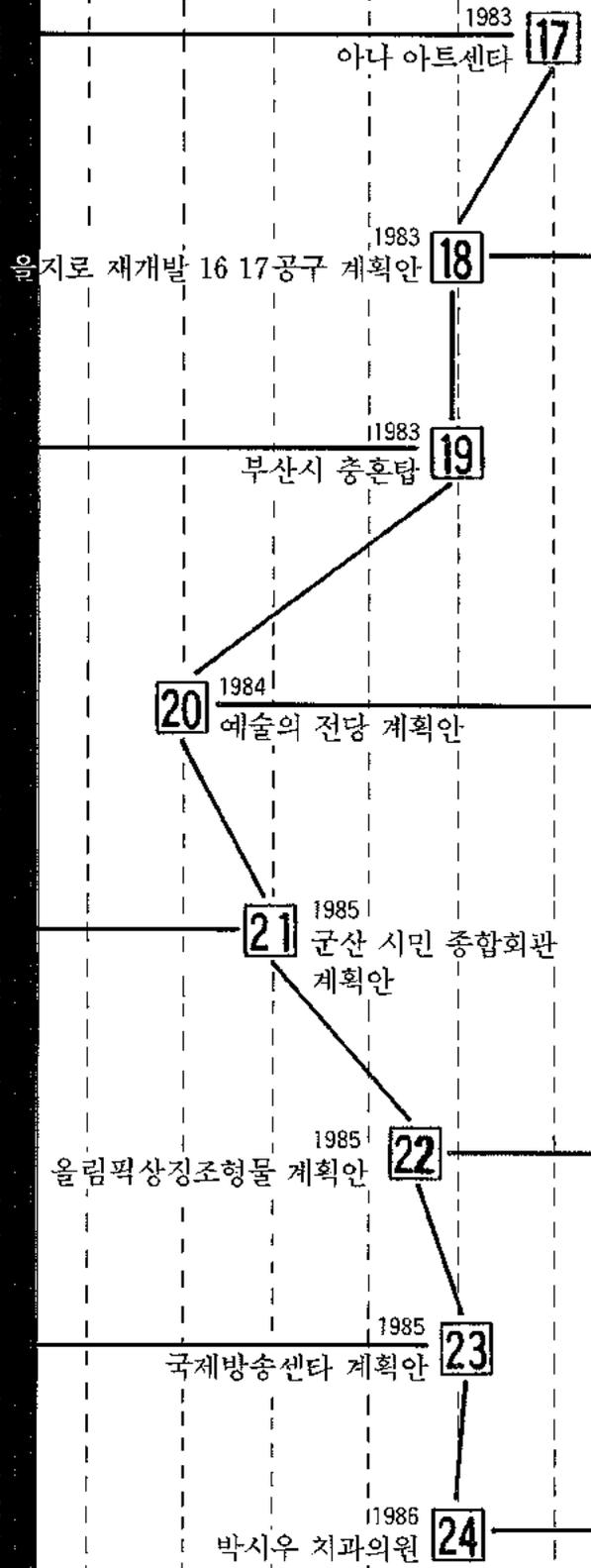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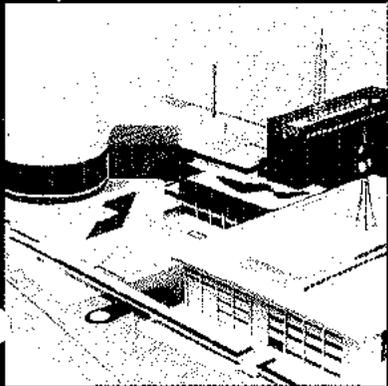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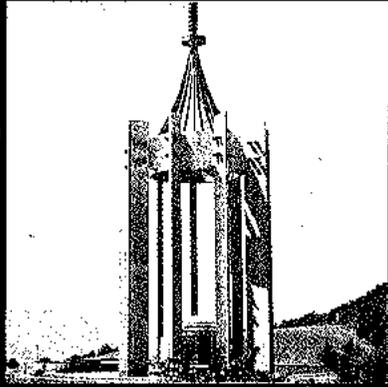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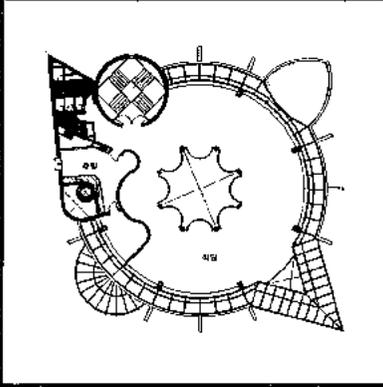
앞서 살펴본 펠그림 홀 계획안의 성격이 부분적으로 재현된 것이 서강대학교 본관이였다. 굴뚝부분, 옥외계단부분, 관동된 기둥, 창호에 내어던 루바등의 형태언어가 나타나고 있다. 서강대학교는 197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미스 반 데르 로에의 성격이 강했던 미국식 교육을 받은 김정수선생의 작품인 학생회관등과 르 꼬르뷔지에의 성격이 강했던 프랑수아 교육을 받은 김종업선생의 본관, 단계 캔조의 성격이 강했던 일본식 교육을 받은 김수근선생의 강당 등 우리의 건축사를 진열해 놓은 좋은 표본이었다. 제주대학본관(1964)은 콘크리트의 가소성과 자유분방한 성격이 미래지향적으로 나타난 작품이다. 진입부의 경사로, 유선형의 본체, 자유로운 곡선등이 자유분방하던 당시의 김종업선생을 대변해 주는 건물로 기하학적 곡선들의 조합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1964년이라면 1956년 C.I.A.M. 이 붕괴된 후 세계적으로 건축계에서 조형에 대한 욕망이 분출되던 시기인 만큼 김종업선생은 세계적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표본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기하학적 자유곡선		한국전통 곡 선		구심성의 원	
가	가 나	나	나 다	다	다 가

김중업의 작품에 나타난 형태언어의 原形의 흐름



65년에 설계한 서산부인과 역시 자유로운 곡선이 나타난 독특한 작품이다. (그림6) 필자는 두가지 점에서 감탄을 하는데, 첫째 김중업선생의 자유로운 정신과 자유로운 곡선의 능숙한 사용이나 또한가지는 건축주에 대한 설득력이다. 모든 가구, 씽크대등을 새로이 제작하여야 하는데도 건축주가 승인을 하였다든 점에서 역시 건축가로서의 자질을 읽을 수 있다고 본다. 젊고 성실한 예술정신이 밑바탕이 되던 시기이다.

### 2 한국적 전통의 추구(1966~)

주한 블란서 대사관은 60년대 건립되었으나, 이 작품에서 나타난 지붕선과 같은 한국전통곡선은 유엔묘지정문(1960) 이후부터 작품의 주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엔묘지정문을 회상하며 '한국적이라는 명제를 내세우고 조상들이 남긴 낱말들을 주어 모았자 오히려 우리의 전통을 육보이는 일이 된다. ....이소품은.....잃어버린 고향을 되찾으려는 벽찬 작업의 소산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67년에 제작된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도 한국건축의 부연을 형상화한 것이 지극히 한국적이다. 작가도 본인은 이탈리아 전통 고전미를 현대화 하려고 애쓴 작품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탈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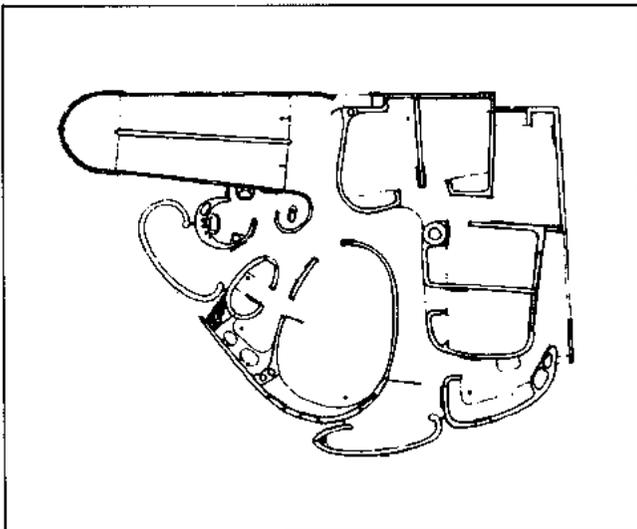
정부로부터 무척 한국적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한다. (그림7) 전해해군화관(1968)을 설계하면서도 건물 중심부의 한국지붕을 형상화 시켜서 울려놓은 모습이 한국적인 형태언어를 사용함에 서서히 익숙해 가는 시기이다. 김중업의 한국전통의 추구는 1971년 강제출국으로 당분간은 맥락을 그치고 있다. 강제출국은 그의 정신세계와 작품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것 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1979년 귀국후 한남동 이씨주택등에서 서서히 나타나다가 1982년 이후 각지방에서 건립되기 시작한 문화회관의 현상설계를 중심으로 한국적인 지붕, 기둥, 곡선형의 평면등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진주문화회관, 군산시민회관, 부산문화회관 계획안등에서 김중업선생은 초기 작품인 블란서 대사관, 유엔묘지 정문등에서 사용된 형태어휘를 다시 사용하나, 작품의 순수성은 오히려 감퇴되어 있는 듯 하다. 이러한 시기에 나타난 한국전통곡선의 사용은 그 의미가 한국전통의 추구및 전통성을 계승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 3. 圖에 대한 애착(1974~)

김중업선생의 작품에서 원이 보조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주종을 이루기 시작한 것은

1974년 외환은행 본점 계획안(1974)이후이다. 앞서 말한 대로 50살을 바라보며 당한 강제 출국은 그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30세 전후 르 꼬르뷔제를 찾아 가던 시기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귀향을 꿈에 그리며 외국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이러한 시기에 작품을 펼칠 무대에 대한 강한 갈증, 완숙을 향하는 건축가의 失郷에 대한 두려움 등이 서서히 작품에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욕구의 표상은 원으로 나타났다. 원형의 상징과 의미는 강한 구심성과 완숙과 완벽성을 의미한다. 김중업선생은 귀소본능에 대한 보상심리로, 완숙과 완벽에 대한 서두름에 대한 욕구로, 갑자기 원형을 주된 건축형태언어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외환은행 본점 계획안만 하더라도 프랑스에서 기본안을 설계하여 우수한 작품이다. 이국에서 얼마나 자기의 땅에 작품을 세우고 싶었겠는가. 이 작품 말고도 1971년에서 1978년에 이르는 작품은 모두 원형 평면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1979년 9년만의 귀국후 그는 밀렸던 작품을 해치우겠다는 듯한 열정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이후의 작품은 김중업선생이 이때까지 사용한 모든 건축형태어휘가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그림6)서산부인과 2층 평면도



(그림7)주한이탈리아 대사관



선생은 부산시 충혼탑에서 나타난 대로, 그 정신세계의 기본을 自我完成과 成熟에 이르는 圓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예술 정신의 自由曲線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궁극적인 귀착점은 맨위에 올려놓은 탑과 같이 한국전통에 두고 있다.

시기이다. 그러나 이후의 작품도 형태언어를 분류하면 원형과 기타 언어 즉, 자유곡선이나 전통곡선이 혼합되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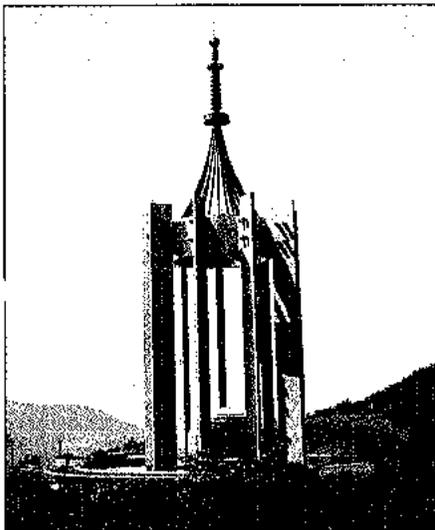
원형을 주제로 한 작품은 귀국초기 아나백화점, 바다호텔계획안, 육군박물관, 을지로 재개발 계획안, 부산시 충혼탑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형과 자유곡선이 혼합된 작품은 태양의 집, 민족대성전 계획안, 아나아트센터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원을 주제로 하고 전통곡선을 혼용한 작품으로는 한남동이씨택, 진주문회회관, 군산시민회관등이 있다. 그외에 서론부에서 네번째로 분류한 장방형 조형과 원이 조합된 형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교육개발원 신관, 국제방송센터, 박시우 치과의원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79년 귀국 후 그의 작품은 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축언어를 사용하는데, 안정되어 성숙으로 가고자 하는 노력으로 해석 가능하다. 79년 귀국 때 김중업선생은 58세 곧이어 60대의 노건축가(?)로 욕망을 불태운 것이다.

#### 4. 완성을 향한 자유예술인, 한국인-김중업

58세에 귀국하여 67세에 운명을 달리할

(그림8) 부산시 충혼탑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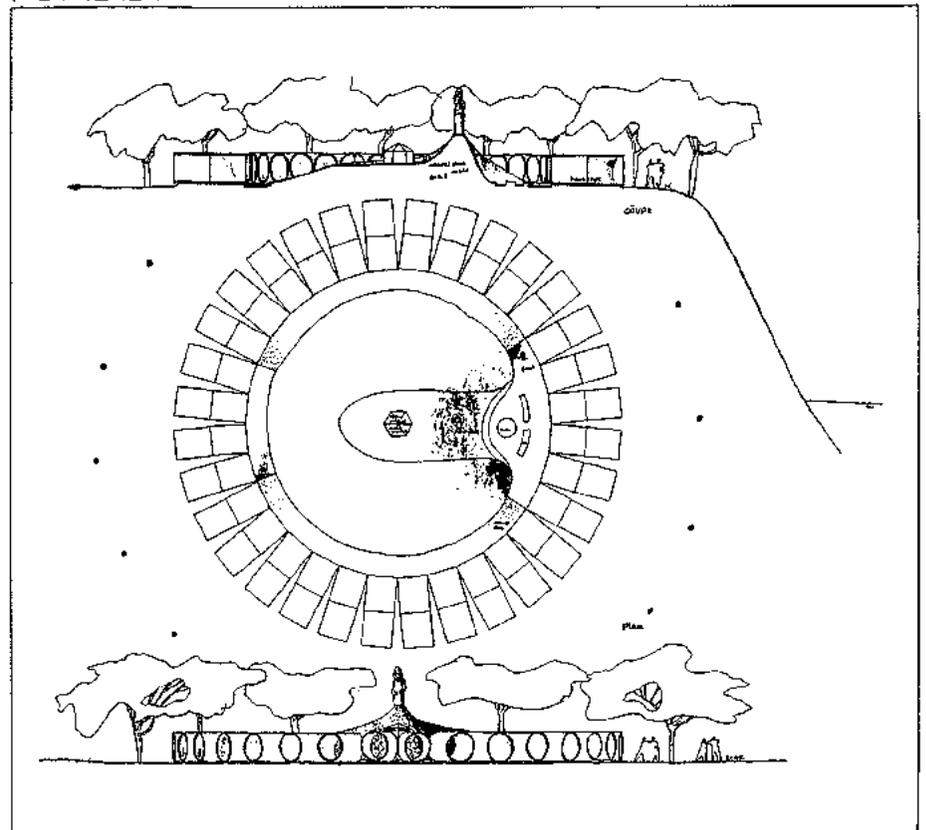
때까지 많은 작품들은 원을 기조로 하고 있는데, 그원은 이제의 귀소본능, 불안감의 보상심리에서 벗어나 완성에 대한 욕구로 바뀌어 가고 있다. 육군박물관을 설계한 후 그는 '禪하는 자세와 끊임없는 극기와 공간재험이 깊고 밤을 때 빛어지는 것들만 참견축이라 부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마 이러한 태도는 그의 만년을 이끈 정신세계라고 간주되어진다.

이러한 김중업선생의 만년의 건축관을 대변해 주는 작품이 있다. 부산시 대청봉에 세워진 부산시 충혼탑이다. (그림 9) 1978년 이미 제주도의 하멜기념시설에 나타난 형상이나(그림 9) 더욱 다듬어 진 작품이다. 부산시 충혼탑은 중심부에 球를 대포하고 있다. 그 주위를 원형을 그리며 열주가 있다. 그 상부에서부터 자유곡선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그위에 한국적 탑의 상부를 옮겨 놓은

형상이 자리잡고 있다. 하멜기념시설에서도 원통이 원을 그리며 놓인 중심부에 자유로운 배경의 구멍이 있고 그 가운데에 제주 전통의 돌하루방이 놓여져 있다.

김중업선생은 부산시 충혼탑에서 나타난 대로, 그정신세계의 기본을 자아완성과 성숙에 이르는 圓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유로운 예술 정신의 자유곡선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궁극적인 귀착점은 맨위에 올려놓은 탑과 같이 한국전통에 두고 있다. 그는 이와같이 세가지의 예술정신을 바탕으로 부단히 예술과 건축을 위해 나아가던 자유인이었다. 김중업선생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한국건축계에서 건축가의 탄생이 가능하다는 가르침 하나만으로도 그를 따르는 젊은 건축가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나아가고 있을 것이다. 완성을 향해.

(그림9) 하멜기념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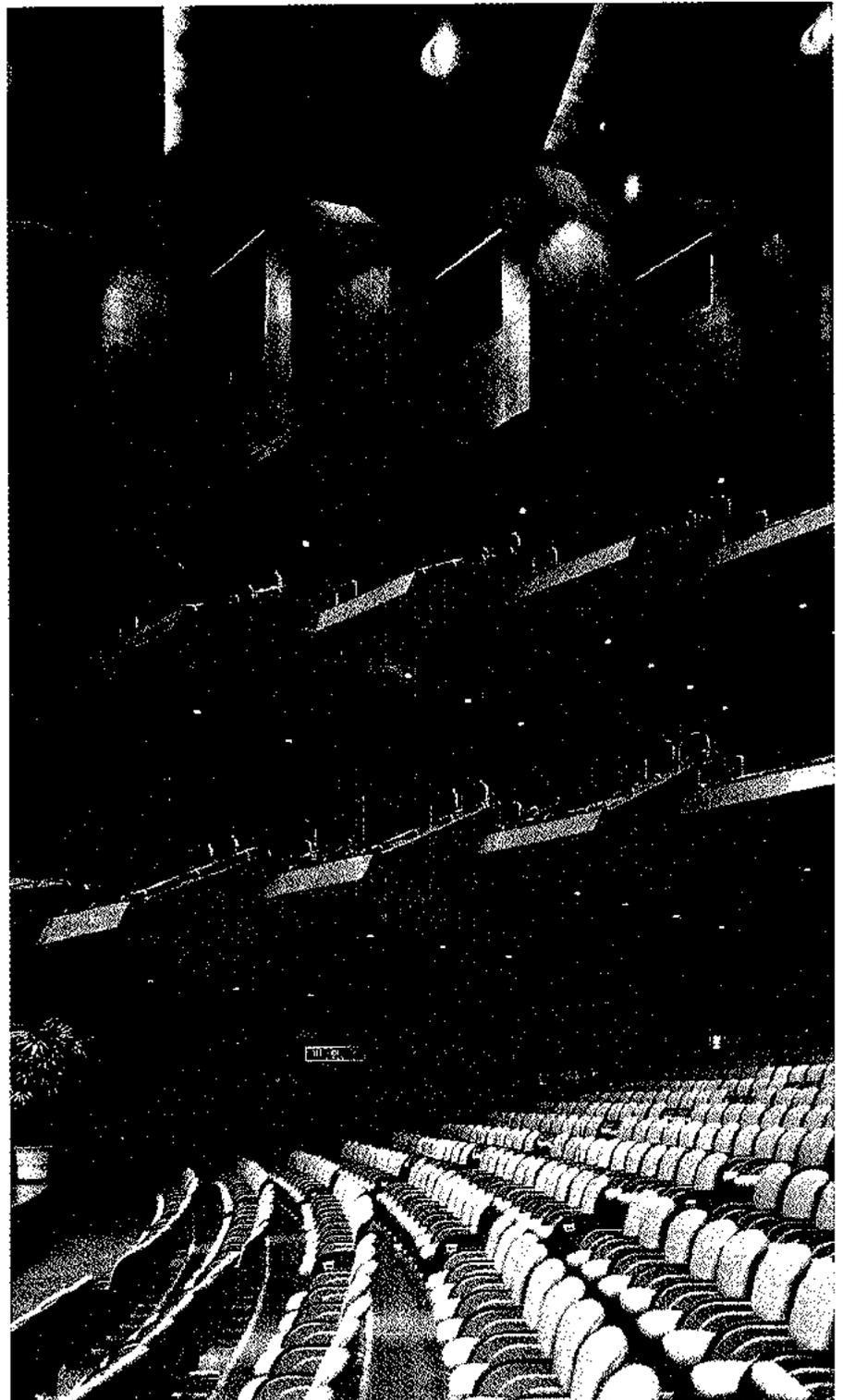


# 芸術의 展堂에 대한 小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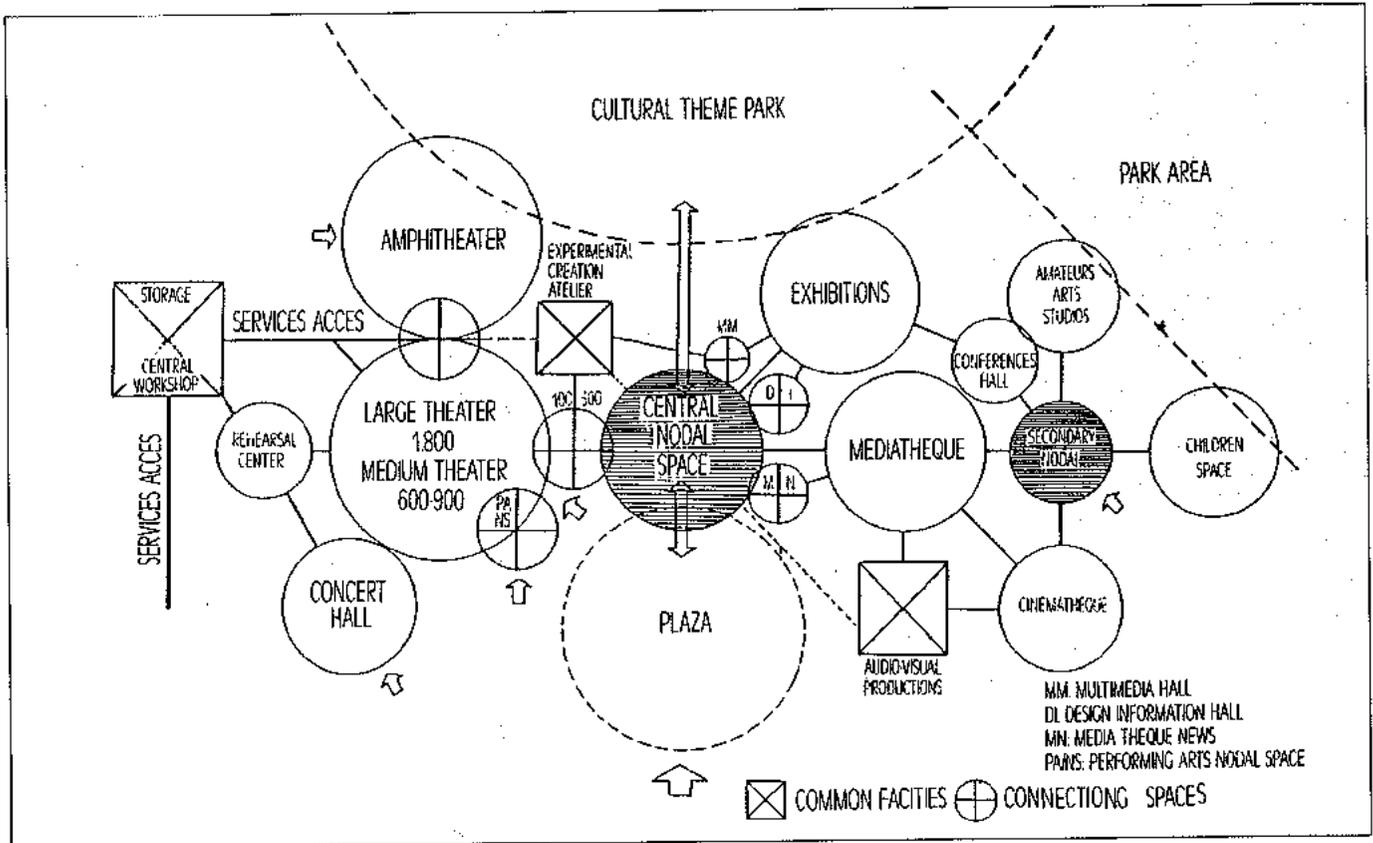
Criticism for Seoul Arts Center in Kang-Nam Cultural Theme Park

張基盛 / (주) 선진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ang, Kee-Sung

화강석 흰자위를 벗기면 나무로된 노른자위 속에서 '왕국의 불꽃놀이'를 볼 수 있다. 빌보드와 인기가요에 열중하고 팝뮤직이 인기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음악밖에 모르고 살다가 귀먹은 베토벤의 고뇌에 찬 '운명'과 레너드 번스타인의 은발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라디오와 레코드가 인스턴트 음악을 방안까지 배달해주는 지금 부채꼴로 펼쳐앉아 검은 제복의 수도자들이 再現하는 소나타와 심포니의 원음을 2,600명은 들을 수 있다. 도시의 혼탁과 밀집으로부터 예술의 신성한 차원을 느끼고 우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훌쩍 都心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數地選定의 부당함이 거론된 바 있지만 플러스인자로 보아서 안될 것도 없다. 예술이 길지도 인생이 짧지도 않다면 무겁게 내리누르는 잿빛하늘 아래 모다는 저무는 구리빛 노을너머 프루시안 블루의 깊숙한 어둠이 갈리는 병풍같은 우면산 기슭에 예술의 전당이 있을법도 하다.



음악당 대 연주를 배람다 객석



배치개념도

단지계획은 공원개념으로 출발함으로써 외부공간의 명확한 특성규정과 아울러 보행자가 아니라 보행을 위주한 동선체계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단지규모와 시설용량으로 볼때 1,350대의 주차장 규모는 낮은 레벨에 편중되어 있다. 단지 내부에서 공간의 성격들이 구축하는 기능의 고리와 모양은 우면산의 흐름에 順應해야 했다.

프로그래밍은 공연, 전시, 놀이, 교육, 자료, 연구의 크게 6가지 기능이며 공간적으로는 축제극장, 음악당, 서예관, 미술관, 국악당, 자료관의 육내공간과 야외극장, 한국정원, 조각공원, 장터, 만남의 거리로 명명된 육외공간으로 짜여진다. 현재 국악당, 음악당, 서예관, 장터와 만남의 거리등 단지 서쪽부분이 사용중에 있다. 건축가의 통찰력과 지휘봉은 5만여평을 굽어보며 휘젓는다. 짧은 인생과 길다란 예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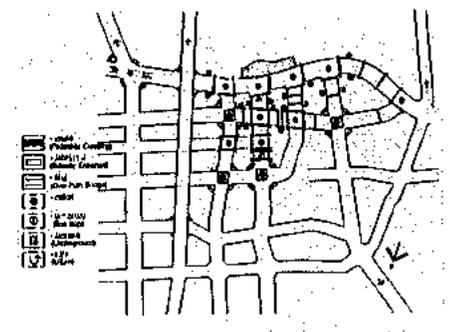
상징하듯 동서로 좁고 길다란 부지전체가 북으로는 남부순환도로와 접하고 남으로는 우면산이 병풍처럼 가리고 있다. 남북간 출입구 高低差가 음악당에서 2개층, 서예관에서 3개층이나 되는 만만치 않은 경사도이지만 斷面構成은 이것을 기능적으로 재미있게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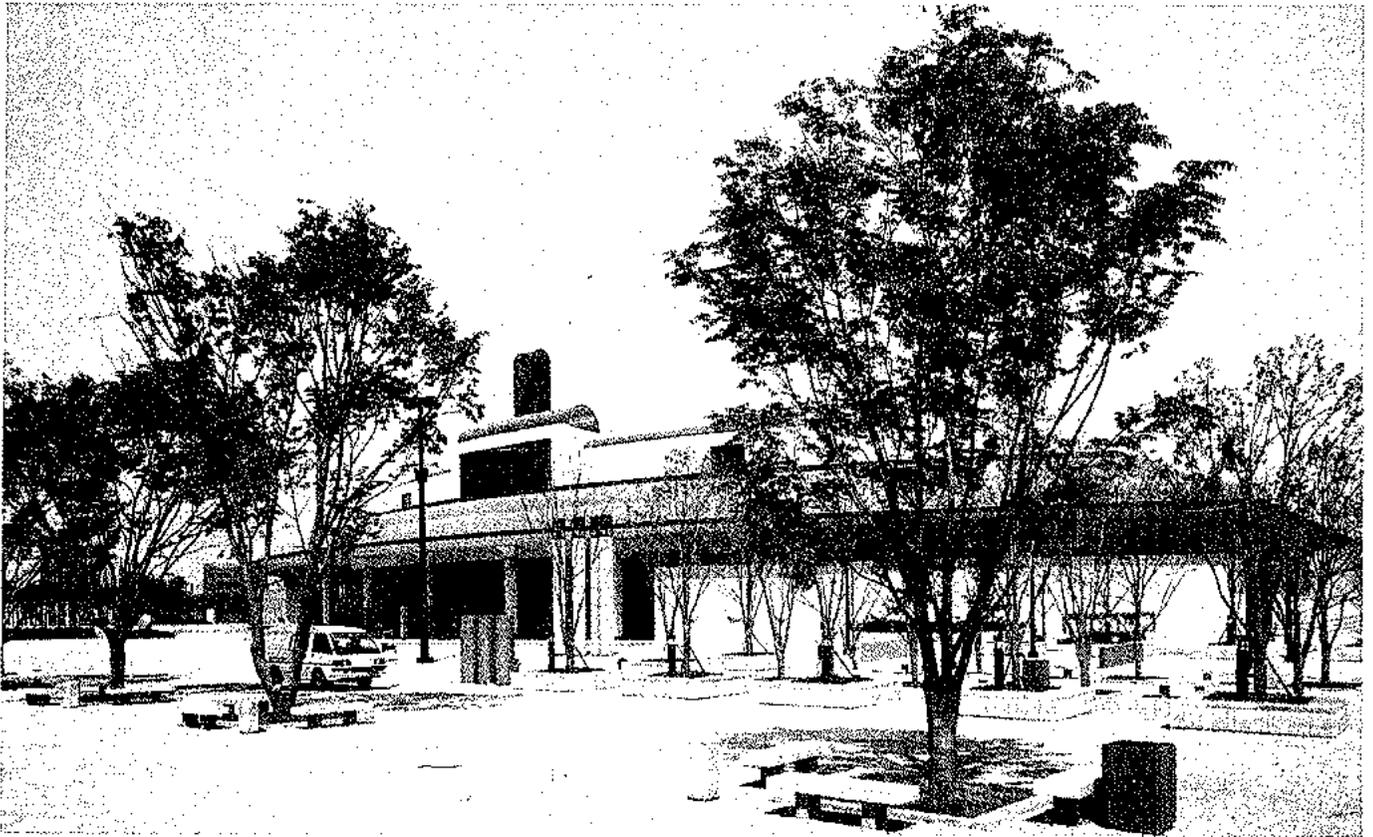
1984년 5개의 設計競技 제출안들은 통과차량을 언더패스시킴으로써 남부순환도로와 반포로의 교차점을 예술의 전당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의해서 좀더 단 敷地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는 우면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뚫리고 있다. 의사결정 체계의 불협화음은 막대한 設計變更의 원인이다. 터널로 줄어든 차선수와 유입 교통량 증가, T형도로 형태는 영동포역전의 교통체계와 같이 집중교통량 소통에 무리가 생길 수

있다.

홀로 예술의 전당이 될 수는 없다. 꼭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도 학교앞에 책방과 문방구가 생기듯 관련보조기능이 주변에 상호보완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리를 잡아갈때 진정한 殿堂이 될 것이다.

외부접근 동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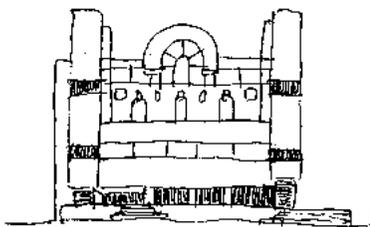




▲ 예술의 전당 음악당

實施設計는 남부순환로에 대해서 무표정한 파사드로 냉담하게 반응했으며 우면산의 경사는 단지내부에 무슨일이 있을 것같은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무관심은 관심을 단지내부로 끌어들이는 제스처이며 단지내에는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혹은 기대를 만족시키는 새로운 軸이 당연히 있어야한다.

그러나 주차장은 너무 좋은 자리에 길게 버티고 앉았고 보행자들은 57레벨에서 62레벨마당을 거쳐 80레벨까지 올라가야 한다. 우면산 중턱 외곽순환도로와 주차방식도 對案으로 생각해 볼직하다. 국악당 쪽에서 시작되는 등고선을 이용하면 이것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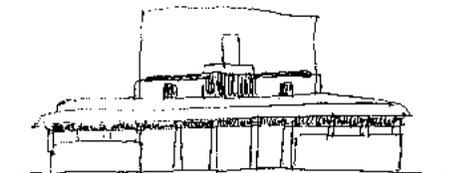


두손 회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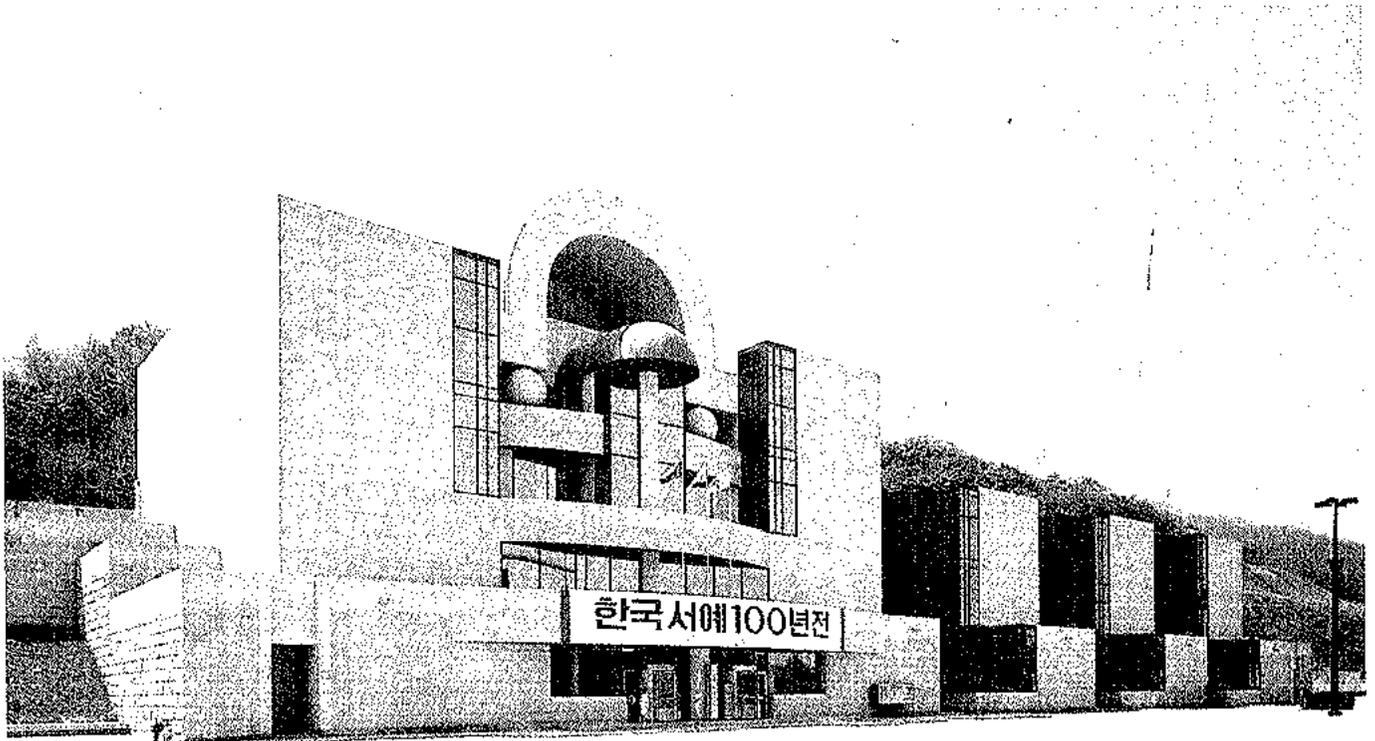
국내의 문화예술공간은 '전통적으로' 전통적 형태요소를 수용하려는 열망을 보여왔다. 自意였건 他意였건 국립극장(1973), 세종문화회관(1978), 독립기념관 등은 우선 그 명칭이 가하는 전통적 수용의 압력을 피할 수가 없다. 예술의 어떤 영역도 전통계승문제로 고민하지 않는다. 기술의 어떤 분야도 전통문제를 들먹이지 않는다. 건축만이 전통이라는 도깨비에 홀려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전통을 찾고 있는한 영원히 전통부재를 증명하는 셈이다. 찾을 수 있는 전통은 없다. 전통은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서 숨쉬고 있으며 바로 지금이 전통이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기둥위에 전시형 柱頭를 올리고 전시는 보를 생략한채 처마를 만드는 서까래를 받치며 서까래는 천차와 같이 단계적으로 캔틸레버 형식이다. 인장재를 결합시킨 콘크리트의 목조건물 모방은 아주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것이다. 석탑은 목조탑의 화제에 대한 대안이었고 그리스신전의 붕괴 역시 목조를 돌로 바꾼 비논리적 구상에서 비롯된다.

부채꼴 평면, 잣모양 입면 혹은 그랜드 피아노, 이런 것들은 물론 결과에 대한 類推解釋에 불과하다. 音響工學이 요구하는 각도와 거리, 계산공식이 건축사의 자유를 온통 포위하고 있다. 건축공사비를 능가하는 운영장비와 기자재 투입비용을 근대에는 종합병원, 방송국 등에서 자주 보게된다.

콘서트홀의 정지된 音響은 외국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처음 시도된 것이라고 했다. 10년전 세종문화회관도 외국에 자문을 구해야 했다. 10년 후에도 그럴것인가? 콘서트홀 출입구는 연주중에 잠글 것인가? 연주자와 28개 출입구 개폐와의 정면대결은 잔인해보인다. 모서리와 이음부분의 철저한 황동제 몰딩은 웬일인가? 디테일인가, 스케일인가 아니면 장식일까?



음악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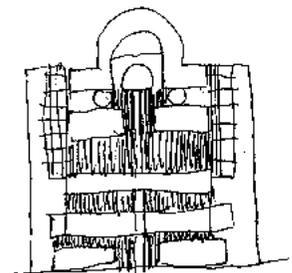


예술의 전당 서예관 ▲

글씨란 마음의 그림이라고 했다. 鐵筆文化인 서양과 달리 동양에는 깊이를 알 수 없이 독특하고 부드러운 毛筆文化가 있다. 서예관이란 이름이 낯설어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두손화랑의 상부와 음악당 하부가 합성된 듯한 서예관은 기하학적인 강한 곡선과 단순한 입방체의 대비를 보인다. 큰 머리에 비해 몸통이 작은 솟사자처럼 뚜렷한 얼굴이라면 몸통은 우면산에 막혀서 기대듯이 옆으로 돌린 꼴이다. 공속에 박힌 기둥은 꼭지를 떼고 완전히 은폐시켰더라면 궁륭(穹窿)을 받치는 공은 솟사자의 눈동자처럼 움직일지도 모른다. 공은 그 기능과 형태와 구조에 있어서 아치처럼 가장 완벽한 알맹이이며 거기에 공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이다. 서예연구와 실기공간을 후방으로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동선이 자주발생하는 계단실과 화장실이 정면으로 전진 배치되었다. 저층 3개층 후면이 완전히 지면에 접하게 되므로 드라이에어리어로서의 중정과 천장은

불가피한 것이다. 음악당과 마찬가지로 지상에 면한 저층은, 기단을 이루는 하부는 거친다듬 화강석 가로쌓기로 상층부는 잔다듬 화강석 세워쌓기이다. 음악당이든 서예관이든 엘리베이터의 위치와 출입구는 매우 주목할만한 특징을 띠고 있다. 흔히 등저거나 박혀있는 엘리베이터의 틀에 박힌 구조를 떠나서 동선의 지휘본부로서 각별한 대접을 받고 있다. 엘리베이터홀은 층마다 다르게 넓어지고 좁아지며 엘리베이터 피트는 위치에 따라 유리, 나무, 돌로 재료를 바꾸면서 각기 다른 형태와 분위기를 주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건축의 매력, 공간의 생명, 설계의 재미이다. 콤팩스를 병용하는 형태구성은 두손화랑에서 출발하는데 음악당과 서예관과 두손화랑은 기능적으로, 형태상으로 연속성이 나타난다. 설계자는 성격과 습관과 취향과 경험으로 배합된 自己同一性(identity)을 확립해가고 있다. 그것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추측된다.

서예와 음악이 마주한 만남의 거리에서 아무도 만날 수가 없음을 웬일인가? 그것은 고전과 현대, 서양과 동양의 만남이라고 했다. 국악당과 만남의 거리 사이에 느닷없이 벌여놓은 장터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도 궁금하기만 하다. 예술이 그 막연하고 흐리멍덩한 성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체감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物質主義로 부더의 유일한 피난처인 까닭은 사막이 아름다운건 어딘가에 샘이 있어서 그런것처럼 마르지 않는, 창조자의 순수한 정열과 의지때문이다.



서예관

# 한국 근대건축의 재조명

Study on the Modern Architecture of Seoul

金晶東 / 복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by Kim, Chung-Dong



▲ 東崇洞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물론 개울(이른바 센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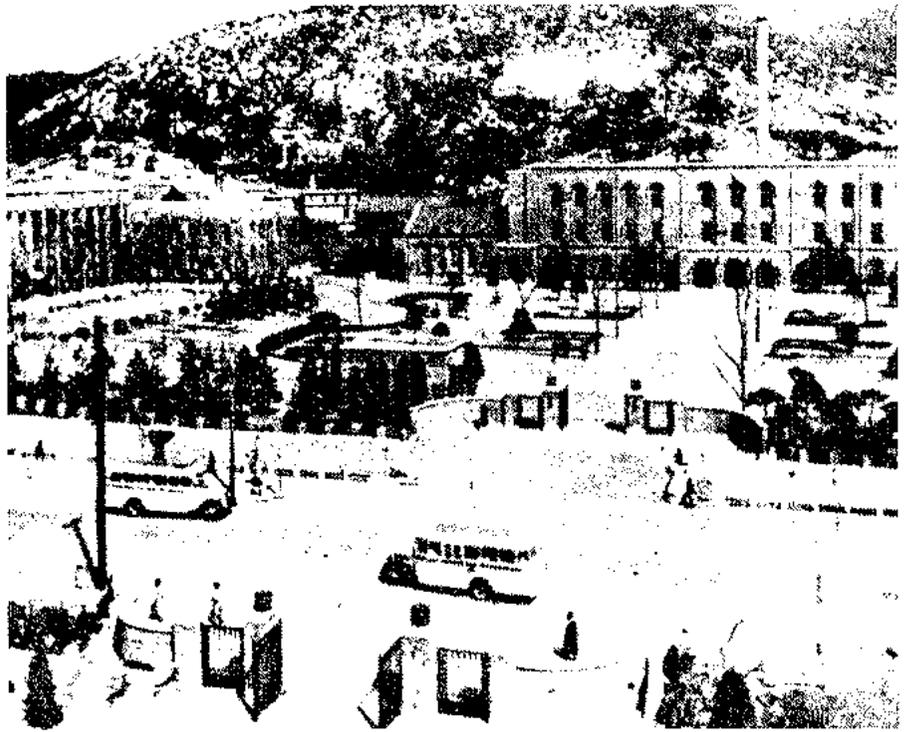
## 81. 韓國文藝振興院

위치 / 東崇洞 1-130  
착공년월일 / 1930. 8. 29  
준공년월일 / 1931. 10. 10  
설계자 / 岩槻善之 + 朴吉龍  
시공자 / 宮川組  
건축규모 / 構造 : 철근콘크리트조  
層別 : 地上 3  
佔地面積 : 坪  
建築面積 : 坪  
延面積 : 490.18 坪  
보존상태 / 史蹟 제 278호

京城帝國大學은 1924년 5월 2일 개교했다.<sup>1)</sup> 帝國大學의 학부개설 추진은 豫科 개설 직후부터 진행되었다. 대학의 교사는 처음에 永登浦, 鶯梁津, 淸涼里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결국 東崇洞, 蓮建洞 일대로 최종 결정되었다.<sup>2)</sup> 1925년 8월 14일 동숭동 일대의 교사가 착공되었다. 교사 설계는 朝鮮總督府의 岩槻善之<sup>3)</sup> 技師가 주도했다. 건물의 전체적인 Context는 엄격과 권위를 강조했다. 기본 형태는 황갈색 Scratch 타일<sup>4)</sup>을 表皮로 하고, 구조는 벽돌 조적조로 마감했다. 반원 아치는 현관 중심부와 창 부분에 의장적으로 쓰여졌으며 부분적으로 Arcade 화 했다. 로마네스크풍의 분위기는 東京 文京區에 있는 東京大學 舊건물들과 유사했다. 法文學部, 醫學部가 캠퍼스의 중심이 되었다.<sup>5)</sup> 法文學部 교사는 1928년 동숭동 쪽에 세워졌다. (1927. 6. 4~1926. 6. 10) 부속도서관 등도 1926년부터 1928년까지 세워졌다. 동숭동의 캠퍼스 분위기는 1928년에 들어서서야 어느 정도 자리잡히기 시작했다. 法文學部를 중심으로 마로니에광장을 조성하고 좌우에 새 교사들을 세워 나갔다. 본부 건물은 1930년에 착공되었다. (1931년 준공) 캠퍼스에서 가장 조형적이었던 이 교사는 平·立面 모두를 자유스럽고 부드럽게 계획했다. 교사는 3층으로 설계되었고

일부는 2층으로 했다. 本館 내부로 진입하는 부분은 1층이 아니고 설계로는 2층에 두었다. 平面에 있어 1층은 창고와 기계실들을 두었고, 2층은 學事 사무관개 여러실들을 배치했다. 총장실은 3층 좌측에 있었다. 연면적은 490.18평으로 했다. 설계는 朝鮮總督府에서 했는데 朴吉龍이 실무에 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주가되고 벽돌목재를 겸용했다. 벽면은 法文學部와 같이 황갈색 거친 타일을 발랐고 현관 포치, 아치창들도 그에 따랐다. 本部 건물의 또 하나의 특색은 전면부를 채감하며, 후퇴시키고 일부분에 곡선을 사용한 것이다. 옥상부는 法文學部와 같이 평 슬라브로했고 파라펫을 돌렸다. 위생 설비로는 수세식 정화장치를 했다. 공사는 미야가와 구미(宮川組)에서 맡았다.<sup>6)</sup> 이 본부 건물은 8.15해방 후에도 國立 서울大學校의 本部로 쓰여졌다.<sup>7)</sup> 1975년 서울대 동숭동 캠퍼스가 완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이 유서 깊은 캠퍼스부지는 大韓住宅公團에 매각되었고 본부건물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양도되었다. 그리고 그 학구적이고 낭만적인 자리는 「대학로」라는 낱음의 거리로 변모되어 1980년대의 오늘을 표징해 주고 있다. 어떤 문학평론가는 이 장소를 회고하며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시키면 바다가 힐렐레 드러난 개울에는 불이 피기도 하고 조금 흐르기도 했다. 위쪽으로 염색 공장이라도 있었는지, 그 물은 대체로 거무튀튀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개울을 센강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곳을 가로질러 교문으로 들어가는 다리가 미라보 다리일 수 밖에 없었다. 그 이름들이 걸맞게, 50년대 후반의 우리는, 그 다리 난간에 걸터앉아 사르트르니 카뮈니, 혹은 라스키니 매키버니 하고 이름들을 들먹였고 실존주의와 다윈론, 민주주의나 절망을 이야기했다. 물빛이 진하기 때문에 밤이면 달과 별이 더욱 뚜렷하게 담겨져 있었고, 그 득으로 가지런히, 3월이면 노란 개나리가

◆ 金晶東  
48년 경기도 浦城 태생으로 홍익대건축과(1970)  
同 대학원 석사(1982), 同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현, 복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이며 「꾸민」지 주연을 맡고 있다.



1925년부터  
동승동 일대가  
대학캠퍼스로 조성되었다.  
교사들은 엄격과 권위를 나타내는  
콘크리트를 의도하며 세워졌다.  
정문에서 마로니에 광장을 주변으로  
법문학부(정면), 도서관(좌측)이 보인다.  
사진은 1930년대초의 전경. (李忠雨, 京城帝國大學)

만발했으며 4월이면 라인락 향기가 전능했고  
가을이면 수위들이 은행잎을 나무둥지 밑에  
소담스럽게 모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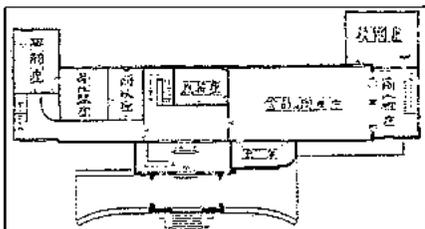
교문에서 나와 길을 건너서, 진아춘에서  
자장면으로 포식하고 저녁이면 쌍과부집에서  
막걸리나 소주에 나라와 역사와 문화와  
사상을 안주로 떠들썩했다. 대학원생들이  
점장게 출입하는 대학다방에는 일석

선생님이 수포로 천천히 요기를 하였고 골목  
안의 별장다방에서는 빼거리거리는 흥제와  
바닥과 의자 위에서 배트벤과 모차르트를  
들었으며 친구 하나가 이곳 연상의 마담과  
연애를 한다는 소문이 물론 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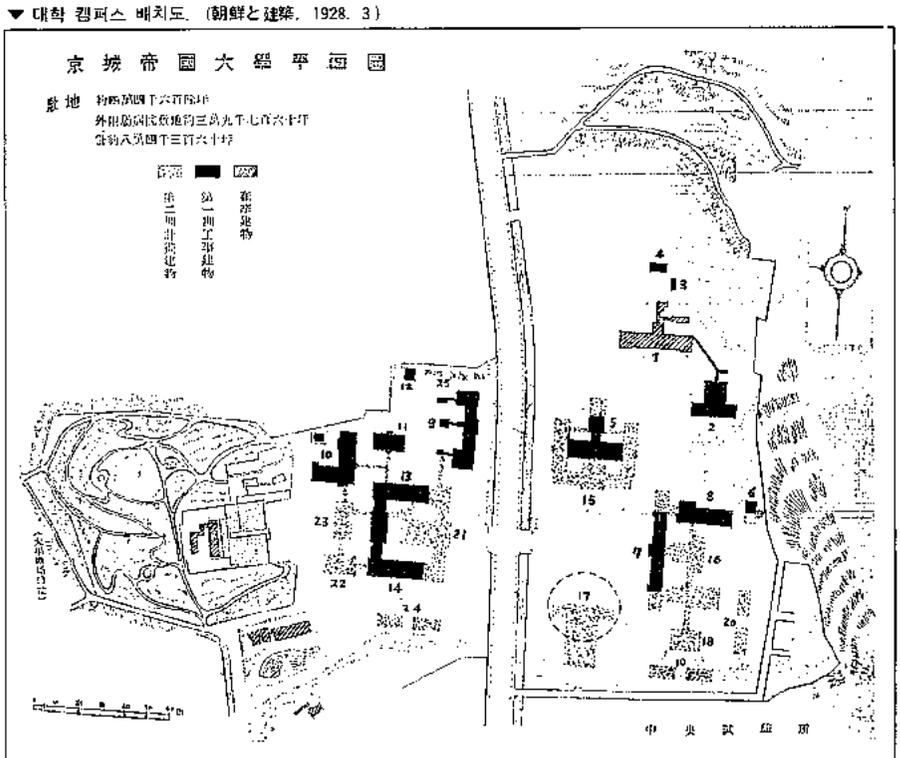
아마도 이런 분위기에서 빚어졌을 것이다.  
그 4월의 순수한 분노와 그 이듬해의  
좌절감과 그 다음다음해의 함성들이 솟아난  
것은, 자유와 진리, 순수와 낭만, 정열과  
고뇌 -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우리 역사를  
움켜쥘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이름은 붙여지지 않았지만 대학문화의 그  
독특한 어울림과 어울리지 않음의 갈등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그로부터 20년, 센강은 포장되고 미라보  
다리는 사라지고 군화로 공을 차던 운동장은  
세련된 건물과 주택으로 바뀌고  
국립도서관으로 남거두자는 졸업생들의  
운동도 허사가 되어 중앙도서관이 헐리고  
제국시대 양식의 본부 건물은  
미술관(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변모  
했으며 개나리와 라인락의 교정은 노인들과  
아이들로 한가한 놀이터가 되었다. 듣기에,  
내학로는 토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가 되어  
술한 젊은이들이 탈춤을 추기도 하고 연극도  
공연하고 춤도 추고 술도 마시고, 한바탕  
놀이들을 벌이는 마당길이 되었다 한다.  
젊은이들이 젊음을 마음껏 발산할, 이른바  
청년문화의 공간이 된 것이다.

그러나 거리의 모습과 물결이 달라진 것이  
우리에게 그것들의 찢김으로 보이듯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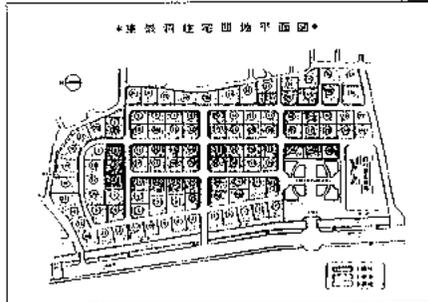


▲ 2층 평면도, 현관은 자동차가 출입할 수 있게  
처리되었다. (朝鮮と建築)



- 京城帝國大學平面圖
- 敷地 約四萬六千六百餘坪  
外租園地敷地約三萬九千七百六十坪  
建物八萬四千三百六十坪
- 第一期 在來建物  
第二期 新建物
- |               |                            |              |
|---------------|----------------------------|--------------|
| (第1期)         | 9. 醫學部理化實驗室                | 17. 本部及大講堂   |
| 1. 假本部 (在來建物) | 10. 內 病理及解剖學教室分室           | 18. 法文學部學生控室 |
| 2. 法文學部假教室    | 11. 同 講義室                  | 19. 本部倉庫     |
| 3. 膳 所        | 12. 同 機關室                  | 20. 法文學部倉庫   |
| 4. 倉 庫        | 13. 同 生理學, 解剖學, 細菌學教室      | 21. 醫學部本館    |
| 5. 圖書館        | 14. 同 藥物學, 病理學, 衛生學, 法醫學教室 | 22. 同 講義室    |
| 6. 機關室        | (第2期)                      | 23. 同 學生控室   |
| 7. 法文學部本館     | 15. 圖書館及研究室                | 24. 同 倉庫     |
| 8. 法文學部心理學教室  | 16. 法文學部講義室                | 25. 同 動物舍    |

본부 건물과 마로니에광장 광장을 제외하곤 평당 17~19만원대에 팔렸다. 그래도 지금은 '大學路'이다. ▼



東崇洞住宅地分譲案内

1. 建築費 約 1000万円  
2. 敷地面積 約 1000坪  
3. 建築年次 1975年  
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5. 建築費 約 1000万円  
6. 敷地面積 約 1000坪  
7. 建築年次 1975年  
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9. 建築費 約 1000万円  
10. 敷地面積 約 1000坪  
11. 建築年次 1975年  
1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3. 建築費 約 1000万円  
14. 敷地面積 約 1000坪  
15. 建築年次 1975年  
1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7. 建築費 約 1000万円  
18. 敷地面積 約 1000坪  
19. 建築年次 1975年  
2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21. 建築費 約 1000万円  
22. 敷地面積 約 1000坪  
23. 建築年次 1975年  
2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25. 建築費 約 1000万円  
26. 敷地面積 約 1000坪  
27. 建築年次 1975年  
2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29. 建築費 約 1000万円  
30. 敷地面積 約 1000坪  
31. 建築年次 1975年  
3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33. 建築費 約 1000万円  
34. 敷地面積 約 1000坪  
35. 建築年次 1975年  
3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37. 建築費 約 1000万円  
38. 敷地面積 約 1000坪  
39. 建築年次 1975年  
4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41. 建築費 約 1000万円  
42. 敷地面積 約 1000坪  
43. 建築年次 1975年  
4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45. 建築費 約 1000万円  
46. 敷地面積 約 1000坪  
47. 建築年次 1975年  
4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49. 建築費 約 1000万円  
50. 敷地面積 約 1000坪  
51. 建築年次 1975年  
5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53. 建築費 約 1000万円  
54. 敷地面積 約 1000坪  
55. 建築年次 1975年  
5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57. 建築費 約 1000万円  
58. 敷地面積 約 1000坪  
59. 建築年次 1975年  
6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61. 建築費 約 1000万円  
62. 敷地面積 約 1000坪  
63. 建築年次 1975年  
6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65. 建築費 約 1000万円  
66. 敷地面積 約 1000坪  
67. 建築年次 1975年  
6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69. 建築費 約 1000万円  
70. 敷地面積 約 1000坪  
71. 建築年次 1975年  
7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73. 建築費 約 1000万円  
74. 敷地面積 約 1000坪  
75. 建築年次 1975年  
7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77. 建築費 約 1000万円  
78. 敷地面積 約 1000坪  
79. 建築年次 1975年  
8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81. 建築費 約 1000万円  
82. 敷地面積 約 1000坪  
83. 建築年次 1975年  
8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85. 建築費 約 1000万円  
86. 敷地面積 約 1000坪  
87. 建築年次 1975年  
8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89. 建築費 約 1000万円  
90. 敷地面積 約 1000坪  
91. 建築年次 1975年  
9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93. 建築費 約 1000万円  
94. 敷地面積 約 1000坪  
95. 建築年次 1975年  
9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97. 建築費 約 1000万円  
98. 敷地面積 約 1000坪  
99. 建築年次 1975年  
10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01. 建築費 約 1000万円  
102. 敷地面積 約 1000坪  
103. 建築年次 1975年  
10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05. 建築費 約 1000万円  
106. 敷地面積 約 1000坪  
107. 建築年次 1975年  
10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09. 建築費 約 1000万円  
110. 敷地面積 約 1000坪  
111. 建築年次 1975年  
11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13. 建築費 約 1000万円  
114. 敷地面積 約 1000坪  
115. 建築年次 1975年  
11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17. 建築費 約 1000万円  
118. 敷地面積 約 1000坪  
119. 建築年次 1975年  
12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21. 建築費 約 1000万円  
122. 敷地面積 約 1000坪  
123. 建築年次 1975年  
12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25. 建築費 約 1000万円  
126. 敷地面積 約 1000坪  
127. 建築年次 1975年  
12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29. 建築費 約 1000万円  
130. 敷地面積 約 1000坪  
131. 建築年次 1975年  
13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33. 建築費 約 1000万円  
134. 敷地面積 約 1000坪  
135. 建築年次 1975年  
13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37. 建築費 約 1000万円  
138. 敷地面積 約 1000坪  
139. 建築年次 1975年  
14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41. 建築費 約 1000万円  
142. 敷地面積 約 1000坪  
143. 建築年次 1975年  
14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45. 建築費 約 1000万円  
146. 敷地面積 約 1000坪  
147. 建築年次 1975年  
14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49. 建築費 約 1000万円  
150. 敷地面積 約 1000坪  
151. 建築年次 1975年  
15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53. 建築費 約 1000万円  
154. 敷地面積 約 1000坪  
155. 建築年次 1975年  
15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57. 建築費 約 1000万円  
158. 敷地面積 約 1000坪  
159. 建築年次 1975年  
16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61. 建築費 約 1000万円  
162. 敷地面積 約 1000坪  
163. 建築年次 1975年  
16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65. 建築費 約 1000万円  
166. 敷地面積 約 1000坪  
167. 建築年次 1975年  
16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69. 建築費 約 1000万円  
170. 敷地面積 約 1000坪  
171. 建築年次 1975年  
17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73. 建築費 約 1000万円  
174. 敷地面積 約 1000坪  
175. 建築年次 1975年  
17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77. 建築費 約 1000万円  
178. 敷地面積 約 1000坪  
179. 建築年次 1975年  
18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81. 建築費 約 1000万円  
182. 敷地面積 約 1000坪  
183. 建築年次 1975年  
184.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85. 建築費 約 1000万円  
186. 敷地面積 約 1000坪  
187. 建築年次 1975年  
188.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89. 建築費 約 1000万円  
190. 敷地面積 約 1000坪  
191. 建築年次 1975年  
192.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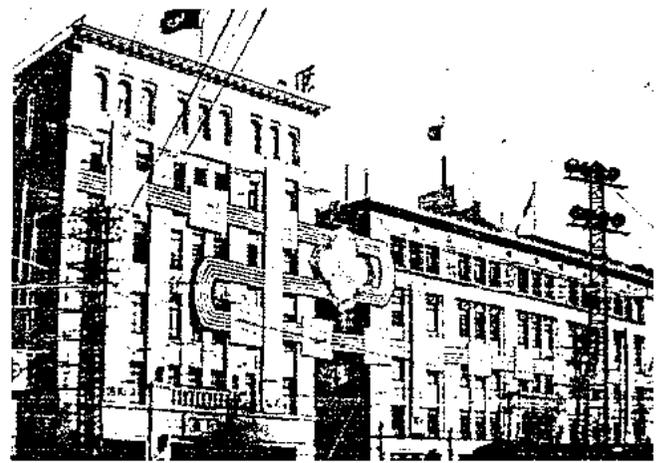
193. 建築費 約 1000万円  
194. 敷地面積 約 1000坪  
195. 建築年次 1975年  
196.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197. 建築費 約 1000万円  
198. 敷地面積 約 1000坪  
199. 建築年次 1975年  
200. 建築主 大韓住宅公社

▲ 1975년 권역캠퍼스로 이전하며 東崇洞住宅團地로 불려되었다. 이제 다시 문화, 젊음의 거리로 변신하고 있다.  
(住宅公社 팜프렛)



▲ 캠퍼스의 교사들중 가장 의정적이었다. 한국근대건축 여행기의 巨匠, 朴吉龍이 참여했다.



▲ 좌측은 화신백화점의 서관. (동관은 그후 증축되 화신백화점의 전체를 이뤘다) 우측이 종로빌딩이다. 화신백화점보다 먼저 세워졌다. (1931년)

대학문화의 본바닥에서 청년문화의 놀이터로 바뀌었다는 것이 선풍 내키는 기본만을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벤야민이 말하는 바의 「아우라의 붕괴」 때문인지, 혹은 지나간 것은 아름답다라는 감상 때문인지... 그 변화의 의미를 되짚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대학로의 풍경이다.……」<sup>1)</sup>

1981년(9.25) 이 터전에 유일한 이 건물은 사적 제278호로 지정되어 동승동의 마지막 흔적으로 보존케 되었다.

□註□

- 3.1 독립만세운동 이후 민간지도자들이 民立大學을 세우려하자(대표 李商在) 日帝가 관학으로 설립하게 된 것이다. (1924년 勅令 103호, 京城帝國大學 官制)
- 캠퍼스는 總督府醫院 구내 蓮洞洞대지 66,000평과 東崇洞 쪽 民有地 25,000평을 확보하여 형성되었다. 이땅은 원래 상배네티포회 수도원에서 소유한 포도원이었다. (박동1세기, p. 81.)
- 岩槻기사는 1921년 4월 동경제국대학 건축과를 졸업했다. 岩井長三郎과 함께 京城府청사(현 서울시청), 京城제판소청사(현 대법원) 그리고 京城제국대학(본부, 법무부, 의학부, 부속의원)의 신축(설계, 감독)에 관여했다.
- 스크래치타일은 면을 거칠게 처리한 처리 타일인데, 프랑크 로이드 라이트가 일본제국호텔에 처음 사용해서 1920년 후반부터 일본에 보편적으로 퍼졌다.
- 처음에 理工系는 배제되었다.
- 岩槻善之 “京城帝國大學의 건축에 관하여”. (朝鮮と建築, 1928. 3) 이자료에는 본부건물 뒷편으로 대강당을 이어서 증축하려는 계획이 있었다. (지면참조)
1946. 8. 22. 국립 서울大學校 설치령 공포.
- 김병익, 월간조선, 1986 신년호 별책부록

82. 鍾路 빌딩

위치 / 鍾路 2가 5번지  
 화공년월일 / 1931. 5  
 준공년월일 / 1931. 12  
 설계자 / 朴吉龍  
 시공자 / 多田工務店

건축규모 / 構造 : 철근콘크리트조  
 層別 : 地下1, 地上4, 塔塔1  
 床地面積 : 坪  
 建築面積 : 120.76坪  
 延面積 : 580.54坪  
 보존상태 / 현존

鍾路 2가, 이미 헐린 和信백화점 옆에 있다. 그동안 화신 백화점에 가려 건물의 질적 가치에 비해 價가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和信」이 헐리면서 본의아니게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현재 건물 正面 입구 간판은 鑄鐵製로 「종로 빌딩」이라 쓰여져 있다. 이자리에는 원래 “東亞백화점”이 있었다.<sup>1)</sup> 우리는 오랫동안 이거리를 걸으며 歩道層에 나란히 들어서 있는 시계, 금은방 등에 눈이 익숙해 있었다. 서울의 내노라하는 신랑, 신부들이 결혼예물을 맞추느라 이 상점을 드나들던 곳이다. 이제는 商圈이 약화되어 조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건물은 朴吉龍의 설계에 의하여 1931년 5월에 착공되어, 같은해 12월에 준공되었다. 아직 朴吉龍이 정식으로 독자적인 설계 사무소를 개소하기 전이다. 건물을 설계할 때 朴吉龍은 아직 朝鮮總督府 會計課 營繕係에 技手로 근무할 때였다. 이 건물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이었다. 현재는 改修 후 1층이 증축되어 지상 5층으로 되었으며 한 때는 和信백화점과 3층 이상이 접속되어 있었다. 건물 전체는 도로변에 長軸으로 단정히 자리잡고 있어 안정감이 든다. 철근콘크리트조를 벽돌로 마감하고 옥상부는 江原道 鐵原産 黑石을 용했다. 외벽은 불탈 위 타일을 붙였다. 내부는 에레베이터 Back Core의 형식을 취했고, 에레베이터는 계단실로 감싸고 있으며 日本 에레베이터주식회사 제품 8인승 1대를 설치했다. 1, 2, 3층 전체는 판매장으로 단순하게 분할되었다. 건축 시공은 多田工務店에서 했다.<sup>2)</sup>

건물의 정면입구는 裝飾物이 첨부되고 정면주변은 디테일하게 처리되었다. 화신백화점보다 먼저 세워졌다. 화신백화점을 헐어버리려는 無知에 찬 시도가 1978년부터<sup>3)</sup> 심화되어, 1988년 헐리게 되면서 장차 이 건물도 그에 휩쓸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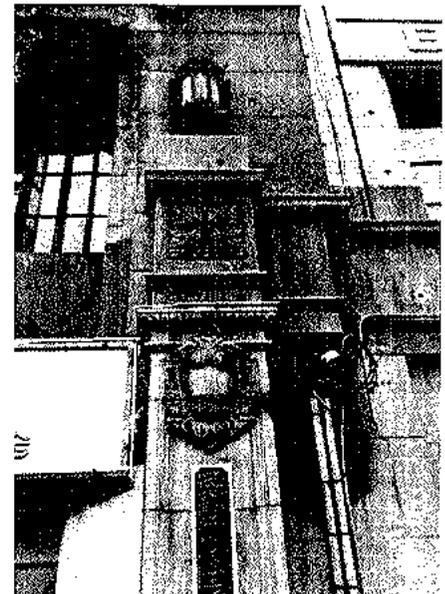
이 건물의 가치가 화신백화점 못지않기 때문이다. 또한 종로라는 거리에서 주는 이 건물의 인상이 한 시대의 이정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록 단순한 상업건물로서의 빌딩이나 백화점이지만 1930년대의 한 표정이 거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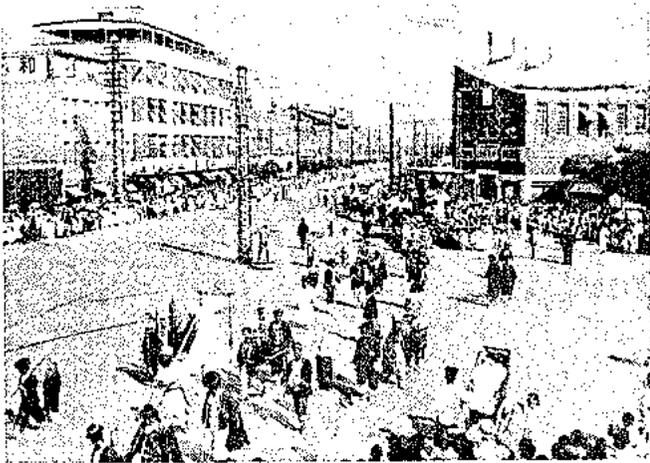
1. 「...東亞婦人상회(현 파고다 공원, 아케이트 헐린 자리)를 경영해 오던 崔楠이란 사람이 東側인접지(현 종로빌딩)에다 동일한 영입내용의 東亞백화점을 개설했던 것이다. (1932) 동아백화점이 포진한 4층건물은 閔奎植이 지은것으로...」(화신50년사, p. 109)
2. 「朝鮮と建築」, 1932. 2.
3. 서울시에 의해 1978. 12 “공부지구 재개발 사업 계획”에 관한 연구가 발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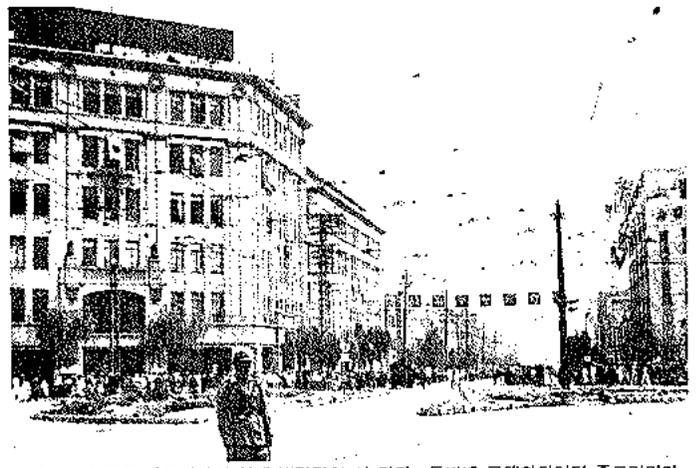
▲ 1층 평면도, 임대상점과 백화점 기능을 두었다.



▲ 1층 부분 디테일, 불임기둥위의 장식석이 아름답다.



▲ 화신백화점과 종로빌딩이 세워지기 전의 종로 2가. 첫번째 근대화되었던 종로모습이다.



▲ 화신백화점과 종로빌딩이 형제 빌딩같이 서 있다. 두번째 근대화되었던 종로거리다. 8.15해방직후의 모습이다. (1945. 9. 10)

### 83. 韓國銀行 別館

위치 / 南大門路 3街 106  
 착공년월일 / 1932. 6  
 준공년월일 / 1933. 2  
 설계자 / 渡邊仁  
 시공자 / 清水組 京城 支店  
 건축주 /  
 건축규모 / 構造 : 철근콘크리트조  
 附 屬 : 地下1, 地上5, 屋塔1  
 佔地面積 : 100.9 坪  
 建築面積 : 78.79 坪  
 延 面 積 : 388.58 坪  
 보존상태 / 韓國銀行 본관과 함께 史蹟 지정

韓國銀行 별관은 韓國銀行 본점에 가려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더구나 건물 앞에는 커 큰 가로수들이 늘어서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다. 건물 자체도 고색창연하고 소규모여서 쉽게 접근이 안된다.

이 건물은 「東京火災保險(株) 京城支店」으로 세워졌던 것이다. (1933. 2 준공)

건물은 의외로 거의 原形을 유지하며 8.15이후의 한국근대사를 뛰어 넘고 있다. 건물은 1932년 6월에 착공되었다. 위치는 韓國銀行 본관의 좌측으로 정했다.<sup>1)</sup> 第一銀行 舊本店과 마주하고 있다. 설계는 日本의 건축가 와다나베신(渡邊仁)<sup>2)</sup>에게 맡겨졌다.

이 건물에는 日帝의 데이칸 樣式(이른바, 帝冠主義)와 독일, 이태리의 과시즘적 영향이 깊이 들어가 있다.

1930년대의 일본은 軍國주의와 國粹주의가 물결쳤는데, 이것은 진통주의라는 일본자신의 건축을 되찾으려는 의도하에 폭넓게 퍼져나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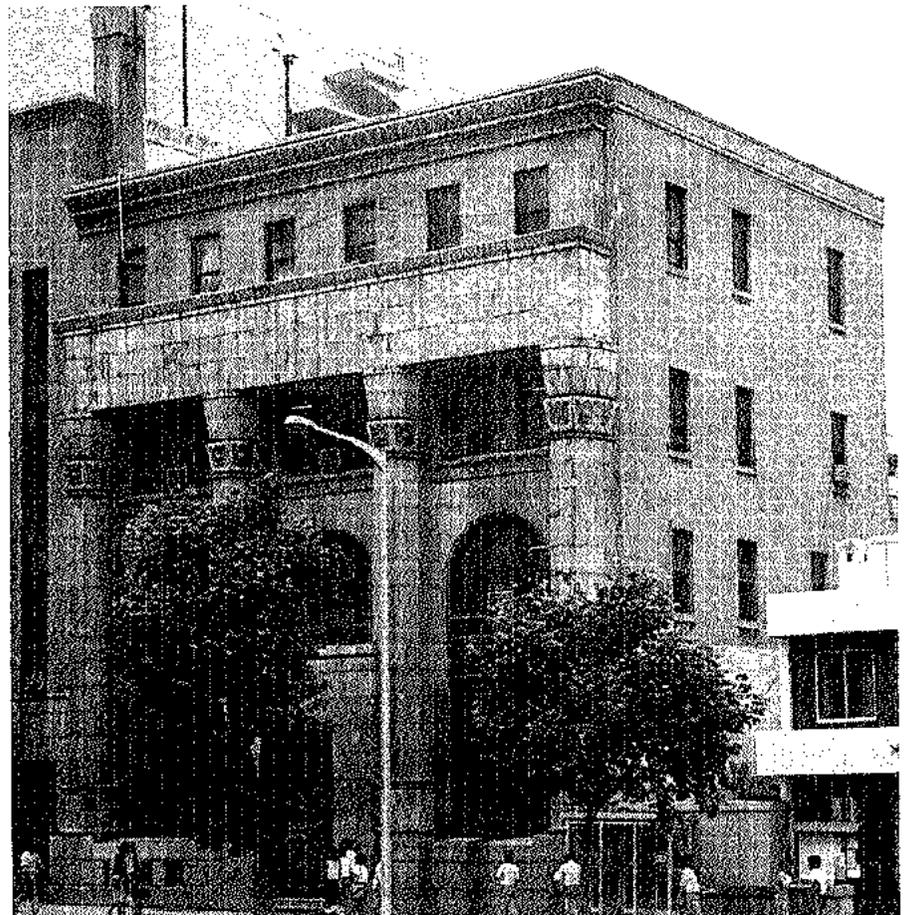
『……1934년에는 “모양은 國粹의 기풍을 갖추고, 장엄 웅대한 특색을 표현했다” 軍人회관(川元良一, 원 九段회관)이 완성되고, 1937년에는 “건축양식은 내용과 조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 취미를 基調로 하는 東洋式”이 추구된 帝室박물관(渡邊仁, 현, 東京國立박물관)이 준공되었다. 건물은 육중한 기와지붕을 얻어 “제관양식”이 만들어졌다……』<sup>3)</sup>

과시즘의 건축풍조에 따라 東京火災保險



▲ 좌측의 화신백화점은 잘렸다. 종로빌딩이 종로의 이점표가 되었다.

▼ 소규모이나 실제보다 웅장해 보인다. 장식주의 그 柱頭(더스칸 오디)가 주는 과시즘적 경향때문이다.







▲ 1930년대초의 인업등 캠퍼스일대(高麗大學 校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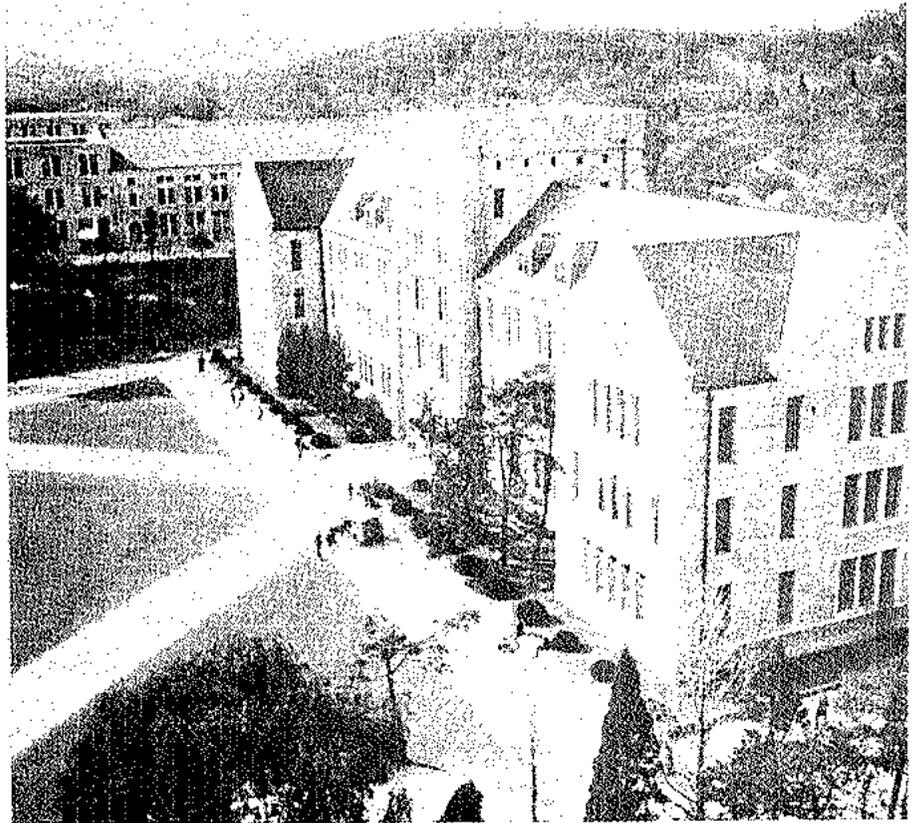


▲ 건축가, 朴東顧 (1899~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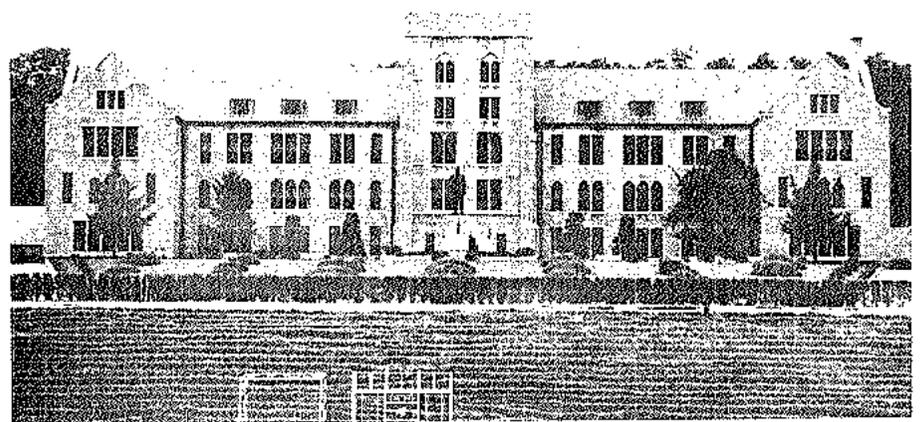
우선 석조건물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  
 當時만해도 서울시內에 石造建物이라고는  
 現 中央廳을 제외하고는 全然 없었던  
 때였다. 나는 石造建物에 대해서 여러  
 方面으로 탐색하고 研究했다. 우선  
 材料의 適切한 用法과 構造의 合理等은  
 勿論이려니와 建築樣式에 대해서는 더욱  
 망서린 점도 많았었다. 내가 最終決定을  
 짓고 實設計에 착수했는데 先生의 意見도  
 많았다. 여러 면으로 절충해서 安出한 것이  
 現高麗大學校本館이었다. 건물과 자연의  
 조화, 그 구조와 材料美의 一致의 形式을  
 強調했었다. 그러나 外觀上 窓口의  
 配列이라든가 平面構成에 억지가 있는 것은  
 先生의 注文에 대한 것으로 나는 지금도 그  
 責任을 回避하고만 싶다.  
 그 이후 高大圖書館이라든가  
 餘他建物들의 石造建築에 대해서는  
 先生께서도 設計面에 一切干涉을 하지  
 않으셨고 나도 自信을 얻게  
 되었었다. ....』<sup>51</sup>

본관교사는 1934년 9월 준공되었다. 교사는  
 高大 正門을 들어서 보면 운동장을  
 가로질러 숲을 등지고 서있다. 고딕풍이며  
 古典적으로 보이는 교사는 石造와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었다. 6층으로 보이는  
 중앙탑을 중심으로 평면은 H자형이며,  
 편복도를 두었다. 입면 역시 완전  
 좌우대칭형이다. 건축 연건평은 1,144평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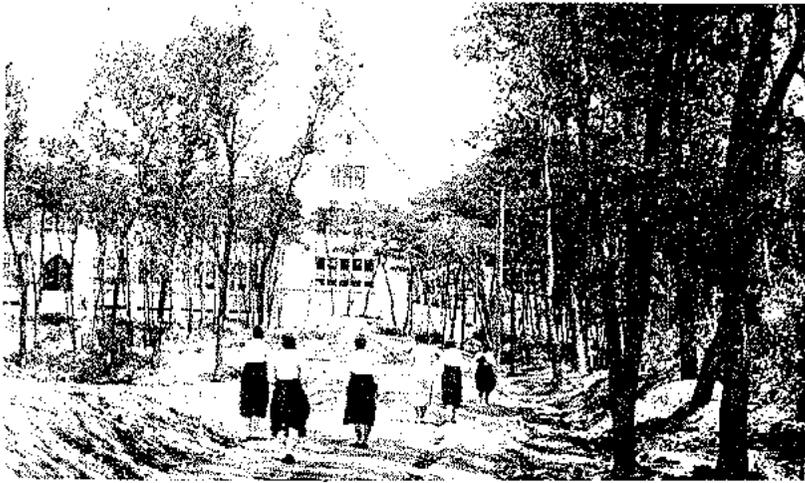
本體는 3층 교사이다. 자붕부 Attic 에는  
 나락방 환층을 두어 교수연구실로  
 사용토록 Dormer 처리했다. 창문은  
 Lancet Window 인데 1층과 3층을  
 장방형으로 내고, 2층은 1개, 2개, 3개씩  
 Grouping 아치로 묶었다.  
 6층 중앙탑 부분의 1층 현관은 비교적 간략히  
 처리하고 Tudor 아치로 했다.<sup>6)</sup>  
 3층과 5층의 창은 쌍 아치로 2층과 4층은  
 장방형 창을 냈다. 양측 端部는 창의 배열을  
 리드미컬하게 처리, 즐거움을 더했다.  
 벽면은 바른층(整層) 돌쌓기로 하여 교사가  
 전체적으로 질서있게 보이도록 했다.<sup>7)</sup>  
 당시로는 드물게 증기난방과 수세식  
 위생설비를 갖춘 현대식 교사였는데



▲ 朴東顧과 金性洙에 의해 이뤄진 석조건축물, 中央塔이 그 중심이 되었다.



▲ 문관의 전경, 窓門의 분할이 매우 단정하다.



▲ 이화의 교사와 학생들 (1935. 梨花80年史)



▲ 監理會報에 실린 梨花 女 校舍의 뉴스 (1935. 4. 10)

연세대학교 교사들과는 많은 점에서 비교된다.  
1946년부터 高麗大學(校)로 되었다.

□註□

1. 朴東鎭(1899~1980), 平北定州 출생으로 1910년대에 그곳五山學校를 졸업했다. 그는 古堂조만식에게서 배웠다. 이때 동료로는 朱基徹, 韓景職, 金弘壹, 金億, 白麟濟등이었다. 박동진은 1919년 3.1운동에 참여, 2년 형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그후 서울로 와서 京城高等工業學校를 졸업(1926)하고 朝鮮總督府에 들어갔다. 그즈음 仁村을 만나 그의 일련의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高大의 설계는 桂洞 仁村의 자택2층에서 했다. 그후 中央中學校(1936~1937)도 그에 의해 이뤄졌다.
2. 蔣阜室(昌德宮소유)의 호의로 林野 48,700평을 불하 받았다. 그리고 인접지(民有地)13,200평을 매입했다.(朝鮮と建築 1933.6) 新東亞, “普成專門學校 新校舍”, 1934.11. p.146
3. 英國의 Oxford, Cambridge, 美國의 Yale, Duke 大學을 骨幹으로 삼았다. 高麗大學 70年誌에는 도서관은 吳天錫의 모교인 듀크대학의 엘범에서 그 도서관을 보고 참고했다고 한다.(p. p.138~140)
4. 趙容萬, 普專캠퍼스신축, 中央日報 1984.9.17
5. 朴東鎭 “나의 학창시절……그후”, 건축, 1975.8. p.16
6. 현관아치 허리부분의 “호랑이” 彫刻物은 Gothic 건축물에서는 흔히 보이는 것인데 이후 이 大學의 심벌이 되었다.
7. 朝鮮と建築, 1933.6과 1933.8 그리고 1935.9 중합

건축규모 / 構造 : 석조+철근콘크리트조  
 府別 : 地下半, 地上3, 屋塔  
 佔地面積 : 170,000㎡  
 建築面積 : 352,500㎡  
 延面積 : 1,295,10㎡  
 보존상태 / 本館으로 사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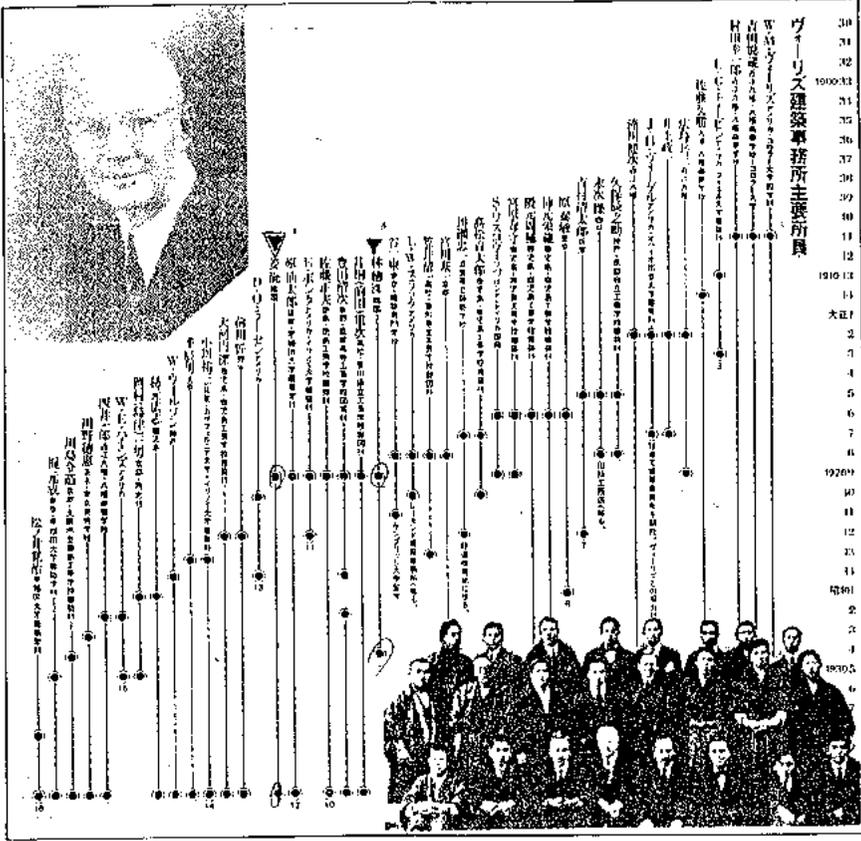
梨花女大가 貞洞 梨花學堂 교사에서 나와 新村에 새캠퍼스를 마련한 것은 1935년의 일이었다.  
 梨花女大는 1910년 4월 정동에서 개교했다. Frey Hall (1923년)이 세워지자 그 교사를 大學科에서 사용했다. 1924년에는 延禧專門學校 부근에 있는 基地를 사들였다.  
 이때의 정황은 다음 두글에 잘 나타나 있다.  
 『……서대문을 지나 시쪽으로 나가면 연희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 못미치는 곳에 약 5만평의 땅이 있습니다. 저는 이땅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미국 모교인 웨슬리대학 같은 것을 이땅에 재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학에 대한 기본개념은 미국식 대학 캠퍼스조성이었고 그 대학의 기준은 웨슬리 대학이었다.  
 『……우선 현 교사가 깔고 앉은 아늑하고 포근한 애기능 술술 계곡에다 새터를 담고 본관, 음악관, 체육관을 세우게 되어 1933년 9월 가을에는 새집에서 수업할 터이었는데……』  
 그 장소성에는 「애기능」의 술술 계곡이 자리잡고 있었다.  
 이화학당은 1925년 4월 朝鮮敎育令 私立 專門學校 규정에 의하여 梨花女子 專門學校로 개칭되고 文科, 音樂科의 2과를 설치했다.(이후 家事科 증과)  
 Scranton 과 Apenzeller 는 일들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초대 교장은 Apenzeller 夫人이었다)  
 新村 캠퍼스에 처음 세운 건물은 미션계風の 本館(Pfeiffer Hall) 건물이었다. 본관 건물은 日本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 겸 건축가 W.M.Vories<sup>2)</sup>에게 맡겨졌다. 그는 일본에서 住宅, 學校, 幼稚園, 敎會, 등을 많이 설계해온 바 있다. 보리스는 1910년부터 韓國의 미션계 건축물의 설계를 맡기 시작했다. 그가 다룬 건물은 梨花女專(현, 梨大) 여러교사,

(會賢洞) 監理敎會, 泰和基督教社會館 등이었다.  
 그와함께 일한 姜沆(1899~1960년대?)은 충남 논산 출생으로 미국감리교계통의 학교인 永明學校를 졸업한 뒤 미국인 선교사였던 교장 E.C.Williams 와 일본 大阪에서 활동하고 있던 보리스와의 인연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보리스가 활동하던 주무대는 오사카였으므로 그는 보리스의 설계사무실에 나가며, 1923년 가까운 곳에 있는 關西工學(專修學校 지금의 大阪工業大學)에 입학, 건축수업을 하였다.  
 이 무렵에는 그와 비슷한 연배의 한국인 건축가 林德洙도 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그는 학교, 교회, YMCA, 병원 등 감리교의 선교목적에 위한 건축물을 위주로 한 일본·한국에 설계되고 있는 보리스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다가 1938년 보리스가 서울에 京城駐在사무소를 개소하게 되자 이화학자전문학교 건물군, 회현동 감리교회(남산교회당)등의 건축에 관여했으며, 이후 계속 '보리스건축'의 실현에 전력했다.(대표작으로는 태화기독교사회관, 1939을 들수 있는데, 이 건물은 3.1운동의 장소로서 한·양절충식의 표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Vories 자신의 대표작은 대부분 梨花女大에 집중되어 있다. 그에 의하여 Master Plan 도 계획되었다.<sup>3)</sup>  
 본관은 1932년에 설계되었다. 梨花女大 캠퍼스 내 최초의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1933년 6월 10일에 定礎式을 거행했다.<sup>4)</sup>  
 고딕양식의 石造 교사로 설계되었다. 平面은 좌우 대칭형 H자형이었다. 立面 역시 마찬가지로였다. 좌우 兩翼은 前面으로 돌출되었다. 內庭을 감싼 기둥이었다. 중앙 현관부는 半地下로 들어 올려 계단 처리, 三面 진입로로 했다. 이 교사에서 가장 의장적 핵심이 되는 부분은 지붕의 Dormer 창차리였다. Dormer 8개는 가지런히 뿔려 있었다. 중앙 현관부의 pediment 는 그것을 확대시킨 느낌이다.  
 새가 날개를 펴고 나르는 형상이었다. 지붕 재료는 합석을 택해서 덮었다. 1935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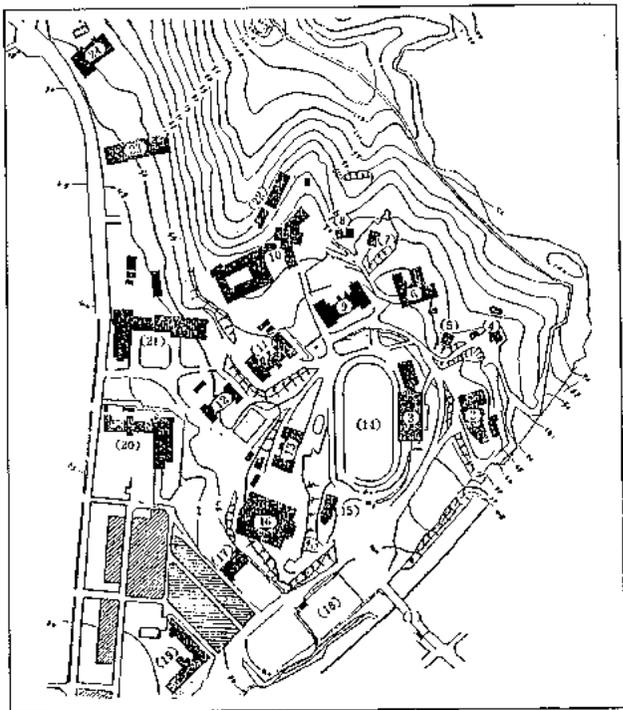
85. 梨花女大 本館

위치 / 大岷洞山  
 착공년월일 / 1933. 3. 15  
 준공년월일 / 1935. 5. 31  
 설계자 / Vories+姜沆 坵 坵  
 시공자 / 馬鍾淵+ M. L. Swine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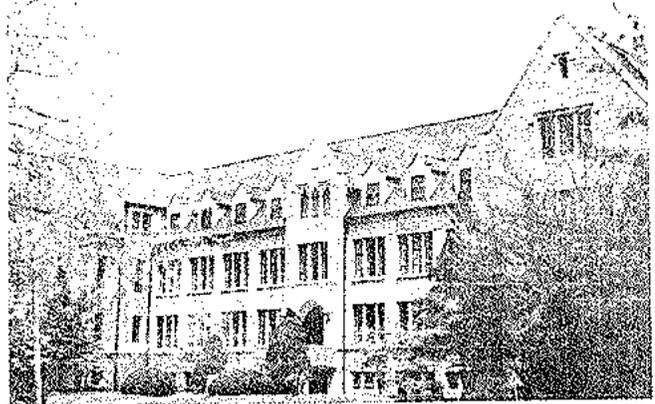
▶ 보리스(헛사진)와 그의 건축사무소 인맥, 晏沈(1920~1936) 林德洙(1920~1929)가 기록되어 있다. 아래 사진에서 둘째줄 오른쪽 끝이 晏沈 세째줄 오른쪽 끝이 林德洙이다. (日本の建築, 明治, 大正, 昭和 보리스판, pp 160~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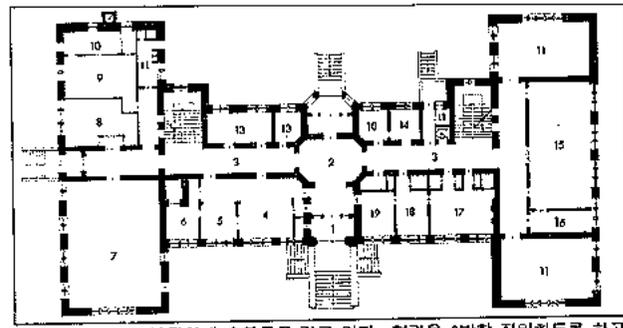
▲ 이화대학의 캠퍼스가 들어서기전의 매기는 숲을계곡.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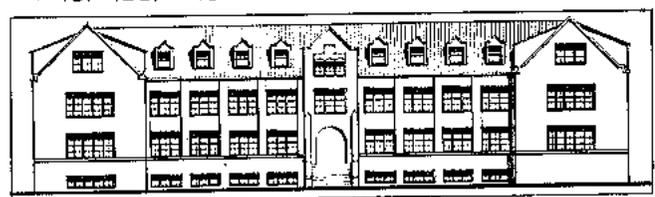
▲ 1960년대의 이화캠퍼스, 배치도. [9]번이 본관, [18]번이 대강당이다.



▲ 고딕풍, 미션풍, 대학풍의 典型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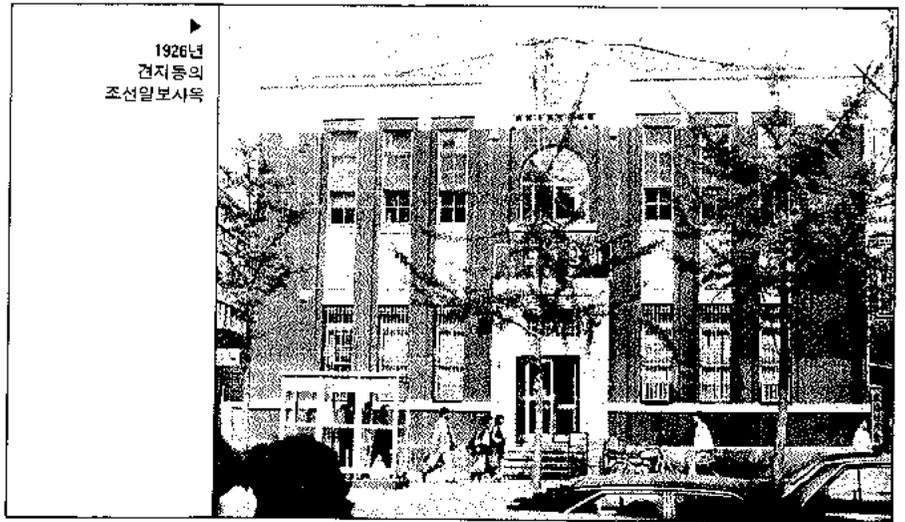


▲ 본관 평면도, H자형에 속속도를 갖고 있다. 현관은 3방향 진입하도록 하고 들어올렸다.



▲ 본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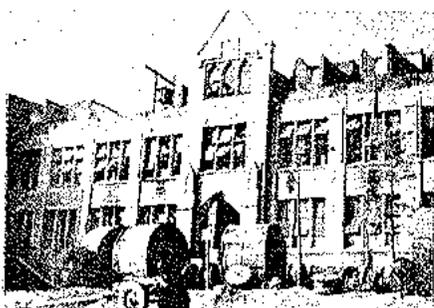
▶  
1926년  
견지동의  
조선일보사옥



30일 本館은 준공되었다.  
공사는 開城 출신의 馬鍾濤<sup>5)</sup>가 맡았다.  
교사가 준공되자 梨花女專은 정동  
梨花學堂에서 나왔다. 梨花女大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音樂館 (Case Hall  
1933. 3. 15~1935. 5. 30),  
體育館 (Thomas Gymnasium  
1933. 3. 15~1935. 5. 30)도 이 때 함께  
준공되었다.  
모두 Vories 에 의해 설계된 것이었다.  
공사는 馬鍾濤와 王公溫의해 이뤄졌다.  
1953년 6. 25 동란의 피해 부분을 복구한 바  
있다. <sup>6)</sup> 현재의 캠퍼스에서 중심적 건물이  
되어 있다.

□註□

1. 京城府郊外 高陽郡 延禧面 新村里,  
이화학당, 매재사, 이화80년사 종합
2. William Merrell  
Vories (1881~1964)는 1905년부터  
日本에서 활동했다. 처음은 宣敎師의  
역할이었으나 1908년부터 건축가로  
전향했다. Vories 합자회사를 1910년에  
세웠다. 그의 사무실에는 韓國人으로서  
林德洙와 姜沆이 있었다. 1927년 韓國에  
처음 왔었고 1938년 Vories  
建築事務所京城支部를 개설했다.  
韓國에서의 역할은 대부분 姜沆이 했다.
3. 尹一柱, 西澤泰彦, "1910~1930年代  
2人의 外人 建築家에 대하여."
4. 「監理會報」, 1935. 4. 10.
5. 開城 출신으로 石造건물 건축 공사에  
일가견이 있었다.
6. 金敬煥, 「梨花의 뒤안길에서」,  
普成文化社, 1982



▲ 6. 25로 파괴된 本館. 이후 복구되었다.

86. 朝鮮日報 社屋

위치 / 중구 태평로 1가 61  
착공년월일 / 1934. 3. 26  
준공년월일 / 1935. 6. 10  
설계자 / 朴東鎭  
시공자 / 福音建築廠(王公溫, 중국인)  
건축규모 / 構造: 철근콘크리트조+벽돌조  
層 別: 地下 1, 地上 4, 屋塔 1  
佔地面積: 1, 400. 24坪  
建築面積: 349. 68坪  
延 面 積: 1, 196. 73坪  
보존상태: 1969년 10월 15일 철거

朝鮮日報은 1919년 10월  
大正實業親睦會가 주축이 되어, 朝鮮日報  
설립 발기 조합을 만들면서 태동되었다. 첫  
사옥은 京城府 貫鐵洞 249번지로 정했고  
이 곳에서 1920년 3월 5일 創刊號를  
발간했다. <sup>1)</sup>  
그로부터 50여일 후에는 三角洞으로 사옥을  
옮겼다. <sup>2)</sup>  
또 1년 후에는 水標洞 43번지로 다시 이전,  
그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언론의 시대적  
상황을 말해 주고 있다.  
1925년 12월 28일에는 堅志洞 111번지에  
새사옥의 기공식을 거행, 드디어 신문사다운  
사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대지 440여평에 건평 320평의 이 견지동  
사옥은 2층 벽돌조 건물로 지어졌다. 이  
사옥은 1926년 7월 5일 준공되었으므로  
신문사는 창간 6년만에 새사옥을 갖게 된  
것이었다. <sup>3)</sup>  
그러나 그 후에도 신문사의 내부적 문제로  
안정이 안되고 사옥의 이전은 거듭되었다. <sup>4)</sup>  
朝鮮日報은 1933년에 가서야 영구적인  
사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1934년 3월 사옥은 현 위치<sup>5)</sup>에서 착공되었다.  
이 곳에는 원래 德壽宮의 부속 건물인  
德安宮이 있었고 嚴貴妃가 별세한 후로는  
嚴妃의 祠堂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다. <sup>6)</sup>  
당시 이 곳은 평퍼짐한 언덕으로 되어  
있었는데 길게 한-字로 된 古屋은  
여러개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sup>7)</sup>  
이 유서 깊은 터전에 朝鮮日報社는  
급한대로 먼저 인쇄 공장을 준공시켰다. <sup>8)</sup>  
本館 규모는 5층의 철근콘크리트조로

계획됐고 그 설계는 한국인 건축가  
朴東鎭(1899~1980)이 맡았다. 그는 그간  
朝鮮總督府 官房會計課에 근무했었고  
朝鮮日報 사옥을 설계하는 동안  
普成專門學校(현, 高麗大 本館 1934)  
圖書館(1937) 등의 설계도 해냈다.  
朝鮮日報 사옥의 현장 감독은 李允淳, <sup>9)</sup>  
崔奎후이 맡았다. 공사 도급자는 梨花여대  
캠퍼스에 많은 건물들을 공사한 바 있는  
「福音建築廠」의 중국인 王公溫이었다.  
신축 사옥은 1935년 6월 준공되었다. 사옥의  
정면에서 基層部는 화강석으로 마감했고  
현관부는 嵌道되어 계단으로 처리했다.  
전반적으로 단순하고 장식 없이 한 이  
외관은 신문사의 성격에도 잘 맞았다.  
5층부의 창문은 18개의 1단 Recessed  
Arch 로 틀었는데 이 부분이 유일한 장식  
요소였다.  
이 사옥은 신문사로서의 용도뿐만 아니라  
좌측면 3. 4층 부분에 있던 대강당을 다목적  
홀로 사용, 1930년대 후반기 이후의  
開化期적 계몽 등의 사업에서도 크게  
기여했다. <sup>10)</sup>  
8. 15 해방후 이 강당은 한 때 「시네마  
극장」으로 전용되어 (1969년까지)주변의  
(이미 다 헐려버린)아카데미, 국제극장과  
함께 新映畫街를 이뤘다.  
朝鮮日報社는 1969년(9. 21)사옥 후면에  
현재 사용중인 새사옥을 짓고 또다시  
이전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호텔을  
짓기도 하고 그 사옥을 철거했다. <sup>11)</sup>

□註□

1. 東亞日報은 1920. 4. 1 創刊號발간
2. 朝興銀行 본점 뒷편에 있었다. 밖에서  
보면 2층, 안에 들어가서 보면 單層의  
韓屋이었다. 대지 약 50평의 마당에  
판잣집의 공장을 세우고 그 곳에 인쇄 시설을  
설치했다. 三角洞 71번지 소재.  
(「朝鮮日報 50年史」 p. 115)
3. 和信백화점에서 安國洞방향쪽 첫번째  
버스정거장 앞에 있다. 현재는 농협중앙회  
충로지점으로 쓰여지고 있다.
4. 同順泰빌딩(1932. 6. 15),  
堅志洞사옥(1932. 11. 23), 蓮建洞

195번지 (1933. 4. 25)로 계속 이전했다.  
5. 이 대지는 처음에는 1,035평으로 시작,  
확장돼 1,400평, 1853평으로 각각  
증가되었다.

6. 嚴貴妃의 嬪殿은  
京畿女高(興德殿地)東側 丘陵(후에  
KBS 라디오 방송국이 들어섰었음)에  
있었다. 조선 高宗 光武 元년(1897)에  
後宮 淳嬪嚴氏의 宮을 明禮宮터에  
창설하여 慶善宮이라 하고 1912년 淳嬪이  
돌아가자 祠堂에 모시고 德安宮으로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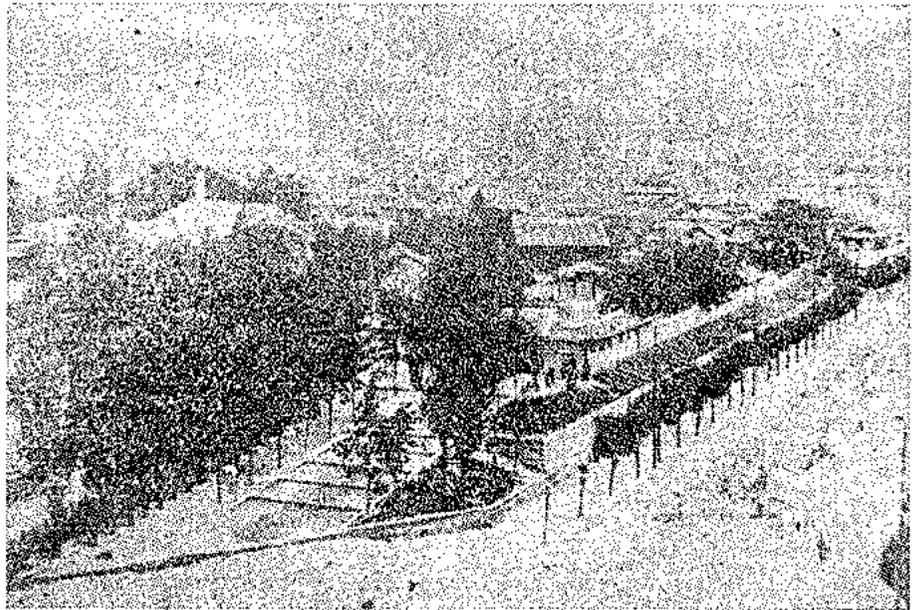
7. 「朝鮮日報 50年史」, p. 151.

8. 2층의 공장은 1933. 10. 10준공.

9. “朝鮮建築會”가입 당시 漢城書籍회사  
건축현장에 근무했다. (拙稿, “韓國  
近代 建築의 生成 過程에 關한 研究  
p. 98)

10. 이 시기에 대표적인 공공장소는  
YMCA, 京城公會堂뿐이었다.

11. 구 사옥은 서울시의 太平路  
도시계획선에 들어 절거지게 된 것이다.  
朝鮮日報는 현사옥 부에(정동)에 또다른  
사옥을 신축중에 있다. (1988년 4월 5일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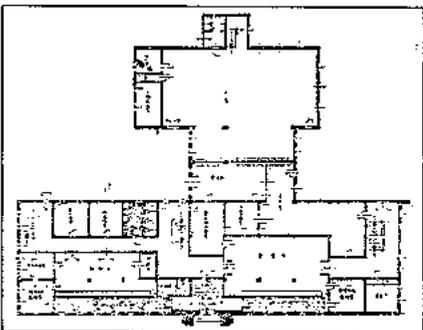


▲ 嚴妃의 사당이 있던 현, 조선일보사옥 터. 태평로 거리가 보이고 언덕위로 古屋들이 있다. (朝鮮日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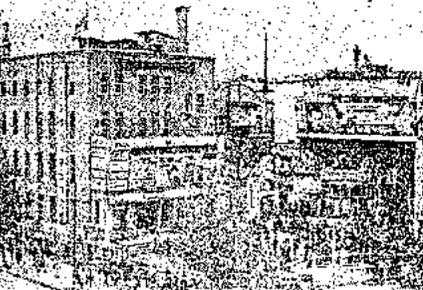


▲ 태평로거리. 좌측에 현 세종문화회관 별관, 그리고 조선일보사 사옥이 보인다.  
오른쪽으로는 멀리 증축되기 전의 동아일보사 사옥이 있다. (朝鮮殖産銀行 20年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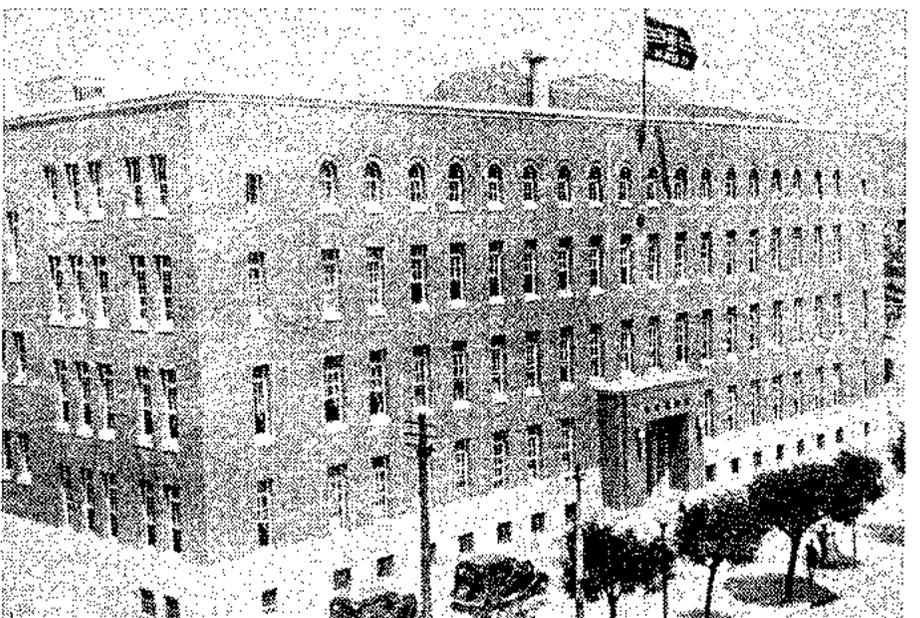
▼ 1935년의 새사옥, 장식이 배제되었다. 5층의 아치창문이 유일한 장식요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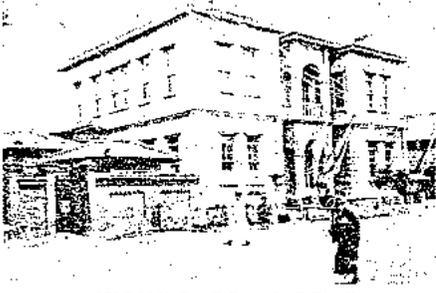


▲ 1층 평면도(朝鮮と建築 1935. 9). 前面이 태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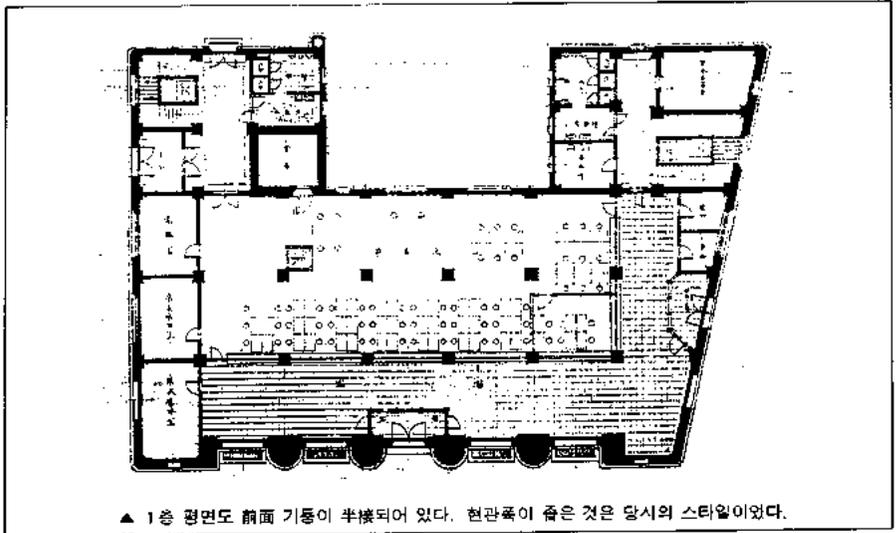


▲ 헬리기전 1969년의 조선일보사 사옥, 시네마(좌측)와 아카데미극장(우측, 현 초원대방자리) 7자형으로 마주보고 있다. 1960~1970년대에 賃價가 높았다. (조선일보 50년사)





▲ 제일은행이 지어지기 전의 대지주면. 왼쪽이 南部경찰서, 오른쪽이 京城居留民團사무실, 오른쪽 끝이 南大門市場이 된다. (京城府史)



▲ 1층 평면도 前面 기둥이 半接되어 있다. 현관쪽이 좁은 것은 당시의 스타일이었다.

### 87. 第一銀行 第一支店

위치 / 忠武路 1街 53-1  
 착공년월일 / 1933. 10. 14  
 준공년월일 / 1935. 11. 30  
 설계자 / 平林金吾  
 시공자 / 大林組  
 건축규모 / 構造 : 석조+철근콘크리트조  
 層別 : 地下 1, 地上 5, 歷塔 1  
 佔地面積 : 652.5坪  
 建築面積 : 355坪  
 延面積 : 2,129坪  
 보존상태 / 原形保存

현재, 第一銀行 支店의 行舎는 獎勵하고 典雅한 형태의 비례감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 거의 없는 1930년대의 Neo-Baroque 풍 樣式<sup>1)</sup>의 하나이다. 또한 이 건물은 국내 최초의 현상설계에 의한 공모에서 당선된 작품이어서 그 근대건축사적 의의도 크다. 第一銀行의 前身은 朝鮮貯蓄銀行이었다. 저축은행은 1928년에 제정된 貯蓄銀行令에 의하여 1929년 7월 1일 朝鮮殖産銀行의 저축에 관한 예금 업무를 인수하며 설립되었다.<sup>2)</sup> 創立 초기 저축은행은 朝鮮殖産銀行의 行舎 內에 2개의 방을 인차하여 우선 本店을 설치했고 이후 현 第一銀行 건물이 신축되어 이전될 때까지 약 6년 5개월간 그곳에서 은행 업무를 취급했다. 은행의 신축계획은 1931년부터 세워졌으며 “庶民金融의 殿堂답게” 세우기로 했다. 그 규모는 三越백화점(현, 新世界백화점)의 1/2 크기 정도로 계획됐다. 신축부지로 652.5평을 확보했다.<sup>3)</sup> 은행은 大衆은행의 성격을 살리기 위해 설계 계획안을 현상 공모한 것이었다(1932년 6월). 설계 공모의 전체 조건은 1) 완전한 금고를 완비하고 2) 대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영업실(Hall)을 확보하고 3) 그리고 행원의 복지를 위한 옥상식당을 설치한다. 등이었다. 은행측은 건축면적을 1,800평 정도로 제한했다. 또한 준공 후에는 서울의

명건물이 되기를 기대했다. 은행측의 요구와 안목은 질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현상 설계는 1932년 6월에 공고되었다. 원계획은 나카무라 마코토(中村誠)技師에 의해 수립되었으나 현상 설계기로 결정된 것이다. 제출된 설계작품을 심사한 결과 1등에는 東京 출신 건축가 히라바야시 기고(平林金吾)의 안이 결정되었다. 2등과 3등은 松本松壽(京城 多田工務店), 新田房長(東京出身)의 안이 각각 선정되었다. 당선작은 지하 1층, 지상 5층(중 2층 별도)규모의 네오바로크적 외관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디자인은 日本·東京의 不動産貯蓄銀行(現, 昭和電工빌딩 1930. 佐藤功 설계)과 유사했다. 일본의 저축은행은 前面柱도 4개(八角形인 점이 다름)이고 양측면(窓間열도 유사)도 비슷했다. 제일은행의 설계자가 이 건물을 모델로 삼았는가는 알 수 없다.<sup>4)</sup> 내부의 구조는 철골, 철근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외부는 벽돌쌓기 위에 細密을 요하고 壯重해 보이는 화강석으로 마감하도록 했다. 이 은행 行舎는 이미 주변 일대에 環으로 세워져 있는 朝鮮銀行(韓國銀行 본점), 東京火災保險株式會社(韓國銀行 別관), 京城郵便局(중앙 우체국), 三越백화점(新世界백화점)들과 잘 조화되도록 유념했다.<sup>5)</sup> 건축의 공사는 日本 大林組에서 맡았다. 공사는 1933년(10. 14)부터 시작되어 2년만인 1935년(11. 30)에 준공되었다. 건축 면적은 각층(1·2·3·4층)을 동일하게 355평씩 주었고 다른층들은 용도대로 분할했다. 연건평은 2,129평.<sup>6)</sup> 외관은 벽돌조의 幕壁으로 들었고 前面만은 우리나라에서 캐넌 花崗石을 붙여 마감했다. 또한 前面의 重厚한 붙임 石造 기둥을 Entablature 부분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렸다. 그 기둥은 사후트면에 fluting을 주어 面柱의 단조로움을 깬다. 柱頭는 擬 Doric order를 사용했다. Frieze 부분에는 5개의 圓板石을 붙여

Bay의 間살을 암사하는 역할을 했다. 兩端사이드의 大型面은 수직창 3개씩을 두어, 건물의 전체적인 상승감을 극대화 시켰다. 8.15 해방 후인 1946년 貯蓄銀行은 특수은행에서 일반은행으로 전환했고, 6.25 동란 후 한 때 韓國銀行에 건물을 빌려 주었으나 1958년부터 第一銀行 本店으로 재사용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은행은 원형을 잃지 않은 채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 이 銀行 건물은 보존되어 銀行史的, 建築史的 역할이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sup>7)</sup> 제일은행은 신축본점을 종로 공평동에 짓고 이전했다(1987. 10. 5).

#### □註□

1. 고전주의 양식에 비하여 페디먼트와 기둥이 돋보인다. 기둥은 벽에 반정도가 붙은 상태(편개주)로 된다. 또 전체의 형태도 고전주의 양식에 비해 횡적으로(옆으로)뻗어 중앙부와 양단부의 3가지로 구성되게 된다. 비교적 규모가 큰 건물에 쓰였다.
2. 朝鮮總督府 制令 제7호(1928. 12. 24), 同 銀行 규칙(1926. 6. 22).
3. 원래 이자리는 京城 居留民團役所와 南部경찰서가 자리잡고 있었다. 이 건물이 헐리고(京城府史 제2권 p775) 그 일대에 제일은행 건물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처음 확보된 대지는 567평 이 중 계획지는 488.6평 정도(「朝鮮と建築」), 이후 추가된 면적 합계는 625.5평(第一銀行 자료).

新築懸賞圖案入選者發表

一等 平林金吾  
 二等 松本松壽  
 三等 新田房長

選外佳作 凡 大衆土木株式會社  
 片岡 吉山 安太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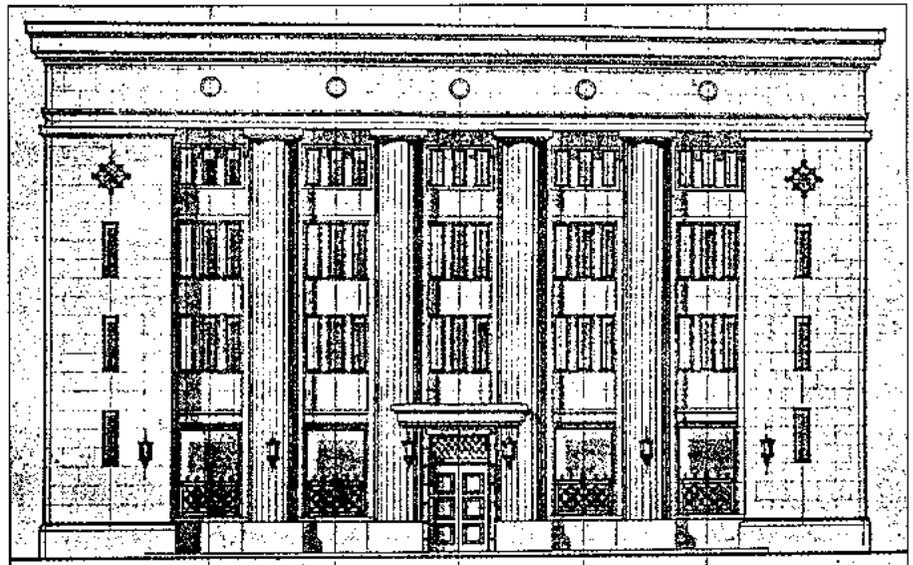
朝鮮貯蓄銀行

▲ 현상설계 당선작 발표 광고. 1등에 平林金吾가 당선되었다. (京城府史, 1933. 10. 14)

4. 설계기간은 2개월의 短期間이라 매우 짧았으나 당시 朝鮮內·外에서 무려 269점이 응모되었다(1932. 7. 30). 이것은 대단한 기록이다.
  - 東京建築探偵團, 建築探偵術入門, 文藝春秋, 1986, p. 112
  5. 최근의 건축사에서 한 점으로서의 건물의 중요성도 높이 평가하지만 한선 혹은 면으로의 보존에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6. 현상설계서 요구는 1,800평 공사중 완공후 2,018평이됨. 第一銀行 자료는 2,129평이다.
  7. 현 南大門區域 제10지구 再開發區域에 들어 있으나, 이것은 再調整되어야 할 것이며, 第一銀行 本店은 地方有形文化財급으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 최근의 언론보도도 이러한 방향에 관심이 높다. (경향신문, 1987. 7. 31. 동아일보 1987. 10. 16~10. 17. 조선일보, 1987. 9. 22. 주간매경, 1987. 8. 27).



▲ 새 문점이 公平洞에 지어져 지금은 支店으로 사용되고 있다.



▲ 당선안의 입면, 네오바로크형이 도입되었다.



▲ 측면은 사무실 빌딩의 분위기를 띠고 있다.



▲ 기둥의 후루틸이 정교하다. 柱頭의 도릭은 原形에서 벗어났다.

# 三國時代의 建築文化

Korean Architectur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 Period

張慶浩 / 문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 百濟의 建築

### 宮闕 및 祠廟

백제의 궁궐과 사묘 건축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을뿐 더러 모두가 <三國史記>에 나타난 것들이다. 이들을 보면 <表1>과 같다. 위와 같이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도 아주 빈약한 것이다. 이외에도 220년에 宮城西門에 불이 났다든가 269년에 패성이 紫宮에 나타났던 일 320년 宮西에 射臺를 만들어 매달 활쏘기를 하였다는 것, 475년 고구려의 간첩으로 들어온 道琳의 꾀에 넘어가 城을 쌓고 그안에 궁실과 關臺射를 짓되 장임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하며 또 500년에는 臨流閣을 宮城 동쪽에 세웠는데 높이가 다섯길이나 되고 또 연못을 파고 기이한 새들을 기르므로 신하가 상소하니 궁문을 닫아버렸다 한다. 이렇게 하여 세워진 임류각에서 왕은 신하를 데리고 밤새워 환락 하였다 하니 백제의 궁실은 처음에는 儉素한 건축을 하였으나 그 도읍을 熊津과 사비로 옮긴 후대에 와서는 너무 화려하게 꾸미어 결국 국력의 낭비와 정신적 부패로 나라를 잃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 史記 武王條에는 「三月穿池於宮南引水二十余里 四岸植以楊柳水中島 興擬方丈仙山」이라고 하여 궁전의 남쪽에 연못을 파고 20리에서 물을 끌어대고 사방호안과 수중섬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방장 선산을 모방하였다고 하여 당시 造景이 고도로 발전하고 화려 하였음을 알 수 있어 경주의 雁鴨池도 이와같은 백제의 전형적 조원이 이루어 짐으로써 그와같은 極致의 작품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지금 실제 백제의 궁지로 확인된 것은 거의 없다. 다만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전술한 공산성내 쌍수전앞 건물지를 백제 왕궁지로 推定하고 있는 것과 (忠淸南道, 公州師範大學博物館, 公山城 百濟推定王宮址發掘調查報告書, 1987) 부여박물관앞 宮闕址, (86년 충남대학교에서 발굴조사중) 그리고 益山 王宮里에 소위 왕궁터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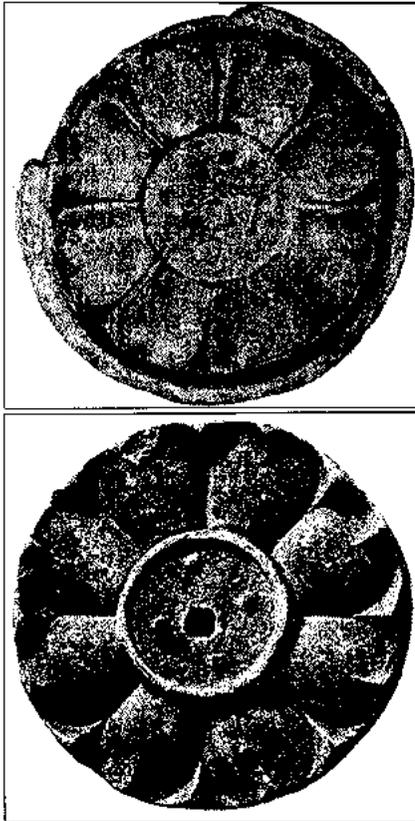
이들이 궁궐터라는 것은 아직 더 조사연구 되어야 할 것이다.

### 백제의 寺院建築

삼국시대 건축문화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면서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통일신라 시대의 건축문화 황금기를 이룩하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이중에서도 삼국중 가장 先進的으로 우리나라 傳統建築 형식을 이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백제의 불교 건축문화라고 믿어진다. 백제에 불교가 처음 들어 온 것은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인 12년후 384년( 枕流王 元年)에 중국의 摩羅難陀에 의하여 전해진 것이다. 불교가 전래된 이듬해에는 漢山에 佛寺를 조영하고 그후 백제가 도읍을 공주를 거쳐 부여로 옮기고 나서 聖王代에 梁으로부터 工匠과 畫師를 초청하는 등 불사의 조영이 성황을 이루고 또 일본에 불교를 傳해주는 등 활약이 컸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백제의 사원 건물지가 주로 밝혀지는 것도 거의가 부여지방이고 한강 유역이나 공주 지방에서는 거의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문헌 기록에 의하여 밝혀진 백제 사원을 들어보면 <表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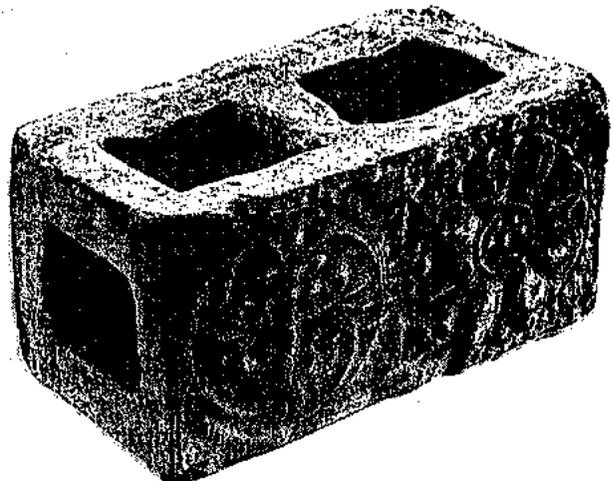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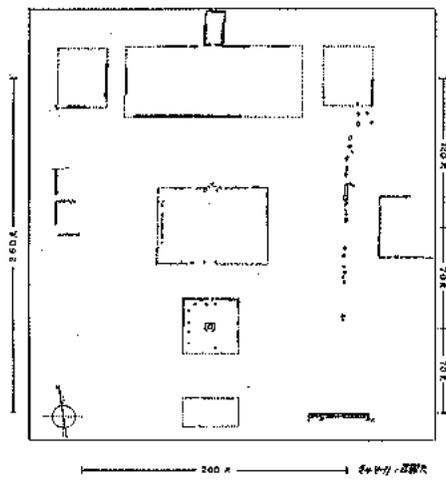
다음 調査를 통하여 알려진 추정 백제사지는 많이 있으나 발굴조사를 통하여 백제사지임이 밝혀진 것은 주로 부여지방과 익산 지역의 사지 몇곳으로 알려져있다. 이들 사지중 중요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軍守里寺址(부여읍 군수리 소재) 이 사지는 1935~1936년 일본인 石田茂作에 의하여 발굴조사 되었다. 발굴결과 사지의 가람이 南向한 一塔式 伽藍으로 남쪽에서 부터 中門, 塔, 金堂, 講堂이 남북축을 맞추어 배열되고 중문지의 양측과 강당지 양측(여기서는 鐘, 經樓址로 추정되는 방형건물지가 각 한개씩 놓여 있었으므로 화랑지가 이곳에 연결됨)을 연결하는 화랑지가 중심 가람을 방형 평면을 이루면서 둘러져있다. 중문지에서 탑지까지의 중심거리는 당시



▲ 軍守里寺址 出土 蓮華文 銅막시

◆ 張慶浩  
32년생으로 한양공대 건축공학과를 졸업(61) 하고 1975년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연구실장에서 76년 종의대에서 석사학위 및 85년 2월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87년 3월 제 2대 문화재 연구소장에 취임, 재직중이다.



圖面 1. 扶餘 軍守里寺址 伽藍圖

▲ 軍守里寺址 出土 蓮華文 瓦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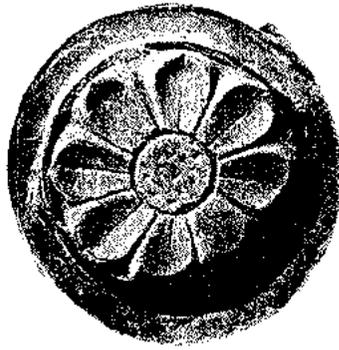
사용했던 營造尺인 高麗尺(약 35.5cm)으로 환산하면 70척이 되며 탑지에서 금당지까지 중심거리 역시 70척이 되며 금당지에서 강당지까지는 100척이 되어 그 거리의 비는 1:1:1.43이 된다. 또 좌우 양측 화랑지간의 거리는 고려척으로 약 200척이 됨으로써 화랑 내곽은 1:1.2의 矩形이 된다. 주요 건물지를 살펴보면 탑지는 기단 한번 길이가 고려척 40척의 정방형 인데 보고서에 나타난 유구도면을 보면 柱間이 5間으로 추정되며 건물지의 중심에는 心礎石이 地表下 6尺되는 곳에 있었다. 이렇게 심초석이 지하에 놓이는 것은 일본의 四天王寺나 法隆寺의 목탑지에서 그 예를 볼수있고 후술할 부여 金剛寺址에서도 밝혀지고 있어 7세기초 이전에 백제의 목탑에 흔히 사용되었던 기법으로 추측된다. 金堂址는 기단의 규모가 동서 약 27m 남북 약 18m였고 기단은 기와를 세워 쌓은 瓦積기단이었다고 한다. 또 강당지는 동서 약 45.5m 남북 약 18m의 역시 瓦積기단을 하였다. 동·서화랑지의 외곽에는 금당지의 동서측을 맞추어 놓인듯한 건물지가 각 한개소씩 있어 화랑밖에도 建物區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橫으로 여러 건물區를 이루는 配置例는 고구려의 定陵寺址나 익산 미륵사지 그리고 고려의 興王寺址나 佛寺逸址등 흔히 조영됐던 형식인것 같다. 이 사지의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瓦堂은 八葉素瓣 蓮花紋 瓦堂과 椽木瓦 그리고 中空有紋전등 이다.

**東南里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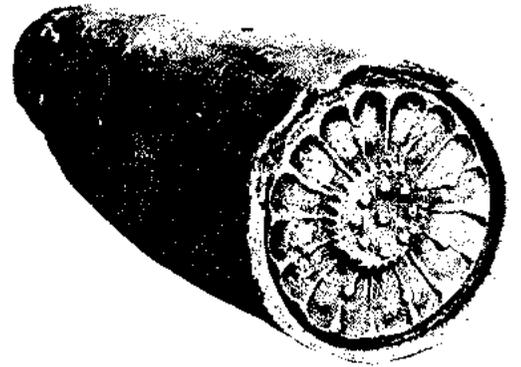
이 사지는 부여읍 동남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1938년 역시 일본인 石田에 의하여 발굴조사 되었다. 남향한 가람에다 남에서부터 중문지, 금당지, 강당지가 남북축선상에 놓이고 중문과 강당지를 연결하는 화랑지가 矩形의 가람 중심곽을 이루고 있다. 가람의 동서폭은 고려척으로 환산하여 약 230尺이고 중문과 금당지의 중심 거리와 금당지와 강당지의 중심거리는 다같이 108尺으로 합하여 216尺이다. 이 사지에서는 다른사지와는 달리 塔址가 없었던 것이 특이하다. 강당양측 곁에는

王 名	年 代	記 事 内 容
溫祚王 13	B. C. 6	九 月 立城闕
溫祚王 15	B. C. 4	春正月 作新宮室 儉而不陋 華而不侈
肖古王 23	188	春二月 重修宮室
比流王 30	333	秋十月 修宮室
辰斯王 7	391	春正月 重修宮室 穿池造山以養奇禽異卉
文周王 3	477	春二月 重修宮室
東城王 8	486	秋七月 重修宮室
武王 31	630	春二月 重修泗批之宮
義慈王 15	655	春二月 修太子宮極修麗立望海亭於王宮南
溫祚王 元	B. C. 18	夏五月 立東明王廟
溫祚王 17	B. C. 2	夏四月 立廟 以祀國母

寺名	所 在	文 獻	内 容
大通寺	公州, 斑竹洞	三國遺事(성왕 5)	현존 유구로 推定講堂址와 幢竿支柱, 石槽등이 있다.
興輪寺	公州	동국여지승람 李能和, 불교통사	聖王代에 謙益이 律典을 번역
四穴寺	公州, 熊津洞	신증동국여지승람	조사된바 塔址와 建物址노출, 사지북쪽 약 100m 거리에 석굴이 있음. <西穴寺> <三寶>銘 瓦片.
水原寺	公州, 玉龍洞 月城山	삼국유사 신증동국여지승람	1978년 塔址 확인, 蠟石製 小塔 출토 및 통일신라시대 瓦片 출토
王興寺	扶餘, 規岩面	삼국유사, 삼국사기	사지 중심부에 방형초석 간존 고려시대의 <王興>銘 기와 출토
虎岩寺	"	삼국유사, 여지승람	방형초석, 백제기와 등 발견
聖住寺	保寧郡, 聖住山	삼국사기, 삼국유사	烏舍寺, 烏舍寺로 기록되었으나 이것이 聖住寺의 전신임
漆岳寺	扶餘?	삼국사기	金剛寺址와 같은 것으로 보는 학설이 있음
道讓寺	不明	삼국사기	<... 風雨暴至震 天王道讓二寺又震 白石寺講堂>이라함 <天王>銘 기와가 東南里와 德衡里에서 나왔다 함.
資福寺	불명	삼국유사	현 王宮里 石塔 서쪽 약 1km 거리에 사지가 있어 塔址 心礎가 있음
帝釋寺	益山, 金馬	동국여지승람 觀世音應驗記	武王이 어렸을때 마를 캐다 金을 얻어 붙여진 이름이며 報德城 남쪽에 있다고 하는데 그 위치는 불명
五金寺	益山, 金馬	동국여지승람 臥遊錄	현 修德寺의 근처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백제 기와가 출토되었다.
北部 修德寺	忠南 禮山	삼국유사	현 修德寺의 근처로 보고 있으며 여기서 백제 기와가 출토되었다.
普光寺	全州	동국여지승람	백제의 대가람이라 하나 불명
彌勒寺	益山, 金馬	삼국유사, 삼국사기	별도 기술할 것임
獅子寺	益山, 金馬	삼국유사, 여지승람	현재 獅子庵이 있으나 확인할 수 없음
岩 寺	서울 岩寺洞	동국여지승람	사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함



▲ 東南里出土 蓮華文 솟막새



▲ 東南里出土 蓮華文 솟막새

군수리사지에서와 같이 鐘經樓址를 두고 동·서화랑이 이 건물지에 연결되고 있다. 또 중문지의 남쪽에 좀떨어져서 남문지로 보이는 유구가 발견되어 우리나라 사지조사에서 처음으로 남문지가 확인된 유구이기도하다.

### 金剛寺址

이 사지는 扶餘郡 恩山面 琴公里에 위치하고 있다.

1964년과 1966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하였는데 가람이 東向을 하고 있음이 다른 백제 사원 가람과 다른 특징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동향으로 가람을 이룬것은 지형에 의한 것인지 혹은 敎理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평평한 평지에 놓인 이 사지는 반드시 지형에 구애되어 동향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사지 중심곽의 규모는 고려적으로 환산하여 남북 폭이 약 215尺이고 중문에서 강당지까지의 중심거리가 약 290고려척으로 전술한 군수리 사지의 중심곽 규모와 거의 비슷하다. 건물의 배치는 역시 백제의 전형적인 一塔式 가람을 동서축에 맞추어 형성하여 동쪽에서부터 중문과 탑, 금당, 그리고 강당지가 놓여있다. 중문에서 탑까지의 중심거리는 67고려척이고 금당지의 유구는 후대의 것과 중첩되어 있었지만 탑지와 초창기의 금당지까지의 중심거리는 65고려척으로 계산이 되어 역시 이 두개의 거리가 거의 같았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또 금당지와 강당지와의 중심거리는 135고려척이 되어 북에서부터 건물간의 거리의 비례는 1 : 1 : 2가 된다. 탑지는 여러번에 걸쳐 중창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1) 초창기의 기단은 황갈색의 점질토를 이용하여 版築을 하여 다졌는데 그 한층의 두께는 1~6cm를 이루었고 다짐봉의 직경은 약 3~4cm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기단의 규모는 한번이 고려척으로 환산하여 약 40尺이며 판축 두께 6尺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한다. 이 목탑지 중앙 지표면에서 心礎部로 보이는 자연암 삭토층이 있었는데 그 형태의 직경이 약 6.6곡척이고 중앙의 기둥구멍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직경은 약 4척 그 깊이는 2.2척이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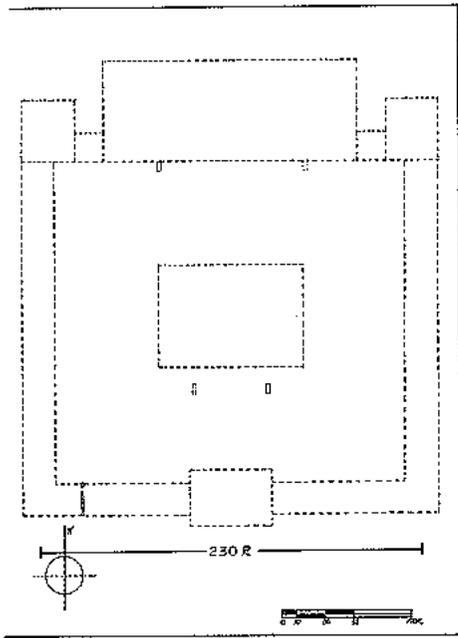
이 사지에서 중문지와 강당지 양측으로 화랑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강당지

옆에 鐘經樓址가 없이 화랑이 직접 강당지에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당기단의 규모는 고려척으로 환산하여 남북길이가 54尺 동서폭이 40尺이 되어 그 邊長의 비가 1.35 : 1이 된다. 이 금당지에는 기단 지대석 일부가 원형대로 남아 있었는데 익산 미륵사지의 것과 같이 지대석 상면에 면석을 세워놓은 턱을 안쪽으로 깎아내고 또 기단의 모서리에서만 隅柱를 세웠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화랑지와 강당지에서 발견된 초석은 원형초석으로 그 밑을 받친 積心石이 판축의 표면 위에만 놓여 그리 두껍지않게 깔려 있었다. 그러므로 이 원형초석도 후술한 익산 미륵사지와 같이 밑면에 뾰족한 팽이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강당기단의 규모는 길이가 고려척으로 환산하여 130척이고 폭이 54척이며 이 강당지 후측 중앙에는 뒤에 가로 놓인 승방지와 연결되는 듯한 복도지가 노출되었다. 승방지의 규모는 길이가 250고려척 폭이 40척으로 환산되어 그 규모가 상당히 컸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瓦堂은 8瓣 蓮花紋에 瓣端 중앙에 꽃잎이 反轉되는 것과 반전되지 않고 꽃잎이 두둑하게 둥글린 것 또 고구려계의 尖端을 이룬 것등 여러 종류가 출토되었는데 지방에는 중심부에 한개의 蓮子를 놓고 그 주위에 5개~8개의 蓮子를 두고있는 것 등이 있다. 그중에는 연관을 線刻한 것에 周緣에 珠紋을 한것도 있어 백제 6세기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외에도 암막새 기와와 연목와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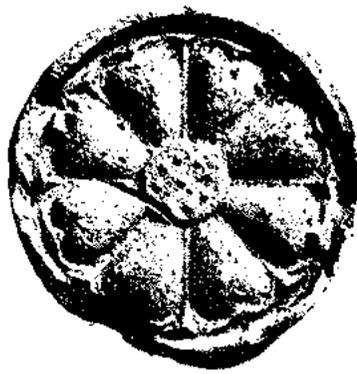
### 定林寺址

이 사지는 부여읍 東南里에 있다. 1942년과 1943년에 걸쳐 일본인 藤澤一末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발굴조사되었는데 당시 <太平八年戊辰定林寺大藏當草>라는 銘文瓦가 출토되어 정림사지임을 알 수 있었다. 사지에는 백제 5층석탑과 그 북쪽에 강당지로 보이는 곳에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石佛坐像이 남아있었다. 1979년과 1980년 충남대학교에서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伽藍의 성격을 알 수 있었는데 남향한 一塔式 가람으로서 남쪽에서부터 중문지와 5층석탑, 금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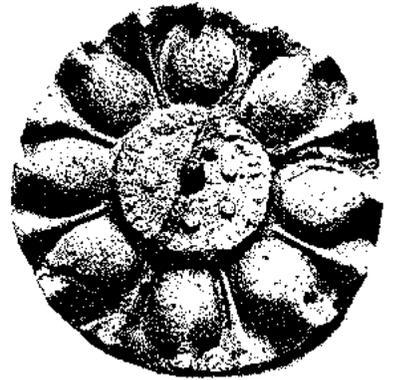
강당지 등이 남북축선상에 놓였고 강당지 좌우에는 작은 건물지가 각 한개씩 놓였던 것 같고 중문과 이 건물지 사이에 화랑지가 연결되었다. 또 중문지 남쪽에는 남문지가 있었으며 그 앞 양쪽에는 연못지가 露出되었다. 중심곽의 규모는 동서폭이 고려척으로 130尺 중문에서 강당지까지의 중심거리가 220고려척으로 되어 비교적 폭이 좁고 긴 구획을 이루고있다. 중문지에서 석탑까지의 중심거리는 고려척으로 55척이고 석탑에서 금당지사이 중심거리 75고려척으로서 전술한 사지들과 같이 등거리가 아니고 탑에서 금당지까지의 거리가 더길다. 또 금당지에서 강당지까지의 중심거리는 90고려척이 되어 거리의 비례가 1 : 1.36 : 1.64가되어 좋은 비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발굴보고서 1)에 의하면 이곳에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 6세기에 속하는 것이 초창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석탑의 樣式은 7세기때 세운 것으로 추정하는 익산 미륵사지의 석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석탑은 정림사의 초창기의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후에 重創時에 목탑대신 세워진 것이 아닌가 한다. 이때 탑의 위치를 바꾸었다면 위와 같이 맞지 않는 비례가 생길것이다. 만일 중문과 탑과 금당의 각중심거리를 같게 수정한다면 그 비가 1 : 1 : 1.4로서 조화를 이룰 것이다. 여기서 특기할 것은 금당지의 기단이 상·하로 2중기단이었으며 소위 遮陽間이 있었다고 한다. 主體가 놓였던 흔적으로 보아 柱間은 동서 7칸이고 남북5칸이었다. 그러므로 상층기단위의 본래의 금당은 5칸×3칸의 건물로 추정된다. 기단규모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보고서에 기술한것으로 보아 동서길이 15.15m 남북폭 10.2m로서 변장의 비례가 1.5 : 1이된다. 강당지는 중창으로 인하여 유구의 교란이 많고 중창건물지의 주칸은 7칸×3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여기서 출토된 와당의 문양은 백제시대의 卍字 8엽 연화문과 통일신라시대의 覆鉢 연화문 그리고 서까래기와 암막새와 치미편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고 앞에서 말한 銘文瓦도 출토되었다. 와당의 양식은 앞에서 기술한 금당사지의 것과 거의 시대를 같이하는 것들로 추정되거나 이보다 약간 앞서는 것들이 있어 이들의 창건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곳 석탑에 대하여는 다음 미륵사의 석탑을 論할때 기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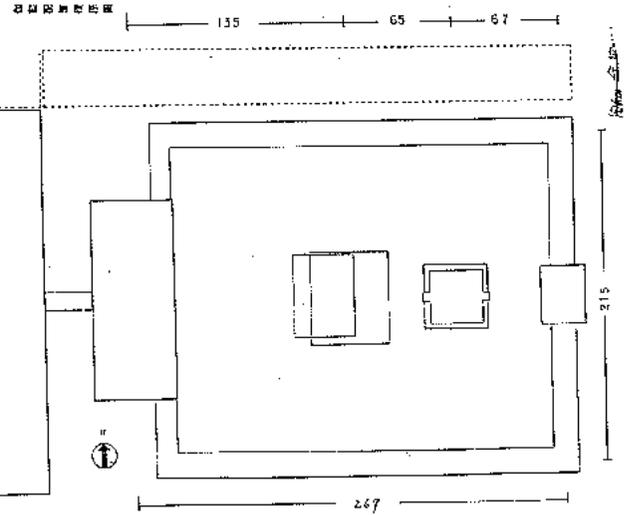
圖面 2. 扶餘 東南聖寺址 伽藍圖



▲ 金剛寺址 出土 蓮華文 鍔曷世



▲ 金剛寺址 出土 綠乳 瓶



圖面 3. 金剛寺址 伽藍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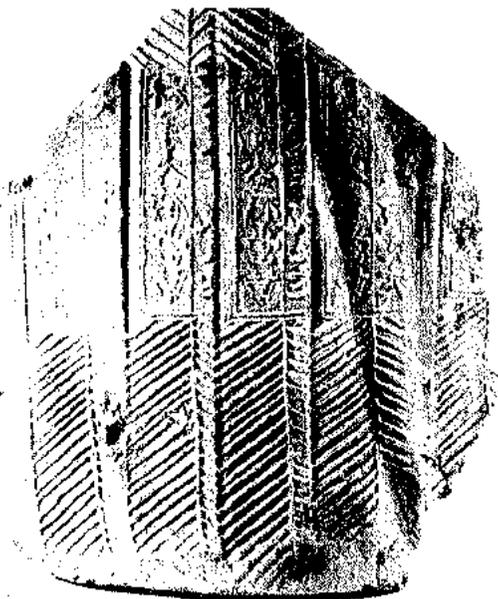


▲ 定林寺址 出土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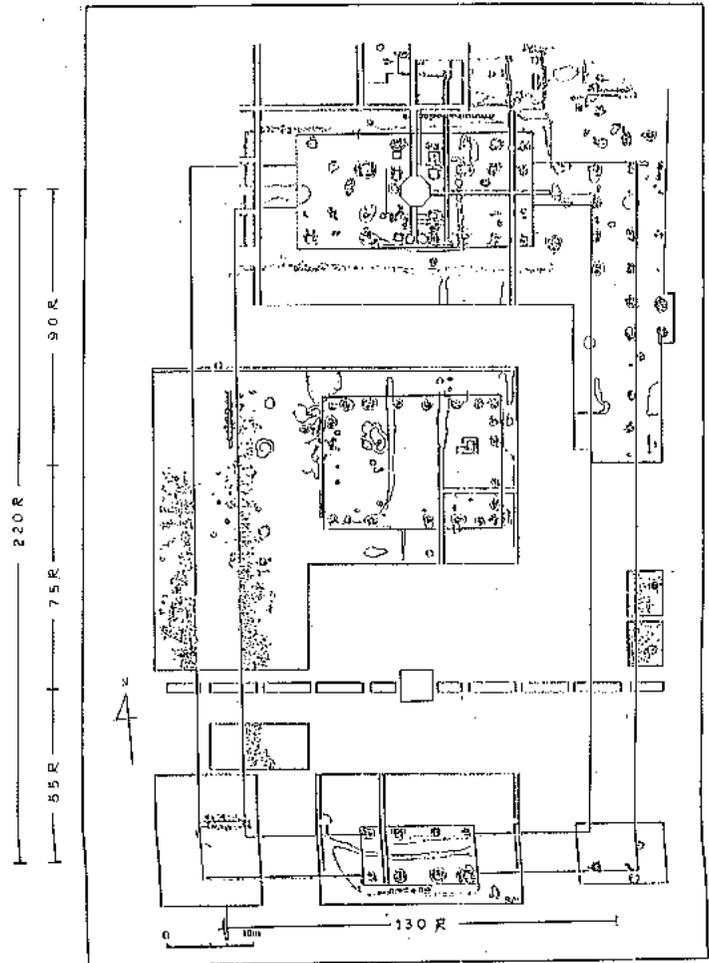
定林寺址 方形礎石 ▼



▲ 定林寺址 出土 草樹入案 蓮華文 鍔曷世



▲ 定林寺址 出土 銘文瓦



圖面 4. 定林寺址 伽藍圖

# 傳統劇 公演場의 建築要素 (1)

Architectural Elements of the Proper Theater for the Traditional Korean Dramas

金基哲 / 工學博士,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

by Kim, Kee Chull

## I. 傳統劇과 演廚空間의 特性

### 1. 傳統劇의 起源과 變遷

傳統劇은 기원전 韓民族의 형성과 더불어 발생하였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 기원은 先史時代 이전부터 언급되어야 한다. 기록상 최초의 것은 3세기경 한반도의 여러부족과 생활상태를 기록한 三國志魏志東夷傳과 기타 중국史籍의 단편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에 의하면 어느 부족사회에서나 1년에 1,2차의 國中大會를 열고 祭天과 아울러 부족의식을 연마하고 歌舞百戲를 演行하였다고 하는데 夫餘의 迎鼓, 高句麗의 東盟, 1歲의 舞天, 馬韓의 春秋祭(五月의 祈豐祭)등은 그 대표적인 古代祭儀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고대의식의 모습은 전승된 민속에서 그 내용을 복원할 수 밖에 없을 뿐더러 歌舞百戲의 구체적인 모습도 洞祭神祀과 함께 現傳한 가면무극과 기타의 놀이에서 유추할 수 밖에 없다.

#### 가. 古代의 演劇

여러가지 기록에서 漢代에 西城樂의 영향으로 비롯된 散樂百戲가 北朝와 왕래가 있었던 고구려에도 영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中國史書에는 高句麗俗에 대하여 “그 나라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나라안 모든 촌락에서는 밤만되면 남녀들이 여럿이 모여서 서로 노래하고 논다”라 하였고 隨書音樂志에 芝栖歌와 歌芝栖舞가 있음을 말하는 데 그 가무의 내용은 불명하나 崔南善은 이를 우리말로 “짓”이란 말의 對字로 추정하였다. 또 文獻備考에 보이는 傀儡戲가 연면히 전승되어 현존한 민속인형극 꼭두각시 놀음에 까지 연결된다. 이러한 흔적을 고구려의 고분벽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通溝舞踊塚에는 5인의 群舞를 볼 수 있고 安岳고분에는 기문고, 완함, 등소에 맞추어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八濟里, 藥水里, 修山里 고분등에도 칼춤이나 弄丸등의 雜戲를 볼 수 있다. 백제에는 뭇에서 전해져와 일본에 까지 전해진 伎樂이 있는데, 이것은 山台都監놀이로 전승되어오고 있다는

전해가 분분하다. 寺刹에서 관객인 일반대중(신도)들 앞에서 演舞된 극적 구성을 가진 가면무용극으로서 한국가면극의 濫觴이 되며, 현존한 山台劇의 모체라고 볼 수 있으며, 오늘날 민속무용 사자舞에서 百濟伎樂의 편모를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 문헌에 歌舞百戲라는 成語가 보이기는 三國史記 卷1 新羅 儒理尼師今 9년의 嘉俳條이고, 다음으로 진흥왕 12년에 처음 설치하였다는 팔관회 기사가 文獻備考에 보이는데 “百戲歌無를 놓고 북을 빌었다”고 하였다. 이때의 歌舞百戲가 어떠한 내용의 것이 었는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신라의 팔관회를 계승한 고려조의 팔관회에 관한 기록에서 내용을 엿볼 수 있는데 “毬庭에 輪燈一座를 두고 香燈을 사방에 늘어 놓았으며, 또 돌을 뺏었는데 각각 높이가 5丈이 넘었고, 百戲歌舞를 앞에서 보였는데 그 四仙樂部와 龍鳳象馬車船은 모두 신라의 故事였다”라고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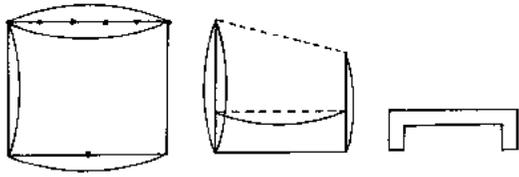
신라의 歌舞百戲의 내용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는 五伎가 있는데 이것은 고려의 山台雜劇이나 조선조의 儼禮雜戲의 선행예능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五伎 가운데 接貌는 獅子舞로서 현재까지 전하여지고 있다.

#### 나. 中世의 演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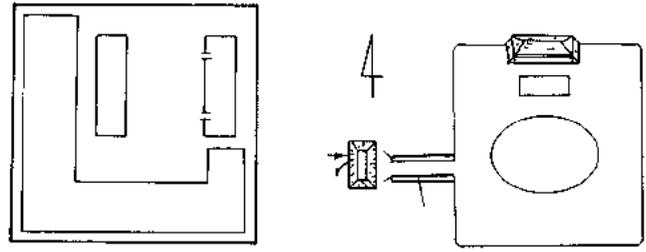
고려조 演戲는 신라의 歌舞百戲를 계승하여 그 規式之戲의 측면의 祭展은 물론 笑謔之戲의 측면의 희곡적 전개로써 百戲中의 調戲를 발달시켜 조선조 후반기에 와서 이 양면을 지양시킴으로써 산대도감계통극의 형성에 또한 모태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 工商人들은 천인계급으로써 천대를 받았으나 이들의 세력이 점점 성장하여 그들의 오락적 요구에서 직업적인 배우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고 歌舞百戲도 10세기 이전의 단순한 規式之戲에서 調戲 즉 笑謔之戲로 비약적 발전을 보게된다. 다분히 시대비판의 일면을 보여 주었던 서민정신이 조선조 후반기에 이르러 개화될 때 規式之戲와 笑謔之戲의 양면이 종합되어 산대도감계통극이 형성되기에 이른다.

#### ◆ 金基哲

1944년 서울성으로 용인대학교 건축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석사·박사과정을 수료후 87년 博士學位 取得, 현재 弘益大, 建大에 출강하며 건축사사무소 東明建築을 지영하고 있다.



(그림 1) 山臺雜劇을 위한 假設舞台



(그림 2) 揚州別山台 놀이마당

#### 다. 近世의 演劇

斥佛崇儒의 조선조는 山臺雜劇과 儼禮를 계승하여 더욱 성행하였는데 儼禮都監 또는 山臺都監이 관장하여 그 종류도 다채로와졌다. 조선조 초기 문종실록은 조선조 儼禮戲의 특징을 세부분으로 나누고 있는데 고려의 百戲와 음악, 兩部에 비해 笑謔之戲가 뚜렷이 독립된 것과 악학계법의 鶴蓮花台處容舞台設條로 보아 駒離후의 歌舞部가 확장된 것을 북색으로 들 수 있겠다. 조선조의 獅子舞는 신라이래의 전통이 지방의 민속무로 남아 내려오다가 宮中程才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성종대의 成(況)의 시 “觀儼詩”에 보면 綵棚을 시설하고 울긋불긋 화려한 의상을 입은 무용수가 종횡으로 난무하는 모습과 弄丸, 줄타기(步索), 꼭두놀음, 솟대놀음(長竿戲)등을 儼禮의 놀이로서 읊었는데 모두 散樂百戲인 規式之戲에 속하는 놀이들이다.

정조때 유독공의 京都雜誌聲伎條에 “演劇에는 山戲와 野戲의 兩部가 있는 儼禮都監에 속한다. 山戲는 다락을 메고 포장을 치고 獅子와 호랑이, 만석중춤을 보인다. 野戲는 唐女와 小梅로 분장하고 춤을 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山戲는 무언인형극인 만석중놀이를 말하는 것 같다. 唐女달은 양주열산대와 송과산대놀이에 현존하며 小梅는 小巫와音が 가까워 동일한 역을 가리키는 것 같다. 이러한 公儀로서의 儼戲는 인조조를 고비로 급격히 쇠퇴하였고, 점차 현존하는 산대도감계통극이 민간에게서 민속극으로 형성되어 갔으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2. 傳統劇의 思想的 背景

한반도에 존재했던 원시종교는 토템이즘(Totemism), 애니미즘(Animism)과 샤머니즘(Shamanism) 등이 혼합된 형태였으며, 만물의 근원을 神으로 보는 기본사상이 있었다. 전통극은 이중에 샤머니즘의 사상과 의식에 크게 영향을 입고 있는데 샤머니즘은 “샤먼”이라는 呪術者가 악마와 요정을 쫓고, 그의 휘하에 있는 인간에게 복지를 가져온다는 神과 人間의 중개자로서의 샤먼의 존재에

의하여 다른 원시종교와 구별된다. 보통 샤먼이 행하는 행사는 우리의 굿이 이에 해당한다. 샤머니즘이 한민족사와 관계를 가진 것은 꼭 오랜 일로서 祈雨祭, 서낭祭등을 지내는 풍습이 이어져 내려와 대체로 민간 鬼神思想, 占卜思想, 風水思想과 밀접하게 對神行爲에 적용되어 왔다. 이러한 샤머니즘적 巫의 세계는 샤먼 즉 무당의 神器를 통해 엿볼 수 있다. 三枝槍과 칼은 곧 三一神話를 그대로 表象하는 것으로 수에 의하여 어떤 신비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神話論的 巫의 세계는 음양오행사상을 활용하는 것으로 密敎樣式을 형성하여 무덤의 閉鎖空間안에 祭場을 두게 하였다. 여기서 行해지던 굿이 바로 전통극의 본체가되며 샤머니즘은 불교와 유교등의 諸宗教를 흡수하여 전통극의 사상적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도교의 無爲自然思想에서 동양적공간론이 야기되는데 作爲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無爲思想은 동양에 있어서 예술작업의 기본자세가 되고 있으며 전통극의 劇構成과 공연장의 立地上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 3. 전통극 演戲의 形態와 空間의 特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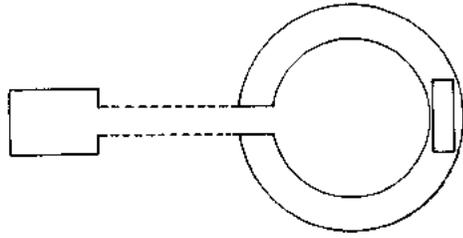
##### 가. 판소리와 唱劇

판소리는 조선후기 민중문화가 크게 일어날때 민중문화의 집약적 표현의 하나로서 나타났다. 대체로 17세기말에서 18세기초(肅宗·英祖朝)에 이르는 동안 廣大들의 구전에 의하면 河漢(殷)譚과 결성의 崔先達등의 선구자들에 의해서 개척되고 다시 이 獨演形態의 극예술은 19세기 중엽에서 말엽에 이르는 동안 하나의 장르로서 정립되었다. 판(舞台)의 소리(歌)인 판소리는 아니리라는 辭說(臺詞) 부분과 唱의 완곡, 장단의 어레인지의 音樂(得音)부분과 더불어 발림(演技=너름새)을 곁들여 일종의 상대역인 鼓手의 추임새(舞台進行)에 따라 獨演形態로, 한국근세 특유의 연극장르이다. 판소리가 갖는 종합적 성격중에서 연극적 측면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며 이로써 판소리는 음악극의 일종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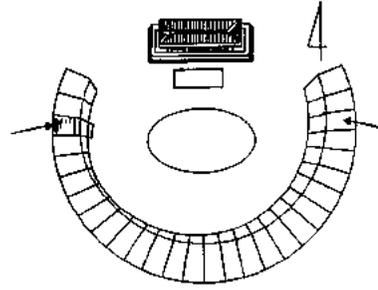
할 수 있다. 이러한 판소리를 부르는 데는 舞台가 필요하지 않다. 마당에 자리 한뼘을 깔면 그만이다. 그위에 廣大는 서고 鼓手는 앉아서 廣大는 唱을 하고 鼓手는 북으로 장단을 치며 추임새라고 하는 탄성을 발해 흥을 돋구기도 한다. 廣大가 唱을 할 때 손에 든 부채는 너름새를 다양하게 하는데 아주 요긴한 도구로 사용된다. 부채는 접으면 박대기도 되고, 펴면 편지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무엇으로 든지 둔갑한다. 사람은 한 사람이고 든 것은 부채뿐이다. 최소의 도구로 최대의 표현을 하는 것이 판소리의 원리이자 묘미이다. 그러므로 이 원리는 판소리를 음반에 취입하면 사라지고 창극으로 개편해도 사라지는 것이다. “一鼓手二名唱”이라는 말이 있드시 고수의 구실도 아주 대단한 것이 사실이나 고수는 어디까지나 반주자에 지나지 않으며, 판소리의 공연장은 唱者, 鼓手와 聽衆의 세요소가 모여서 구성된다. 그런데 판소리의 청중은 단순한 수동적인 구경꾼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舞台와 客席이라는 隔阻感을 초월하여 소리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唱者들은 청중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무대없이 제대로 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청중의 추임새까지 “一鼓手三名唱”이라 부르기도 한다. 唱者의 입장에서 판소리의 무대에는 머리위에 차일을 치는 것이 안정감이 있고, 뒤에는 배경을 접하여 병풍을 친다. 옛날에는 멩석을 깔았으나 근래에는 화문석을 까는 때가 많고 唱者가 서는 方向은 청중의 추임새를 받기에 좋은 方向으로 面하는 것이 좋으며 객석바닥이 무대바닥보다 낮은 편이 아래를 보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다고 한다.

##### 나. 代表的 假面劇

현존하는 민속가면극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극분야의 가면극에는 中部地方의 揚州別山台(제2호) 松坡山台(제49호)놀이, 海西地方의 탈춤으로 鳳山탈춤(제17호), 康翎탈춤(제34호)와 股栗탈춤(제61호), 嶺南地方의 統營五廣大(제3호), 團城五廣大(제7호),



[그림 3] 松坡山臺 놀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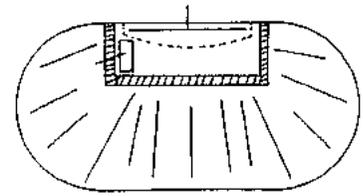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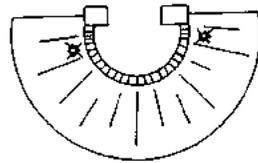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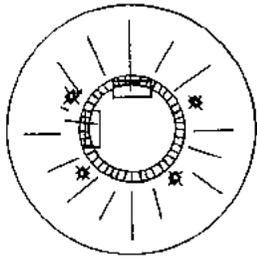
[그림 4] 鳳山臺 놀이마당

[표 1] 傳統劇 公演場 特徵 比較

구분	楊州 別山臺	松坡 山臺	鳳山 臺	水營 野遊	統營 五廣大	北靑 사자놀이	河回 別神굿
무	모양	원형·부정형	원형·부정형	원형	원형·부정형	원형·방형	원형·부정형
	면수	1면	1면	1면	1면	1면	1면
	규모	-	-	명석 여러장	명석 4남	명석 5~6남	-
대	높이	경사 윗부분	객석과 동일	객석과 동일, 객석 한단아래	객석과 동일	경사 윗부분	객석과 동일
	바닥재료	흙	흙	명석	명석	명석	흙
	등퇴장	개복청→무대주위→무대	개복청→무대주위→무대	개복청→무대주위→무대	개복청→길놀이→탈무대	개복청→길놀이→탈무대	무대주위→무대
객석형태	무대의 3면	무대의 3면	무대의 3면	무대의 3·4면, 지붕에서도 관람	무대의 3면	무대의 3~4면	무대의 3면
무대와 객석구분	없음	없음	명석	명석	명석	없음	없음
배경	社稷堂, 자연	자연	경암루	자연	자연	자연	자연
악사석	三鉦廳 맞은편	개복청 맞은편	경암루 앞	무대내 한쪽	무대내 한쪽	무대내 한쪽	무대뒤
소도구	가면외 약간	가면외	가면외	가면외	가면외	가면외	가면외
분장실	改服廳	탈막	다락 제 3구획	야유 사무실	사무실	-	-
연희시간	야간	야간·주간	야간	야간	야간	야간	야간
조명	장작, 솜방망이불	모닥불	햇불, 장작불	등, 모닥불	햇불, 모닥불	모닥불	모닥불
무대개별도							

[표 2] 假面劇의 演戲 特性 比較

구분	楊州 別山臺	松坡 山臺	鳳山 臺	水營 野遊	統營 五廣大	北靑 사자놀이	河回 別神굿
지역	경기도	경기도	황해도	영남지방 (낙동강 동부)	영남지방 (낙동강 서부)	함경남도	경북 안동
구성	집놀이→탈고사→탈놀이	길군악(거리굿)→서막고→탈놀이	단놀이→길놀이→집단군무(무동춤)→탈고사→탈놀이→계수굿	지신밟기→길놀이→풍물 및 개인놀이→탈놀이	사도놀이→탈놀이	길놀이(길군악)→祭→사자춤	서낭祭→길놀이→別神굿 탈놀이
발생 및 주도세력	약 200년 전 18C 중엽 宮街의 下吏背 즉 衙前	약 200년 전 18C 중엽 탈꾼패	200년 18C 중엽 吏屬 근래에는 상인	초기군중, 200년 전 18C 중엽 수영야유계	義興契→蘭社契→春興契	신라의 五伎 중 犯貌에서 기원	고려중엽(11~12C) 이전
연희시기	4월 초파일, 5월 단오, 8월 추석 昇天의 祈雨祭	정월대보름, 4월 초파일, 단오, 7월 백중, 추석	정월대보름, 4월 초파일, 5월 단오	음력정월초~20일간	정월 14일밤, 3월 15일, 4월초(봄놀이), 9월 15일(단풍놀이)	정월 대보름	정월초이틀~정월보름(15일간)
탈종류	32역, 22탈	33탈	36역 26탈 10대용	17역 11탈	31역 26탈 1점용 4불착용	14역 7탈 7불착용	10종 14탈(3탈본실)
악대인원	6인	6인	6인+2인(추가)	6인	6인	6인	6인
무대등장인원	2~11인/景, 場 총 32인	2~10인/場 총 35인	9~14인/場 총 31인	2~6인/場 총 20인	1~8인/場 총 34인	1~8인/마당 총 14인	
총인원	38인	41인	40인	26인	40인	20인, 군무	
연희장소	佛谷山 아래 社稷골	송과장 한가운데 평지	競秀臺(1915사리원 景岩山 장터)	수영장터	현충무시미륵산기슭 용화사뒤 잔디밭	都廳	舊洞舍 앞 놀이마당



(그림 5) 野遊 및 五廣大의 舞台

駕山五廣大(제73호)와 東來野遊(제18호), 水營野遊(제43호), 함경도지방의 北靑獅子놀이(제15호), 城隍祭 탈놀이인 경북안동 河回別神굿탈놀이(제69호)가 있다.

1) 山台雜劇의 假說舞台

조선시대 국가가 관계하는 공연은 궁궐의 殿庭에서 행하여 지는것과 迎使時에 가설무대인 絲棚을 설치하고 상연하는 것이 있었다.

임시가설무대인 山台雜劇인 무대는 迎使時에 光化門밖 대로 좌우변에 春山, 夏山, 秋山, 冬山의 넷을 양편에 도합 여덟개의 山棚을 세웠는데, 名山은 “上竹三次竹六”으로 뼈대가 엮여져 있으며 높이는 六十尺에 大棚인 경우엔 길이가 六十尺, 넓이가 四十尺이나 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다 한다. 제일 높은 기둥인 上竹 셋을 前面에 세우고 次竹 여섯을 後面에 세워 橫結長木과 小雜木들을 수없이 사용하여 이 기둥들을 묶고 柱木들을 사용하여 무대마루장을 놓았는데 꽤나 높아 高柱이라 하였다. 그리고 大路를 향한 전면만 빼고 삼면과 천정엔 모두 白布를 쳤다.

2) 楊州別山台 및 松坡山台놀이마당

本山台와 대동소이 하다는 楊州別山台놀이의 놀이판은 가면극의 대표적인 무대라 볼 수 있는데 놀이터는 주로 마을 북서쪽 佛谷山(佛國山)아래 사적골이었고 여기에는 堂집이 있어 놀이의 가면과 도구들을 보관해 왔다.

사적골놀이터는 佛谷山기슭에 비탈진 곳에 관객이 앉게되고 그 앞의 약간빈터 한편에 改服廳을 설치하고 그 맞은편에 악사들이 앉으면 三絃廳이 설치되어 놀이를 시작할 수 있는 마당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여러 문헌에 나와있는 놀이마당의 특징을 종합하면 무대와 객석구분에서 演戲의 場 확보라는 의미에서 어떻게든 구분이 되었고(예를들면 새끼줄이나 명석을 까는 등), 객석은 무대를 3면에서 둘러싼 형태이며, 분장 및 소도구보관을 위한 改服廳이 따로 있었다.

樂士席은 무대내 한쪽에 위치한다. 조명은 장작불이나 솜방망이 불을 사용하였고 무대위에는 배경이나 막이 없었다. 松坡山台놀이는 놀이내용의 구성이나 科場과 춤 가면등이 楊州別山台와 거의 비슷하며 다같이 애오개, 구과발 등지의

本山台分波임을 말해주나 몇개의 탈과 배역이 古型을 지니고 있어 특징적이다. 놀이는 탈꾼패놀이의 성격이 짙은 관계로 현재는 대동놀이으로써의 길놀이는 없어졌다. 과거 놀이순서는 길군악(거리굿), 서막고사, 탈놀이의 순서다. 놀이터는 場마당 넓은 터에 동글게 말뚝을 박고 새끼줄을 쳤으며 樂士席에는 명석을 깔고 광목전막을 쳐 악사와 동네 어른되는 이들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改服廳은 사각에 기둥을 박고 수수강발을 쳤으며 원두막처럼 지붕을 만들었는데 크기는 한칸이상이었다. 개복청에서 마당입구까지는 20m 정도거리를 두었다. 겨울에는 놀이를 위하여 움집을 지었는데 강변의 모래바닥을 1m정도 깊이로 사방을 넓게 파고 주위에 나무기둥을 세운후 지붕위에 서까래를 얹는다. 지붕과 벽은 거적을 덮거나 돌려서 새끼를 엮어 고정시켰다. 크게 짓는 경우에는 하나의 입구에 그자로 쌍을 파서 한쪽방은 노인들이, 다른 한쪽은 젊은이들의 놀이마당으로 이용하였다. 백여명 이상이 들어가 볼 수 있었고 실내가 온화하여 안성마춤이었다 한다. 조명은 밤에 놀 때는 장작불이나 솜방망이 불을 사용했으나, 상인들 상대로 놀이가 많아짐에 나중엔 낮에 놀이를 하는 때가 많았다 한다.

3) 鳳山탈춤, 康翎탈춤 및 殷栗탈춤놀이마당

鳳山탈춤은 원래 鳳山舊邑 競秀台에서 연희되었으나 1915년경 군청등 행정기관이 沙里院을 옮기게 되고 경의선철도가 개통하게 되자 이 놀이도 沙里院으로 옮겨져 景岩山아래에서 놀게되었다. 鳳山舊邑의 景秀台는 앞산 및 강변의 평평한 터로 석벽 밑에 겨우 무릎에 닿을 높이의 돌축대를 쌓은것 뿐이며 그 나지막한 축대위에서 사방에 햇불을 밝히고 놀았다. 이와같이 축대위나 평지에서 노는것은 황해도 탈춤의 공통된 무대로서 이런 야외무대는 京都雜志의 山戲와 野戲중 野戲의 傳統을 잘보여 준다고 할 것이다. 沙里院의 가설무대는 景岩樓앞 광장에 28개의 구획을 가진 반원형의 다락을 매고 그 안마당에 명석을 깔아 탈판을 마련하였다. 이 28개 다락중 탈판오른쪽 제3구획이 탈막(改服廳)으로 쓰여졌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景岩樓뒤를 탈막으로 쓰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반원형 2층관람석 다락의 사용권은 공연비용을 내게되는

商人들에게 맡겨졌다. 이 탈판은 낮에는 단오놀이의 씨름과 여자들의 그네뛰기에 사용되었고 밤에는 장작불을 피워놓고 밤새워 탈놀이를 하였다. 殷栗탈춤의 탈판은 원형의 야외무대로 위쪽에 악사석이 있고 가운데가 탈판이며 둘레에 일반관람석으로 빈공간이 있고 또 등나무로 기둥과 마루를 깔고 그위에 명석같은 자리를 한 다락관람석이 설치되었다. 다락석은 간막이는 없고 좌석은 전단에서 후단으로 2m가량의 높이로 경사지게 하였다. 이다락의 東西南 세군데에 출입구를 만들고 악사석 가까이 왼쪽에 천으로 간막이를 하여 改服廳을 만들었다. 이 다락의 자릿수는 500~600席정도이며 상인들에게 그 권리를 맡기고 탈놀이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켰다. 일반관람객은 탈판둘레의 평바닥에 명석을 깔고 구경하였다. 이러한 무대의 특징은 같은 계열의 봉산탈춤과 유사한 점이 많으나 演戲의 특징은 康翎탈춤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한다.

4) 五廣大 및 野遊놀이마당

統營五廣大놀이의 주동이었던 義興契(→蘭社契→春興契가됨)의 정기총회는 春秋로 정월14日 밤과 3월15일과 9월 15일에 가졌는데 이때 탈놀이를 하였고, 또 4월초 봄놀이에는 使道놀음에 곁들여 五廣大놀이를 하였다고 한다. 三絃六角을 앞세우고 令旗를 휘날리며 三道統制使모양으로 使道가 胥吏, 驛卒을 거느리고 출두하고 말탄 八仙女와 從者가 뒤따르며 龍華寺에 올라가 한바탕 매구치며 놀고 이어 五廣大놀이를 하였다 한다. 固城五廣大는 연희 7.8일전에 固城邑 물다 뒷산의 도독골 산기슭 잔디밭에서 연습하여 정월초 주로 대보름 저녁 장터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놀았으며 인근에서 많은 남녀노소가 모여들어 구경하였다고 한다. 固城五廣大는 신앙적의의는 없고, 다만 오락위주의 장터놀이로 놀아왔다. 탈판의 크기는 五廣大 놀이의 경우 대개 큰명석 5~6널정도이며 그명석을 중심으로 빙 둘러 앉아 구경하였다 한다. 五廣大놀이판의 특징은 놀이터는 산기슭 넓은터나 시장장터로 탈판이 가운데 있고 관객은 빙 둘러 앉아 구경했다. 조명으로는 장작불을 사라기보다 높게 피워 놓고 또 햇불을 밝혀 위 아래 두단을 두었고, 탈판에서

연희자들은 관중속에서 등장하고 관중속으로 퇴장하는 방식을 취했다.

駕山五廣大의 연희시기는 정월 대보름날 밤으로 이것은 정초 자정에 올리는 天龍祭다음으로 그 해의 마을의 安寧과 祈年을 위한 놀이이다. 2월들어 한가한 시기에 이웃 지방을 돌며 한달씩이나 公演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水營野遊는 정월 대보름에 山神祭와 함께 거행되던 민속극이다. 놀이마당은 現 水營市場안 공지였고 市場장터 한가운데 長竿을 세우고 큰등 4개를 달고, 거기서부터 사방으로 새끼줄을 거미줄처럼 치고 등을 매단다. 그러니까 무대는 懸燈器를 장치한 원형무대이며 원을 따라 금줄을 쳤으니 안은 연희장이고 밖은 객석이다. 관객들은 주위 초가집위에 올라가서 구경하기도 하였으며 연희자들은 사방에서 자기 배역에 맞춰 등퇴장하며 둥근탈판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東來野遊의 옛탈판은 現東萊市場앞 네거리 부근인데 지형이나 주위조건이 水營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평평한 큰마당이었다고 한다.

야유의 놀이터도 五廣大놀이에서와 같이 길놀이에서 마음의 길과 탈놀이에서 탈판을 포함하여 이루어 지는데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府君堂이나 서낭당이 있는 길목등을 택해 많은 관중의 참여를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五廣大와 야유의 무대는 그지방이라고 해서 언제나 꼭 일정한 무대형태를 취한것 같지는 않으며 연희장소의 변화에 따라 달랐다. 연희장소가 시냇가나 백사장 논밭 한 가운데 같은 경우 원형무대의 형태를 취했고, 주로 시징터에서 연희될 때는 무대뒷쪽이 큰고을 중심가에

있는 광장에서 연희하는 경우 무대는 목재를 사용하여 관중보다 약간 높게 長方形으로 가설 무대를 설치하기도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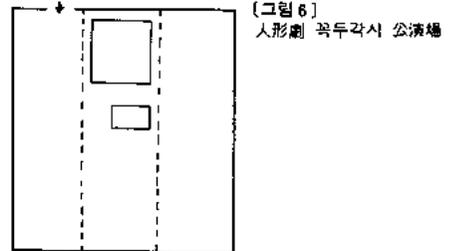
5) 代表的 假面劇 놀이마당의 分析 이상에서 살펴본 바 대표적 가면극의 놀이마당을 分析하면

- 가면극의 무대형태는 원형이 大宗을 이루고 그 크기는 명석 5,6보 정도이다.
- 客席은 무대주위 3,4면을 둘러싸고 있다.
- 공연시간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 지고 있다.
- 가면극은 길놀이와 탈놀이로 크게 구분되어 진다.
- 등장인원은 마당별 10인 이내이나 최대 14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 공연은 주로 농사가 바쁜때를 피해 연희되나 正月 대보름에 연희되는 경우가 많다.
- 많이 연희되는 장소가 따로 있다.

다. 人形劇

人形劇이라 하는 것은 인형을 만들어 의상을 입히고 실(絲)을 잡아 당겨서 인형의 동작을 보이며 役者들이 숨어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연출하는 劇이다. 우리나라 인형극은 무대며 연출방식, 인형조종법등에 있어 중국의 인형극과 대체로 동일형이며 일본인형극과도 동일 계통이다. 우리나라 인형의 조종법은 중국인형극의 懸絲傀儡(masionette), 走線傀儡, 杖頭傀儡 그리고 布筏傀儡(指頭, puppet) 등을 함께 사용하는데, 주로 杖頭傀儡의 사용법만 사용하고, 戲曲도 산대도감계통극의 하나만 현존한다. 인형극중 전래하는 것은

“꼭둑각시놀음”하나뿐인데, 실제 연희자들은 “덜미”라 부르고 있다. 이 “덜미”는 男寺堂牌의 여섯가지 놀이, 풍물(農樂), 버나(대접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보기(假面舞劇), 덜미(꼭둑각시놀음)중 맨 마지막 순서로, 남사당패 연희자들이 “덜미”란 목덜미를 잡고 논다해서 비롯되었다. 또한 꼭둑각시놀음의 무대막을 “덜미포장”이라한다. 놀이판도 여섯가지 놀이를 한테 노는 큰놀이판 중에 따로 지어졌던 것으로 그 구조는 3m 안팎의 平方에, 네기둥을 세우고 무대면이 되는 쪽만 1.2m 정도의 높이위에 인형이 나와서 노는 가로 2.5m 세로 70cm정도의 무대면만 남겨놓고 사방을 모두 포장으로 둘러친 空中舞臺이다. 이 舞臺面이 되는 공간을 통하여 主縱師인 “대잡이”인 “대잡이”가 중심이 되어 양옆에 대잡이 손(補)이 앉아 인형의 조종과 등·퇴장을 돕는다. 舞臺面 밖 약간 미스듬한 자리(左右는 꼭 정해 있지 않은듯 때에 따라 바뀌고 있다)에 받는 소리꾼인 산발이와 잭이들이 관중석과 거의 분리되지 않은채 무대면을 보고 앉아 놀이를 진행시킨다. 조명은 다른 남사당패 놀이 때와는 달리 광술불이나 기름방망이불을 무대면의 양옆에서 비쳐, 특히 인형이 나오는 공간 부분만을 밝게 해 준다.



(표 3) 인형극 연희특성

공연지역	구 성	발생 및 주도세력	연 희 시 기	인 형 종 류	악대인원	무대인원	총인원	연희장소
전 국	인형소개→7~8막 →결짓기→인사말	삼국시대→7. 8C 조선조후기 유랑예인집단	모심는 계절 추수가 끝나는 계절	인형 19종, 동물 4종	5 인	4 인	9 인	시징터

(표 4) 인형극 공연장 특성

모 양	무 대		객석형태	무 대 와 객석구분	배 경	악사석	소도구	분 장 실 소도구보관	연희시간	조 명
	면수	규 모								
정방형	1면	덜미포장 3.3m	덜미포장앞 1면	덜미포장및 악사석	덜미포장	덜미포장앞 객석사이	각종인형	덜미포장박 안	야 간	광 속 불 기름방망이

# 조적조 내력벽 구조계산에 관한 연구

李明春 / 상건축사사무소

건축법시행령 1-3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조적식구조 제22조(적용범위) 제(1)항에서 구조계산 또는 실험에 의하여 이절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내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즈음한 소고이다.

- (1) 이절의 규칙 제26조 제(2)항의 표를 보면 조적구조는 3층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높이 5.0미터 이상 11.0미터 미만에서 벽의 길이는 8.0미터 미만(내력벽을 획하는 길이)까지는 각층 공히 19센치로 벽두께를 규정하였으며, 그 면적은  $8.0\text{m} \times 8.0\text{m} = 64.0\text{m}^2 > 60.0\text{m}^2$  ..... 미만으로 본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2) 조적구조에 있어 기초(지층)까지 조적구조로 하고 목조 1, 2층 바닥과 지붕틀까지를 병용하여 혼합구조로 하는 것은 지층용벽 R.C조에 1, 2층은 조적구조 슬라브 철근콘크리트조(반일체식구조)에 비하여 수평응력도(지진) 중앙등에 전자는 후자에 비할 수 없이 약체구조이다.
- (3) 조적구조는 연직화중(압축응력도)에 비교적 강도가 높음에 비하여 벽두께가 커서 실내부 면적을 잠식하는 단점으로 지적되는 바, 건축법시행규칙 제22조(적용범위) 제1항 구조계산을 적극 활용하여 법령운용에 보를 기하며 조적구조 발전과 개발에 기여코자 하는 바이다.

《본 론》

1. 위 치: 시(도) 구(군) 동(리) 번지
2. 용 도: 다세대주택
3. 구조 개요: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4. 착공년월일: 19 년 월 일  
준공년월일: 19 년 월 일
5. 구조 개요: 구조안전도 계산(조적조)  
(가) 건축물의 현황(가정에서)
1. 감정건축물의 규모와 구조개요(지하1층, 지상2층)

동별	층 수	건축연면적		비 고
		m <sup>2</sup>	평	
각동	지 층	109.15	33.02	옹벽 R. C조
	I 층	109.15	33.02	조적조
	2 층	111.27	33.66	R. C 슬라브
	탑 층	7.08	2.14	
합	계	336.65	101.84	

(나) 다세대주택 조적구조의 내력벽등에 대한 안전도를 건축법시행령 1-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제2절 조적식 구조 제22조(적용범위) (1)항에 의거 구조 검토를 한다.

1. 내력벽에 미치는 율력도 산정
- 1) 지붕슬라브: 적재화중 180kg/m<sup>2</sup>  
슬라브: 288  
고정화중 방수층: 40 388kg/m<sup>2</sup>  
물 탈: 30  
천 정: 30  
계: 568kg/m<sup>2</sup>

- 보 장: 직재화중 130kg/m<sup>2</sup>  
고정화중 지붕고정화중 388 } 488kg/m<sup>2</sup>  
보 자 중 100 }  
계: 618kg/m<sup>2</sup>
- 보 자 중:  $(0.4 \times 0.25 \times 2.6 \times 2,400\text{K}) \div (2.6 \times 3.6) = 66.7 \leq 70\text{kg/m}^2$
- 내 력 벽:  $0.21 \times 1.0 \times 2.6 \times 1,900 \div (2.6 \times 2.5) = 159.6 \leq 160\text{kg/m}^2$
- 2) 2층슬라브: 적재화중 200kg/m<sup>2</sup>  
슬라브: 288 }  
고정화중 물 탈: 30 388kg/m<sup>2</sup>  
구 들: 40 }  
천 정: 30 }  
계: 588kg/m<sup>2</sup>

보 장: 적재화중(10%감) 180kg/m<sup>2</sup>  
고정화중 슬라브고정화중: 388 } 458kg/m<sup>2</sup>  
보 자 중: 70 }  
계: 638kg/m<sup>2</sup>

내 력 벽: 직재화중 180kg/m<sup>2</sup>  
고정화중 보고정화중: 488 } 648kg/m<sup>2</sup>  
내력벽자중: 160 }  
계: 828kg/m<sup>2</sup>  - 3) 1층슬라브: 직재화중 200kg/m<sup>2</sup>  
슬라브: 288 }  
고정화중 물 탈: 30 388kg/m<sup>2</sup>  
구 들: 40 }  
천 정: 30 }  
계: 588kg/m<sup>2</sup>

보 장: 적재화중(10%감) 180kg/m<sup>2</sup>  
고정화중 슬라브고정화중: 388 } 458kg/m<sup>2</sup>  
보 자 중: 70 }  
계: 638kg/m<sup>2</sup>

내 력 벽: 적재화중 180kg/m<sup>2</sup>  
호정화중 보고정화중: 488 } 648kg/m<sup>2</sup>  
내력벽자중: 160 }  
계: 828kg/m<sup>2</sup>  - 4) 1층 내력벽에 미치는 (3층) 전체연직화중(옥상층 포함) 3층화중 =  $(618\text{K} + 828\text{K} \times 3\text{층} + 160\text{K} \times 3) \times 2.6 \times 2.5 = 3,582\text{K} \times 6.5\text{m}^2 = 23,283\text{K}$

1층 내력벽 계: 23,283kg = 23.2 3  
\* 이상 주택층별 연직화중 산출기초이다.

5) 각층별 연직화중 일람표

층 별	화 중	슬라브	보장	내력벽	비 고
지 방	적재화중	180	130	0	
	고정화중	388	488	0	
	계	568	618	0	
2 층	적재화중	200	180	180	
	고정화중	388	458	648	
	계	588	638	828	
1 층	적재화중	200	180	180	
	고정화중	388	458	648	
	계	588	638	828	

(다) Materials of allowable stress

- Concrete  $f_c = 75 \text{ kg/cm}^2$   
 $f_x = 7.5 \text{ kg/cm}^2$
- Reinforced  $f_s = 1,600 \text{ kg/cm}^2$   
 $f_c = 1,600 \text{ kg/cm}^2$
- Bond Stress  $f_b = 7 \text{ kg/cm}^2$
- Bearing Power  $bp = 25 \text{ kg/cm}^2$
- Cement Breck  $f_c = 70 \text{ kg/cm}^2$

(라) 브 (Girder) Bending Moment and Shearing (테두리보)

$$W = 638 \text{ kg} \times 2.6 = 1,659 \text{ kg/m}$$

$$C = \frac{W}{12L} (L^3 - 2a^2L + a^3)$$

$$= \frac{1,659}{12 \times 2.6} (2.6^3 - 2 \times 0.65^2 \times 2.6 + 0.65^3) \times 100$$

$$= 53.17 \times (17.57 - 2.19 + 0.42) \times 100$$

$$= 53.17 \times 15.8 \times 100$$

$$= 84,008 \text{ kg} \cdot \text{cm}$$

$$M_o = \frac{3L^2 - 4a^2}{24} W$$

$$= \frac{3 \times 2.6^2 - 4 \times 0.65^2}{24} \times 1,659$$

$$= \frac{20.28 - 1.69}{24} \times 1,659 \times 100$$

$$= 0.77 \times 1,659 \times 100 = 128,503 \text{ kg} \cdot \text{cm}$$

$$M_c = 128,503 - 84,008 \times \frac{3}{4}$$

$$= 128,503 - 63,006$$

$$= 65,497 \text{ kg} \cdot \text{cm}$$

$$Q = 1,659 \times \frac{(2.60 - 0.65)}{2} = 1,617 \text{ kg}$$

1) G<sub>1</sub> Girder 의 단부 단면을 결정하면.

B. Moment  $m_e = 84,008 \text{ kg} \cdot \text{cm}$   
 응장대비근 (應張對比筋)  $mt = 105$   $r = 1$  로 가정하면,  
 부족표 7No-1에서  $C = 10.85$

$$bd^2 = \frac{M}{C} = \frac{84,008}{10.85} = 7,742 \text{ cm}^2$$

$$b = 25 \text{ cm}$$

$$d = \sqrt{\frac{77.42}{25}} = 17.6 \text{ cm} = 40.0 \text{ cm} \dots \text{O. K.}$$

2) G<sub>1</sub> 보의 중앙부 단면을 결정하면,

$$M_c = 65,497 \text{ kg} \cdot \text{cm}$$

$$D = 40 \text{ cm} \quad d = 35 \text{ cm} \text{로 가정하면,}$$

$$j = \frac{7d}{8} = \frac{7}{8} \times 35 = 30.6 \text{ cm}$$

$$at = \frac{M}{ftj} = \frac{65,497}{1,600 \times 30.6} = 1.34 \text{ cm}^2 < 6.03 \text{ cm}^2 \dots \text{O. K}$$

$$16m/m \phi \times 3 = 6.03 \text{ cm}^2$$

3) 기둥 (Column) 대응내력벽 단면 점점 B = 21cm D = 100cm.....

1.0m 지상 3개층 (옥상포함) 으로 가정하여 연직화중  
 $p = 14,800 \text{ kg}$  시멘트벽돌:  $f_c$  안전도 점점 (안전율) 한다.

$$f_c = \frac{P}{BD} = \frac{23,300}{21 \times 100} = 11.1 \text{ kg/cm}^2 < 70 \text{ kg/cm}^2 \dots \text{O. K}$$

4) 조적조 내력벽체 두께 = T 의 계산점도 (내, 외부 공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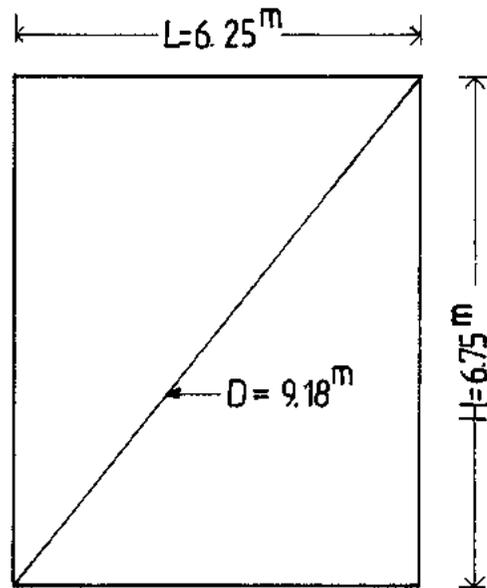
$$T = \frac{LH}{DN} = \frac{6.25 \times 6.7}{9.18 \times 22} = 0.207 \text{ m} < 0.21 \text{ m} \dots \text{O. K}$$

$$= 20.7 \text{ cm} \approx 21 \text{ cm} \dots \text{O. K}$$

L = 건물벽폭 (6.25m) H = 건물높이 (6.75m)

D = 대각선 (건물폭과 건물높이: 9.18m)

N = 주벽에 관한 계수 (22)



6) 조적조는 건축법상 3층까지 허용되는 바, 본 주택 조적조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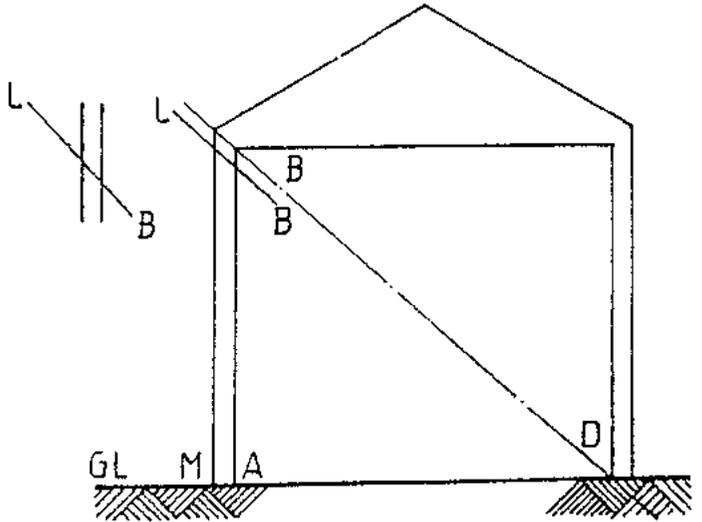
각층 내력벽의 구조는 시멘트 벽돌 0.5B + 단열재 50mm 에다  
 다시 소성벽돌 + 0.5B = 1.0B 로 축조, 내부중요부 내력간마  
 기벽은 시멘트벽돌 1.0B 로 축조, 도-1 : 설계도 참조와 같은  
 구조체로서 내력벽을 형성하는 것이며, 역학적 측면에서 보면  
 벽돌은 단면적이 크므로 연직 압축응력도가 비교적 높으나,  
 조적인고로 수평응력도가 다른 건축골조 재료에 비하여 비교적  
 안될 정도로 낮은 것이 본질적으로 흠이다.  
 본 조적구조체의 공법에 있어, 도-1 : 설계도 참조, 내부  
 시멘트벽돌 0.5B + 외부 소성벽돌 0.5B = 1.0B 공간쌓기로

되어 있으며 T보(T. Beam형)가 슬라브로 연결되어 있는 고로, 만약 부득이 벽체의 구조변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한번 더 구조안전 진단을 거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을 결론적으로 부언한다.

《결론》 (가정에서)

본 건축물은 19년월에 착공하여 19년월에 준공 예정인바, 건축공조 공사후 우기나 월동을 한 사실은 없으나 건축법시행규칙 1-3 제2장 제2절 조적식구조 제22조 제1항에 의한 안전도 검토에서 나타난 시공상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천계지변과 같은 불의의 충격이 없는 한 현재로서는 본 조적구조상 1층 내력벽 (외부) 소성벽돌 0.5B + 내부시멘트벽돌 0.5B 공간쌓기 조적구조는 위에서 검토한 바 안전하다고 사료된다.

\*비첨: 벽두께 = T의 산출법공식 참조



壁厚決定法

1) 家屋의 高, 幅에서 壁厚를 算出하는 法

$$BD : AD \quad Bb : MA \quad MA = \frac{AD \times Bb}{BD}$$

$$\text{茲 } BD = \sqrt{AB^2 + AD^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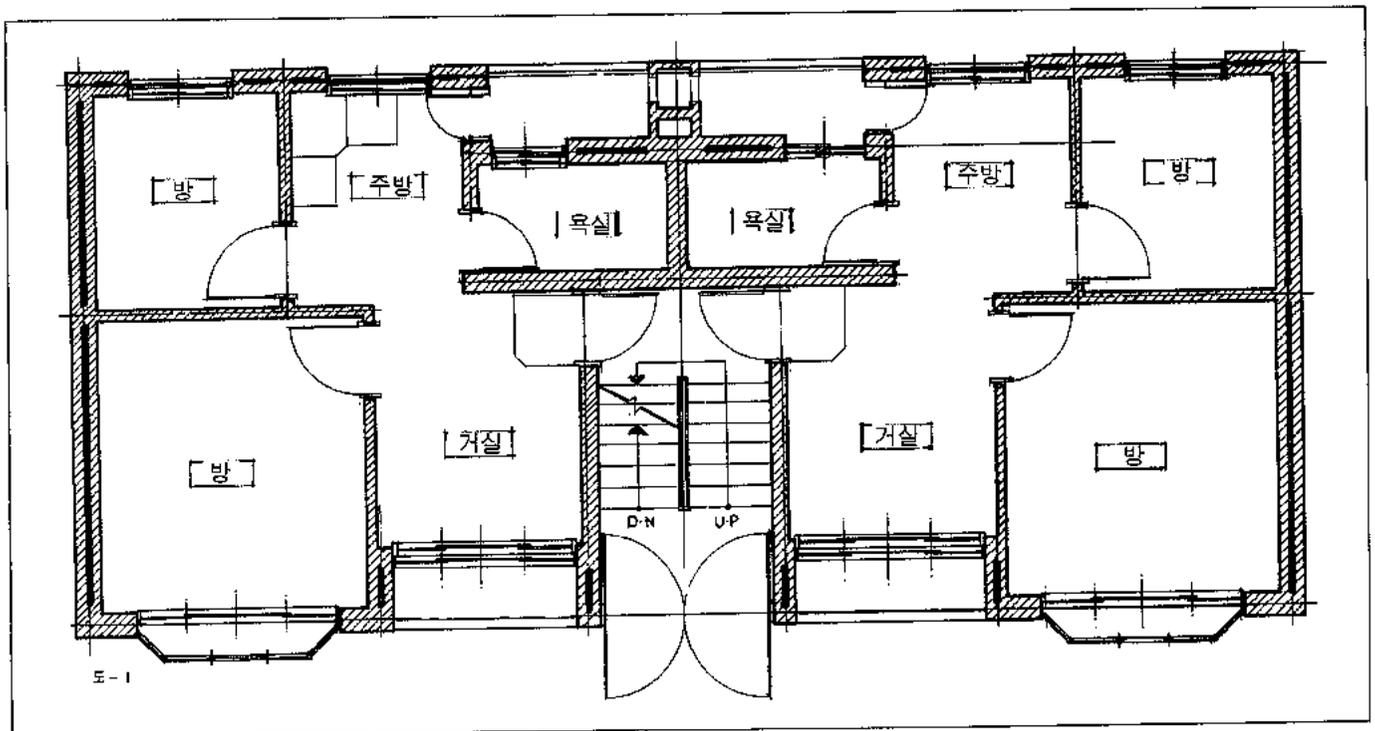
AB = 建物の 高, AD = 同幅 (SPAN)  
 BD = 一方의 壁體床隅에서 地方壁體天端에 引하는 對角線의 長  
 MA = 壁厚  
 Bb = AB의 1/12을 取함.  
 但, 倉庫等床 其他 特히 重量을 負하는데는 1/8을 採함.

2) 前記公式에 類似한 것,

$$t = \frac{\ell h}{dn}$$

t = 壁厚, h = 壁高, d = 壁長과 高의 對角線, n = 係數  
 住宅 = 22, ℓ = 建物幅 (SPAN), 倉庫 = 20, 事務室 = 18  
 但, 高家長의 1/2에 未達일 時  
 住宅 = 27, 倉庫 = 23, 事務室 = 20  
 ※ 위 公式에 依據 粗積造의 壁厚를 算出한다.

◆ 李明春  
 19년 함경남도 출생, 한양대 대학원. 서울시 초대 건축과장 (52), 공학박사



新入會員



**韓聖東**  
1954. 5. 13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수북종합건축사사무소  
충북 청주시 북문로 3가 87-4  
2-0894



**許南旭**  
1941. 4. 3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한성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9-5  
415-6462



**金知相**  
1941. 1. 25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대명건축사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11  
545-7837



**高性祇**  
1951. 1. 25  
연세대학교 산업대학원 건축  
우도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66-3  
778-8045



**金鍾馥**  
1939. 12. 28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대영사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극동빌딩2113호  
266-3049



**金亨駿**  
1958. 1. 5  
경기공업전문학교 건축과  
단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4-4  
590-8031



**郭三晉**  
1932. 9. 15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에칭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78  
744-9153



**洪榮杓**  
1956. 4. 5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5  
782-8727



**姜明俊**  
1956. 7. 8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하나, 명승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60-2  
581-7891~2



**宋榮基**  
1958. 9. 27  
홍익대학교 환경대학원 건축계획  
종합건축사사무소 향건축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851-3  
590-6001



**文材洙**  
1955. 1. 30  
전주공업고등학교 건축과  
건축사사무소 원우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1117-16  
605-1093



**羅承文**  
1956. 11. 12  
조선대학교 건축공학과  
종합건축사사무소 국제, 유한, 창조, 나  
광주직할시 동구 광산동 81-2  
232-7425



**吳平國**  
1953. 12. 13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평국건축사사무소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73-35, 36  
696-6868



**李苾勳**  
1955. 9. 20  
OHIO 주립대학원 건축  
건축사사무소 영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1543  
424-2800

# 문화국민이 되려면

홍의정 / 신림여중 1학년

50억 전인류의 축제인 제24회 서울 올림픽도 3개월 밖에 남지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된다는 것은 민족 역사에 기록될 중대한 일이다.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것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너나 할것 없이 88서울 올림픽을 틀먹이며 올림픽을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오시는 많은 외국 손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국민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줄까 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권할만한 어떤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것은 아닐 것이고 선진국이라도 나름대로의 풍습과 질서가 있을 터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말은 더더구나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올림픽을 맞는 문화국민으로서의 몇몇한 자세일까 조금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바로 질서 의식을 갖고 공중도덕심을 길러 조금만 남을위해 신경을 써주면 되는 것이다. 아침에 등교하기 위해 차를 타려하면 잘못된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조용히 차를 기다리고 있다가도 차만오면 먼저 타겠다고 아우성 친다든지 아무데나 침을 뱉고 휴지를 마구 버린단든지 심지어는 차속에서까지 상스러운 말을 큰 소리로 떠드는것도 흔치 않게 볼 수 있다. 또 학교길에 관악산 입구를 지나려면 더욱 꼴불견인 일들을 많이 본다. 술에 취해 길에서 용변을 보고 걸핏하면 삿대질하며 싸우는것, 차를 아무데나 세워 행인에게 불편을 주며, 부정식품과 불량식품을 파는것, 이렇게 열거하면 한이 없겠으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루빨리 고쳐 나가므로서 우리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진문화 국민의식 수준에 도달되고 올림픽 잔치날 오시는 손님들도 유쾌한 기분으로 오래머무를 것이다. 흔히들 선진국민은 상냥하고 친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우리도 보다 친절할 국민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지나친 친절은 비굴과 다름없다. 그리고 상냥하고 친절할 표시로 꼭 웃음을 띄우고 말하라는 것도 아닐것이다. 굳이

예를 들라면 미국사람들의 익지 웃음을 배우기 보다는 우리 한국 사람들 기질대로 조금 무뚝뚝하더라도 진실한 친절을 몸에 익혀야겠다. 외국손님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편스러운 것은 언어 소통이다. 이 점은 우리학생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경기장이나 우리 문화유적등을 찾을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는 외국손님들에게 우리학생들은 그동안 익힌 외국어 실력을 발휘하여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문화 국민을 지향하는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어려운것도 아니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남이 보는 앞에서 아니 올림픽 때만 잘하면 된다는것은 더욱 아니다. 누가 있을 때에는 줄서기를 솔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새치기나 밀치기를 솔선 한다면 그러한 위장술은 금방 보는 사람 앞에서 탄로가 날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국민정신을 좀먹는 행위가 되는것이다. 바른말로 우리는 올림픽때 다른사람에게 보여주기위해 문화국민을 외쳐 댈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화센터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스스로 질서의식을 생활화하는 그러한 선진 국민이되어야 하겠다.

## 제5회 理事會 개최

5월17일 安箕泰 회장 주재로 理事, 監事 서울支部長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理事會를 개최하였다. 事務處長의 주요업무보고, 부의사항, 협의사항 등 會順안내에 따라 진행된 본 理事會는 오후 2시에 시작, 6시40분에 폐회되었으며 안전별로 협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附議事項

#### • 分所新設 및 名稱變更

경북지부 문경분소 관할지역중 상주의 점촌이 邑에서 市로 승격됨에 따라 경북지부장으로부터 분소명칭을 문경분소에서 점촌분소로 변경함과 동시에 상주시에는 별도로 分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동건을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되 開設日字는 88년 7월 1일로 하고 전국 분소중 회원 2인 이하인 분소는 다음 회의시 改廢 여부를 일괄 재검토하기로 함의.

### 協議事項

#### • 建築士誌 표지디자인 變更

編纂委員會(위원장 朴榮翼)에서는 建築士誌의 발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① 건축 저널로서의 이미지 개선  
 ② 일반건축지 경향에의 대응  
 ③ 디자인의 시대성유지 등 改善着眼點을 기초로 變更試案을 새로 마련하고 그 사용 여부를 협의안건으로 상정한 바 다수 회원에게 의견을 물어 그에 따르도록 협의.

## 長官招請懇談會

崔同燮 건설부장관 초청 定例 וז찬 간담회가 6월 7일 본협회에서 열렸다. 金報根 기획관리실장, 李潤濶 기술관리실 기술관리실장, 朴圭悅 국토계획국장, 徐柄基 주택국장, 李富植 해외건설국장, 李鄉烈 건설행정과장이 배석한 본간담회에는 本協會 安箕泰 회장과



▼ 간담회 개최전 요담하는 崔同燮장관(中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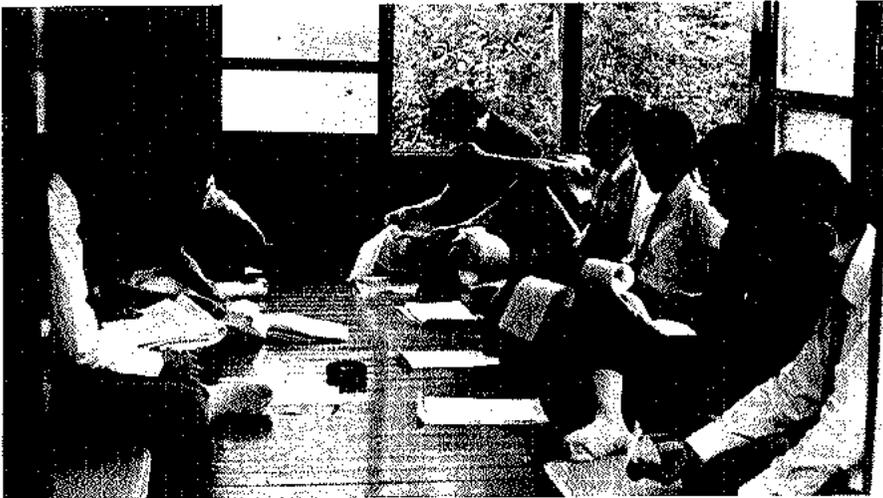
▲ '88년도 보수교육 장면(대전지역)



金基壽 부회장 및 任員을 비롯 朴運泳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盧海圭 건설기술교육원장 趙南煜 대한건설협회장, 李昊羲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金鍾求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朴盛實 대한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참석하였으며 건축 및 건설행정에 관해 적의없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 '88 補修教育 終了

'88년도 건축사보수교육이 6월 16일 광주시 소재 안보회관 5층에서 광주, 전남, 전북지역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끝으로 종료되었다. 5월 16일 본협회 강당에서 지역 건축사 4백 15명을 대상으로 시작된 '88년도 건축사보수교육은 인천(5월 18일), 경기(5월 25일), 강원(5월 26일), 충남북(5월 30일), 대구 경북(6월 2일),



▲ 자문위원회

부산 경남(6월8일), 제주(6월13일), 광주 전남 전북(6월16일) 등 각 지역별로 총 2천7백50명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었다.

### 諮問委員會 개최

본협회 諮問委員會가 5월 30일 개최되어 본협회 회무 전반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상반기에 가까운 5개월간 본협회가 처리 또는 추진해온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 있었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그 방안에 관한 협의도 있었다.

### 建築 3 團體朝餐會

5월 28일 오전 8시부터 롯데호텔에서 韓國建築家協會 주관으로 建築 3 團體朝餐會가 개최되었다.

前會議時 협의한 바에 따라 임기 만료되어 퇴임한 李光魯 대한건축학회 전 회장과 劉熙俊 한국건축가협회 전회장에게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 전달로 시작된 본회의에서는 국제행사에 대비한 3 단체의 협조 긴밀화 방안, 공무원 특별전형의 제도상 문제점, 건축허가전 심의제도의 개선점, 건축사사무소를 활용한 건축과 졸업생의 실습 훈련문제등 3단체가 공동 협력해 풀어야 할 현안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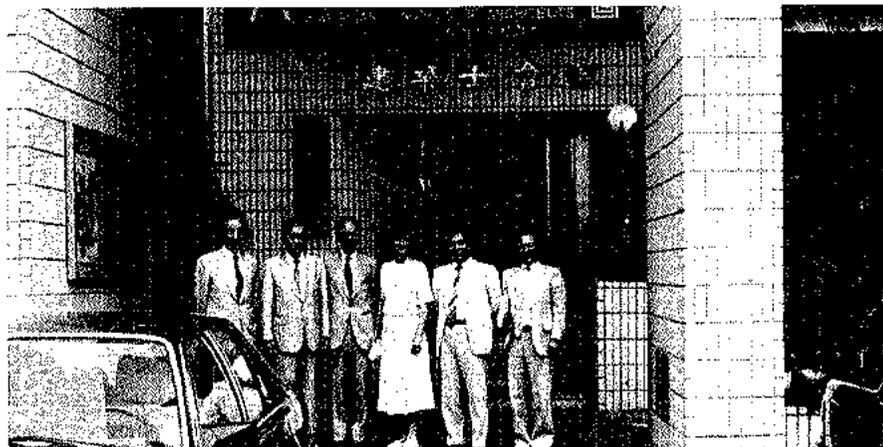
▲ 긴급대책협의회

### 緊急對策協議會

6월 9일 오후 2시부터 본협회 회의실에서 緊急對策協議會를 개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88년도 긴급대책협의회 운영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 AIA副會長 來訪

6월 11일 오전, AIA 부회장 Louis L. Marines 씨가 吳雄錫 전 회장의 안내로 本協會를 來訪, 安箕泰 회장과 건축과 관련한 공동관심사에 대해 요담하였다.



▲ AIA 부회장 방문

## 서울特別市支部

(지부장 俞景哲)

### • 推戴會員 敬老小宴

5월14일 토요일 12시 부터 우이동 옥류정에서 35명의 추대회원에게 敬老小宴을 베풀었다.

### • 會員親睦 테니스大會

5월19일 오전 10시부터 동작 테니스장에서 회원친목 테니스 대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大會에서 입상한受賞者는 다음과 같다.

- 개인 1등 徐廣圭 회원
- 개인 2등 韓應勇 회원
- 개인 3등 林道善 회원
- 장려 상 趙顯君, 金基完 회원
- 단체 1등 金祥煥 李瓊榮 회원
- 단체 2등 林道善 徐廣圭 회원
- 단체 3등 黃寅秀 趙顯君 회원
- 부부조 1등 梁元永 회원
- 부부조 2등 李相旭 회원
- 부부조 3등 安明帝 회원
- 감투상 權世京 朴英植 黃寅秀 李吉洙 李相連 회원.



▲ 추대회원경조소연 (서울지부)



▲ '88회원친목테니스대회 (서울지부)

## 仁川直轄市支部

(지부장 鄭昌奎)

### • '88年度 全半期 獎學金 전달

5월 3일 仁川支部 사무실에서 '88년도 전반기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 건축과 강정연군등 7명에게 총장학금 1백40만원을 전달하였다. 대학생 2명에게 각 35만원, 전문대생 2명에게 각 20만원, 고등학생 3명에게 각 10만원씩이 전달된 이날 장학금 수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정연 (인하대학교 건축과 4년)  
 허귀정 (인천대학교 건축과 3년)  
 홍용택 (인하공업전문대학 건축과 2년)  
 이미옥 (인천전문대학교 건축과 2년)  
 조남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건축과 2년)  
 차승망 (윤봉공업고등학교 건축과 2년)  
 탁진희 (신화여자상업고등학교 3년)



▲ '88 광주건축사회원설계작품전 (광주지부)



▲'88 광주건축사회원설계작품전 (광주지부)

## 光州直轄市支部

(지부장 朴永慈)

### •會員設計作品展

5월27일 남도예술회관 1층(1.2.3 실)에서 지부 회원의 건축설계작품 52작품을 모아 '88광주건축사회원설계작품전'의 막을 올렸다. 5월31일까지 5일간 개최된 본전시회에는 총 2천 8백여명의 관람인이 기록되었으며 ①건축사의 건축활동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 ②회원의 창작의욕 및 건축학도의 학구열 고취 ③지역건축문화 발전에의 기여 ④건축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 등 여러면에서 큰 성과를 거둔것으로 자체 평가 되었다. 작품전의 개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명칭... '88광주건축사회원설계작품전
- 출품자... 52작품
- 출품내용... 주택 9 숙박시설 4 공공시설 1 학교 3 의료시설 6 교회 7 관람시설 8 업무시설 13 기타 1
- 전시기간... 5.27~5.31 (09:30~19:00)
- 전시장... 남도예술회관(1.2.3 실)
- 개막식참석인원... 각급기관장 5  
타시도내빈 14 각급기관 건축직 공무원 20 일반내빈 56  
지부회원 82

- 관람실적... 총 2천 8백여명
- 작품연내용... 카테일파티  
•지부장인사 •安箕泰  
회장축사 •유경호  
광주시부시상축사

### •효과분석

- ①건축작품활동에 대한 각급단위 기관장 및 단체장과 시민의 이해증진에 기여
  - ②광주일보, KBS, MBC 등으로 부터의 보도협조로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
  - ③건축학도의 학구열 제고
  - ④지방화시대의 지역건축문화발전에 기여
  - ⑤회원의 창작의욕 고취
- 문제점 反省
- ①출품작(52작품)의 1/5에 해당하는 10작품이 투시도로 전시됨으로써 작품전의 입체감이 결여.
  - ②회원 출품작의 판넬의 質이 지난 85년 전시회보다 보편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극소수의 작품은 아직 미흡.
  - ③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작품이 9점밖에 출품되지 못하여 부녀자층의 관람 선호도에 부응치 못함.
  - ④작품준비 계획을 동절기에 수립시행함에 따라 대지 조정관계가 계절적인 영향으로 건축물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점이 있었음.
  - ⑤출품작품을 수록한 작품집 발간에 있어

인쇄 의뢰처의 작업진행상의 일관성결여로 지부편집위원과 충분한 의견 교환을 하지못함으로써 정정사항이 발생.

### •앞으로의 참고사항

- ①격년제로 개최되는 작품전 행사를 감안하여 이후 각회원의 완성작품중 우수작품을 그때그때 발굴하여 출품자료(사진)를 사진에 확보.
  - ②격년제로 개최되는 작품전의 전시효과와 특성을 살리기 위해 시민의 선호도에 따라 주택작품전을 한번쯤 갖는 것이 바람직함.
  - ③출품작의 대지조경이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절기에 전시계획을 수립하여 회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개막태이프절단참여인사  
유경호(광주시부시장) 송영환(광주시 건설국장) 김중태(광주일보사 사장) 안기태(본협회 회장) 임재식(한국 건축가협회 지부장) 박헌동(대한건설협회 지부장) 노승기(광주시소방본부장) 조춘원(본협회 이사) 이종엽(본협회 이사) 유경철(본협회 서울지부장) 박영희(본협회 광주지부장)
- 개막식본협회 참석자  
안기태(회장) 이종엽(이사) 조춘원(이사) 유경철(서울지부장) 정환호(부산지부장) 정창규(인천지부장) 정기웅(대구지부장)

조정호(강원도지부장) 강우식(충남지부장)  
김영길(경북지부장) 김정수(경남지부장)  
엄주호(전북지부장) 김인모(전남지부장)  
백형철(제주지부장)

• 작품전홍보실적

① 광주일보

88. 5. 28. 자 문화면

② 광주방송국

TV...88. 5. 28. (18:45) KBS·TV  
뉴스

R...88. 5. 28. (14:20~14:30)

작품전을 통한 도시주택과 계획 등  
대담방송에 박화수 홍보위원 출연

③ 문화방송

TV...88. 5. 29. 아침뉴스(7시)에  
작품전 개최예고

FM... 5. 24~27의 4일간 모닝쇼를 통해  
작품전개최예고

R...88. 5. 28. (17:20~17:30)

박영희 지부장 출연 대담방송

• 축하화분

최인기(광주시장) 안종일(광주시교육감)  
송영환(광주시건설공사) 박헌동(건설협회  
전남지부장) 임재식(건축가협회  
전남지부장) 양영성(건축학회전남지부장)  
최빈욱(열관리시공협회전남지부장)  
엄홍섭(한국메이콘광주지회장)  
동신전문대건축과, 이광국(삼능건설사장)  
황관봉(남광건설사장)

고재철(금광기업사장) 최상욱

(남화토건설사장) 이웅평(남도건설사장)

안기태(본협회 회장) 유경철(본협회  
서울지부장) 정환호(본협회 부산지부장)

장기웅(본협회 대구지부장) 정창규

(본협회 인천지부장) 조상호

(본협회 경기도지부장) 조정호(본협회

강원도지부장) 표재범(본협회 충북지부장)

엄주호(본협회 전북지부장) 김인모(본협회

전남지부장) 김영길(본협회 경북지부장)

김정수(본협회 경남지부장)

백형철(본협회 제주도지부장)

• 축전

오병남(광주서북구청장) 이세훈(본협회이사)

황재호(본협회 이사) 우남용(본협회 이사)

### 京畿道支部

(지부장 趙相鎬)

• 分所別巡迴懇談會

3월30일부터 4월22일 기간중의 11일동안  
수원시민회관과 각분소 회의실에서 분소별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건축행정의  
원활을 기하고 건축분야 관계공무원들과  
상호 친목을 높이며 업무유대를 돈독히 하기  
위해 개최된 본간담회에는 건축분야  
담당공무원 72명과 분소회원 2백38명 등  
연인원 3백10명이 참석 하였으며 건축행정  
발전을 위한 토의와 건의사항 등 건축사와  
공무원의 의견이 폭넓게 개진 되었다.

### 慶尙北道支部

(지부장 金正洙)

• 회원친목 낚시대회

5월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간 선산군  
대원지에서 회원 23명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친목 낚시대회를 개최 하였다.  
가족들과의 화기 애애한 가운데 회원의  
친목을 높이고 유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이번 낚시대회에서는 金靛鍾  
(신영건축사사무소) 회원이 1등을, 金鳳一  
(영천건축사사무소) 회원이 2등을, 鄭正基  
(대도건축사사무소) 회원이 3등을 차지  
하였다.



▲ 건축사순회간담회(경기도지부)



▼ 회원친목낚시대회(경북지부)

### 濟州道支部

(지부장 白亨哲)

#### • 88년도 제 1 회 臨時總會

5월 10일 지부 회의실에서 1988년도 제 1 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재직회원 31명 중 24명이 참석한 본 임시총회에서는 제 1 회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의 승인 등 안건들을 처리 하였으며 이 밖에도 연합회 제도를 전제로한 지부운영에 대해서도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하였다.

#### • 어린이날 위문품 전달

5월 5일 어린이 날을 앞두고 보육원원아를 위한 선물로 노트 5백권을 구입, 제주도 부녀아동과에 기탁 하였으며 서귀포 분소 (분소장李世院)에서는 제남보육원을 방문하고 5만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하였다.

#### • 반공연맹 운영비 지원

지부 회원 일동은 한국반공연맹



▲ 임시총회 국기에 대한 경례(제주지부)

제주도지부에 88년도 운영비로 총당해 쓰도록 지원금 30만원을 전달하였다. 제주도

지부에서는 83년도부터 매년 반공연맹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오고 있다.

## 建築界動靜

### 建築學要說 發刊

大韓建築學會 建築學要說編纂委員會에서는 舊 建築 텍스트북을 전면 개정 증보한 建築士 技術士 技師 기타 建築試驗指針書 <建築學要說>을 發刊하였다.

본서는 受驗對備書라는 일차적 성격의 중추는 물론 건축학의 각 學科目에 대한 大學과 專門大學의 교과과정에서 이수되는 학습내용의 포괄적이고 표준적인 기본지식의 체계적 요약 정리가 되도록 편집된 것이 특징이며 제 1 편 建築計劃, 제 2 편 建築史 및 建築論, 제 3 편 建築構造·施工, 제 4 편 建築構造工學, 제 5 편 建築設備, 제 6 편 建築法規로 나누어져 있다.

현역 각 대학 건축과교수 71명이 필진으로

참여한 본서는 총 1천2백쪽의 방대한 분량에 정가 1만5천원. 구독 희망자는 295-6171~5 技文堂으로 직접 연락할 경우 유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

#### <간향>발간

건축설계사무소 설계경력 4~5년의 실무자로 필진을 구성, 비평, 논단, 수상, 시 등을 모아 <건축비평과 이론을 위한 실천서>를 표방하고 꾸며진 건축 무크지 <간향>이 작년 12월 31일자로 발간되어 건축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회 일반의 건축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불식시키고 건축의 시대정신을 계도해 보려는 움직임은 일련의 '건축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목적을 내걸고 있는 본지의

편집인은 전진삼, 이주연, 황인삼, 정영호, 최영호씨.

본지는 모두 1백 14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심있는 분은 (주)공간연구소 (763-0771~4) 전진삼씨에게 연락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2,461호

###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이유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1987. 12. 4 법률 제3998호)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노후·

불량주택의 소유자도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후·불량주택의 범위를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피,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과 준공후 20년이 경과되어 파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가 소요되는 주택등으로 함(영 제 4 조의 2)

나.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직접 주택건설을 할 수 있는 등록업자의 범위를 자본금 2억원이상·기술자격취득자 4인이상이고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서울·인천·경기지역은 100 호이상, 기타 지역은 50호이상인 자로 하고, 이 경우의 건설대상주택의 규모는 5 층이하의 주택으로서 그 공사비가 당해 등록업자의 자본금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함(영 제10조의 2)  
다. 도시계획법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등에 건설하는 주택·다세대주택·독신주택·시범주택 및 복합건축물인 주택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타의 주택과는 다르게 별도의 건설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0조의 2)

라.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10세대이상인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세대이상인 때에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함(영 제32조 제 1항)

마.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등록업자는 건설업면허를 받았거나 등면허없이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도록 하고,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대지의 사용·사업비의 부담 등에 관하여 공동사업시행자 상호간에 약정을 체결하도록 함(영 제34조의 2).

바. 종전에는 10인이상의 조합원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인이상의 조합원만으로 주택조합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영 제42조 제 2항).

3.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3층이하의 주택 제 4 조에 제 4 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 조의 2(노후·불량주택의 범위)  
법 제 3 조 제 9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후·불량한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도피 기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주택  
2. 건물이 준공된후 20년이 경과되어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파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주택  
3. 건물이 준공된후 20년이 경과되고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로서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예상되는 주택

제 5 조 제 6 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 6 조 제 1 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림수산부장관 제 6 조 제 8 항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부위원장을 제외한다) 및 환경청장이 당해 기관소속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제 9 조 제 1 항중 "3만3천제곱미터"를 "1만제곱미터"로 하고, 동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 3 항중 "별표 1 에 의한"을 각각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②법 제 6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1억원이상. 다만,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2억원이상으로 한다.  
2.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2인이상  
3. 사무실 33제곱미터이상

제 9 조의 2 제 2 항중 "법 제 7 조 각호의 사유"를 "법 제 6 조의 2 및 법 제 7 조 각호의 사유"로 하고, 동조 제 5 항중 "별표 1 에 의한"을 "제 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 10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등록업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 3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아파트 : 4 층이상의 주택
- 2. 연립주택 : 동당 건축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층이하의 주택

의하여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 (개인인 등록업자가 당해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개인인 등록업자의 사업실적을 포함한 실적을 말하며, 등록이 발소된 후 다시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한 이후의 실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관할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건설업법 적용배제 기준)**

①법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주택건설 실적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본금 2억원이상.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4억원이상으로 한다.
2. 건축기사 1급 1인과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설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4인 이상
3. 최근 3년간의 주택건설실적이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및 경기도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기타의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호 또는 50세대 이상

②제1항의 등록업자가 건설업법 제4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5층이하 (건축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층이하) 이고 당해 주택건설의 공사비 (총공사비에서 대지 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가 자본금의 10배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한다.

③등록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건설업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등록업자의 등록말소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등록업자의 명칭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상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사유 및 영업정지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제5항중 “건설업법 제7조의4의 규정”을 “건설업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 (지정의 취소) ①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100호 또는 100세대에 미달하는 때를 말한다.**

②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단위규모는 단독주택은 1호당 33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공동주택은 1세당 29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당당 8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30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 또는 특장지구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주택을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다세대주택, 독신자용주택 (23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 등 공동주택의 성격·기능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32조 제1항중 “10세대”를 각각 “20세대”로, “3만3천제곱미터이상”을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5항중 “구분하여 순차로”를 “구분하여”로 하고, 동조 제6항중 “단지”를 “대지”로 한다. 6의2,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지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6의3, 제34조의2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사업 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 (중전의 제2항) 중 “20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30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33조의4 및 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등록업자가 제10조의2 제1항 각호 요건에 해당하거나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일 것
2.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가 주택용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대지가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자로부터 당해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토지소유자·주택조합 또는 고용자와 등록업자가 대지의 사용·처분, 사업비부담, 사업수익의 배분등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할 것.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등록말소등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당해 주택자재생산업자의 명칭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상호)·주택자재명,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의 사유와 영업정지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0조의2중 “도지사”를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명칭
2.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검사상품명
4. 검사시설 및 장비
5. 검사능력

제41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 2** (판매금지 주택자재명등의 공고) 도지사는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열이 금지되었거나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한 때에는 당해 주택자재의 생산업자의 명칭(개인의 경우에는 성명 및 상호), 주택자재명 및 주택자재의 수량과 금지 또는 파기등의 사유와 연월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금지 또는 파기등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42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주택조합이 재건축조합인 때에는 기존주택이 제4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증명하는 서류(기존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한다)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제2항**중 “10인 이상의”를 “20인 이상의”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직장조합의 조합원은 동일한 국가기관 또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한한다.

**제42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기존주택이 제4조의 2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립인가 신청자로 하여금 당해 기존주택의 노후·불량의 정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2조의 2 제1항**중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한다.

**제43조의 2 제목**“(조립식주택부재의

성능인정)”을“(우량주택자재의 인정)”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조립식주택부재(이하 “부재”라 한다)의 성능을 인정받고자”를 “우량주택자재로 인정받고자”로, “조립식주택부재성능 인정신청서”를 “우량주택자재인정신청서”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부재의 성능”을 “우량주택자재”로, “등급별로 이를 인정한다”를 “이를 인정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부재의 성능을”을 “우량주택자재물”으로, “조립식주택부재성능인정서”를 “우량주택자재인정서”로 하며, 동조 제4항중 “부재의 성능인정”을 “우량주택자재인정”으로 한다.

제43조의 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 3** (인정의 취소) 건설부장관은 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중 “법 제48조 제2항”을 “법 제48조”로 하고, “사업주체”를 “사업주체등”으로 한다.

제44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 2** (청문의 절차) ① 법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에정일 7일전까지 피청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소소재지 또는 주소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 분	서 울 지 역	기 타 지 역
자 본 금	30억원이상	15억원이상
기 술 능 력	1.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2. 토목분야기술자 2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3. 전기분야기술자 : 1인이상 4. 기계분야기술자 : 1인이상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 : 1인이상 6. 건축사 : 1인이상	1. 건축분야기술자 2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2. 토목분야기술자 : 1인이상. 다만, 기사1급이상의 기술자에 한한다. 3. 전기분야기술자 : 1인이상 4. 기계분야기술자 : 1인이상 5. 안전관리분야기술자 : 1인이상
주 택 건 설 실 적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 100세대이상	최근 3년간 주택건설실적이 연평균 100세대 이상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 본문**중 “법 제50조”를 “법 제50조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등록 및 등록말소”를 “등록·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로 하며, 동조 제7호중 “법 제41조 “법 제41조”를 “법 제41조 및 법 제41조의 2”로, “등록의 취소”를 “등록의 말소”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권한의 위탁) 건설부장관은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주택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게 위탁한다.

1.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로부터의 주택건설 실적의 접수와 그 통계의 유지·관리
2. 등록업자 및 지정업자의 주택건설실적에 제10조의 2 제1항 제3호 및 제11조의 2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의 1. 지정기준의 표와 동표밀의 가옥을 각각 \* 과 같이 한다.

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후 3년이 경과된 경우로서 건설업법상 토목공사업 면허 또는 건축공사업면허를 가진자에 한한다.

[별표 3]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업협동조합에 의한 농민,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양축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민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소유자 및 산림관계사업 경영자에 대하여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 및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장이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영농자금, 축산자금, 어업자금, 산림개발자금으로 용자된 것임을 확인한 경우 및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용자받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의 장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용자된 자금임을 확인한 경우로서 용자에 필요한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 [부표] 중 매입대상관의 제18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2) 중 "요정"을 "일반유희음식점(간이주점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1) 무도유희음식점

[별표 3]의 [부표] 중 제6호 제29호 및 제3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수렵면허	
가. 1종면허	500,000
나. 2종면허	100,000
다. 3종면허	50,000
29.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31. 주택관리인 면허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별표 4]의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 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별표 2의 건축불충 건설부령이 정하는 복리시설인 판매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을 이를 건축할 수 없다.

야.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지하층의 높이는 2.7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만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자높이를 2.1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별표 4] 제2호 나목중 세대당 0.6제곱미터이상 제4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를 "세대당 0.6제곱미터이하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이하 시·군지역"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0.4제곱미터이상 3제곱미터이하)의 비율로"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에는 그 대지

안에 주택규모가 20세대이상

1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세대당

3.3제곱미터(시·군지역은

2.2제곱미터)의 비율로,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시·

군지역은 220제곱미터)에 100세대를

초과하는 매세대마다 1.1제곱미터

(시·군지역은 0.7제곱미터)의 비율로

가산한 면적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안에

도시공원법 제3조제1호의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준공검사일 이전에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6]의 제5호가목중

"전기통신법시행령 제43조"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49조"로

한다.

[별표 7]의 벽돌의 품명란중 "소성벽돌"을

"보통벽돌"로 하고, 동란에 "경량벽돌"을

신설하며, 블록의 품명란중 "소성블록"을

"보통블록"으로, "시멘트블록"을

"속빈시멘트블록"으로 하고, 동란에

"경량블록"을 신설하며, 기와의 품명란중

"시멘트기와"를 "보통시멘트 기와"로,

"스레트 기와"를 "가압시멘트판 기와"로

한다.

[별표 8]의 업종별란의 제1호중

"소성벽돌"을 "보통벽돌"로, "소성블

"소성블록"을 "보통블록"으로 하고,

동란의 제2호중 "시멘트블록"을

"속빈시멘트블록"으로, "시멘트 기와"를

"보통시멘트 기와"로 하며, 동란의

제8호중 "스레트 기와제품"을

"가압시멘트판기와제품"으로 하고,

동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경량제품(경량 벽돌, 경량블록) 생산업	1. 배합시설
	2. 혼합시설
	3. 양생시설
	4. 기타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조성사업자는 이 영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대지조성

사업자가 이 영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지정업자는 이 영에 의한 지정업자로

본다. 이 경우 지정업자가 이 영에 의한

지정기준중 자본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988년 9월 30일까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주택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이 영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으로 본다.

제6조(주택자재의 품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자재중 "소성벽돌",

"소성블록", "시멘트블록", "시멘트 기와"

및 "스레트 기와"는 각각 이 영에 의하여

"보통벽돌", "보통블록",

"속빈시멘트블록", "보통시멘트 기와" 및

"가압시멘트판기와"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한국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국내 최초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비파괴 검사기법의 도입과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오랜 경험 및 기술축적을 바탕으로 구조물 안전도 검토상 문제가 되었던 실제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 내부결함 및 철근 배근상태 그리고 기타 구조 해석상 필요한 제반 자료를 첨단 장비 및 비파괴 검사 기술을 통하여 저렴한 검사비용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 — 업 무 내 용 —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검사

- 조기 재령 콘크리트 강도
- 장기 재령 콘크리트 강도

### 철근 탐사

- 철근위치 및 방향
- 콘크리트 피복두께
- 철근 직경

### 콘크리트 비파괴결함 탐사

- 균열심도
- 열화심도
- 화상심도
- 동상심도

###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거동계측

(STRAIN GAGE 계측)

- 균열폭 변위
- 구조물 기울기 변위
- 침하변위

### 정밀 진동시험

- 바닥 진동
- 지반 진동

### 대상 건물

- 신축건물
- 용도변경건물
- 증축예정건물
- 부실 시공건물
- 화재·동해건물

## 한국콘크리트 비파괴검사 K C N I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5-1 은성빌딩 503호  
PHONE: (02) 922-8994, 대구 (053) 93-0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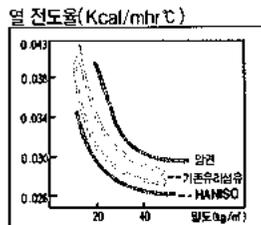


# 유리섬유는 세계적인 TEL 공법의 하니소를 추천해 주십시오.

전세계 85%가 선택한 TEL 공법의 하니소는 프랑스 '이소베 상고방'사의 그 기술 그대로 뛰어난 단열효과와 흡음력, 내구성을 가진 유리섬유입니다.

### ■ 단열·보온효과가 월등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텔(Tel) 공법으로 만드는 하니소는 기존의 유리섬유에 비해 섬유 굵기가 가늘고 고르며(평균 4-4.5미크론) 동일밀도에서 집속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단열·보온 효과가 월등하며 단열성능당 시공비도 훨씬 경제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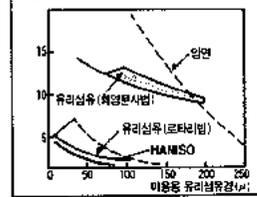


### ■ 복원력이 뛰어 나고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하니소는 최고 1/5까지 압축이 되면서도 복원력이 뛰어나 좁은 공간에 많은 양을 보관할 수 있고 시공시에는 내벽과 외벽사이를 틈새없이 충전시켜 더욱 높은 단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장강도가 높고 복원성, 내화성, 흡음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 ■ 조용하고 아늑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뛰어난 흡음효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소음공해를 완전히 해결, 맑은 시끄러워도 실내에서는 조용하고 아늑한 생활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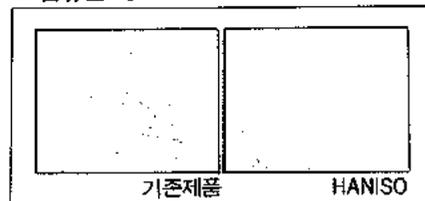
하니소는 천연 규사로 만들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를 주지

않으며 불연재로서 방화벽 역할도 뛰어납니다.

### ■ 시공성도 좋습니다.

하니소는 유리가시가 전혀 없어 맨손으로 만져도 따갑지 않고 잘이나 가위로도 쉽게 절단할 수 있는 등 취급이 용이하므로 시공기간을 단축시켜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줍니다.

### ※ 섬유질 비교



세계적인 TEL 공법의 유리섬유

# HANI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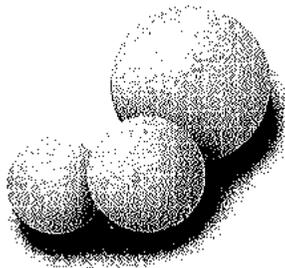
韓國유리工業株式會社

TEL) 785-0311-2

철심을 올려 보내시면,  
하니소\*의 자세한 안내책자를  
우송해 드립니다.  
문의전화 : 785-0311  
유리섬유 영업부



난연성-자기소화성  
(UL규격인증)



# 전문가가 권유하는 단열재- 흰색·녹색 스티로폼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습니다.**

단열재에 물기가 스며들면 바로 벽이나 지붕을 헐고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물기를 한번 흡수한 단열재는 이미 단열재가 아니고 열을 전달하는 전열체가 되어 버립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으므로 단열 효과를 지속시켜 항상 쾌적한 주거분위기를 유지시켜 드립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건축용 단열재, 백색은 포장재**

한남화학의 원료로 만드는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건축용 단열재, 백색은 포장재용으로 사용됩니다.**

**흰색·녹색 스티로폼은 난연성(자기소화성)입니다.**

화재시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이므로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UL 94 HF-1 규격 인증).



## 방습 단열 방음



### 특징

- 열전도율이 아주 낮아서 실내 보온효과가 높습니다.
- 화염이 건면하여 시공시 독성가스를 오히려 흡수합니다.
- 단열 및 방음, 방습효과가 높아서 아주하고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약의 이중효과를 꾀할 수 있습니다.
- 단단하고 가벼워 운반 및 시공이 편리합니다.
- 화재시에는 스스로 소화되는 자기소화성으로서 화재의 위험이 없어 안전합니다.
- 우수한 원료로 제조되므로 인체에 유해요소가 없어 안전합니다.

## 흰색·녹색 스티로폼



흰색·녹색 스티로폼 원료제조원

**한남화학주식회사**

본사·영업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호 784-1171~9

공장 : 경남 울산시 남구 상암동 45-25호 73-1141~5